

# 03

김재열  
호암미술관 부관장

## 고려·조선시대의

## 도자문화



### 제1장 자기의 탄생과 고려시대 도자문화

- I. 고려시대의 도자문화와 경기도
- II. 한국자기문화의 탄생지를 찾아
- III. 고려시대 중·후기의 가마터
- IV. 경기도내 유적출토의 고려자기

### 제2장 조선시대 분청사기와 경기도

- I. 고려청자의 잔영, 분청사기
- II. 경기도의 분청사기 가마터

### 제3장 조선백자와 경기도

- I. 조선시대의 백자문화
- II. 조선백자의 고향, 경기도 광주 분원
- III. 경기도의 조선백자 가마터

### 제4장 우리도자기의 아름다움이 숨쉬는 곳

# 자기의 탄생과 고려시대 도자문화

아득한 선사시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토기문화는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삶과 더불어 발전하면서, 장구한 세월만큼이나 다양한 자취를 이 땅에 남겼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선조들은 천연의 자원과 타고난 재능을 바탕으로, 인근 중국의 선진기술까지 흡수하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 않은 훌륭한 토기문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 토기 문화 속에서 축적된 기술력은 마침내 인류 도자문명사에서 함부로 넘지 못하던 자기의 발생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고 한반도에 찬란한 자기문화의 시대를 열게 하였다. 그때가 대략 통일신라시대가 저물어 가던 9세기 무렵이었다.

세계 도자기의 역사에서 자기의 발생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인류가 흙과 불을 이용해 토기라는 것을 만들어 인간생활에 유익하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거의 1만 년 전의 일이며, 이후 세계 각지에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토기를 만들었다. 물론 토기의 발생과 발달에도 지역에 따라 시간적 차이가 많이 있지만,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대부분 토기를 만들 줄 알았다. 하지만 자기의 문제에 이르면 사정은 달라진다. 자기는 토기에 유리질의 유약을 씌워, 토기가 물에 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극복하고 토기보다 훨씬 아름답게 보이는 혁명적인 발명품이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보다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자기를 만드는 데 성공한 나라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것은 토기에서 자기로 발전하는 데는 갖가지 기술적인 난제들이 겹겹이 놓여 있기 때문이며, 한마디로 자기의 개발은 지금의 반도체 같은 최첨단의 기술이 요구되었다.

지금도 세계인들은 중국을 도자기의 종주국으로 부르며 한국을 ‘도자기의 나라’라고 칭송하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수한 자기문화를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이 두 나라는 청자와 백자라는 고급

의 자기를 가장 먼저 개발하고 발전시켜 세계 도자사상 불멸의 업적을 남기면서 세계 도자문화의 흐름을 주도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세계의 도자문화는 크게 보면 고화도(高火度)-회유(灰釉) 기술을 바탕으로 한 중국·한국 등의 극동지역과 저화도(低火度)-연유(鉛釉) 기술을 발달시킨 중동·유럽 일대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기술적인 차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회유도(灰釉陶) → 청자 → 백자로 발전하였으며, 중동지방과 유럽에서는 토기 → 연유도(鉛釉陶)로 도자문화가 전개되었다.

그 결과, 중국에서는 늦어도 2세기 후반에는 청자를 완성하고 이어 6세기에는 백자를 개발하였으며,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9세기에서 10세기에 걸쳐 중국의 영향에 힘입어 청자와 백자를 개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동과 유럽 일대에서는 기술적인 한계로 17세기까지 낮은 온도에서 구운 연유도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 청자나 백자 같은 고품질의 자기를 생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서쪽의 귀족들은 아라비아 상인들이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등을 통해 중국과 극동의 아름다운 자기들을 비싼 값으로 사들여 올 수밖에 없었다. 유럽인들이 눈물겨운 노력과 막대한 투자를 하여 중국의 백자 같은 수준의 자기의 개발에 성공한 것은 18세기 초에 가서야 독일의 '마이센' 지방에서 겨우 이루어졌다.

한편, 일본의 경우를 보면 또 한번 자기의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던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5세기 무렵에 한반도의 영향으로 새로운 토기문화시대로 들게 되고 우리와 나란히 중국의 영향을 받아들이면서 9세기 무렵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후 우리는 청자와 백자를 개발하여 완전한 자기의 시대로 돌입하였지만, 일본은 여기서 자기를 개발하지 못하고 회유도의 수준에 머물고 말면서 도자문화의 후진지역으로 전락하였다. 이 상태는 임진왜란 전까지 계속되어, 일본의 귀족층들은 청자나 백자 같은 고급자기들을 중국과 한반도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다가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일본은 우리 장인들을 끌고 가 규슈(九州) 지역 일대에서 17세기 초에 드디어 자기를 개발할 수 있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당시 잡혀간 사기장 '이삼평(李參平)'을 도조(陶祖)라 추앙하고 있으며,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 부른다. 그만큼 일본에서 자기의 개발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의 도자문화를 일별해 보면, 중국과 한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결국 그 아름다운 청자는 만들어 보지도 못하고 17, 18세기가 되어서야 일본이나 유럽에서 백자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을 볼 때, 사실 지금은 흔하지 흔한 자기의 사용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것이 불과 200년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뜻밖의 일로 들릴 것이다. 아마 우리에게는 그 유명한 고려청자가 있었고 조선 500년 동안 줄기차게 우리 생활 속에서 백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사금파리로 부르면서 대수롭잖게 생각하는 경향이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자기의 탄생이란 문제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어려웠던 일인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 민족이 이루었던 자기문화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나라도 감히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자기문화의 선진지역으로 1,000여 년간 활약한 우리 자기문화에 대한 자랑은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음을 미리 밝혀 두고, 자기의 탄생에 얹힌 이야기와 고려시대 도자문화의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I. 고려시대의 도자문화와 경기도

고려시대는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많이 받고 내부의 혼란이 심했던 시기이면서도 공예를 비롯한 문화일반이 특히 발달한 시대였다. 918년에 건국하여 1392년에 멸망하기까지 500여 년에 가까운 긴 기간 고려는 불교를 정신적 지주로 하고 귀족사회 위주의 정치형태를 유지하였으며 중국 대륙에서 홍망성쇠를 거듭하였던 오대·북송·남송·거란·금·원 등의 여러 왕조와 복잡한 교류관계를 가졌다. 지정학적 관계로 중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침략을 받으면서도 문화는 기본적으로 송나라와 밀접한 교류를 가져, 비록 정치적 상황은 항상 불안하였지만 문화적 수준은 중국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을 누렸으니, 금속활자·팔만대장경·고려자기·고려불화 등이 그 상징적 예들이며, 이들은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들로 손꼽히고 있다.

이 중에서도 고려청자를 포함한 고려시대의 도자기들은 중국의 도자기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고려인의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예술성을 가미시켜 매우 독창적이고 우수한 도자기들을 생산하였다. 고려 도자기에 대한 평가는 이미 그 당시에 중국인들도 격찬했을 정도로 우수하여 중국과 일본 등지로 수출하기까지 이른다.

이렇게 고려의 귀족불교적인 미감(美感)을 바탕으로 기술적 우수성과 예술적 창의력을 발휘하여 만든 고려도자기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불과 100여 년 전의 일이었다. 고려가 망한 후, 한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고려청자의 전통이 끊어지고 오랜 기간 고려청자는 그 존재조차 잊혀진 채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었다. 그러다가 1880년 무렵에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開城) 일대의 고분에서 우연히 고려청자들이 발견되자, 이때 한반도에 들어와 있던 일본을 비롯한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외국인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비로소 고려청자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905년을 전후하여 일본이 러일전쟁을 위한 철도공사를 실시할 때 개성 부근의 고려무덤에서

아름다운 고려청자들이 쏟아져 나와 크게 관심을 끌게 되었고 외국인들의 수집 붐이 일어나자 이후 10여 년간 개성과 또 다른 임시수도였던 강화도의 고려고분들이 참혹할 정도로 무수히 도굴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 내에는 물론 일본과 구미에까지 고려청자의 실체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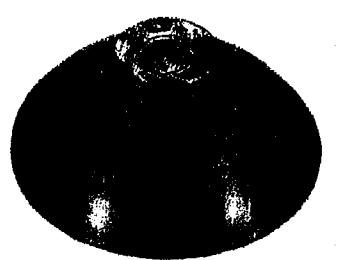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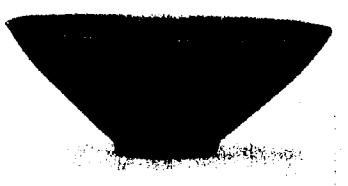
한국에서 오랜 기간 잊혀져 왔던 고려청자를 비롯한 고려시대 도자기들은 이렇게 어느날 갑자기 세상에 나타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껏 자랑하면서, 오늘날 한국뿐 아니라 세계 도자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고려청자를 비롯한 고려자기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와 고려 도자문화의 전반적인 내용과 전개과정, 그리고 고려 도자문화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1. 고려자기의 탄생

고려자기의 발생문제는 일찍부터 여러 학자들에 의해 많은 학설들이 제기되었지만, 대체로 중국 동남부 절강성(浙江省)에 있는 월주요(越州窯)의 영향으로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발생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통일신라 말경인 9세기 발생설과 고려초기인 10세기 중엽 발생설 등 여러 주장들이 있으며 아직도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청자의 경우 서해안 일대와 남해안의 서쪽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로 보이는 가마터들이 10여 곳 발견되고 있는데, 이 가마터에서는 공통적으로 대량의 갑발(匣鉢·자기)을 구울 때 가마 안의 불순물이 자기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써우는 흙으로 만든 통(통)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 더미 속에는 우리나라 자기 탄생문제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특징적인 ‘해무리굽완’의 파편들이 섞여 있다. 이 해무리굽완은 굽의 생김새가 마치 해무리 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중국에서는 옥벽저(玉璧底), 일본에서는 사목고대(蛇目高臺), 서구에서는 도너츠모양 굽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독특한 모양의 굽 형식은 중국 당나라의 유적이나 가마터에서 발견되는데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 보면,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중엽에 이르는 100여 년간 사용되다가 사라져 버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굽을 가진 청자나 백자들이 중국 당



청자 해무리굽완

대(唐代)의 청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초기 청자 가마에서 생산된 해무리굽완은 기형과 유색이 월주요의 당대 청자와 심히 비슷하여 구별이 어려울 정도이다. 또한 이 초창기 청자가마터에서 발견되는 갑발 등 요도구들도 역시 월주요 등의 중국 남방청자 가마에서 발견되는 그것과 동일하여 한국에서의 청자발생이 월주요 지방의 영향으로 일어난 것은 틀림 없다고 믿어진다.

따라서 청자발생 시기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선 해무리굽 청자완이 중국의 경우 대체로 8~9세기 경의 유적에서만 발견되는 매우 특징적인 것임을 감안하고, 또한 당시 한·중·일은 동일한 불교문화권이면서 서로 밀접한 교류관계가 있어 통일신라시대의 토기·불교미술·묘제(墓制) 등 문화전반에 걸쳐 중국의 영향이 강하게 미쳤는데, 그 양식이 중국 것과 유사한 경우 거의 시차 없이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9세기에 들어 통일신라사회에 선종(禪宗)이 유행하면서 차(茶) 마시는 풍습도 사회 각층에 퍼져 차를 마시는 데 필요한 자기로 만든 찻잔의 요구가 크게 증대된 점도 청자 발생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9세기 초반에는 한·중·일의 해상 무역에서 통일신라의 장보고(張保皋)란 인물이 크게 활약을 하면서 한국의 서남쪽 끝인 완도에 본거지를 마련하고 삼국 간의 무역을 주도하였는데, 바로 이 근처인 전남 강진 지역에 월주요청자와 유사한 청자를 생산한 가마터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보아, 당시의 중요한 수출품이었던 청자를 장보고의 관리 아래 제작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우리나라 최초로 자기를 생산한 가마들이 서해안 일대에 집중하여 형성된 것은 통일신라 말에 이곳에 응거하였던 호족들의 비호를 받아 그들의 경제적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고려청자는 아마 통일신라 말경인 9세기 무렵에는 발생하였다 고 믿어진다.

한편 청자가 발생할 무렵에 한국에서는 백자도 만들어졌는데,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서리 가마터에서는 해무리굽을 가진 백자완류가 대량으로 생산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이 가마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특히 정밀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길이 83m에 달하는 초대형의 진흙으로 만든 가마와 40여m의 벽돌로 만든 가마가 겹쳐져 발견되었으며, 두께 6m에 이르는 거대한 퇴적더미에서는 4개의 자연적인 층위가 밝혀졌다. 그런데 이 발굴조사에서 해무리굽 백자완이 제작된 시기보다 더욱 이른 시기의 청자와 백자가 발견되어 크게 주목을 끌면서 기준의 우리나라 청자 발생시기를 더 한층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백자의 제작이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 700~800여 년이나 앞선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더없이 소중

한 유적이다.

고려시대의 청자와 백자는 이렇게 이미 통일신라시대 말경에 중국 월주요지방의 영향으로 만들어 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자기시대를 열었다고 믿어지나, 한국내의 자체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중국인들이 직접 한국에 건너와 만들기 시작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 2. 고려시대 도자기의 종류

고려시대 전기간에 걸쳐 제작되었던 도자기는 청자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외에 소량의 백자와 토기가 있다. 토기는 삼국시대 아래의 경질(硬質)토기류의 전통이 계속 이어져 주로 서민용의 일상용 기나 저장용의 큰 항아리들이 제작되었으며 청자의 기형(器形)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 많다. 고려토기로 추정되는 토기의 수량은 꽤 많으나 고려 도자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한 관계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구가 미흡하고 자세하고 명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고려백자는 보통 청자기마티에서 청자와 함께 소량이 제작되었기 때문에 청자의 제작기법이 그대로 적용되었고 변화과정 역시 청자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 청자의 설명에 함께 포함시켜 살펴보기로 한다.

고려시대의 도자기는 단연 청자가 대표적이다. 철분이 약간 섞인 청자 태토에 2~3% 정도의 철분이 포함된 유약을 빌라 1100~1200°의 환원염으로 구운 것이 청자인데 고려청자에는 재료·기법·형태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 ■ 순청자(민무늬청자)

표면에 아무런 문양장식이 없는 것을 말하며, 표면에 굽거나 가는 음각선으로 문양을 넣은 것을 음각청자, 문양의 주위를 깍아 문양부분만 도드라지게 하거나 문양을 새긴 틀을 만들어 마치 도장을 찍듯이 눌러서 문양이 표면으로 튀어나오게 한 것은 양각청자라 한다.



음각

### ■ 상감청자(象嵌青磁)

고려인들이 만든 독창적인 기법의 청자로, 문양을 따라 홈을 파고 그 홈 속에 백토(白土)나 철분을 다량 포함한 자토(赭土)를 집어넣고 굽게 되면, 백토는 하얀색으로, 자토는 검은색으로 나타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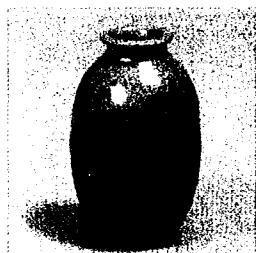
이렇게 흙을 감입(嵌入)시켜 문양을 나타내는 방법을 상감법이라 한다. 이런 상감기법은 고려시대의 나전칠기나 금석기의 금은입사(金銀入絲) 기법의 영향을 받아 유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계 도자사상 유일하게 고려자기에만 사용된 도자기 장식법으로 유명하다. 상감청자에는 앞의 방법과 반대로 문양부분을 상감하는 대신 문양 바깥의 빈 공간을 파서 상감하고 문양은 본래의 청자색으로 남겨두는 역상감(逆象嵌)된 종류도 있다.



상감



상형



철화



퇴화

### ■ 상형청자(象形青磁)

식물이나 동물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것으로 향로·연적·주전자 종류에 많으며, 뛰어난 조형성을 보이고 있다. 고려청자 가운데 최고의 명품으로 꼽히는 것들에 이런 상형청자가 많다. 또 문양을 그릇 속이 들여다보아 깊은 관통시켜 깎아 만든 투각청자(透刻青磁)도 있다.

### ■ 철화청자(鐵畫青磁)

철분이 많이 포함된 안료를 사용하여 봉으로 그릇 표면에 그림을 그린 것을 말하며 문양이 진한 갈색이나 흑색을 보이며 활발하고 생동감이 넘친다. 산화염으로 번조되어 청자색이 황색기(黃色氣)를 띤 경우가 많은 것도 특징이며, 백자에도 이 철화기법이 종종 사용되었다.

### ■ 퇴화청자(堆花青磁)

철화와 같이 봉으로 문양을 그린 것은 같으나 철분이 섞인 안료 외에도 백토를 많이 사용하여 활달한 초문(草文)들을 그린 것이 특징이며, 백퇴화(白堆花) 기법은 종종 양각청자 등의 장식적인 점무늬에 사용되었다.

### ■ 철채청자(鐵彩青磁)

청자 태토 위에 철분이 많은 안료로 그릇 전체를 칠하고 청자유약을 씌운 것인데 흑유자기(黑釉磁)

器)와 비슷하게 검은색을 띤다.

### ■ 화금청자(畫金青磁)

순청자나 상감청자에 금채(金彩)를 가한 것으로 금물로 그림을 그리거나 상감문양 주변을 약간 판 후 금물로 메운 것인데 남아 있는 예가 극히 드물다.



진사체



연리문

### ■ 진사채청자(辰砂彩青磁)

구리(銅)를 안료로 이용해 청자의 전면에 칠하거나 문양의 일부분에 점을 찍는 등의 장식을 한 청자로, 구리 안료가 환원염에서 팥죽 같은 붉은 색을 낸다. 이런 구리 안료를 진사(辰砂)라 부르는데 중국보다 200여 년 앞서 고려인이 개발한 것으로, 고려자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밖에도 고려자기에는 흑유(黑釉)를 씌운 검은색의 흑유자기(일본에서 흔히 '텐모쿠(天目)'라 부르는 종류)가 초기부터 다양하게 발전해 왔으나 중국처럼 찻잔용 그릇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병 종류가 많이 만들어졌다. 또 극소량이나마 서로 색이 다른 2~3종류의 흙을 섞어서 대리석 같은 문양 효과를 보이는 연리문(練理文)자기도 있다.

기타 특이하게 건축에 관계되는 실내장식용의 도판(陶板)과 지붕에 없는 청자기와들도 만들어져 고려도자문화의 다양한 발달상을 보여준다.

## 3. 고려 도자의 변천사

고려자기의 변천은 질적인 변화양상에 근거하여 크게 전기(발생 및 발전기), 중기(최성기), 후기(쇠퇴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전기(발생 및 발전기 9세기 ~1122년)

고려자기의 발생에서부터 12세기초 중 청자의 질과 형태와 모양이 안정되고 거의 고려적으로 변모한 16대 예종(1122)까지를 전기로 본다.

통일신라 말경부터 시작된 청자와 백자는 고려에 들어와 점차적인 발전을 이루어 질이 좋아지고 기종(器種)이 다양해지며 문양장식도 다채롭게 된다. 처음에는 문양이 전혀 없는 완(碗)류가 주로 생산되었지만, 11세기에 들면서 음각문·양각문·철화문·퇴화문 등이 등장하고 기형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 주전자나 병, 매병(梅瓶) 같은 종류가 나타나나, 이 시기의 고려자기 기형은 아직 고려적인 세련미를 보이지 못하고 어딘가 딱딱하고 균형과 조화가 모자란 느낌을 준다.

이때의 청자색은 약간 검은 기가 섞인 짙은 녹색을 보이며 종종 구울 때 불길 조절이 잘 안되어 산화염을 맞아 황색을 띤 것도 있다. 기형은 전반적으로 초기에 비해 그릇살의 두께가 얇아지고 자기질화(磁器質化)가 잘 되어 있어 기술수준이 많이 향상되어 감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려 전반기의 도자사에서는 소위 ‘녹청자(綠青磁)’라 불리는 조질(粗質)의 지방청자들이 대량 생산되어 기존의 고려청자와는 또 다른 요업체계를 이룬 것이 특이한 사실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전라남도 해남군 진산리 일대에는 염청난 규모의 가마들이 운영되었으며 완도군 어두리 해안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침몰선에서 이 가마에서 생산된 것이 분명한 대량의 녹청자들이 쏟아져 나온 바 있다. 또한 인천시 경서동에서도 녹청자가마가 1960년대에 발굴조사된 사실이 있다.

전기의 후반이 되는 11세기 중엽부터는 고려사회가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져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문화가 급속히 발달하는데, 요업(窯業)에서도 서·남해안 일대에 흩어져 있던 초기의 청자가마들이 이 무렵이 되면 거의 활동을 중단하게 되고, 전남 강진군 대구면 지역과 전북 부안군 진서면 지역의 두 곳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일부 지방가마를 제외하고는 이 두 곳에서 정부의 관리를 받는 관요적(官窯的)인 성격의 가마가 운영되고 품질도 급격히 향상되어 간 것으로 생각된다.

이 11세기 중엽~12세기 초까지의 고려자기는, 중국의 대표적 북방청자인 요주요(耀州窯)의 양각, 음각문 청자류와 하북성(河北省)의 유명한 정요백자(定窯白磁)·자주요(磁州窯)의 철화문 등 다양한 자기류, 강서성(江西省) 경덕진요(景德鎮窯)의 청백자(青白磁) 등과 교류를 가져 이들 가마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다량 고려로 수입되었고 그 영향을 받아 청자의 기종도 다양해지고 음·양각의 문양장식도 다채로워지며 철화문과 퇴화문이 유행하는 등 본격적인 고려도자기의 발달이 이루어졌다.



녹청자 병

## (2) 중기(최성기 1123~1231년)

11세기 후반부터 고려자기는 서서히 고려적인 세련미를 갖추기 시작하여 17대 인종(仁宗·재위 1122~1146) 때에 들면서 완전히 최성기를 맞게 되며, 이후 1230년 몽고의 침입이 있기 직전까지 약 100년간 고려도자기의 황금기를 구가한다. 세상에 알려진 고려도자기의 명품들은 거의가 이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기술적·미학적으로 최고 수준에 오른다.

12세기 전반기는 소위 비색(翡色)청자가 완성되는 시기로 청자유색의 아름다움이 최고조에 달하여 당시의 자존심 높은 중국인들도 천하제일이라고 칭찬하였다. 이 시기의 고려자기 상황에 관해서는 1123년에 북송 휘종(徽宗)의 사신으로 왔던 서궁(徐兢)이 지은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서

"도기의 색이 푸른 것을 고려인들은 비색이라 한다. 근년 아래 제작이 공교해지고 광택이 더욱 아름다워졌다. …모두 정요그릇을 모방하였다(陶器色之青磁麗人謂之翡色, 近年以來制作工巧 色澤尤佳…習竊放定器制度).", "사자 모양의 향로가 여러 기물 가운데 가장 정절하고 그 나머지는 월주의 옛 비색(古秘色)이나 여주(汝州)의 신요기(新窯器)와 대개 비슷하다.(猊出香…諸器惟比物最精絕, 其餘則越州 古秘色, 汝州新窯器)."



청자 사자모양 향로

고 하였다.

이로 보면, 12세기 전반의 고려자기는 중국 북송의 관요인 정요와 여요의 영향을 받아 기형과 제작 수법이 크게 발전하였으며, 사자모양향로 같은 것은 중국인도 놀랄 만큼 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송 말 무렵의 인물로 생각되는 '태평노인(太平老人)'이 지은 '수중금(袖中錦)' 이란 책에는 "고려청자의 비색이 천하제일이다"라고 쓰여 있어 이 당시 고려청자는 이미 중국의 송(宋) 청자와는 다른 독특한 고려적인 청자를 완성시켜 천하에 이름을 떨쳤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재 남아 있는 순청자 명품들, 특히 상형청자들을 보면 그런 사실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때의 청자 유약은 더욱 발전을 이루어 반투명청자유가 보다 밝고 깨끗해져 매우 섬세하고 정교한 음각이나 양각문양들을 장식할 수 있었는데, 이는 불투명한 중국 청자유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문양장식이며 이런 유약의 발전이 고려청자를 더욱 신비하고 아름답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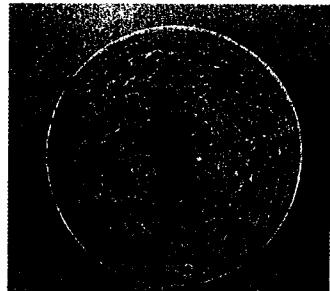
고려도자기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특징적인 것이 상감청자인데, 그 시작은 분명치 않으나, 12세기중엽 경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한 것 같다. 즉 1159년에 죽은 ‘문공유(文公裕)’라는 사람의 묘에서 출토된 상감대접은 기형과 상감문양 제작수법이 매우 능숙하고 아름다워 이미 12세기 중엽에는 상감청자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장인들의 흙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기술을 바탕으로 당시 금속공예품의 입사기법의 유행을 따라 제작된다. 상감청자는 순수한 고려인의 독창으로 그때로서는 최고의 기술을 요하는 고급자기였으며, 제작지도 관요로 믿어지는 강진과 부안의 두 곳에만 한정되었다. 비색청자의 아름다움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 그때까지의 기술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전혀 새로운 기법의 청자를 만든 이때야말로, 고려자기가 세계 도자사에서 우수성과 독창성을 가장 인정받는 시기라고 생각된다.

마치 봇으로 그린 듯 섬세하면서도 유연한 상감문양은 흑과 백의 절묘한 조화를 통해 문양적 아름다움도 빼어나며, 이때에 성행한 운학문(雲鶴文)은 고려도자기를 대표하는 문양으로 알려져 있다. 청자 유약은 상감문양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더욱 발전하여 기포(氣泡)가 보다 적어지고 비색이 한층 밝아졌으며, 기형은 윤곽선이 더욱 유연해져 귀족적인 우아함을 지닌 기품 넘치는 청자로 한 단계 발전한다.

이 시기에는 제작수법도 더욱 정교해져 번조용 받침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전기에 유행한 내화토(耐火土)나 흙모래받침 대신 북송의 관요청자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규사(珪砂)눈 받침법을 채용함으로 그릇바닥까지도 깨끗하게 번조하였다.

한편 백자는 12세기에 들면서 전기의 푸른 기가 많은 경질 계통과는 달리, 연질에 미세한 빙열이 많으며 약간 황색기를 띤 독특한 고려백자를 만들었다. 그릇의 두께가 매우 얕고 청자처럼 섬세한 음·양각문과 상감문이 장식되는 중기의 고려백자는, 북송 정요의 영향이 그 질과 문양에 강하게 남아 있으며, 만든 수량이 적고 규격이 일정해 궁정용의 특수한 그릇으로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에는 청자와 백자 외에 철화청자·진사채청자·연리문자기·흑유자기 등도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특히 진사채청자는 산화동의 안료를 환원번조 상태에서 선홍색(鮮紅色)의 발색(發色)으로 성



문공유 묘의 청자 상감문 대접



규사(珪砂)눈 받침

공시킨 청자로 중국보다 200여 년 앞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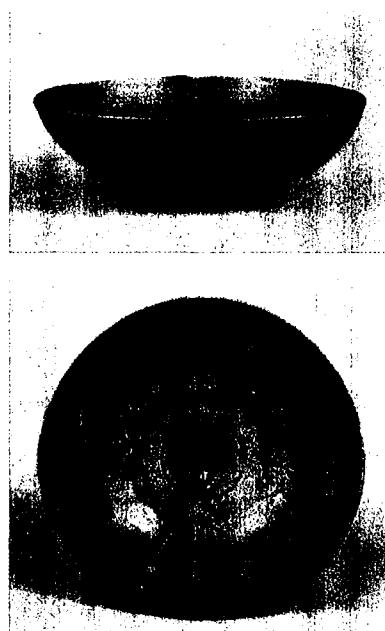
### (3) 후기(쇠퇴기 1231~1391년)

고려자기는 1231년 몽고의 대군이 고려를 침략해 옴에 따라 나라 전체가 황폐화하고 국가의 기본 질서가 혼들리게 되면서 급격한 쇠퇴를 맞이하게 된다. 1232년에는 몽고군을 피해 왕도를 강화도로 옮겼고, 계속 1259년까지 여러 차례의 몽고침입이 이어져 고려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큰 피해를 입게 되자 1270년 몽고에 항복을 하고 왕도를 다시 개성으로 옮겼다. 이후부터 고려는 원(元) 나라에 예속된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국운이 쇠퇴하여 고려의 자주적인 정신성이 약화되고 정예롭지 못한 원 문화를 받아들였으며, 따라서 고려의 도자기도 예전의 세련되고 정치(精緻)한 맛을 잃고 질적 인 쇠퇴를 거듭하다 1391년 고려의 멸망과 더불어 역사의 장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 시기에 제작된 청자는 상감청자가 주류를 이루는데, 청자유색은 어두운 녹색의 흐릿한 모습으로 퇴화하고 기형도 곡선이 둔해져 우아함이 사라졌다. 상감문양은 앞 시기의 회화적인 문양과는 달리 단순한 공예의장적(工藝意匠的)인 성격으로 변모하여 문양 구성이 지나치게 생략되거나 지나치게 빼빼해져 균형을 잃었고 흑과 백색의 조화도 깨어져 흑색선이 너무 강하거나 백색이 과용되거나 하여 전체적으로 딱딱하고 강인한 느낌을 주거나 하술하고 나약한 느낌을 준다. 한마디로 귀족적인 우아함과 절제된 균형감을 상실한 채, 무성의하게 타성에 젖어 제작하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듦다.

위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자료들로서 1269년부터 1287년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 간기(干記, 己巳·庚午·壬申·癸酉·甲戌·壬午·丁亥 등) 명문이 있는 일군의 상감청자류들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전통적인 고려자기가 질적인 하락을 거치는 동안 13세기 후반과 말경에 고려도자기에 새로운 요소들이 나타나는데, 원나라를 통한 중동지방과 서방문화의 영향을 받아 기형과 문양, 제작수법 등에 약간의 변화가 가미되었다. 즉 기형에는 그릇 몸체의 양옆을 편편하게 만든 편호(扁壺)라는 새로운 기형이 등장하고, 문양에도 조그만 잎이 많이 달린 새로



청자 상감 '庚午' 명 대접

운 당초문과 용봉문(龍鳳文)이 나타나며 문양의 기본구성도 여러 단(段)으로 이루어지는 등 새로운 양상이 보인다. 제작수법에도 원 도자기의 영향을 받은 듯 높이 70cm가 넘는 대형 항아리들이 생기고, 환원번조 일색의 청자에 산화번조로 된 황색이나 갈색을 띠는 청자가 많이 만들어졌으며, 받침수법도 새로운 모래받침법이 나타난다.

이외, 특이하게 금(金)으로 장식한 화금상감청자가 만들어졌는데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고려에서 원의 세조에게 이 화금청자를 진상하였다고 한다.

14세기에 들어 청자는 더욱 질이 떨어져 유색이 거의 짙은 암흑색으로 변하고 탁해지며, 상감수법도 진면목을 완전히 잃게 되지만, 상감청자의 생산량은 오히려 전대보다 증가하고 가마의 숫자도 고려말에 들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뒤이어 시작되는 분청사기 생산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 점은 주목되는 현상이다.

백자는 이 시기에 강진과 부안의 중심가마 외에 지방의 일부 가마에서 연질의 전형적인 고려백자가 아닌 단단하면서 푸른 기가 있고 질은 나쁜 백자가 생산되었는데 1930년대에 금강산 월출봉에서 발견된, 이성계의 발원문이 새겨진 1391년에 제작된 명문(銘文)을 가진 백자 일괄품이 바로 이 같은 고려후기의 지방백자 모습을 한 전형적인 예로 생각된다. 이러한 고려후기의 백자양상은 그대로 조선시대에 이어져 조선백자의 성립과 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고 믿어진다.

#### 4. 고려시대 도자기의 특징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오랫동안 도자기를 만들었지만, 고려시대의 도자기는 이 가운데서도 드물게 아름답고 우수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청자는 중국과 베트남 등 극소수의 나라에서만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고려청자는 여러 면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갖고 있다.

고려청자의 미학적 특징에 관해서는 일찍이 1930년대에 일본의 도자사학자인 우치야마(内山省三)가 “고려청자는 나의 종교이다”라고 하면서,

“동양정신의 극치는 ‘정적(靜寂)’이요 ‘정적’의 극치가 ‘무(無)’라 할진대 ‘무’의 세계의 소산인 고려도자야말로 동양정신의 극치라 하여도 감히 과언이 아니리라”고 평한 바 있다.

고려청자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청자비색의 아름다움, 기형의 우아함, 문양장식의 풍부함, 상감법 및 진사채개발의 기술적 우수성 등을 들 수 있다.

고려청자의 첫째 특징은 소위 ‘비색’이라 불리는 청자색의 아름다움에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릉 출토 청자 과형병



중국 관요청자

송의 사신이었던 서공의 ‘고려도경’에 고려사람들이 고려청자의 색을 ‘비색(翡色)’이라 불렀다고 하였는데, 이는 청자색이 비취같이 아름답다고 하여 붙인 이름으로 생각된다. 중국에서는 청자색 특히 월주요의 청자색을 비색(秘色)이라 하였지만, 고려인들이 비록 중국의 영향으로 청자를 만들기는 했어도 계속적인 노력으로 더욱 뛰어난 청자색을 만들고 그 궁지를 ‘비색’이라 표현한 것 같으며, 이 고려청자 비색의 우수성은 이미 당시의 중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듯 북송인 ‘태평노인’의 책 속에 고려청자색을 친하제일로 꼽고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였던 불교의 청정심을 도자기에 구현한 것 같은 이 비색은 12세기에 절정을 보이며 특히 인종(1109~1146년)의 장릉(長陵)에서 출토한 청자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비색 청자유약은 약간 짙은 비취색이며, 유약 속에 미세한 기포가 있어 약간 반투명이면서 맑고 깨끗하여 은은하고 조용한 느낌을 주는데 마치 깊은 산 속의 계곡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같이 아름답다. 이 신비스런 청자발색은 단순히 유색만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회청색을 띠는 태토의 흙 빛깔이 유약의 바탕을 이루어, 흙색과 유약색이 한데 어우러져 그토록 은은하고 그윽한 발색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

이 같은 현상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송대의 관요청자나 용천요(龍泉窯)청자와 비교해 보면 차이점을 잘 알 수 있는데, 송 청자의 아름다움은 오직 유약의 색에만 의존하여 유약이 불투명하고, 기형의 외관에 의지한 직선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했다. 송 청자는 엄정하고 예리하며 적절한 과장이 있어 냉엄한 기품은 있으나 밝고 고요한 맛이 없으며, 아울러 이런 불투명한 유약의 특성 때문에 태토가 드러나지 않아 음각문양 같은 섬세한 문양을 표현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게 된다. 때문에 중국청자의 최고봉이라 여기는 북송 관요청자를 생산하던 당시 중국인들도 이런 고려비색청자의 완벽한 아름다움에 최고의 찬사를 보냈으리라 믿어진다.

두 번째 특징으로 기형의 우아함을 들 수 있다. 최성기의 고려도자기들을 보면 그 기형이 기종의 여하를 막론하고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고려문화 전반에서 보듯 귀족적인 기품이 넘쳐 난다. 윤곽선이 극히 부드럽고 유려한 흐름을 보이면서 꽉 짜인 균형미에 탄력과 생동감이 있어, 마치 통일신라

시대 석굴암의 불상조각에서 보이는 조형감각이 고려에 와서 도자기 에 나타난 것 같다.

고려도자기의 기형 중 가장 독특하고 발달된 매병을 보면, 작고 아 담한 입, 탄력이 넘치는 벌어진 어깨, S자 모양으로 부드럽게 흘러내 린 유려한 몸체의 아웃라인 등이 마치 우아하고 세련된 귀족여인을 대하듯, 부드러우면서 내적 긴장감이 넘치고 있다.

상형청자의 경우 사자·기린·거북·용·오리 등의 동물이나 대 나무·참외·석류·복숭아·연꽃 등의 식물모습을 본떠 만들었는 데, 유연하면서도 탄력이 넘치는 볼륨이나 살아 웁직이듯 생생한 사 실적 표현을 가한 조각 수법이 매우 뛰어나 여기서도 고려 장인들의 우수한 조형감각을 잘 알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유약색과 기형에 알맞은 문양이 풍부하게 발달된 점이다. 비색에 알맞은 섬세한 음 각과 양각문양, 흑색과 백색의 적절한 조화를 보이는 상감문양 등이 뛰어나게 아름다우며, 안료를 봇 에 묻혀 그린 철화나 퇴화문들은 활발하고 대담하여 비색청자와는 또 다른 맛을 보이고 있다.

풍부하고 다채로운 수법으로 모란·국화·당초·보상화·풀무늬 등의 다소 장식적이고 기하적인 문양은 선의 굵기나 구성에 섬세한 변화를 주면서 물이 흐르듯 유창하게 새기거나 도드라지게 표현하 여 세련된 미적 감성을 잘 표출하고 있다. 고려자기의 문양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구름 속에 학이 날 고 있는 운학문과 벼드나무에 둘러싸인 서정적인 운치가 넘치는 이런 문양은 한국에서도 고려시대에 유별나게 유행한 문양으로 고려인의 풍부한 서정성을 나타낸 것이다.

고려도자기의 가장 큰 특징은 상감청자의 창안이라 할수 있다. 중국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고 려인의 독창적인 기술개발로 이루어진 상감청자는 우선, 청자 태토 속에 성분이 다른 이질적인 흙을 새겨 넣은 기술적인 우수성이 돋보인다. 같은 흙으로 만든 그릇도 높은 온도 아래에서는 흔히 터지고 갈라지고 주저앉는 등 파손이 심한 법인데, 성질이 다른 흙을 태토 속에 감입시킨다는 것은 당시로서 는 매우 어려운 기술이었음에 틀림없다.

흙 성질의 완벽한 이해와 환원염 번조의 철저한 통제 아래에서만 가능한 상감청자는 문양 또한 독 특한 아름다움을 이루었는데, 조각칼을 적절히 이용해 마치 봇으로 그린 듯 유연하게 표현된 상감무 닉는 모란·국화·운학 등의 문양을 약간은 양식화시키고 도식화시켰지만 자연적인 아름다움은 그대로 살린 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관계로 공예의장(工藝意匠)으로서 오히려 높은 품격을 지닐 수 있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

었다. 특히 상감운학문은 고려청자의 대표적 문양으로 높은 정신세계를 추구했던 불교의 이상향을 표현한 것으로 믿어지며, 이 운학문이 상감된 청자는 한결같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도 특징이다.

이 상감청자에 오면, 고려자기는 내적·외적으로 모든 면에서 중국의 청자와는 완전히 품격을 달리하여 고려의 독창성이 두드러지는데, 이런 이유 때문인지 중국인들도 이 상감청자를 선호하여 송·원대 무덤에서 고려의 상감청자들이 출토되고 있다.

상감청자의 존재야말로 이후에 조선시대 말까지 전개되는 한국도자기 문화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유지시켜 나가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믿어진다.

끝으로 고려자기의 특징 중 진사채의 개발을 보면, 구리(銅)를 이용해 선흥색의 발색을 성공시켰는데 자기에 산화동(酸化銅)의 안료를 사용한 것은 고려자기가 처음으로 중국보다 약 200년이나 앞섰다. 이것은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했던 고려인들의 우수한 금속제련기술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진 폐거로 여겨지며 유난히 붉은색을 좋아하는 중국인들도 기술적인 문제로 원대 14세기에 가서야 유리홍(釉裏紅)자기를 만들게 되지만 동 안료가 순수치 못해 검붉은 색을 보이다가 명(明)에 가서야 제대로 붉은색이 나는 자기를 만들게 된다.

이 진사의 사용 중 또 하나의 특징은, 고려자기에서 이 붉은색은 중국의 경우처럼 많이 사용되지 않고, 다만 학의 머리 부분이나 꽃잎의 가운데 일부분 등 극히 작은 부분에 접을 썩어 전체 문양에 액센트를 주는 정도로 아껴 썼는데, 이것은 자칫 화려한 붉은색이 청자의 정직이고 평온한 상태를 깨릴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한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화려하지 않으면서 균형과 절제를 추구하는 문양 표현양식이 바로 고려와 나아가 한국인의 근본적인 미감이라 할 수 있다.

## 5. 경기도의 고려시대 도자문화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서해안에 접한 부분이 많은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일찍부터 중국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이는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특히 통일신라 후대에는 이 지역이 중국과의 통교(通交)의 장으로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당성진(唐城鎮 · 829년에 개설)과 협구진(穴口鎮 · 844년에 개설)이 설치되면서 주요한 수출입 항구로 급부상하게 된다. 이런 역사적 사정 때문에 우리나라 도자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자기의 발생이 경기도 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이것은 경기도의 도자문화가 우리나라 도자기의 역사에서 선사시대 이후 처음으로 확실한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 일대 사건인바, 현재 우리나라 자기의 발생에 연관된 가마터가 서남

해안에서 10여 곳이 발견되었지만, 경기도 일대에 절반 이상이 분포하고 있다. 그 면면을 열거하면, 북으로는 개성 부근의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 청자가마를 시작으로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청자가마,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 청자가마, 시흥시 방산동 청자가마, 용인시 이동면 서리의 고려백자가마 그리고 인천시 경서동의 녹청자가마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이 가마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같이 한국도자사에서 그 중요성이 널리 알려진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경기도의 자랑이다.

경기도의 도자문화, 특히 자기문화는 이들에 의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자기문화의 초반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그러나 각 가마의 사정에 따라 보다 일찍 활동을 중단한 경우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고려 전반기 11세기까지 활발한 생산활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고려시대 중엽인 12세기에 들면 경기도 일대에서 도자기 생산활동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고 이런 사정은 고려시대 말기까지 계속되는 것 같다.

사실 고려시대의 도자사를 보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나말여초(羅末麗初)에 이루어진 자기의 탄생은 남으로는 전남 고흥에서 북으로 평양 부근에 이르기까지 주로 해안선을 따라 곳곳에서 일어났으며, 이후 11세기까지 보다 내륙에 위치한 지방에서 고려청자들을 생산한 가마들이 새롭게 나타나서 활동을 하였지만, 적어도 12세기부터는 전남 강진군 대구면과 전북 부안군 보안면 일대의 단 두 곳에서만 고려자기를 생산하게 된다. 이 양 가마에서는 매우 질이 좋은 최고급의 고려청자를 생산하는데, 이름 높은 비색청자와 상감청자를 긴 기간 동안 대량으로 만들었다. 이런 상황은 거의 고려시대가 끝나갈 무렵까지 지속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고려 말에 가서야 다시 각 지방에서 청자가마들이 슬금슬금 나타나기 시작한다. 고려 중기부터 말기에 이르는 근 300여 년간 고려시대의 자기생산이 강진과 부안에서만 있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지만 지금의 연구결과로는 이 두 곳 외에서 생산활동이 있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고려시대의 문헌기록 중에 고려 중엽에도 경기도에서 도자기 생산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짧막한 자료가 있긴 하다. ‘고려사’ 중의 ‘식화’ 편 예종 3년(1108년)의 기록에

“경기도의 주현에서 동전 · 자기 · 종이 · 먹 등의 공역이 부과되어 장인들이 그 고역을 견디기 어려워 도망하였다.(京畿州縣 常貢外徭 頗重 百姓苦之 其貢役多少 酌定施行 銅錢瓷器紙墨雜所別貢 物色徵求過極 匠人艱苦而逃避)”

는 기록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역사기록에는 고려시대의 도자기 생산에 관한 기록이 거의 전무하다 할 정도로 놀랄 만큼 적어 고려 도자사 연구에 크나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정도의 사료도 감지되지할 뿐인데, 이를 보면 분명 경기도에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 무렵에 공납용의 자기를 생산하던 가마가 존재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기록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가마터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관악산 남쪽 기슭의 안양시 비산동에 위치한 고려시대 가마터가 이 무렵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고려후기에 백자를 생산한 가마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어 조선백자의 성립에 따른 고려백자와의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안양의 가마터들은 현재 고려 도자사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 있는 고려 후반 지방 요업의 실체를 밝혀 주는 귀중한 존재로 학술적인 중요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종합하여 경기도의 고려시대 도자문화, 특히 생산활동을 중심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자기문화의 탄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일 것이며, 이후에도 한동안 고려자기의 발전과정에 남다른 공헌하다가 고려 중엽 이후에는 대세에 따라 그 활동이 거의 멈추게 되었다. 하지만 안양의 경우처럼 다른 지방과 달리 그래도 그 명맥을 꾸준히 이어오면서 다음에 도래하는 조선시대에 경기지역이 또다시 한국 도자문화의 중심지역으로 활약하게 되는 끈이 되었다.

## II. 한국자기문화의 탄생지를 찾아

### 1. 용인시 이동면 서리 가마

용인시 이동면 서리 중덕 부락에 위치한 고려백자가마터는 국내외 도자사학계에 널리 알려진 중요한 유적이다. 우리나라에 많은 가마터가 있지만 이 가마터가 유독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은, 우선 고려시대 도자기 가운데 미약한 세력을 보이지만 도자기술사적으로 매우 의미 깊은 고려백자를 생산했던 희귀한 곳이기 때문이며, 또한 현재 우리나라 도자사 연구에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고려자기의 발생문제에 관한 매우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셨던 정양모 선생이 이 가마터의 존재와 가치를 학계에 보고한 후, 국내외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어 오던 중, 1983년 · 1987년 · 1988년 3차례에 걸쳐 용인의 호암미술관이 대규모의 학술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면모가 자세히 밝혀지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지금 이 가마터는 사적 329호로 지정되어 국가

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크고 작은 논문발표나 학술대회가 수차례 있었을 정도로 한국 도자사 연구에 귀중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 (1) 유적의 생김

이 가마터는 북서쪽에 부아산(負兒山), 동북쪽에 함박산(函朴山)이 둘러싸고 있으며, 그중 해



서리 가마터 전경

발 350m인 함박산의 남동쪽으로 빠어 내린 산줄기의 끝에 위치한다. 요지의 퇴적구릉은 해발 120~130m에 위치하며 그 앞은 부아산에서 발원한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다. 이 개울은 자연 지형상 서해의 남양만과 연결되는 하천의 최종점으로 비옥한 충적평야를 이루는 진위천의 발원수가 된다. 가마터가 자리잡고 있는 이 일대는 경기도의 서남부지방에서는 흔치 않은 고산지대로, 땅감이 풍부하고 하천을 이용한 교통이 비교적 용이하여 가마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이루고 있다.

요지의 퇴적은 산 능선의 방향을 따라 폭 50m, 길이 80m로 2개의 구릉처럼 보이는데, 주로 갑발과 가마 폐기물(廢棄物)로 이루어진 퇴적은 조사결과 거의 평지 위에 6m 이상으로 거대한 구릉을 이루며 쌓여 있음이 확인되었다. 가마는 이 양 구릉모양 퇴적의 중간 폭 2m 가량의 골짜기에 숨어 있었으며, 퇴적은 일부 훼손된 부분도 있으나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퇴적 구릉의 곳곳에는 느티나무 1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는데, 특히 수령이 수백년 되는 거대한 느티나무 두 그루가 서 있어, 이 유적의 긴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한편, 이 유적의 동쪽 산 능선을 넘어가면 사기막골이 있는데, 이 골짜기 안에 인화분청사기 가마터와 조선중기 철화백자 가마터 및 조선말기 백자가마터가 자리하고 있다. 또 서쪽 산줄기를 직선으로 넘어가면 상반곡(上盤谷)이란 마을이 있으며, 이 마을의 북쪽 산기슭에 이 유적과 성격이 비슷한 대규모의 또 다른 고려백자요지가 있어, 이곳 서리 골짜기 일대가 고려~조선시대에 걸쳐 요업이 상당히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용인은 조선 태종 때 용구현(龍驹縣)과 처인현(處仁縣)을 합쳐 용인현이 되는데, 처인은 고려 때에는 수원부에 속했던 부곡(部曲)이었다가 조선 태조 때 처인현으로 승격이 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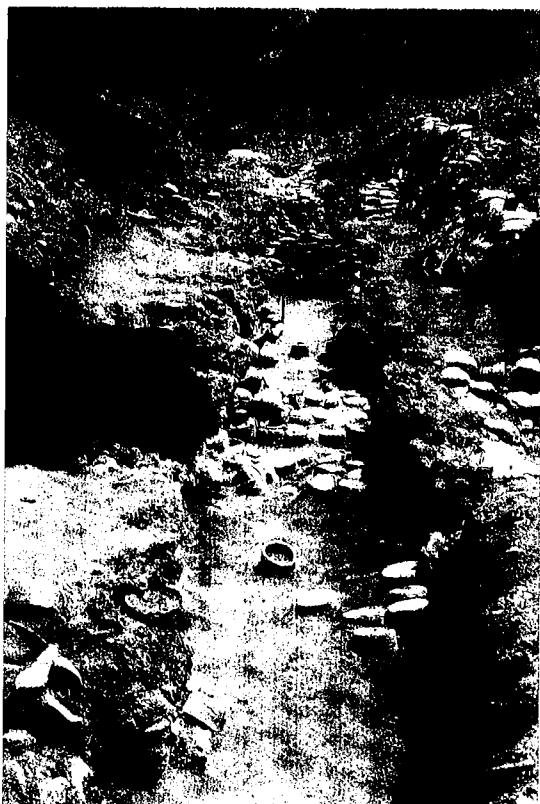
다. 가마터가 위치한 이동면 서리 일대는 옛 처인현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되어, 고려 때 이곳이 수공업생산집단을 말하는 부곡이었다는 사실과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옛 처인의 요산동리(窯山洞里 · 가마골)에 자기소(磁器所)가 있었다고 하는데, 요산동이라는 지명이 이 가마터의 산더미 같은 퇴적을 보고 붙여진 이름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어 흥미롭다.

## (2) 발굴조사된 내용

세 차례의 발굴조사에 의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밝혀졌지만, 가장 주목되는 성과는 자기를 굽던 가마의 발견과 산더미 같은 퇴적층의 조사라 할 수 있다.

### ■ 가마유구



기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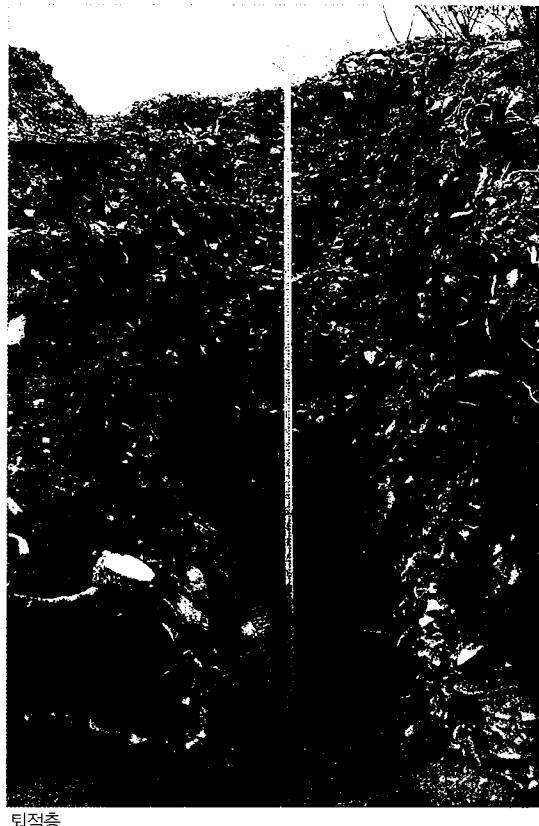
이 가마터는 걸보기에는 두 개의 구릉이 폭 2m 가량의 골짜기를 두고 산등성이를 따라 길게 뻗어 있는 모양이지만, 발굴결과 이 좁은 골짜기가 바로 당시에 가마가 놓였던 자리이고 양편의 구릉은 도자기를 구우면서 폐품들을 버린 것이 쌓여진 것임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가마를 발굴한 결과 깜짝 놀랄 사실들이 속속 밝혀졌는데, 일단 처음에는 진흙으로 만든 상상외로 엄청나게 큰 가마가 발견되어 사람을 놀라게 하더니만, 발굴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 진흙가마 아래에서 벽돌로 만든 가마가 다시 나타났는데, 이 벽돌가마는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가마터에서는 애초에는 벽돌로 만든 가마를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이를 폐기하고 그 위에 다시 진흙을 사용한 가마를 지어서 도자기를 계속 생산하였던 것이다.

먼저 벽돌가마를 보면, 폭이 1.8m 정도에 길이가 약 40m에 달하며 장방형의 큰 벽돌과 작은 벽돌을 사용해 축조하였다. 그런데 벽돌가마는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서 조선말기까지 오로지 진흙으로 만든 가마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벽돌가마의 존재는 전혀 뜻밖이었다. 그래서 이 서리 가마터가 우리나라에서 자기를 굽기 시작한 최초 시기의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역시 처음에는 중국의 도공이 용인에 와서 가마를 지었거나 아니면, 중국의 가마기술을 배워와 벽돌가마를 사용하다가 차츰 한국식의 진흙가마가 유행하면서 이를 따라 가마구조를 바꾼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진흙가마는 그 장대한 크기가 사람을 압도하는데, 폭은 벽돌가마보다 좁아들어 1.2~1.5m 정도이나 총 길이가 무려 83m에 달하는 초대형이다. 가마 벽체는 특이하게 진흙과 속이 빈 갑발을 사용해 축조하였으며, 원편 가마 벽에는 가마 안으로 통할 수 있는 출입구가 2.5~3m 간격으로 23개가 나 있었다. 이 진흙가마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가마 중 최고로 긴 가마이며, 세계에서도 유례가 드물 정도로 긴 가마로 지금의 기술로서도 운용이 어렵다 할 정도여서 당시의 뛰어난 생산기술과 이 곳에서 엄청난 양의 자가들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 ■ 퇴적층 조사

이 가마터는 현재 폭 50m, 길이 80m로 2개의 구릉처럼 보이는데, 이를 조사한 결과, 자기를 구울 때 사용하던 갑발과 도자기 파편, 가마 폐기물들이 오랜 기간 쌓여지면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퇴적더미임이 밝혀졌다. 퇴적의 깊은 곳은 거의 6m에 달하며 산 쪽으로 갈수록 퇴적량이 적어지며, 퇴적의 여러 곳을 파서 퇴적상태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고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4개의 자연층위를 밝혀내는 성과를 얻으면서, 한국 자가의 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



퇴적층

게 하는 새로운 자료들이 나타났다. 즉 4개의 퇴적층이 겹쳐서 나타났는데, 이 경우 당연히 가장 밑의 층이 가장 오래된 것이고 가장 위의 층이 나중 것임이 분명해진다. 그리고 그 퇴적층 속에는 굽다가 벼려진 도자기 파편들이 섞여 있는데, 이를 보면 도자기의 발달 순서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온 ‘해무리굽완’ 이란 것이 이곳에서는 중간 단계에 나타나고, 이보다 먼저 만든 것이 확실한 청자와 백자들이 발견된 것이다. 그래서 이 종류들을 ‘선(先)해무리굽완’이라 명명되었고, 학계에서 다시금 우리나라 자기의 발생시기에 관한 재검토가 진행되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 선해무리굽–해무리굽으로 이어지는 다음 단계의 것들이 이 가마터의 퇴적층을 통해 보다 명확해지면서, 다른 지역에서 지금껏 조사 연구해 오던 고려 초기 가마터의 시간적 위치가 더욱 정확해졌고, 나아가 고려시대 전반기의 도자사 연구에 확실한 기준자료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퇴적층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가마터는 단순히 고려백자를 생산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청자를 굽던 가마로 출발하였으나 곧 백자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가마로 바뀌었고, 상당 기간 질 좋은 고려백자를 왕성하게 생산하다가, 마지막 얼마 동안은 질이 떨어지는 백자들을 대량 생산하는 지방가마로 전락하는 운명을 겪은 것으로 인정된다.

### (3) 생산된 도자기들

이 가마터는 처음부터 고려백자 가마터로 알려질 만큼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려백자를 생산한 곳으로 유명하다. 물론 다른 고려시대 가마터에서도 청자 외에 백자가 간혹 만들어진 경우도 있지만 그 양이 위낙 적었고, 지금 남아있는 고려백자도 소량에 불과하다. 고려백자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까지 전형적인 고려백자로 치부되는 것은 강진이나 부안 같은 고급 청자를 생산하던 가마에서 일부 만든 것으로 굽는 온도가 낮아 질이 무른 편이어서 석고질에 가깝다. 이로 보아 이를 고려백자는 특수한 용도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하는 작품들이 드물다. 이런 종류 외에 만듦새가 약간 거칠면서 질이 단단한 고려백자가 있는데 전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이 가마터가 널리 알려지면서 점차 발견량이 많아지고 있다. 서리가마는 물론 후사를 생산하였던 곳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고려백자의 종류에는 단연 완이나 대접류가 많다. 특히 완류는 해무리굽완이 많이 발견되며, 이 기형의 특수한 도자사적 중요성 때문에 일찍부터 학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해무리굽완은 차를 마시기 위한 다완(茶碗)으로 생각되는데, 이의 학술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발굴결과 이보다 더 이른 시기의 청자와 백자가 본 유적에서 나왔는데, 굽의 폭이 보다 좁고 기벽이 완만한 곡면을 보여 형태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이를 현재 선해무리굽완이라 부르고 있다. 이 선해무리굽완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우리나라 도자사 학계에 큰 충격을 주면서 이 가마터의 중요성이 높아졌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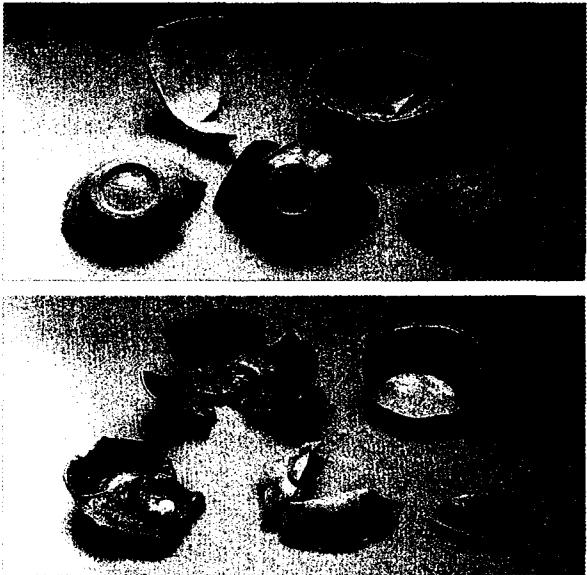
한편 발굴 중간에 해무리굽과 함께 상감문이 베풀어진 백자편이 몇 점 출토되어 고려상감청자의 시원적(始原的)인 형태로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해무리굽 단계가 끝나면 본 가마터는 생산체제가 보다 대규모화하면서 질은 이전보다 하락함을 보이며 종류도 훨씬 다양해진다. 한국적으로 완전히 변형된 해무리굽완들이 나오면서, 철사안료로 당초문 등을 활달하게 그린 장고들도 나타나며, 제례에 사용된 대형의 제기들이 많이 보이는데, 간혹 거북모양을 조각하여 붙인 특이한 예들도 있다. 전반적으로 보아 질이 좋지 않고 거칠게 만들어 대충 구웠다는 인상을 주지만 인근 지방에 두루 사용하기 좋은 아주 실용적인 그릇 만들기에 치중하였음을 한눈에 느낄 수 있다.

#### (4) 가마의 활동기간

이 가마터유적의 중요성은 무어라 해도 우리나라 자기문화의 출발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본 가마의 개시 연대는 학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아직 분명한 것은 없다. 그 동안 학자들 간에 수차례의 논쟁이 벌어졌지만 뚜렷한 결론은 아직 없으며, 이르면 통일신라 말인 9세기 중엽이나 후반, 늦어도 10세기 중엽 정도에는 본 가마를 비롯한 초창기 가마들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가마의 개창에 관해서 운영주체와 수요문제를 연관하여 볼 때, 통일신라시대 말기에 이 일대에 응거하였던 호족(豪族) 집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당시 용인 부근인 죽주(竹



출토품

州·죽산)에는 기훤(箕萱) 세력이 있었는데, 사기에 의하면 궁예는 먼저 기훤의 휘하에 있다가 도망나와서 북원(北原·원주)에 있던 양길(梁吉)의 밑으로 들어가고 다시 이를 탈취해서 태봉국을 세우게 되었다 한다. 이런 사실로 보아 기훤은 상당한 세력을 가진 호족집단으로 생각되며 이들이 본 가마의 운영과 수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또한 본 가마터의 위치를 보면, 이 앞을 흐르는 개울물은 남양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진위천의 시발점이 되는데, 829년에 서해안의 남양만에 무역 및 해상교통을 위한 당성진이 개설된다. 따라서 본 가마에서 생산된 질 좋은 자기들이 단순히 이 지방의 수요뿐만 아니라 서해안 일대와의 교역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해 운영된 가마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본 가마터의 존속기간에 대한 문제는, 퇴적층 조사에서 나타난 자료와 다른 지역 가마들의 변천상황들을 비교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본 가마의 운영은 크게 초창기(선해무리굽완 생산시기)와 융성기(해무리굽완 생산시기), 쇠퇴기(지방백자 생산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려 전반기에 전개되는 우리 도자사의 일반적인 흐름에 비추어 보면 쇠퇴기의 시작은 대체로 11세기 초부터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고려 초기에 각 지방에 널려 있던 가마들이 강진과 부안으로 집중되면서 지방가마들이 사라지는 11세기 중엽까지는 인근 일대에 자기를 공급하는 대규모의 지방가마로 활동하였다고 믿어진다.

### 5) 본 가마터의 의의

용인 서리 가마터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사 연구된 결과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그 의의를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세계 도자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도자기의 나라로 불리는 한국에서 9, 10세기경에 이미 백자를 본격적으로 생산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유적으로서 의의가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지하 다시피 백자는 고령토를 태토로 사용하고 투명에 가까운 유약을 씌워 1300°에 가까운 고온으로 번조한 고급자기로 제작과정이 청자보다 어렵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청자가 원시청자 단계를 거쳐 3세기 경부터 본격적인 청자가 만들어지지만, 백자는 6세기 후반 무렵에 북방지역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후 중국도자는 청자와 백자가 공존하면서 남송까지 계속되지만 원대(元代)에 추부백자(樞府白磁)와 청화백자(靑華白磁)가 나타나면서 세계 도자사의 흐름은 백자 위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청자나 백자를 번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16세기까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자기들을 수입하여 오나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사기장들을 데려가 아들에 의해 17세기 전반부터 비로소 자기제조가 이루어

진다. 한편 유럽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저화도(低火度) 연유(鉛釉) 계통의 도기류들만 생산한 관계로 고회도 번조의 청자조차 만들지 못하고 중국에서 막대한 양의 자기를 수입하다가 18세기 초가 돼서야 백자제작에 성공하였다. 말하자면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백자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0~300년 전에 불과한 일이다.

이렇게 세계 도자사에서 일본이나 유럽에서 백자가 17세기 이후에나 만들어진 점을 비교할 때, 실제로 서리요지는 중국 당 때의 저명한 형요(邢窯)백자와 더불어 1000여 년 전에 이미 수준 높은 백자를 생산한 세계 도자사상 특기할 만한 가마로 평가되며, 아울러 한국도자기 제작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증명해 주는 자랑스런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둘째는 서리 가마터가 한국 도자사 연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서리 가마터 발굴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자기 발생 및 초기상황을 연구하는 데에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유명하다. 발굴조사에서 최초로 벽돌가마의 존재를 확인한 점이나,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 순차적으로 변해간 사실을 처음으로 증명한 사실도 중요하지만, 특히 거대한 퇴적층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4개의 층위를 밝혀내고 이에 따라 확실한 상대편년의 체계를 수립한 점은 서리 가마터 발굴조사에서 거둔 최대의 성과로 손꼽히고 있다. 이를 통해 해무리굽보다 이른 시기의 선해무리굽이 존재하였음이 밝혀져 기존의 청자 발생에 관한 연구의 기본 방향이 대폭 수정받게 되면서 우리나라 자기 발생 문제 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아직까지는 절대편년에 관한 자료가 없어 시기문제를 단정할 수 없지만, 백자의 발생과 초기 도자사의 연구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리 가마터는 우리나라 자기의 발생과 초기상황 연구에 표준적인 요지로 국내외에 그 중요성이 알려져 있다.

셋째는 가마 유구(遺構)의 중요성이다. 벽돌가마와 진흙가마가 중첩되어 존재하는 경우도 현재로서는 서리 가마가 유일하며, 특히 83m에 달하는 대형의 진흙가마 유구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장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M자형의 거대한 퇴적이 쌓인 골짜기 사이에 비스듬히 뻗어 올라가는 가마는 걸모습만으로도 보는 사람을 압도할 만큼 장관을 이루지만, 세부 구조상으로도 오랜 기간의 사용으로 인해 반들반들하게 유리질화된 가마벽이나 갑발을 차곡차곡 쌓아 만든 매우 건축적인 모습의 가마벽의 축조상태, 그리고 이 장대한 가마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7m 간격으로 나 있는 23개의 출입문도 남아 있다. 이렇게 한눈에 가마의 구조와 운용을 살펴볼 수 있을 만큼 유구가 잘 남아 있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다. 더구나 발굴 당시 최후에 사용된 진흙가마의 유구가 너무 중요하여 이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가마의 중첩상황을 일부만 확인하고 발굴을 중단하였지만, 가마터

유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이 담겨져 있어 가마유적의 표본으로 삼기에 이보다 좋은 유적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서리 가마는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고려초기 요업(窯業)의 높은 수준을 한눈에 설명해 주고 가마유적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도 대단히 높은 유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 2. 시흥시 방산동 청자가마터

가마터의 발견은 도자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전국의 산야를 발로 누비면서 다리 품을 팔아 이루 어진 경우가 많지만, 지방의 향토사학자들이나 호기심 많은 주민들의 노력으로 발견되어 이것이 학계에 전해져 세상에 알려진 고마운 경우도 많다. 이 가마터는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 1991년 2월에 김재원(대야초등학교 교사)과 안병권(시흥시 포동 거주) 두 분의 제보에 의해, 국립중앙박물관과 도자사학자들이 현지를 조사한 결과 이 가마터가 통일신라시대의 토기가마터와 우리나라 청자 발생기의 가마가 혼재한 매우 중요한 유적임이 확인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리고 방산동의 다니(죽원) 마을에 위치한 이 가마터가 알려지고 세인의 주목을 끌게 되자, 같은 방산동의 방골(방곡)마을의 주민들이 똑같은 유형의 가마터들이 마을 내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와 다시금 학자들에 의해 확인되어 이 방산동 일대가 우리나라 청자 발생시기에 비교적 큰 규모로 자기의 생산활동을 벌인 중요한 지역이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렇게 주민들의 도움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방산동 가마터는 이후 1997년, 1998년의 두 차례에 걸쳐 해강도자미술관에서 정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전모가 밝혀지면서 우리나라 도자문화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실하게 차지하게 되었다.

### (1) 유적의 생김

우리나라 자기문화의 탄생지로 인정되는 가마터 가운데 용인 서리 고려백자 가마터에 이어 두 번째로 본격적인 학술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방산동 가마터는, 바다에 인접해 있는 민속마을이자 새우개장승놀이의 발상지인 포동 새우개 마을 뒤에 소재한 학미산(鶴眉山 · 해발 150m) 서북쪽의 야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100  
발굴된 지역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구릉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겉보기에는 완만한 경사면에 별다른 퇴적이 보이지 않았으나, 조사 결과 지표의 퇴적토를 걷어내자 곧 가마유구가 나타났으며, 가

마의 좌측과 우측의 지하에서 주로 갑발로 이루어진 상당한 깊이의 퇴적이 발견되었다.

발굴 결과 방산동 가마터에서는 1기의 토기가마와 벽돌로 축조된 가마 1기가 조사되었으며, 퇴적층에서 많은 양의 청자와 백자편들이 출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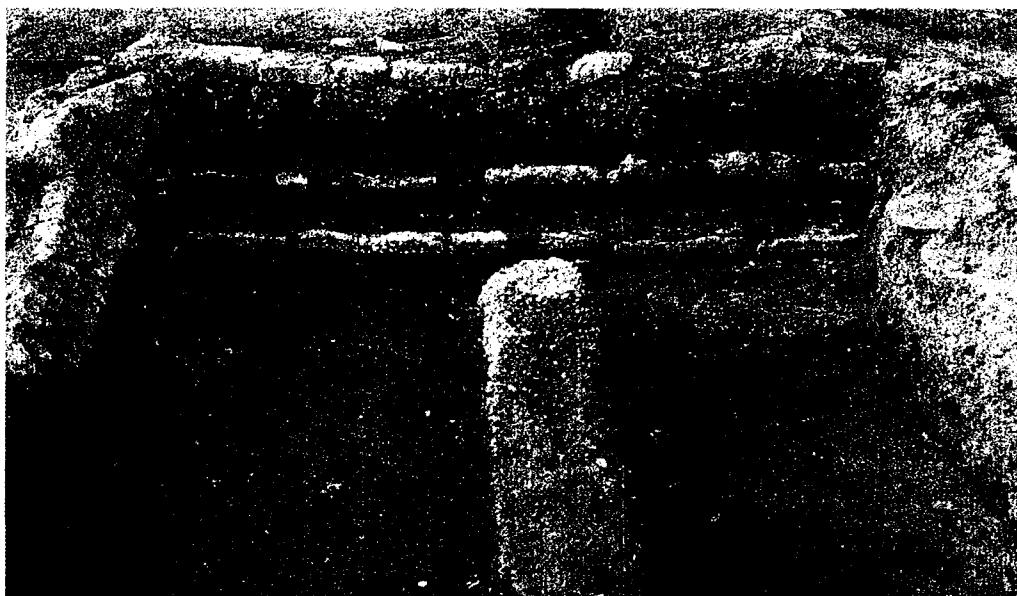
## (2) 가마의 생김

방산동에서 발굴된 가마는 벽돌로 만들어진 것으로, 남한에서 처음으로 확실하게 발굴조사된 벽돌가마이다. 물론 1987년에 용인시 이동면 서리 가마터에서 벽돌가마의 존재가 확인된 바 있었지만, 바로 위의 진흙가마 때문에 자세한 조사를 못하고 대략적인 규모의 파악 정도에서 그쳤었다. 따라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전모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벽돌가마여서 의의가 크다.

조사결과 가마는 산의 경사면을 이용해 아궁이 부분을 아래쪽에 만들고 굴뚝 부분은 산 위쪽에 둔



가마 전경



방산동 가마 굴뚝부

전형적인 오름가마 형태인데, 가마의 폭이 2.2m 가량이고 전체 길이는 38.9m에 달하며, 바닥면의 경사도가  $10\sim15^\circ$ 를 이루고 있다. 가마는 장방형의 벽돌을 당시의 지표면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으로 보이며, 발굴 당시 천장 부분이 함몰되어 있고 양쪽의 가마 벽체의 일부만 남아 있어 완전한 축조상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단면이 아치형을 이룬 터널 모양의 가마였으리라 추정된다.

이 가마는 불 때는 아궁이와 자기를 재어 놓고 굽는 소성실, 연기 나가는 굴뚝, 그리고 벽 중간 중간에 출입시설 등이 비교적 잘 남아 있어 당시의 가마구조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이 벽들가마는 양쪽 벽에 도자기를 재임하거나 불을 때기 위해 만든 출입구가 7개씩 발견되어 흥미로운데, 보통은 한쪽 벽에만 출입구가 있어 이를 이용해 가마 밖에서 가마 안으로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양편의 출입구는 물론 한번에 모두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 가마가 벽의 축조상태로 보아 두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보수가 있었는데, 최초에는 우측의 출입구를 이용하다가 다음은 좌측을, 마지막으로 우측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가마 벽을 보수하면서 가마의 길이도 줄어들었음을 밝혀졌다.

가마의 바닥에는 모래가 두껍게 깔려 있었는데, 이는 오름가마의 경우 경사진 바닥 면의 구조가 불길을 통과시키기에는 좋지만, 경사 때문에 그릇을 바로 놓기 어려워 일단 바닥에 모래를 두껍게 깔고 갑발이나 그릇 받침대를 놓아 수평을 잡은 다음 그 위에 그릇을 두고 굽기 때문에 가마의 바닥에는 불탄 모래가 깔려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한차례 굽기가 끝나면 모래바닥 위에 다시 모래를 깔기 때문에 굽기를 거듭할수록 바닥의 모래층이 켜켜이 쌓여 마치 시루떡 같은 모습을 보인다. 이곳 방산동 벽돌가마의 바닥에는 모두 29개 층에 달하는 모래층이 퇴적되어 있어, 이 가마의 운영시기가 상당히 길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한편 이 가마의 남쪽 약 12m 떨어진 지점에서 벽돌가마보다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토기가 마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단언할 수 없지만, 이 지역에서 먼저 토기를 굽다가 다시 청자 등의 자기를 생산하는 가마로 변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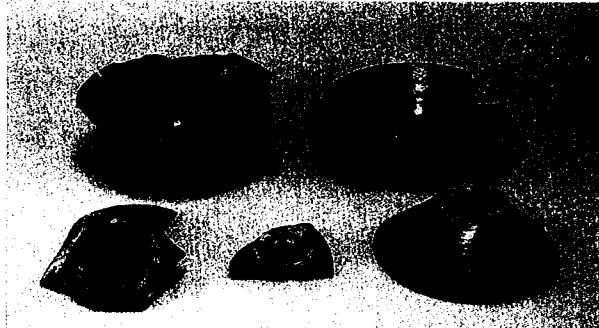
### (3) 출토 유물

방산동 가마터에는 가마의 좌우에 많은 양의 퇴적층이 있는데, 갑발편들이 대부분이고 사이사이에 약간씩의 자기편이 끼워져 있어 당시에 생산된 자기의 실패율이 의외로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폐품의 처리는 당시에 운영되던 가마의 바로 옆에서 이루어졌음도 알 수 있다.

**102** 발굴을 통해 출토된 도자기류를 보면, 청자가 대부분이나 소량의 백자도 있으며, 옆의 토기가마에서 생산된 토기류들도 있다.

## ■ 청자류

청자는 회청색의 질이 고운 태토 위에 청자 유약을 전면에 걸쳐 얇게 씌워서 구웠는데, 유색은 녹갈색 또는 황갈색을 보인다. 대체로 그릇의 두께가 얕아 예리한 맛이 있으며, 한 개 또는 두 개의 그릇을 하나의 갑발 안에 넣어 정성스럽게 구웠다.



청자片

그릇의 종류에는 발·완·접시류 같은 일상생활에 흔히 사용되는 반상용의 그릇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외 잔·잔탁·광구병·유병·주자·항아리·합·벼루·제기·장고 등도 발견되었다.

이중 대량으로 출토된 발·완·접시류는 우리나라 초창기 청자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아는데, 모두 형태가 직선에 가까운 간결한 조형을 하고 있다. 완은 앞서 용인 서리 가마터에서 살펴본 것과 동일한 특징을 가진 소위 '해무리굽완'과 '선해무리굽완'이 섞여서 나오며, 잔 혹은 접시의 경우는 입술부분을 밖으로 말아 붙인 이른바 옥연형(玉緣形) 구연(口沿)을 한 것이 보이며, 또한 그릇의 옆면을 직선으로 깊게 눌러 전체를 꽃 모양으로 만든 화형(花形)접시가 출토되었다. 전자의 경우는 중국 당대의 유명한 월주요 청자나 형요 백자에서 보이는 특이한 구연 모양이어서 주목되며, 후자의 화형접시는 용인 서리 가마터의 제2기층(해무리굽완이 출토하는 층보다 앞선 시기의 층임), 후술할 북한의 원산리 가마터의 2호요의 제1차요에서 출토한 화형접시와 동일한 형태의 것으로 방산동 가마의 연대추정에 크게 참고가 되는 중요한 유물이다.

이들 자기에 문양이 베풀어진 것은 거의 보이지 않으나 극히 일부에 음각의 초화문(草花文)이 새겨진 파편을 비롯하여 백상감문이 베풀어진 장고편과 흑유파편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백자片

## ■ 백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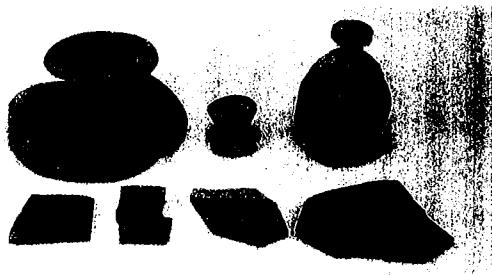
방산동 가마에서 생산된 백자는 밝은 회백색의 태토에 유백 혹은 청백색의 유약을 발라 청자와 함께 구웠다. 이

점은 용인 서리 가마의 경우와 더불어 고려백자의 기원이 청자와 그 백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이곳에서는 백자를 소량만 생산하였으며, 그릇의 종류로는 완·잔·화형접시·유병(油瓶)·작은 항아리 등이 발견된다.

### ■ 토기류

방산동 가마터에서는 현재 자세한 발굴 조사가 실시되지는 않았지만 이 토기가마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이는 일군의 토기류가 있다. 이들은 자연유가 형성된 경질계의 토기와 유약이 없는 연질계의 토기류로 나누어진다. 경질계 토기는 크고 작은 항아리와 광구병·사각편병·유병·뚜껑 등 비교적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이 보이나, 연질계 토기류에는 대형의 항아리가 많은 점이 특징이다.

이들 토기는 양식적으로 보아 통일신라 말엽에 운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라남도 영암 구림리 토기 가마터나 충청남도 보령 진죽리 토기가마터에서 출토한 토기류와 유사함을 보이고 있어 이를 토기의 생산연대를 대체로 추정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 토기가마가 이 지역에서 자기의 생산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음이 분명하여, 통일신라시대의 토기문화가 어떻게 자기문화로 대체·발전하는지, 앞으로의 발굴조사에 따라 그 과정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유적으로 생각된다.



토기류

### ■ 명문과 요도구들

발굴조사시에 출토된 유물 중에 주목되는 것으로 기호나 문자가 새겨진 일군의 자료들이 있다. 청자나 백자의 굽 안 바닥에 음각으로 ‘卜’·‘+’·‘田’·‘三’·‘村’·‘孝’ 또는 ‘老’·‘京(?)’·‘至(?)’·‘감술(甲戌)’과 같은 기호나 문자를 새긴 것이 있다. 특히 ‘甲戌’은 간지명으로 보여 연대추정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고 있는데, 방산동 가마터의 전반적인 성격으로 보아 854년·914년·974년



요도구

중의 어느 때라고 추정된다. 한편 이러한 명문은 갑발에서도 간혹 발견되는데, 그 중에서도 크게 주목 되는 것은 갑발과 받침의 윗면에 각각 새겨진 ‘오월(吳越·분명하지 않다)’ · ‘봉화(奉化)’라는 명문의 존재이다. 이들은 중국에서 청자의 고향이라 일컬어지면서 우리나라 청자의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절강성의 월주요와 관련지를 수도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발굴을 담당한 보고자는 ‘오월’은 오대(五代)에 절강성에 있던 오월국(吳越國)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때 월주요는 왕실의 비호를 받아 최전성을 맞게 되어 매우 질이 좋은 소위 ‘비색청자’를 만들어 궁중에 공납하였다. 그리고 ‘봉화’는 바로 이 무렵에 왕성한 생산활동을 벌이던 가마가 있던 지명과 일치한다. 여기서 문제는 만약 이 두 가지 명문이 위의 사실대로라면, 우리나라 청자나 백자의 발생시기를 10세기 중엽 경으로 비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중국의 도공이 직접 와서 자기의 생산을 담당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청자 발생기의 특징적인 소위 ‘해무리굽완’이 중국에서는 오대 이전인 당대에 유행하다 사라져 버린 사실이 분명한 현재 상황에서는 시기적으로 앞뒤가 바뀌는 결과가 된다. 또한 벽돌가마라는 것이 분명 중국적인 가마형태지만, 반드시 중국인이 직접 와서 가마를 만들고 자기를 생산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다. 따라서 이 명문에 대한 검토와 연구는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요도구로는 갑발을 비롯하여 갑발받침, 갑발뚜껑, 고리형의 그릇받침 등이 발견되었으며, 물레의 축에 끼우는 일종의 베어링인 봉극과 갓모도 여러 점 발견되었다. 특히 갑발은 발형(鉢形)과 원통형 두 종류가 발견되어 원통형 갑발을 주로 사용하는 진흙가마와는 다른 일면을 보여 준다.

#### (4) 가마의 활동시기

방산동 가마터는 서해안 중부 지방에 위치하는 자기 발생기의 대표적인 가마터의 하나로 이 지역 일대에 여러 기의 가마가 존재하였음이 밝혀졌다. 특히 이 시기의 가마터로는 용인시 서리 가마터와 북한의 원산리 가마터에 이어 세 번째로 정식발굴 조사된 유적으로, 우리나라 자기발생 연구에 더없이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 조사된 가마터와의 비교를 통해 방산동 가마터의 활동시기를 고찰해 보면, 먼저 이곳의 상황은 원산리 가마터와 매우 유사하다. 즉 양쪽의 가마들은 모두 벽돌가마를 운영하다 끝났음이 발굴 결과 밝혀졌는데, 이는 서리 가마터가 벽돌가마를 운영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진흙가마로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생산활동을 한 것과 비교된다. 따라서 크게 4시기로 구분되는 서리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방산동과 원산리는 서리의 1기와 2기에 해당하는 시기에만 존속하다가 폐요(廢窯)된 것으로 추정된

다. 이는 출토유물로도 입증이 되고 있는데, 생산된 자기 중에 주류를 이루는 완이나 발류가 소위 '선해무리굽'의 것이 많고 일부 '해무리굽'의 것이 있는 점, 독특한 모양의 화형접시의 존재, 갑발 중 발형의 것과 갑발 받침대가 사용된 점 등은 용인의 1기와 2기, 특히 2기의 내용과 거의 같다. 결국 방산동과 원산리 가마의 운영시기는 서리 가마터의 전반기에 해당하는 1, 2기층의 시기와 일단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방산동 가마의 개요(開窯) 연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자기 발생시기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학자들간에 의견이 분분하여 당분간 확정될 조짐이 보이지 않으며, 앞서 서리 가마터에서 주장한 대로 9세기 중엽 경에는 시작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지만, 명문의 예에서 본 대로 중국의 오대에 해당하는 10세기에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방산동 가마의 활동이 끝난 시기는 북한의 원산리 가마터 조사에서 밝혀진 기년명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정해 볼 수 있다. 다음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원산리 가마터 발굴조사에서는 벽돌가마의 최종시기에 만든 것으로 보이는 '순화(淳化) 3년명' 제기류가 많이 출토되어, 순화 3년(992년)의 10세기말 무렵에 끝이 났음을 알 수 있어 방산동 가마도 이 무렵에 폐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 3. 고양시 덕양구 원홍동 청자가마터

도자기의 연구는 가마터의 조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도자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세기 초두에 일본인에 의해 시작되었다. 고려청자가 개성 일대의 고분군에서 발견되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라 입을 모았다. 그러나 곧 일본인의 노력으로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청자가마터가 발견되면서 그때서야 한국이 오래 전부터 매우 훌륭한 도자기의 나라였음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후 우리 도자기의 아름다움에 심취한 일본인들에 의해 본격적인 가마터 조사와 도자기에 대한 연구가 행해졌다. 일제시대에 우리 땅에서 활동한 도자사·연구자로는 아사카와(淺川伯教)와 노모리(野守健) 2인이 대표적인 인물로, 특히 아사카와는 1930년대에 조선총독부의 협조하에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가마터를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간략한 일람표를 작성하여 후대에 남겨 두었다. 또한 노모리는 조선총독부에 촉탁으로 있으면서 고려청자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여 1943년에는 처음으로 고려청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인 '高麗青磁の研究'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이렇게 우리나라 도자사 연구는 일본인의 손에 의해 시작되어 1950년대까지 일본이 우리 도자기 문화의 연구를 주도해 갔지만, 이후 1960년대에 들면서 우리 학자들이 가마터 조사와 발굴조사를 하

게 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게 되자 자연 한국 도자사 연구는 우리 손에 의해 주도되어 오늘에 이른다.

고양시 원흥동의 가마터는 1937년에 위의 노모리에 의해 발견되어 그의 '高麗青磁の研究'라는 책에 실리면서 세상에 정식으로 알려졌으며, 그 이후 우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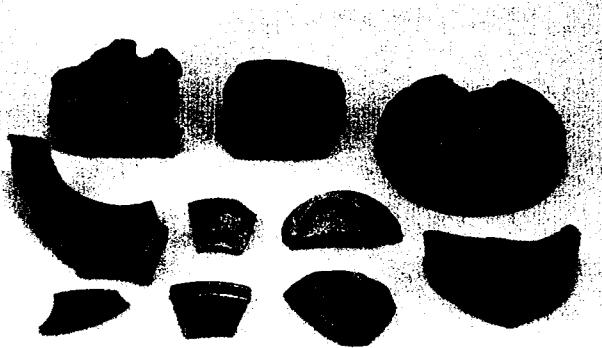
초기 청자가마터 중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손꼽혀져 왔다.

이미 수차례 이야기한 바지만, 중국 당대 월주요 청자의 영향에 힘입어 통일신라 말 내지 고려 초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우리나라 초기 가마터들은 지금까지 서·남해안 일대에서만 10여 곳 발견되고 있는데, 이 원흥리 가마터는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서리 가마터, 충남 보령시 성연면 오사리 가마터,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가마터와 더불어 대규모의 퇴적을 갖춘 가마터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가마터는 건지산의 동쪽 산록에 위치하며 전체 유적의 면적이 약 3,300m<sup>2</sup>에 달하는데, 비교적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다. 현재 4개의 구릉처럼 보이는 거대한 퇴적더미는 대량의 갑발과 소량의 자기 편 및 가마 폐기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동-북서 방향으로 놓여져 있다.

아직 발굴조사를 하지 않아 정확한 양상을 알 수 없으나 지표조사에 의해 채집된 출토품으로 대체적인 성격은 파악되고 있다. 갑발은 이 시기의 일반적인 원통형 갑발과 초기의 특징적인 납작한 갑발 받침대가 있으며, 자기 파편은 거의 문양이 없는 청자편으로 짙은 암녹색이나 황갈색을 띤다. 기형은 원류가 대부분이고 간혹 항아리나 주전자편이 보인다.

이중 청자원류는 중국 당대의 모습이 많이 반영되어 굽바닥의 폭이 약간 넓고 내저원각(內底圓刻)이 없으며, 내화토 받침으로 포개 구운 것이 많다. 이런 양상은 용인시 서리 가마터의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최고식(最古式)의 청자로 '선해무리굽완'으로 명명된 것과 동일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퇴적에서 장방형의 벽돌이 나타나고 있어 이곳에서도 벽돌로 만든 가마를 운영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역시 용인시 서리 가마나 시흥시 방산동 가마와 비슷한 시기에 이곳에서도 월주요 지방의 등요식(登窯式) 벽돌가마의 영향을 받은 가마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출토片

## 4. 인천시 경서동 녹청자 가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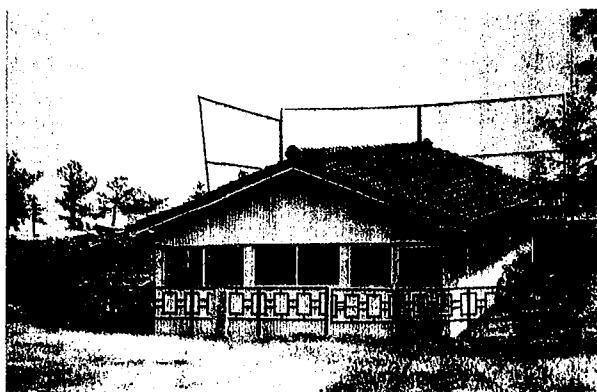
인천의 경서동 가마터는 경기도 일대의 초기 청자 가마터들과 지역적인 연관을 가지면서도 성격이 많이 다른 소위 ‘녹청자’를 생산하였던 가마터이다. 이 가마터는 우리나라 도자사학자들이 1960년대에 들어 가마터에 대한 학술조사를 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 발굴된 것으로, 몇 가지 이유로 우리 도자사 연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경서동 가마터는 발굴 결과, 그 이전의 일제 때 조사된 청자가마터와는 매우 다른 특이한 가마구조와 자기들이 출토되어 그 성격과 시기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였다. 우선 그릇의 모양이나 유약의 상태가 기존의 청자와 상당히 다르고, 그렇다고 분청사기도 아니어서, 이런 부류의 청자를 일단 ‘녹청자’라고 부르기로 정하였다. 그리고 시기 문제는 처음에는 이들이 고려청자의 쇠퇴기에 지방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아 말기 청자로 생각하였지만, 이후 기형이나 유약이 오히려 통일신라 토기에서 청자로 변해가는 과도기적인 산물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 우리나라 자기 발생의 최초 종류로 자리매김되었다. 그러나 다시 도자사 연구가 진전되면서 새로운 자료들이 나타나자, 녹청자가 우리나라 최초의 자기는 아니고 청자가 발생한 이후 일부 지방에서 고급 청자를 본떠 만든 조질(粗質) 청자류로 재평가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분명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

여하튼 이 경서동 가마터도 1960년대에 조사되면서 일찍부터 우리나라 자기 발생의 문제와 직결되어 그 중요성이 거론되어 오면서 사적 제211호로 지정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

### (1) 가마터의 개요

가마터가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경서동 산 146번지 일대는 완만한 경사가 바다로 이어지는 낮은 구릉지대로 여기에 5~6개소로 추정되는 녹청자요지가 있다. 이중 한 곳이 1965년과 1966년에 4차례에 걸쳐 인천시립박물관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지도로 발굴조사되었으며, 1990년에 보고서가 나왔다. 현재 발굴조사시 누출된 가마유구 부분



보호각 전경

은 보호각을 지어 보존하고 있지만, 나머지 이 일대는 골프장으로 변해 있다.

발굴 당시 가마 1기가 조사되었고, 퇴적층에서 많은 녹청자편과 요도구들이 출토되었지만, 갑발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가마는 구릉을 타고 서남향으로 축조된 진흙가마이나 아궁이 입구부분과 굴뚝 부분은 파괴



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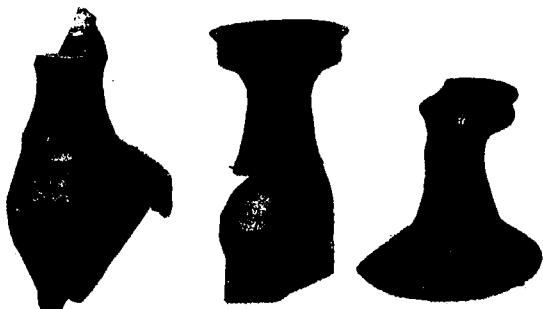
되어 없어진 상태로 나타났으며, 좌우에 가마 벽체 일부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벽체에서 출입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가마벽체가 조금 남아 있어 그 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출입구가 발굴 전에 이미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가마 바닥 면을 조사한 결과 원래 가마 위에 2차례에 걸쳐 개보수(改補修)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즉 최초의 가마는 경사가 급하고 길이가 짧았으며, 개보수를 하면서 점차 가마의 경사가 완만해지고 길이는 조금씩 길어졌지만, 가마의 폭은 그대로 유지되었음이 밝혀졌다. 재미난 것은 원래의 가마바닥에는 모래를 깔고 도자미로 수평을 조절하고 불을 떴을 것이지만, 개보수시에는 그 위에 고운 진흙을 깔고 다시 그 위에 부정형의 얇은 판석을 깔고 그 위에 고운 진흙을 약간 덮어 바닥을 만들고 이 바닥 위에 역시 모래를 깔았다. 마지막에는 모래바닥 위에 다시 진흙을 다져 깔고 그 위에 모래바닥을 만들었다.

마지막에 사용된 가마의 폭은 아궁이 부분이 105cm, 소성실 부분이 120cm이고 잔존길이는 7.3m였다. 가마는 경사도가  $20^{\circ}$  내외인 단실요(單室窯)로, 바닥에 모래를 깔고 그 위에 역시  $20^{\circ}$  가량으로 경사진 넓적한 도자미를 깔고 그 위에 그릇을 놓고 번조하였음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경사진 도자미를 놓고 도자기를 굽는 방법은, 초기 청자가마터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방법인 갑발을 이용해 정성스레 굽는 방법과는 매우 다른데, 역시 질이 좋지 않은 청자를 막 굽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가마의 구조는 다른 초기청자 가마와 같이 기본적으로 환원번조에 유리한 오름가마임은 분명하다.

## (2) 출토유물과 연대

경서동요지 출토품들은 현재 학계에서 ‘녹청자’라 부르는 종류가 대부분이며, 흑우자기와 토기편



출토片

도 소량 보인다.

그런데 경서동 출토의 청자류를 녹청자라 부르는 것은, 이들이 일종의 조질의 청자임에는 틀림없으나, 다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질이 좋지 않은 청자들과는 여러 점에서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굳이 녹청자라 이름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조질청자는 대체로 태토나 성형이 다소 거친 편이나 기본적인

유약이나 그릇 두께 등은 같아서 일견하여 청자임이 분명하지만, 녹청자의 경우는 태토에 모래 등 잡물이 섞이고 기벽은 대체로 청자보다 얇고 가벼우며 기형도 토기같이 생긴 것이 많다. 특히 유약을 굽언저리에는 씌우지 않았고 유총도 얇으며 유색은 갈색에 가깝거나 어두운 녹색을 띠고 불투명하여 광택도 없는데, 무엇보다도 유약이 완전히 녹지 않고 표면에 자잘한 반점(斑點) 모양으로 뭉쳐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치 토기 위에 잣물을 뒤집어 씌워 대충 구운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주어, 오랫동안 녹청자가 기술적으로 토기와 청자의 과도기적 단계의 산불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어쨌든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청자와는 다른 점이 많은 것은 분명하여, 우리나라 청자의 초기단계에 또 다른 종류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이 녹청자라 할 수 있다.

경서동 가마터에서 발견된 녹청자의 그릇 종류에는 일상생활 용기인 대접·완·접시류가 대부분이나 자배기·반구장경병·뚜껑·항아리 등도 보이는데, 항아리의 종류가 16종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것이 주목된다.

그릇의 형태상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이들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통일신라시대의 토기류들과 일정한 연결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토기의 전통을 보이는 조형적인 특징은 초기에 생산된 양질의 청자들과는 이질적인 것으로 녹청자 발생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즉 우리나라의 서해안 일대에서 청자나 백자 같은 고급의 사기가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토기의 시대에서 자기의 시대로 이행되어가자, 그때까지 토기를 사용하던 일부 지역에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초기 청자가 마의 기술을 배워 순전히 지방 일반인의 수요를 위해 청자와 닮은 자기를 생산한 것이 바로 녹청자라는 것이다. 이들 녹청자의 존재는 경서동 발굴로 인해 실체가 드러났지만, 이후 1980년대에 들어 전남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 일대에서 대규모의 녹청자를 생산한 가마터가 발견되면서 세인의 주목을 끌

게 되었고 이후 완도 어두리 앞바다에서 인양된 고려시대 침몰선에서 대량의 녹청자가 출토되었고 이어서 이들이 진산리 가마의 생산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 경서동 가마터의 활동시기에 관해서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아직도 9~11세기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발굴보고서를 쓴 국립중앙박물관측은 이곳 경서동 요지의 활동연대를 9세기 후반~10세기 중엽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본 가마터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말발굽형의 경사진 도지미의 존재로, 중국의 북방계 청자가마들에서 이와 유사한 도지미가 사용되어 주목됨과 아울러 녹청자가 환원번조임에도 불구하고 녹갈색이나 암녹색을 띠고 있는 것도 중국 북방청자의 특징적인 유색과 일견 유사한 점 등이 있어, 우리나라 초기 청자의 전개과정에 중국의 남방계 청자뿐 아니라 북방계 청자의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 볼 문제로 생각된다.

## 5. 황해남도 봉천군 원산리 청자가마터

원산리 가마터는 지금은 휴전선 너머의 개성 부근에 위치하고 있지만, 예전엔 분명 경기도 땅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자기의 발생시기에 해당되는 가마터들인 경기도 지역의 용인시 서리, 시흥시 방산동, 고양시 원흥동, 양주군 부곡동 등의 가마터와 함께 서해안 중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1989년에 북한의 사회과학연구원 고고학연구소에 의해 정식으로 발굴조사된 결과를 보면 이 가마터의 전반적인 성격이 위에 열거한 경기도 지역의 가마터와 거의 비슷하여 서로 간의 영향관계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 이 가마터에서 순화 3년(992년)이란 명확한 연대가 새겨진 청자들이 출토되어 초기 청자의 편년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원산리 가마터는 경기도 도자문화권에 편입시킴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가마





가마 개축상태

### (1) 가마터의 개요

원산리 가마터는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에서 서북으로 약 20km 떨어진 황해남도 봉천군 원산리의, 예성강 중류 서쪽 강가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가마터는 낮은 산에서 동쪽으로 뻗은 산기슭에 자리하고 전체 면적은 약 6000m<sup>2</sup>에 달하며, 모두 4 기의 가마가 발굴되었다. 가마터에는 이 시기의 다른 예들과 마찬가지

로 갑발을 주로 한 요도구와 자기편들이 두껍게 퇴적을 이루고 있다 한다.

발굴 결과 드러난 4기의 가마는 1~4호 가마로 명명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대표적인 1, 2호 가마는 현재 보호각을 지어 발굴된 상태대로 보존하고 있다. 1, 2호 가마는 3m 정도의 간격으로 붙어 있으나, 3호와 4호는 이들에서 23m나 떨어져 다시 28m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으며, 1호 가마 근처에서 작업장과 관리동으로 추정되는 건물지도 발견되었다.

가마의 구조를 보면, 1호요는 통일신라시대 토기가마와 비슷한 토굴가마로 추정되나 나머지는 모두 벽돌로 축조하였다. 이중 가장 주목되는 가마는 2호 가마이다.

2호 가마는 벽돌로 지상에 구축되어 있으며 4기 가운데 가장 크고 상태도 잘 남아 있는 편이다. 이 가마는 크게 3차에 걸친 대대적인 보수가 이루어져 벽의 단면을 보면 개축과정이 뚜렷이 드러나 보이는데, 처음 만든 것을 1차로 하면 총 4차의 가마로 나눠질 수 있다.

2호의 제1차 가마 즉 원래의 가마는 길이가 38.9m에 폭이 1.9m의 크기지만, 2차 가마부터는 보수 할 때 벽돌을 안으로 잇대어 쌓았기 때문에 폭이 좁아 들면서 길이는 점차 축소되어 마지막 4차 가마는 길이가 22.1m, 폭은 0.91m로 작아졌다. 가마는 아궁이 부분, 소성실, 굴뚝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마벽면 한쪽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출입구가 나 있는데, 1차 가마에는 6곳이 있으나 2차 가마부터는 벽 길이가 줄어들면서 출입구도 4곳에 있다. 이 2호 가마에서 최종으로 사용된 제4차 가마의 내부 바닥 면에는 발굴 당시 짧은 다리가 붙은 원반형의 받침대 위에 원통형의 갑발이 엎어진 상태로 남아 있어, 이 가마의 폐요 직전에 어떤 식으로 그릇을 재이고 구웠는지의 상황을 잘 보여 준다.

## (2) 출토유물과 연대

원산리 가마에서는 주로 청자를 생산하였으며 일부 토기와 흑유자기들이 있다. 청자의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색조에서는 황색 기운이 많은 회청색과 갈색을 띤 회청색이 주류를 이루며 깨끗한 청색을 보이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태토는 곱고 회색을 띠며, 유약은 전면에 얇게 씌워졌고 잘 녹아서 빙열이 거의 없다. 문양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가마터에서 생산된 청자그릇의 종류는 완과 발이 대부분이면서 역시 청자 발생기의 특징적인 소위 ‘선해무리굽완’과 ‘해무리굽완’이 주류를 이룬다. 가장 중심되는 2호 가마의 출토품을 최후에 운영된 4차 가마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2호-4차 가마

원산리 가마터가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 4차 가마에서 출토된 ‘순화’ 명이 새겨져 있는 고배(高杯) 모양의 청자들 때문이다. 즉 순화 3년(992년), 순화 4년(993년)이라는 명확한 연대가 있고, 이 그릇들이 역대 제왕에게 제사를 올리는 태묘(太廟)에 사용된 것이며, 누가 만들었다는 인명(人名)까지 들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다음 항에서 따로 다루겠다.

4차 가마에서 발견된 그릇 종류로는 발·완 외에 잔·탁·병·주전자·뚜껑·항아리 등이 있으며, 흑유자기의 잔 파편도 보인다.

### ■ 2호-3차 가마

발·완 외에 접시·탁 등이 출토되었다. 발은 구연부가 약간 외반하면서 안이 깊숙하고 녹청색을 띠며, 탁은 접시형으로 몸체에 단이 달려 있다. 이중 접시에는 입술을 10판으로 만든 화형접시들이 있는데, 이 종류의 청자접시는 949년에 몰한 고려 3대 정종(正宗)의 안릉(安陵)에서 출토한 것과 모양이나 유약 상태가 비슷하여 3차 가마의 연대추정 근거로 삼고 있다.

2호-2차가마는 출토유물이 극히 적은지 보고서에 언급이 없다.



발·완(출토품)

## ■ 2호-1차 가마



주전자·뚜껑(출토품)

원산리 가마터의 벽돌가마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되는 것들로, 발·완·접 시류가 많으며, 이외 잔·탁·뚜껑·합·주전자·병 등의 종류가 출토되었다. 질적으로는 다른 가마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완류에 소위 '선해무리굽완'과 '해무리굽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1차 가마의 출토품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화형접시이다. 앞서 3차 가마에서 출토된 꽃접시는 구연의 끝 부분만을 파서 꽃 모양으로 만들었지만, 이 시기의 화형접시는 몸체를 돌아가며 약간 넓은 폭을 가진 직선적인 도구로 밖에서 강하게 눌러 그릇 전체를 10판이나 9판의 화형으로 만든 특징적인 모양의 접시이다. 이 접시는 화형접시 계통에서는 초기에만 보이는 종류로 용인 서리 2기층과 시흥 방산동 가마에서도 똑같은 화형접시가 다량 출토된 바 있어, 우리나라 자기의 탄생시기에 만들어진 또 하나의 특징적인 그릇으로 인정되고 있다.

원산리 가마터의 연대에 관한 문제는 일단 북한측 연구자들의 견해를 소개하는 수준으로 끝낼까 한다. 북한 학자들은 4차 가마에서 출토한 순화명 청자들의 존재와, 3차 가마의 청자와 안릉 출토품의 유사성을 연대추정의 주요 근거로 하여, 거기에서 4차와 3차 가마의 연대차를 적어도 40~50년으로 잡고, 다시 3차와 2차, 2차와 1차 가마 사이의 연대차도 같은 정도로 두어, 결국 2호 가마의 시작 시기를 9세기 무렵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원산리 가마 가운데 벽돌가마는 9세기부터 시작되었고 끝 나는 것은 10세기 말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2호 가마보다 층위 상으로 이른 가마인 1호 가마에서는 토기와 청자들이 출토되어 토기와 함께 청자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는데, 북한측 학자들은 이 그릇들의 형태적인 특징을 비교 검토하고 목탄을 이용한 탄소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에 의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1호 가마의 시작 시기를 6~7세기 즉 고구려 후기 무렵부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청자의 발생이 고구려 후기부터라는 말이 되는데 현재의 연구성과로 보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주장이다.

### (3) '순화명' 청자에 대한 검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원산리 가마에서 '순화' 명이 있는 제기들이 16점 가량 발견되었다. 이 제기들은 일종의 고배인데, 윗면은 납작한 접시 모양을 하고 가운데에 속이 비어 있는 길다란 다리가 있으며, 그 아래에는 넓게 펴진 받침대가 달린 모양을 하고 있다. 높이는 25.5cm 가량이고 명문은 받침대의 안쪽에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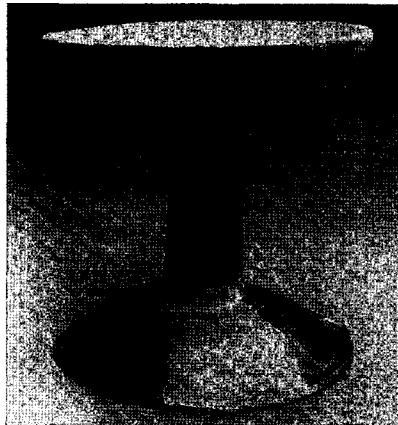
명문은 '순화삼년임진 태묘 제사실향기 장왕공탁조(淳化三年壬辰太廟第四室享器匠王公旣造)'와 같이 제작년 ·

사용장소 · 용도 · 제작자명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이 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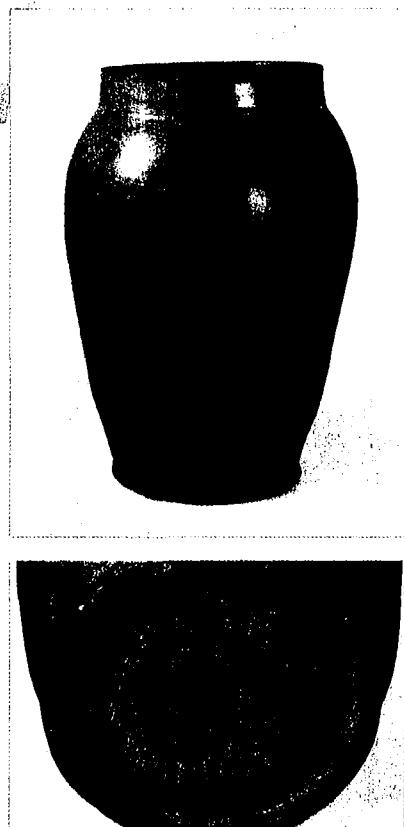
을 풀이하면, 순화 3년(992년) 임진년에 태묘의 제4실에 향기를 장인 왕공탁이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태묘'는 고려의 역대 왕을 제사 지내는 재실로 6대 성종 때에 개성에 건립되었는데, 일차로 성종 11년(순화 3년)에 태조묘가 완성되고 이어 성종 12년에 2대에서 5대의 혜종 · 정종 · 광종 · 경종의 묘실이 세워졌다고 한다. 다음으로 '향기'라는 것은 제사 지낼 때 제물을 차려 받치기 위한 제기라는 말이 분명한 것 같다. 그런데 다음으로 보이는 '장' 이란 말은 '장인' 같은 수공업자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지 아직 해석이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장'을 단순히 장인이라 보면 이 장인들이 왕 · 쇠 · 심 등의 성씨를 사용했다는 말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식 성명을 사용하는 것은 고려 초 무렵부터라 하며, 그것도 일반인이 아닌 일부 귀족층에서만 사용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사기장을 위시한 수공업자들을 말하는 '장인'은 고려 초기에도 농민보다도 신분이 낮은 계층에 속하는 집단인데, 이런 중국식 성씨를 사용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해석이 참으로 곤란한 부분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명문의 종류와 내용을 보면, 제작년에는 '순화 3년(992년)'과 '순화 4년(993년)'이 있으며, 제작자명에는 왕공탁 외에 심기, 심○, 최금환, 최금○, 이름이 확실치 않은 이씨 1인 등 총 6명이 알려져 있다.

한편 원산리 가마에서 출토된 것은 아니지만, 또 하나의 '순화 4년명 항아리'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항아리의 바닥 안쪽에 '순화사년 계사 태묘제일실 향기 장최길회조(淳化四年癸巳太廟第一室享器匠崔吉會造)'라는 음각명이 있다. 일제시대에 골동상점에서 우연히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졌고 노모리의 책에 실리게 되면서 최고(最古)의 기념명을 가진 청자로 오랫동안 인구에



순화명 제기



순화 4년명 항아리

회자되어 온 유명한 작품이다. 수만 점에 달하는 고려청자에는 연대를 알 수 있는 기념명 있는 청자가 매우 드문데, 이와 같이 만든 해, 사용 장소, 만든 사람 등이 명확하게 표현된 명문이 있는 것은 이것이 거의 유일한 예에 속할 정도로 획기적인 것이어서 심지어 날조된 것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하지만 이제는 이 작품이 바로 원산리 가마에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한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이 항아리는 다른 청자에 비해 형태나 태토, 유색 등에서 질이 떨어지는데, 이를 두고 그 동안 이 항아리가 만들어진 993년 무렵에는 왕을 제사 지내는 태묘용의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고려 청자의 발생이 10세기 후반이 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어 왔다. 또한 태토나 유약의 상태가 완전한 청자분위기를 보이지 않아 백자일 가능성도 제기되어 왔다. 어쨌든 이 순화명 항아리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지만, 원산리 가마터의 발굴조사 결과로 많은 것이 분명해진 것도 이 가마의 중요성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6.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 청자가마터

이 가마터는 1980년대 초반에 알려졌으며 규모는 비교적 소규모이나 채집되는 자기편들이 우리나라 청자 발생기의 여러 가마터 가운데 중에도 중국과의 유사성이 특히 강한 면모를 보여 상당히 주목을 받아온 유적이다.

부곡리 가마터는 송추 유원지의 맞은편 북쪽, 백석면으로 가는 도중의 은행세이라는 마을에 위치한다. 이 일대는 홍복산 자락으로 이 산에서 발원하는 곡릉천이 고양시와 파주시를 지나 한강으로 유입되어 이것이 다시 임진강과 합해져 서해로 흘러 들어가 지리상으로 서해안과 가깝다. 가마터는 두 곳에 있는데 마을 입구에서 동쪽으로 난 산길을 따라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산길이 나면서 많이 훼손된 채 가마터가 일부 남아 있으며, 여기서 다시 50m쯤 올라간 오른편에 소규모의 가마터가 있었는

데 근래에 군부대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상태여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가마터는 크게 훼손되었지만 다행히 관련학자나 기관에서 몇 차례의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채집된 유물들이 전하고 있어 이를 통해 본 가마터의 대체적인 성격은 알려져 있다.



출토片

본 가마터에서 채집되는 자기편들은 모두 청자이며 백자는 없다. 그릇의 종류는 낮은 굽이 달린 완류가 70% 이상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접시가 20% 정도이고, 기타 병·뚜껑·대발 등이 있다. 이외에 약간의 토기편이 채집되며 요도구로는 갑발, 갑발 받침대, 고리형 그릇받침 등이 보이며, 가마벽을 만들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벽돌이 발견된다.

특히 벽돌의 존재는 이곳 부곡리 가마가 벽돌가마를 운용하였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 벽돌가마의 존재로 보아 부곡리 가마는 앞서 소개한 대로 용인시 서리 가마터의 초기 상황, 시흥 방산동, 북한의 원산리 가마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우리나라 청자 발생기에 해당하는 가마임을 밝혀 주는 중요한 근거 자료이기도 하다.

여기서 발견되는 청자편들은 그릇의 모양이나 굽는 방법 등이 경기도 일대에 분포한 이 시기 가마터의 것들과 대체로 유사하나 전체적으로 만듦새가 단정하고 치밀한 느낌을 준다.

청자들의 태토는 회백색으로 매우 곱고 치밀하며 유약은 얕게 씌워졌는데 유가 약간 뭉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광택이 없이 크림색이 나거나 토기 같은 느낌을 주는 것도 보인다. 유색은 연녹색·갈색·청회색 등 다양한 편이나 이중 연녹색 계통의 청자편들이 중국의 월주요 것과 매우 비슷하고 질이 좋다.

그릇 중에 완 종류는 낮은 굽에 기벽이 직사형인 당대 완류의 특징을 보이는 것이 대표적인데 바닥의 접지면이 좁고 안바닥에 원각이 없는 소위 선해무리굽 계통의 완들이다. 접시는 대부분이 안굽 또는 굽 없이 바닥이 편평한 평저(平底)의 것이 많고 오히려 굽 달린 접시는 소수인 것이 다른 가마터와는 다른 점이다.

요도구들은 원통형 갑발과 납작한 갑발 받침대 외에 그릇에 받치는 둥글게 빛은 개떡 형태의 받침대와 둥근 고리 모양의 받침도 보인다. 특히 고리받침은 갑발에 붙어서 나오는데 중국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특별히 좋은 제품을 구울 때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굽는 수법을 보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갑발 안에 2, 3개식 겹쳐서 번조한 듯하며 바닥 면에 받친 내화토 받침의 주위가 붉게 변색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의 당대 월주요 청자에서 흔히 보는 현상이어서 주목된다.

부곡리 청자 가마터의 전체적인 양상은 용인시 이동면 서리 가마터의 최하층의 출토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청자편의 상태는 물론이고 갑발 등의 요도구도 거의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청자의 기형이나 유색, 구운 상태 등이 중국 것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여, 비록 규모가 작고 지금은 거의 파괴된 상태지만, 우리나라 자기 발생기의 여러 가마 중에서도 보다 이른 시기에 운영된 가마로 추정된다.

## 7.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고려백자가마터

이 가마터는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가 1999년 3월과 4월에 실시한 여주군의 도요지 지표조사에서 발견된 가장 최근에 알려진 고려백자가마터이다. 조사자들의 짧막한 보고문에 의하면 앞서 살펴 본 용인시 서리 소재의 고려백자가마터와 거의 유사한 성격의 가마터로 생각되어 우리나라 자기의 발생과 고려백자의 발전과정을 연구하는 데 또 하나의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암리에는 군도(郡道) 9호선을 따라 흐르는 완장천변에 모두 5기의 가마가 있는데 이중 2호와 5호 가마가 고려시대 가마터이다. 이중 5호 가마는 해발 130m의 낮은 산의 남서향의 경사면에 위치하는데, 현재 이곳에는 그릇을 구울 때 사용된 갑발이 무수히 쌓여 15m×15m의 넓이에 높이가 2.5m 정도 크기의 둑덕을 이루고 있다. 비록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갑발 퇴적층의 존재가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초기 가마터의 현상과 동일하다. 또한 여기서 발견되는 그릇의 종류도 경기도 일대의 다른 초기 가마터에서 출토되는 것과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해무리굽완, 화형접시, 내만(內巒)접시, 작은 항아리, 항아리 뚜껑, 대형의 그릇파편 등 다양하게 보인다. 앞서 살펴 본 바대로 초기 가마터의 특징적인 해무리굽완과 화형접시의 존재가 여기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 가마에서는 갑발 하나에 그릇을 하나씩 넣고 구운 갑번(匣燔)으로 된 것이 대부분이나 일부 포개어 구운 경우도 보인다. 태토는 경질로 비교적 정선되었으며 유색은 녹색이 비낀 조질도 있으나 안정된 것도 있다. 대개 문양이 없으나 윤곽만을 음각한 연판문이 발견된다. 특히 퇴적층에는 가마를 축조할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벽돌이 발견되어 이 가마에서도 벽돌가마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중암리 5호 가마에서 확인되는 모든 상황들이 경기도 일대에 존재하는 초기 가마터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어 우리 나라 자기 발생시기에 운영된 또 하나의 중요한 유적을 얻게 된 셈이다.

2호 가마는 11세기의 고려백자를 생산한 가마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서 수집된 백자류에는 내저원 각이 있는 대접들이 있으며, 바닥의 3, 4곳에 사화토(沙火土)가 섞인 가는 모래비침눈을 받쳐 번조하였으며 바깥의 밑동 근처에는 유약이 발리지 않고 태토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유약은 옅은 갈색이 감돌며 빙열이 가득하다.

### III. 고려시대 중·후기의 가마터

#### 1. 안양시 비산동 가마터

이 가마터는 안양시 비산동 산 3-1번지인 관악산 남쪽 산록의 서울대학교 수목원 내에 위치하며, 경기도 기념물 제124호로 지정되어 있다. 안양유원지를 지나 수목원에서 산 정상을 향해 500여m 가량 올라가다 보면 산길의 오른편 낮은 구릉에 자기편과 가마백편들이 지표면에 널려 있다. 1987년 10월에 발견되어 학계에 알려졌지만, 아직 정확한 발굴조사를 거치지 않아 자세한 규모와 생산 내용, 시대 등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표조사 결과 3, 4개의 가마터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대체로 11~14세기에 활동한 고려시대 도자기와 관련된 가마이나 일부 17세기 조선 중기의 백자를 생산했던 가마의 흔적도 남아 있다.

이 비산동 가마터에서 수습된 고려시대의 도자기 파편들을 분석해 볼 때, 이 지역에서 가마가 활동한 시기는 크게 11세기, 12세기에 해당하는 부분과 14세기의 고려 말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도자기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한 편으로, 11~12세기의 고려 청자는 물론 백자류와 조잡한 질의 철채도기 및 흑유자기편도 있으며, 14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와 백자편들이 보인다. 이중 특히 11~12세기의 백자와 14세기의 고려백자들은 우리나라의 가마터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도자사 연구의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들이다. 이들 고려 중기와 말기에 생산된 백자의 존재는 아직까지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조선시대 백자의 성립문제에 대한 커다란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도자기의 내용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본 가마터가 차지하는 도자사적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1) 비산동 가마터의 도자기들

### ① 11~12세기의 도자기

#### ■ 청자류

본 가마터에서 수습된 청자편 가운데 11~12세기의 특징을 보이는 일군의 청자들이 있다. 이들 청자류는 이 시기 지방청자들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보이는데, 거친 모래와 내화토받침을 받쳐 번조하였으며, 대체로 암녹색이 약간 비끼고 녹색이 짙은 편이며 유약 표면에 그물 같은 빙열이 나 있고 굽의 주변에 유약을 칠하지 않은 상태의 질이 좋지 않은 조질의 청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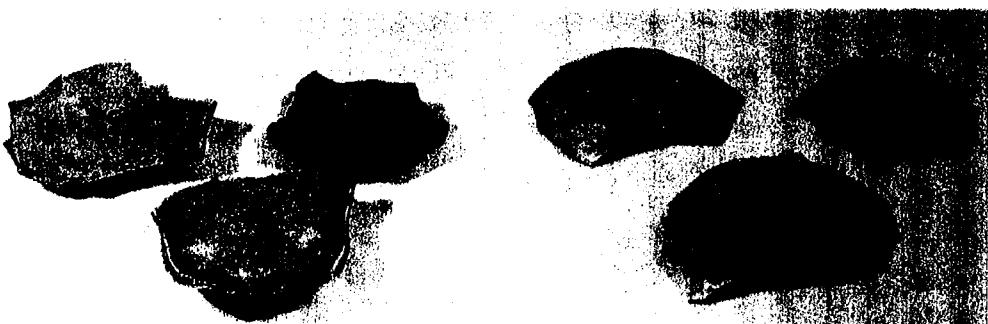
발견되는 기종으로는 어깨에서 한번 꺾이어 구연부에 이르면서 안쪽의 입술 아래에 한 줄의 음각선이 돌아가 있는 전형적인 11세기의 특징을 갖춘 대접들이 많은데, 이 중에는 초기의 해무리굽이 퇴화된 듯한 고식(古式)의 여운이 남아 있는 굽이 달린 것도 있어 주목된다.

대접류에는 거의 문양이 없으나 접시류에는 이 시기의 특징적인 양인각(陽印刻)의 당초문이 베풀어진 예가 발견되며, 낮은 굽과 낮은 굽을 가진 절요형(切腰形)의 접시들도 있다. 대접과 접시가 대부분 이지만 주전자에 사용된 뚜껑도 채집된 바 있다.

#### ■ 백자류

본 가마터에서는 11~12세기로 추정되는 고려백자류가 발견되어 크게 주목을 끈다. 태토가 아주 연질이면서 입자가 굵고 회백색을 보이며 그릇 두께는 대체로 얇은 편인데, 옅은 난백색(卵白色)의 유약이 얕게 씌워져 있고 미세한 빙열이 퍼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릇의 종류로는 대접·접시·방구리 등이 발견되었다.

굽은 낮은 대마디 모양의 다리굽·낮은 평저굽·평저·안다리굽·해무리굽 등이 발견되는데, 특



11~12세기 백자 대접

히 초기의 해무리굽이 1편 발견되어 본 가마터에서 11세기 이전 혹은 늦어도 11세기 초부터는 백자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있다. 가는 모래받침을 받치고 모두 포개어 구웠으며, 받침으로 사용된 백토로 보아 불심이 매우 강한 백토를 태토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고온에서도 잘 녹지 않아 백자가 대체로 연질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백자 대접류에는 고려식의 내저원각과 안쪽 입술 바로 아래에 한 줄의 굵은 음각선이 돌아가 있어 11세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인천 경서동의 녹청자 가마터에서 발굴된 것과 유사한 모양의 접시와 방구리편도 보이고 있는데, 이들 백자류는 우리나라에서 용인시 이동면 서리 가마터에 이어 두 번째로 발견되는 고려백자로 중요한 학술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 ■ 철채도기와 흑유도기

이들 철채도기와 흑유도기는 11~12세기의 청자들과 함께 출토된 관계로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철채도기는 태토에 다량의 철분이 포함되어 짙은 흑색을 띠고 있으며, 역시 철분 함유량이 10%가 넘는 유약을 전면에 얇게 시유하였다. 기형은 거의가 작은 바래기 형태의 접시들로 평저에 태토비침 받침이나 거친 모래와 내화토를 섞은 비침눈을 받쳐 구웠는데, 인천 경서동 가마 출토의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흑유도기 파편도 수점 있는데, 왼과 대형용기의 편들이고 유약은 녹색이 약간 비끼 갈색이나 어두운 갈색을 보이며, 바깥의 밑동에는 유약을 입하지 않고 모래와 내화토를 섞은 비침눈을 받쳐 번조하였다.

## ② 14세기의 도자기들

### ■ 청자류

고려청자의 전성기가 지나고 퇴조기의 양상을 보이는 14세기 청자류들이 이곳에서 다양 발견되고 있다.

기벽이 매우 두껍고 유약의 색깔이 환원변조 위주이긴 하나 환원이 잘 안되어 갈색을 머금은 것이 많으며, 굽은 대체로 대마디 모양의 죽절굽이며 굵은 모래받침을 받쳐 구운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이 문양이 없으나 간혹 상감문양이 있는 것이 몇 편 보이며, 기형은 대접, 접시류가 대부분이나 항아리나 주전자 같은 큰 그릇의 파편도 보이고 잔 모양의 것도 있다.

대접류는 바깥 입술 부분의 상단이 안으로 꺾이면서 내반된 곡면을 이룬 것이 많은데 이들은 14세

기 대접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특징이다.

접시류는 상당히 다양하여 다섯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고 각 형식 간에도 굽·구연부형태·내저 음각 등이 모두 다른데, 이것은 그 이전의 어떤 일정한 규범이나 형식이 모두 흐트러져 난맥상을 보이는 증거로 간주된다. 접시류에는 11세기부터 계속된 기형이 있는가 하면, 12세기부터 나타나 14세기에 유행한 꽃전접시류도 있고 13세기부터 나타나는 6각 또는 8각의 각접시들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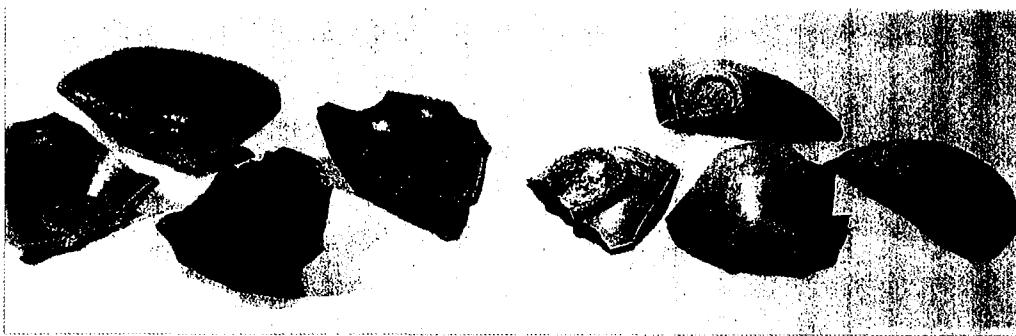
이외 방구리 형태와 커다란 항아리의 밑바닥, 주전자와 꼬아 만든 손잡이의 파편들이 발견되었다.

14세기의 청자류 속에는 상감파편이 몇 점 보이는데, 유약은 밝은 편이며 문양은 여의두문(如意頭文)·당초문·구름문·국화판문 등이 있다. 흑백상감을 한 그릇에 같이하지 않고 따로따로 사용한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상감기법의 14세기 특징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 ■ 백자류

본 가마터의 가장 큰 특징이면서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되는 것이 바로 이들 14세기 고려백자의 존재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다. 이제까지 고려백자의 존재에 대해 초기나 중기의 상황은 다소 밝혀져 있지만, 특히 15세기 조선백자의 성립문제와 직결되는 고려 후기의 백자 양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매우 미미한 현실에서 본 가마터의 발견은 실로 의의가 크다.

본 가마터에서 출토된 14세기 백자류를 보면, 비록 고려 후기 내지 말기의 지방백자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지만 이미 어느 정도 질이 좋은 백자를 생산하였으며 매우 정성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 믿어진다. 수습된 백자편들을 보면 태토나 유약·번조방법·기형과 기종·시문방법 등 모든 제작과정에서 실험적인 수법을 다양하게 구사해 보고 있는데, 어떤 것은 이전의 고려백자 같이 석고와 같은 연질의 것도 있으나 조선백자와 같이 태토가 치밀하고 잘 굽힌 양질의 백자편도 있다.



14세기 백자 대접

백자편은 태토가 전부 흰색이고 유약은 거의 환원이 잘 되어 희거나 약간 담청색을 띠고 있으며, 표면에 커다란 그물 같은 빙열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자잘하고 미세한 빙열이 있는 것도 여러 편 보인다.

대체로 유면에 자질한 빙열이 있고 연질인 것은 전통적인 고려백자 계통의 것이고 경질이면서 커다란 빙열이 있는 것은 원대의 청백자(靑白磁)나 추부계(樞府系) 백자의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어, 14세기 고려백자의 양상을 한눈에 짐작케 한다.

굽은 죽절굽과 비슷하나 대체로 작은 편이며 굽고 흰 모래받침을 받쳐 번조하였는데 이들 굽의 형태와 모래받침은 14세기 다른 청자가마터에서도 보이는 공통된 요소이다. 기형은 역시 대접과 접시류가 대부분이고 방구리·항아리·합뚜껑 등도 보인다.

문양은 음각·양각·퇴화문 들이 있다. 음각문으로는 뇌문(雷文)·연판문·연주문(連珠文)·화문(花文)·약간 굽은 집선모조문(集線毛影文) 등이 있다. 양각은 있긴 하나 문양이 불분명하며, 상감은 줄무늬에 베풀어졌고, 퇴화문으로는 국화판문이 있다. 이들 백자 문양 중 음각의 뇌문·연판문·집선모조문은 처음 발견된 것들이며, 특히 집선모조문은 원대 청백자의 문양과 유사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기형상의 특징을 보면 14세기 청자류와 비슷한 어깨가 꺾여져 완만하게 안으로 오므라든 형태의 대접류가 가장 많으며, 접시류도 4종류나 된다. 안바닥의 가운데에 퇴화로 된 국화판문이 있는 접시편도 있으며, 꽃모양을 한 전접시류도 있고 원대에 새로 나타난 전접시와 유사한 것도 발견되었다.

아주 작은 형태의 바래기에는 내측면에 퇴화로 된 국화판문이 있으며 기타 대형의 수반이나 항아리편, 합뚜껑편도 보이는데, 합뚜껑편은 구연부쪽 것으로 음각의 뇌문대와 연판문이 베풀어져 있고 기형도 새로운 것이어서 주목된다. 고려 후기에 나타나는 6각 또는 8각의 넓은 전과 길다란 발이 달린 대형 향로의 전 부분으로 생각되는 파편도 발견되어, 본 가마터 출토 백자류의 연대추정에 많은 참고가 된다. 상감백자는 1편만 발견되었지만, 이러한 백자의 상감기법이 그대로 조선초기 백자상감으로 이어진다고 믿게 해주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

## (2) 안양시 비산동 가마터의 도자사적 의의

본 가마터는 아직까지 정밀한 학술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전모를 상세히 밝히긴 힘드나, 지표조사에서 수습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바 같이, 단순히 일개 지방의 이름 없는 가마터로 평가하기에는 그 중요성이 참으로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비산동 가마터는 일찍부터 관악산 일대에 형성되었던 각종 가마터 중의 하나이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던 유적으로 생각되며, 특히 인근 지역의 가마터들과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장기간

존속하였던 것으로 믿어진다.

본 가마터의 시작은 대체로 11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되는데, 그 발생에는 시흥시 방산동의 초기청자 가마터와 용인시 서리의 고려백자 가마터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방산동 가마터에서는 우리나라 자기 발생시기의 청자들이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일부 백자도 제작하였음이 발굴 결과 밝혀졌는데, 이곳 비산동 가마터와 지리적으로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특히 비산동 가마에서 극소량이나마 해무리급 형식의 완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방산동 가마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비산동 가마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방산동 가마 → 비산동 가마로의 이동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용인시 서리의 가마터는 9세기 무렵부터 백자를 전문적으로 생산한 가마로 추정되고 있는데, 크게 4단계의 자체적인 변화상을 보이면서 대략 11세기부터는 지방수급용 조질백자를 대량으로 생산하였음이 발굴조사 결과 밝혀졌다. 그런데 이 서리 가마의 최종 시기에 생산된 고려백자류는 질이나 형태·변조수법 등으로 보아 이곳 비산동 가마의 11~12세기 백자류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바, 출토 유물의 성격으로 보아 양자간의 백자류는 분명히 어떤 영향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11세기에 해당되는 고려백자를 생산한 가마터로 알려진 곳은 이 두 곳밖에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양자간의 관련성은 생각 이상으로 깊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비산동 가마의 성립에 용인 서리 가마의 영향이 많았으리라 믿어진다.

비산동 가마는 이렇게 인근의 선행한 가마들의 영향으로 11세기경에 발생하여 12세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이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13세기의 특징을 지닌 도자기류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4세기에 들어 다시 생산활동이 재개되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백자를 생산하는 가마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도자사에서 대체로 12~13세기는 전남 강진과 전북 부안의 2곳의 가마터만이 고려의 중앙집권화에 따라 관요적인 성격을 갖고 집중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14세기 그 것도 후반이 되어서야 상감청자 중심의 지방 청자가마들이 속속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 이곳 비산동 가마도 14세기 들어 다시 가마의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세기에 재개된 비산동 가마에서 고려백자를 구웠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문헌상으로나 학술조사에서도 이 시기에 백자를 구운 가마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비산동 가마터가 최초의 예가 되어, 따라서 학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도자사학계의 연구로는 조선백자의 성립이 분명 고려백자의 전통과 중국의 새로운 원말명초(元末明初) 백자기술의 유입이라는 두 가지 동인(動因)이 합하여져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으나, 사실 중국 도자기술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고려백자의 존재가 거의 밝혀진 바가 없어 답답하기 짜이 없었다. 이런 현실에서 비산동 가

마터의 발견은 바로 고려 도자기와 조선백자를 연결시켜주는 극히 중요한 고리를 찾은 셈이 된다.

현재까지의 조사로서는 본 비산동 가마가 조선시대 초기까지 계속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아직 고려 말기의 백자생산 상황이나 조선 초기백자, 특히 지방백자의 성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관계로 혹시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할 경우 본 가마터에서 조선초기의 백자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버릴 수 없다. 또 문현상 보이는 ‘세종실록’ 지리지의 과천현 가좌동요의 위치가 불명인 지금 가좌동요가 비산동 가마일 가능성도 있어 차후의 조사가 더욱 기다려진다.

그러나 어쨌든 ‘세종실록’ 지리지의 자기소·도기소들이 조선시대에 들어 갑자기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그 중의 많은 가마들이 고려 말 아래 계속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설령 비산동 가마가 문현상의 가좌동요는 아니라 하여도 분명 고려 때부터 계속된 비산동 가마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정이 된다.

이 비산동 고려후기 백자 생산가마는 또한 인근의 군포시 산본동 소재의 조선전기 백자가마의 성립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수리산 아래에 위치한 산본동 백자가마는 조선초기에 판악산 남쪽의 과천현 일대에 백자를 공급하던 지방가마임이 분명한데, 이 인근에 일찍부터 백자가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백자가마가 생겨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이 비산동 가마터는 이 일대에서 발견된 가마터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활동 기간이 길었던 관계로 주변의 요업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되며, 나아가 지방적 가마의 위치를 넘어서 한국도자사의 발전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던 가마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2. 기타 고려 가마터

가마터는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지금도 꾸준히 발견되어 조사되고 있지만, 고려시대 청자 등의 가마터가 새로 발견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편이다. 최근에 용인지역에서 실시한 가마터 조사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가마터를 잠깐 소개하기로 한다.

### ■ 용인지역 보정리 가마터

이 가마터는 고려 전기인 11세기 무렵에 청자와 백자를 구웠던 가마로 추정되는 유적이다. 비록 소규모이고 퇴적 상태도 시원치 않아 채집된 자료가 많지 않지만, 경기도 내에 이 시기에 활동한 가마의 존재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상태여서 존재의 확인만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귀중한 유적이다.

가마터는 보정리 독정마을 뒤편의 야산 낮은 구릉에 위치하는데, 그 곁에 단국대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있으며 오솔길 가와 아카시아 나무가 심어진 곳의 지표에 자기편과 가마 벽편들이 소량 흩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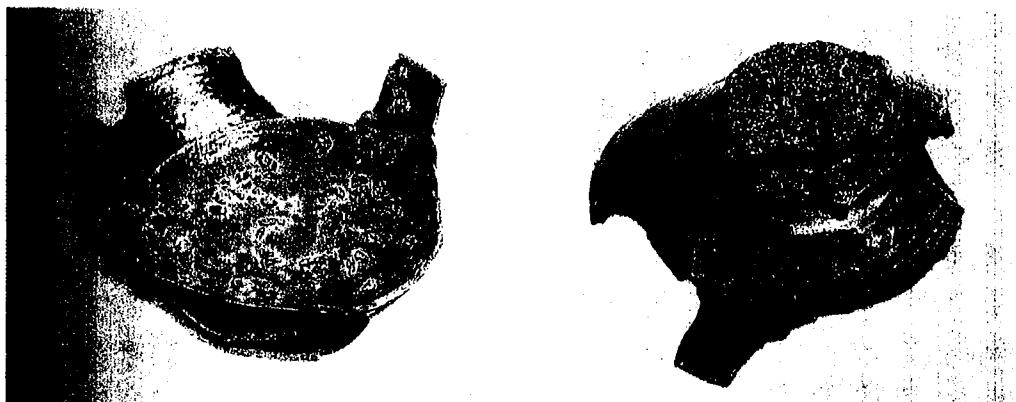
백자류는 대접·완·접시류가 있는데, 대접은 기벽이 완만한 호(弧)를 그리며 안쪽 면의 구연부 쪽에 한 줄의 음각 횡선이 돌려진 것이 특징이다. 완은 굽이 낮고 깎음새가 거칠며 4곳에 내화토 비침을 하고 번조하였다. 접시류는 기벽이 사선을 이루다가 밑동에서 꺾이면서 굽에 이어지는 형태로 안바닥이 넓고 편평한데, 이 안바닥에 모란당초문이 압인(壓印) 양각으로 베풀어져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 같은 양각문은 대접의 안쪽 구연부 아래의 음각횡선장식과 더불어 11세기 고려자기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요소로 알려져 있다.

청자류는 완과 항아리 파편들이 보이는데, 회색의 태토에 광택이 있고 비교적 투명한 암녹색의 유약을 씌웠다. 태토는 미세한 사립들이 섞여 다소 거친 조질의 것으로 지방가마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가마 벽은 마사토질의 내화재료로 만들어졌으며 대부분 회흑색을 띠고 있으며, 흙을 몇 겹으로 덧붙여 사용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이 보정리 가마터는 전반적인 특징이 인근에 위치한 용인시 서리 가마터의 최종 시기의 것과 연결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즉 백자의 질이나 굽는 방법 등은 서리 가마의 최종 시기 것과 상당히 유사하며, 한편 접시류 등에 베풀어진 압인 양각된 문양은 서리가마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새로운 요소이다. 이로 보아 이 보정리 가마터는 용인 서리 가마터가 폐요된 직후에 이의 전통을 이어받아 생산활동을 한 가마로 추정된다.

이외에 용인시 호동 길업마을의 계곡에서 고려 초기의 도기 가마터로 추정되는 곳이 발견되었다.



보정리 가마출토 인양각 청자편

이곳에서는 도기로 만들어진 광구병과 항아리류가 파편들이 가마 벽편들과 함께 지표에서 채집되는 데, 간혹 흑유편으로 보이는 파편들도 수습된다. 광구병의 형태나 항아리에 베풀어진 격자문·사격자문·파상선문·도식화된 초문 등은 고려적인 특징을 보이는 것들이다.

또한 수지읍 죽전리의 중명아파트 남쪽에 조성된 단국대 진입로 곁의 야산 구릉 일대에서 다량의 도기편들이 발견, 조사되었다. 항아리가 많고 병과 시루 등도 보이는데, 형태나 도기의 상태로 보아 대체로 11세기 무렵에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고려시대의 도기 가마터들은 사실 아직까지 학계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여 발견되는 예가 극히 적지만, 고려시대에는 일상생활에 이런 도기들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고려시대 도기들이 상당량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고려도기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활발히 진행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 도기 가마터의 존재들도 일단은 소중히 보존되어야 할 유산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 조선시대 분청사기와 경기도

### I. 고려청자의 잔영 (殘影), 분청사기

#### 1. 분청사기 개요

분청사기는 쇠퇴한 고려청자의 전통을 바탕으로 고려 말에 등장하여 조선 전기 200여 년 동안 만 들어지다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 버린 매우 독특한 부류의 자기이다. 고려가 몰락하고 조선이 성립되는 격변기에 고려청자의 잔영으로 존재하면서 신흥왕조의 활기찬 시대상을 반영하여 청자와 백자와는 전혀 다른 경지의 도자 세계를 이룩하였다. 특히 청자나 백자와 달리 지방 색이 뚜렷하며 매우 풍부하고 다채로운 내용을 보이는데, 이는 왕조의 교체 과정으로 통제가 느슨해 진 틈을 타 그 동안 내재된 장인들의 미의식이 자유롭게 일탈되어 표출된 결과로 생각된다.

분청사기의 운명은 한마디로 조선 왕조가 정착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유교 문화의 상징인 백자의 발전에 따라 분청사기는 그 운명적인 쇠퇴와 소멸의 길을 걷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고려의 여운이 짙게 남아 있으면서 왕실과 서민이 두루 사용하지만, 차츰 왕실의 비호에 힘입은 백자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분청사기도 점점 백자화되는 경향으로 나아가 결국은 백자에 흡수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분청사기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놀라운 변모를 거듭한다. 특히 장식 기술이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사용되면서 참신하고 대담하며 질박하면서 역동적인 분청사기 특유의 미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상감·인화로 시작하여 박지·조화·철화·귀얄·덤벙으로 나뉘어지는 장식기술에 대한 이해가 분청사기의 면모를 파악하

는데 우선시 된다.

한편 분청사기라는 용어는 1930년대에 한국미술사 연구의 선각자였던 고유섭(高裕燮) 선생이 새로 지은 ‘분장화청사기(粉粧灰青沙器)’의 준말이다. 이 말의 뜻은 청자에 분(粉)을 발라 장식한 사기(조선시대에는 사기와 자기를 혼용하였다)이며, 그래서 분청사기는 본질적으로 청자라 할 수 있다. 다만, 조선시대에 만들었다는 시대적 개념과 문양이 조선적이란 점을 고려하고, 특히 시문 기술이 고려청자와 차이가 있어 총체적으로 고려청자와 구분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 (1) 분청사기의 종류

#### ① 상감(象嵌) 분청사기

고려인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창안하여 고려자기에 사용했던 상감기법을 그대로 이어받은 분청사기로, 문양부분을 파내어 흙을 만든 다음 그곳에 백토나 검은색이 나는 흙을 메우고 유약을 발라 구웠다. 말기 고려청자의 전통을 이어 받은 관계로 초기에는 기형·문양·유색 등이 고려청자와 구별이 힘드나 차츰 조선적으로 변모하여 여타 분청사기와 같은 조형감각을 보인다.

대체로 15세기 전반경까지 유행하였으며 흑색과 백색의 가는 선 위주의 문양이 점차 선이 굵어지고 면으로 넓혀져 후반에는 문양이 상감이긴 하나 선이 아닌 넓은 면으로 조성된다. 이를 ‘면상감’이라 부르는데, 이때가 되면 흑색상감은 거의 사라지고 백토감입 위주로 변하며, 고려상감청자와는 전혀 다르게 분청사기의 특징을 보인다. 면상감은 때때로 백토상감 면적이 넓어 조화나 박지문과 구별이 어려운 것도 종종 보이는데, 이를 보아 이런 면상감 분청사기가 변하여 조화나 박지분청사기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상감문

#### ② 인화(印花) 분청사기

인화기법 역시 고려청자에서 시작된 것으로, 일일이 파내야 하는 상감기술의 수고를 덜고 보다 규격화하기 위해, 아예 문양이 새겨진 도장을 찍어 문양부위를 오목(凹)하게 한 뒤 백토를 메우고 유약을 발라 구운 분청사기이다. 일종의 상감기법이나 일부만 사용한 청자와 달리 분청사기에는 이를 아



인화문

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분청사기 특유의 아름다움을 창출하였다.

15세기 초반에는 대체로 큼직한 단독문양을 뚜렷뚜렷하게 인화하였으나, 15세기 중엽경인 세종 때가 되면 점차 문양 단위가 작아지고 인화문을 정성스럽게 찍어 빠빠이 채우는 쪽으로 발전하였는데, 이때가 인화분청사기의 전성기였다. 전성기 인화문에는 작은 국화꽃문양이나 작은 동그라미들을 무수히 찍은 듯한 승려문(繩簾文)이 대표적이다. 회색

의 태토를 약간 남기고 거의 백토를 전면에 채운 뒤, 푸른 기운이 감도는 유약을 발랐기 때문에 정결하면서도 아주 신선한 맛이 나는데, 이런 종류를 일본인들이 특히 ‘미시마(三島)’라 부르면서 좋아한다.

15세기 후반이 되면 점차 인화문을 베푸는데 정성이 없어져 인화문이 얇게 찍히고 그 위에 백토를 다소 거칠게 칠한 후 대충 백토를 긁어냈기 때문에 인화문 위에 백토가 그냥 남아 있어 귀얄분청사기 같이 보이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인화분청사기가 귀얄분청사기로 흡수되면서 크게 보아 백자화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인화분청사기는 특히 경상도 지방에서 크게 유행하였으며, ‘내섬(內臘)’, ‘장홍고(長興庫)’ 등의 관사명(官司銘)이 있는 것은 거의 이 종류에만 나타나는 것도 키다란 특징이다.

### ③ 조화(彫花) · 박지(剝地) 분청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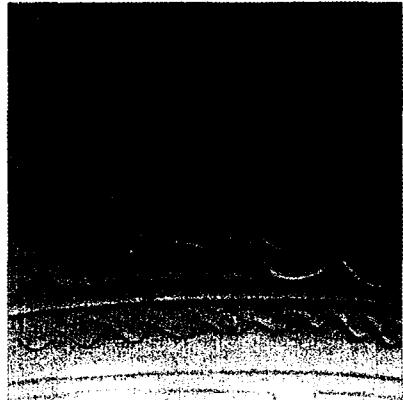


조화문

조화는 음각 또는 선화(線花)로도 불리는데, 그릇 전면에 귀얄로 백토를 칠해 분장한 뒤에 표현하고자 하는 문양의 윤곽선을 따라 가며 끝이 뾰족한 시문도구로 백토를 긁어내면 아래의 회색계 태토색이 드러나 이것으로 문양을 이루게 하는 수법이다. 박지는 지면을 긁어낸다는 뜻으로 조화와 기법은 같으나 보다 넓은 면적을 긁어내는 수법인데, 보통 조화와 박지는 같이 사용되었다. 이 기법은 중국 송나라 때 북방의 자주요(磁州窯)에서도 유행하였던 기법이나 우리나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듯하며, 앞서 상감분청사기에

서 설명한 것처럼 면상감에서 발전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믿어진다.

그리고 1430년경 작품으로 추정되는 송광사의 고봉화상(高峰和尚)의 빼향아리 예로 보아 15세기 중엽 경에는 이 기법이 상당히 발달했으리라 생각되지만, 대체로 15세기 후반에 크게 성행하였고 16세기까지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다. 조화·박지분청사기는 회화적인 구성과 자유분방하고 활달한 문양의 아취가 특별난데, 주로 전라도 지방에서 제작된 것도 특기할 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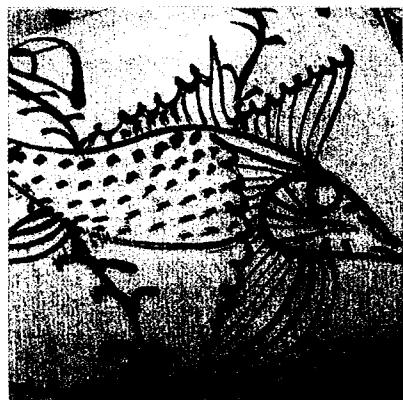
박지문

#### ④ 철화(鐵畫) 분청사기

그릇의 표면에 백토를 바른 뒤, 그 위에 붓을 사용해 철분이 많이 함유된 안료로 그림을 그려 장식한 분청사기를 말한다. 이 종류는 계룡산 동학사 입구의 학봉리 계곡 일대에서만 제작되었으며, 흔히 ‘계룡산’이라 불려 왔다. 그러나 최근에 덤벙분청사기 위에 간략한 초화문이 철화로 장식된 종류가 고흥 운대리 등 전라도 남해안 일대의 분청사기 가마터에서 간혹 발견되어 주목되지만 수량은 아주 조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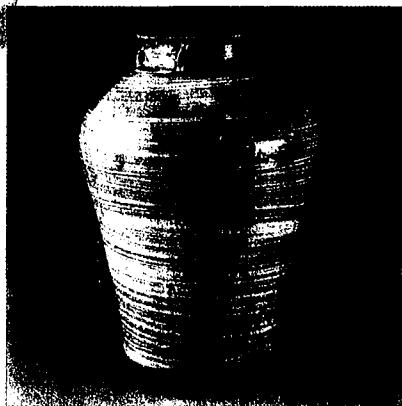
계룡산 분청사기는 기본적으로 백토를 귀얄로 분장한 뒤 붓으로 철화시문하였는데 철화의 색이 적갈색이나 흑갈색 혹은 거의 검은색으로 나타나 흰 종이 위에 그려진 수묵화를 보는 듯하다. 문양은 거의 추상성을 보이는 당초문이나 풀잎문·연꽃문이 많고 지느러미가 보기 좋은 반추상화된 물고기나 더러 해학적인 문양이 베풀어지기도 한다.

활달하고 주저 없는 붓질이 일품인 철화문양은 필선의 흐름이 확고하면서 백토분장된 흰 바탕과 선연한 흑백의 대조를 이루어 눈을 시원하게 해주는 맛이 있다. 계룡산 가마터에서 철화로 된 ‘성화(成化)23년(1487년)묘지편’과 ‘가정(嘉靖)15년(1536년)묘지편’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 무렵까지 유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철화문

### ⑤ 귀얄 분청사기



귀얄 분청사기

귀얄은 올이 굽은 풀비 같은 봉을 말하며, 이 봉(귀얄)을 사용해 단순히 기면에 백토만을 발라 장식한 종류의 분청사기이다. 조화·박지나 철화분청사기의 바탕이 귀얄분장에서 이루어지므로 귀얄분장은 분청사기의 성격을 결정짓는 가장 특징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일찍부터 즉 15세기 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며, 15세기 후반에 성행하였고 15세기 말경부터 16세기 전반경에 걸쳐 이 귀얄기법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덤벙기법으로 전환되어 현저히 백자화되어 가는 현상을 보인다.

귀얄분청사기는 백토를 귀얄에 묻혀 기면에 쑥쑥 바른 까닭에 백토분장 사이에 율동적인 귀얄자국이 선명히 나, 이것이 그대로 시원스럽고 생동감 넘치는 문양효과를 보인다. 결국 귀얄분청사기는 원래 장식을 위한 분장으로 사용되었지만 백자를 모방해 가는 과정에서 분장기법 자체가 문양의 한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 ⑥ 덤벙 분청사기



덤벙 분청사기

분장을 할 때 봉으로 칠하지 않고 백토를 물에 풀어 만든 걸쭉한 용액에 그릇을 뚝 담구었다 견져내어 분장을 한 것이다. 그릇을 백토물에 담글 때 ‘덤벙’ 소리가 난다 하여 붙여진 재미난 이름이며, 담금분청사기라고도 한다. 이 종류는 봉 자국 없이 백토가 매끈하고 두껍게 씌워져 백자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분청사기가 백자로 변해 가는 마지막 단계 즉 완전한 백자시대로 가기 직전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런 종류는 1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대접이나 접시의 경우에는 백토물에 담글 때 손으로 굽을 잡기 때문에 굽 근처에는 백토가 묻지 않고 두터운 백토물이 흘러내린 곳만 있어 재미있는 추상성을 보이기도 한다.

덤벙분청사기는 백자화가 빠르게 진행된 중부지방에서는 거의 볼 수 없고 주로 전라도 해안 지방

에서 많이 제작되었다.

## (2) 분청사기의 흐름

### ① 초기 : 1360~1420년경

초기는 다시 태동기(1360~1390년경)와 발생기(1390~1420년경)로 나눌 수 있다. 고려말 14세기 후반이 되면 고려청자의 퇴조가 뚜렷해지는데, 이전까지 청자의 중심 생산지였던 전남 강진과 전북 부안의 상감청자 사기장들이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각지에 소규모의 말기 청자가마들을 운영하게 된다. 이것이 분청사기의 성립과 발달의 원동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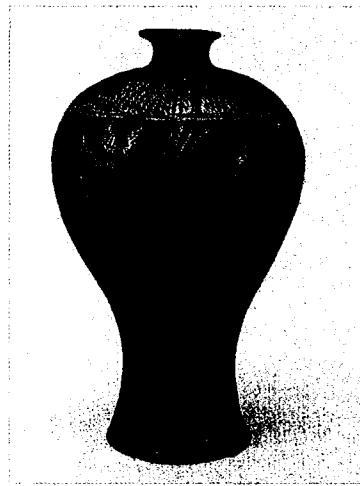
이때 청자들은 태토가 조잡하고 두터우며 청자색도 시멘트 색같이 어둡고 칙칙한 암녹색을 띠고 문양도 운학문의 구름문이 빗방울 같은 우점문(雨點文)으로 변하는 것처럼 생략되고 변형되어 보다 간단하고 조잡해지거나 아예 무늬가 없어지고 다만 몇 줄의 선만을 돌리는 정도로 그친 경우가 많다.

그릇 모양도 균형감을 잃어 대접들이 평펴짐하게 안으로 오므라든 모습이고 매병도 반구형(盤口形)의 맵시 좋은 입 대신에 나팔 모양의 것으로 변하고, 전체 기형의 곡선이 크게 S자를 그리며 볼륨감과 안정감이 줄어들어 다소 연약하고 불안정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기형은 고려청자의 우아함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이 바로 분청사기의 태동을 알리는 고려 말경에 생산된 청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1392년의 조선의 개국과 더불어 분청사기도 새로운 변모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먼저 상감분청사는 앞서 고려말의 상황이 계속되지만 기형과 문양, 유·태(釉·胎)가 재정비되어 점차 새로운 조선적인 분위기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 시기, 즉 1420년경까지의 시기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인화분청사기의 발생으로 고려상감청자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되던 인화기법이 본격적으로 문양 표현의 대표적인 기법으로 자리잡게 된다.

### ② 중기 : 1420~1480년경

분청사기의 특징이 뚜렷해지며 각종의 기법이 발생하고 발전하는 시기로, 다시 발전기(1420~1450년경)와 성숙기(1450~1480년경)로 나눌 수 있다. 이때는 우리 문화의 황금기로 불리는 세종대



분청사기 싱김문 매병



분청사기 인화문 태항아리

왕의 통치시대가 있어 분청사기도 이때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다. 1450년경까지의 상감분청사기는 훨씬 조선적으로 변하여 기형이나 문양에 상감청자의 전통과 조선의 새로운 조형감각이 혼효되면서 한 걸음 더 발전했는데, 특히 분청사기의 특징이 뚜렷한 면상감의 발전은 새로운 조선적 상감기술의 뛰어난 성과로 평가된다.

인화분청사기는 앞 시기의 듬성듬성 찍던 무늬에서 발전하여 작고 조밀한 문양도장을 그릇 전체에 정성스럽게 빠빽이 찍어 문양 구성상 빈틈없는 짜임새를 보이는데, 국화·톱니바퀴·원육각판(圓六角瓣) 등의 단독문양이 애용되었다. 백토 감입도 치밀하고 그 위에 푸른 기운이 살짝 있는 분청유약이 시유되어 아주 신선한 맛이 돋보인다.

앞서 종류별 설명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때에 면상감에서 힌트를 얻어 새로운 조화와 박지기법도 발생하며, 또 귀얄분청사기도 이미 제작되었다고 보여진다.

15세기 후반인 1450~1480년경에는 그야말로 분청사기의 성숙기로 모든 기법이 무르익으면서 일부는 이미 퇴조를 보이고 소멸해 간다. 특히 귀얄기법이 현저히 증가해 분청사기의 독특한 면모를 확립시키는 동시에 백자화 시대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 이때가 되면 상감분청사기는 거의 사라져 12세기 이래 계속된 350여 년간의 상감기법이 도자기 문양장식에서 사실상 종말을 맞게 되며, 인화기법도 이미 쇠퇴의 징후가 뚜렷해진다. 인화분청사기는 이 시기 가마터에서 귀얄기법의 것과 보통 함께 수집되어, 인화문이 귀얄문으로 흡수되어 감을 증명하고 있는데, 인화기법은 문양의 짜임새라는 점에서 찍힌 상태가 정제되지 못하며, 인화가 정성 없이 대충 처리되어 찍힌 듯 만 듯하게 얇게 시문되고 백토의 감입 상태도 지저분하여 귀얄자국이 난 백토분장 면이 군데군데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분청사기에서 귀얄기법이 증가하여 백토분장 위주로 바뀌어 가는 현상은, 경기도 광주에 이 무렵 사용원(司鑾院)의 분원(分院)이 설치되면서 백자가 집중적으로 생산되어 서울 일대에 이미 백자가 성행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으로 각 지방의 분청사기도 급속히 백자화 경향으로 나아간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분청사기의 조형과 미감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종류로 인정되는 조화나 박지기법이 크게 성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상감·인화의 퇴조 내지는 소멸을 대신하여 전라도 지방의 특산물처럼, 주로 전라도 지방에서 크게 유행한 조화·박지분청사기에는 대

담하면서도 자유분방하고 회화적 역량이 뛰어난 문양이 율동감과 운동감 있는 선묘(線描)로 베풀어져 있어 세련된 미적 취향을 느끼게 한다.

### ③ 후기 : 1480~1540년경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전반 무렵까지 분청사기는 쇠퇴의 길을 걷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귀얄기법이 점차 사라지면서 덤병분청사기가 나타나 백자화의 경향이 현저해 진다는 점이다. 귀얄의 쇠퇴와 덤병의 유행은 말하자면 분청사기가 백자를 닮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이제는 전국에 걸친 백자의 생산으로 인하여 자연히 분청사기는 그 존재가치를 상실해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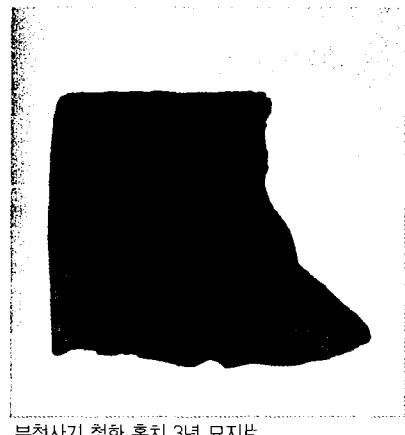
그런데 이 시기에 특기할 사항은 철화분청사기의 대유행이다. 계룡산 일대에서 제작되어 지방색을 강하게 띠지만, 봇으로 활달하게 그려진 철화문양은 분청사기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청사기의 역사 후반에 와서 벌어진 철화분청사기의 성행은 확실히 분청사기의 내용을 풍부하고 다채롭게 하면서 격과 아름다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생각된다. 계룡산 가마터에서 발견된 ‘성화 23년(1487년)’, ‘홍치 3년(1490년)’, ‘가정 15년(1536년)’ 등의 철화명문이 적힌 묘지편들의 존재로 보아 그 유행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 ④ 말기 : 1540~1600년경

16세기 중엽부터 분청사기는 거의 제작되지 않고 소멸되어 가나 다만 백토의 귀얄기법만이 일부 백자에 영향을 주어 백자 태토 위에 백토분장을 한 경우가 있으며, 덤병분청사기는 이때까지 다소 제작되었는데, 덤병분청사기로 된 ‘만력 15년(1587년)’ 명 묘지편으로 보아 16세기 후반까지 일부 지방에서 분청사기가 제작된 것 같다.

시대적인 추세가 백자의 일반적인 사용으로 흘러가면서, 분청사기도 덤병분청에서 보는 것처럼 백자화 경향을 보이다가 마침내 백자에 자연스레 흡수되면서 1592년 임진왜란 이후에는 분청사기는 제작되지 않고 종말을 맞게 된다.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은 일반적으로 임진왜란 당시 분청사기 장인들이 대거 일본에 삽혀갔기 때



분청사기 철화 홍치 3년 묘지片

문에 분청사기가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으나, 사실 일본에 잡혀간 사기장들이 일본에서 만든 그릇은 백자 종류로 분청사기가 아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무렵에는 이미 분청사기는 거의 제작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조선 전체가 본격적인 백자시대로 돌입하면서 분청사기 역시 백자화로 나아가다 백자에 흡수되면서 자연스레 소멸되었다고 믿어진다.

## 2. 경기도의 분청사기 문화

경기도의 분청사기 문화를 단적으로 말하면, 분청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청자나 백자에 비해 다소 덜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청자의 경우는 앞서 살펴 본 바대로 우리나라 자기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도자사적으로 그 중요성이 널리 인정되는 바이고, 백자는 두말할 것 없이 조선시대에 들어 광주에 분원이 설치되어 조선시대 전 기간 동안 관요가 운영되면서 조선백자 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한 것에 비해, 분청사기는 처음에는 제법 왕성한 활동을 보이지만 곧 분원백자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보다 일찍 분청사기의 생산을 중단하고 요업이 백자 중심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고려 말~조선 초부터 우리나라의 각지에서 분청사기의 생산이 선행하여 대체로 다른 지방에서는 16세기까지 그 활동이 계속되었지만, 경기도에서는 15세기 중엽경인 1460년대에 광주에 분원이 설치되면서 백자의 생산이 왕성해지자, 이의 영향으로 경기도 일대의 가마들이 자연적으로 고급한 백자의 생산에 눈을 돌리면서 분청사기 제작이 일찍 중단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상황은 현재 경기도 내에 남아 있는 분청사기 가마터들을 조사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광주를 필두로 대부분의 분청사기 가마터에서는 상감과 인화분청사기들만 보이고 다른 종류들은 거의 보이지 않아 대체로 15세기 중엽을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도 지역에서는 분청사기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주군 별내면 청학동의 분청사기 가마터에서 15세기 말에서 16세기로 추정되는 텁병분청사기들이 발견되는데, 이로 보면 일부 지방가마에서는 원료 수급이나 기술적 문제 때문에 늦게까지 분청사기를 생산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에도 이들 분청사기는 사실 겉보기에는 백자와 다를 바 없는 텁병분청사기 류들이어서 백자를 닮은 종류를 만들고자 노력한 것으로 인정된다.

경기도의 분청사기 생산에 대한 기록은 분명한 것이 없지만, 당시의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는 있다. 그것은 조선시대 초기의 도자사 연구에 더없이 귀중한 자료로 취급되고 있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실린 자기소와 도기소에 관한 기록이다. 이 '지리지(地理志)'는 세종 6년(1424년)에 왕명에

의해 조사가 착수되어 세종 14년(1432년)에 일차로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가 편찬되었고 그후 다시 22년이 지난 뒤인 단종 2년(1452년)에 세종실록 전 163권이 완성되었는데 이중 148권부터 155권까지에 ‘지리지’가 수록되어 있다. 이 지리지에는 전국 각지의 연혁에서 특산물까지 기록되었는데 이중 도자기를 생산하고 있던 가마를 자기소와 도기소로 구분하고 각 소의 소재에 대한 위치와 지명을 밝히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도자기의 품질을 상·중·하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1430년대 무렵의 우리나라 도자기 생산에 관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고려 말~조선 초의 요업 상황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상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전국의 자기소는 139곳, 도기소는 185곳으로 총 324곳이 되며, 조선 8도에 걸쳐 골고루 분포하는데, 충청·경상·전라도가 많고 경기도는 그 다음으로 자기소 14곳, 도기소 29곳이 나온다. 이중 경기도의 자기소 중에서 상품을 생산한 곳은 광주의 벌을천(伐乙川) 한 곳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하품이며, 도기소에는 전국적으로도 상품은 없고 중·하품만 있는데 광주의 초현(草峴) 등 6곳에서 중품을 생산하고 나머지는 하품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경기도의 당시 분포 상황을 보면, 자기소가 있던 곳은 광주에 4곳, 영평(永平)에 2곳, 양근(楊根)·지평(砥平)·양주(楊州)·포천(抱川)·가평(加平)·용인(龍仁)·양지(陽智)·철원(鐵原)에 각 1곳씩 있었다. 도기소는 광주에 3곳, 양평에 2곳이 있고 나머지 여흥(醴興)·양근·과천·지평·적성(積城)·포천·안성·용인·양지·철원·삭녕(朔寧)·영평·안협(安峽)·임강(臨江)·연천(漣川)에 각 1곳씩 있었다. 이들의 이름과 품질, 소재지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지리지에 기록된 자기소와 도기소의 구분이 무엇이며, 품질의 기준 또한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기록이 거의 600년 전의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지명과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힘들고 오랜 세월 동안 지형이 변하고 근래 들어 국토의 개발로 인해 소리 없이 사라진 것도 부지기수여서 현재로서는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조사할 길이 없다. 다만 그 동안 관련 학자들이 전국적으로 가마터를 조사하면서 이 기록과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곳이 20여 개 가량 있어 이를 토대로 지리지의 내용을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자기와 도기의 구분이다. 이전에는 대체로 자기는 백자를 말하고 도기는 분청사기일 것이라고 추정하여 왔지만, 가마터 조사에서 백자는 거의 발견되는 바가 없고 대체로 분청사기를 생산한 가마임이 밝혀졌다. 그래서 이 무렵의 자기라는 것이 분청사기이고 도기는 옹기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당시의 문헌 기록이나 일부 가마에서 소량이나마 백자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고, 이 무렵 것으로 보이는 옹기가마는 전국적으로 거의 발견되는 바가 없어 도기가 옹기일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자기소 중에 상품이라 기록된 경상도의 상주와 고령, 경기도의 광주에서는 백자를 생산하였고 나머지 중·하품으로 기록된 자기소들은 분청사기 가마였으며, 도기소에서도 대체로 분청사기를 구웠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된 경기도의 자기소·도기소 총 43곳에서 상품의 자기소인 광주의 벌을친 한 곳을 제하면 나머지는 분청사기를 생산한 가마가 된다. 이런 추정은 다음의 경기도 내에 존재하는 가마터 조사의 내용이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경기도의 분청사기 문화도 조선 초기에는 상당히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II. 경기도의 분청사기 가마터

경기도내의 분청사기 가마터는 현재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지만 광주시와 용인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세한 조사 내용이 알려진 곳이 거의 없다. 그리고 학술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곳도 전혀 없어 여러 모로 경기도의 분청사기 문화에 대한 연구 자료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 1. 광주시의 분청사기 가마터

광주시는 조선시대에 들어 초기부터 질 좋은 백자를 생산하다가 사용원의 분원이 설치되어 운영되면서 조선백자의 영원한 고향이 된 곳이다. 이렇게 백자 생산으로 이름 난 광주시는 고려 말 내지 조선 초기에 분청사기도 활발히 생산하여 군내의 도처에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현재 알려진 가마터는 모두 8곳이다. 이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분청사기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강경숙 교수의 저서에 사진과 도면이 곁들여 소개되어 있다. 여기서 다룰 가마터의 명칭은 강 교수의 글에 따르고자 한다.

#### (1) 퇴촌면 도수리 분청사기 가마터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에는 백자 가마터는 여러 곳 있으나 분청사기 가마터는 도수3리에 2곳이 있다.

## ■ 도수리 1호 가마터

이 가마터는 도수3리 마을 못미처 작은 경사진 구릉에 위치한다. 지표에서는 백자파편들이 많이 널려 있으나 퇴적층을 조금 파 보면 아래로 내려 갈수록 분청사기 파편만이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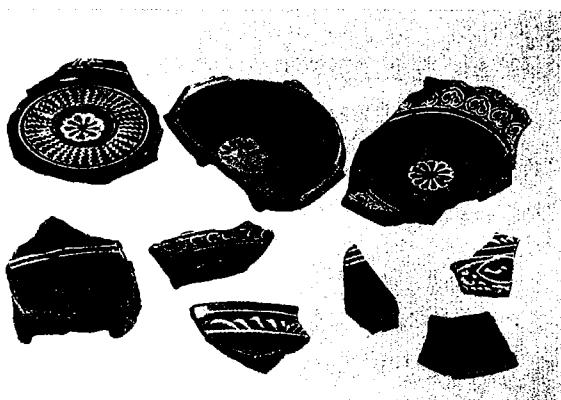
이곳의 분청사기는 태토가 경질이고 회색조를 띠며 회청색의 투명한 유약을 굽 안까지 씌웠는데, 굽 안바닥은 구울 때 터지지 않게 꾹꾹 눌러 다진 흔적이 남아 있다. 갑발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대접이나 접시는 모두 포개어 구웠다.

그릇의 종류로는 대접과 접시류가 많으며, 항아리·병·매병·대발(大鉢)·종지 등도 발견된다. 이중 대접은 위쪽이 안으로 만곡(彎曲)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며, 매병은 고려말에서 조선초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것으로 굴곡이 심한 S자 모양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분청사기의 종류로는 상감분청과 인화분청만 있으며, 박지·조화·귀얄·덤벙분청류는 보이지 않는다. 상감 분청사기의 문양으로는 고려말에 유행한 연화당초문과 직결되는 문양이 주목되는데, 이 특징적인 문양의 존재로 보아 본 가마터는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분청사기를 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화분청사기의 경우도 인화기법의 초창기에 보이는 특징적인 문양 형태를 하고 있고 인화기법의 전성기에 보이는 집단연권문(集團連圈文)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고려청자의 전통을 이어받아 상감분청을 제작하고 곧 이어 인화분청도 시작하였지만, 다른 지방에서는 인화분청이 계속 발전해 간 데 비해 여기서는 인화분청의 초기 단계에서 끝나버렸다는 것이다.

도수리 분청사기 가마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양적인 특징은 광주시 일대의 분청사기의 성격을 잘 보여 주는 것으로, 처음에는 백자와 함께 분청사기도 생산하였지만, 광주에 분원이 설치되어 백자생산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되자, 자연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일찍 분청사기의 생산이 중단되고 고급한 백자생산 위주로 변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도수리 1호 가마터의 활동시기는 문양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검토할 때, 1420년을 전후한 무렵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곳 도수리는 조선 초의 세종대에는 고현(羔峴)이라 불렀는데, 이 지명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수록된 자기소와 도기소에 관한 기록 중 ‘광주목조



자기片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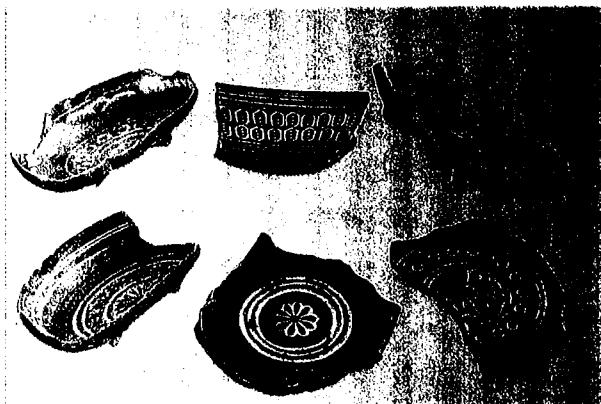
(廣州牧條)에 주동(州東)의 고현에 자기소가 있다고 명기되어 있어, 이 책이 조사·편찬될 무렵인 1424~1432년 사이에는 틀림없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 도수리 2호 가마터

본 가마터는 도수3리의 경희대학교 연습장 사무실 건물 뒤에 위치하지만, 가마터가 모두 파괴되어 작은 파편들만이 근처에서 발견된다.

이곳에서 생산된 분청사기들의 성격은 앞의 도수 1호 가마와 대체로 같다. 이곳에서 조사된 파편들이 모두 작은 파편들이고 양도 적어서 정확한 성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릇의 종류로는 대접과 접시들이 보이며, 모두 연한 갈색을 띤 회청색의 투명유를 써웠다. 문양으로는 상감기법과 인화기법이 사용되었으며, 상감문양에는 극히 단순화된 연화당초문과 파도문, 여러 줄의 선문(線文)을 돌린 것이 발견된다. 인화문에는 인화분청의 초창기 양상인 들팡듬성한 국화문과 육각형의 화관문(花瓣文) 등이 보인다.

이 가마의 활동시기는 대체로 도수 1호 가마와 거의 같은 시기인 1420년 전후로부터 그 후 얼마간 이었다고 생각된다.



자기片刻

### (2) 퇴촌면 관음리 분청사기 가마터

퇴촌면 관음리는 백자가마터가 집중적으로 분포된 곳으로 유명하지만, 관음 2리 332번지의 민가 뒤편에 분청사기 가마터가 존재한다. 이 가마터는 민가를 신축할 때 퇴적층의 단면이 노출되었는데 위에는 백자편들이 두껍게 퇴적되어 있지만, 아래쪽에는 분청사기편들이 쌓여 있다.

출토되는 분청사기편들을 보면, 유약은 투명하고 청록색을 띠며, 기종으로는 대접·접시·병 등이 있다. 대접은 기형이 당당하여 볼륨감이 좋으며 입술 부위가 내만한 것과 외반된 것의 두 종류가 보인다. 굽은 대부분 대마디 모양의 축절굽을 하며 태토비침받침을 하고 구웠다. 여기서는 상감분청사기는 보이지 않으며, 인화분청사기가 주종을 이룬다. 그런데 이들 인화문은 얇게 시문되어 귀얄로 백토분장

을 슬쩍 하고 잘 닦아 내지 않았으며, 전성기에 흔히 보이는 집단연권문의 경우도 구도상 짜임새가 없는 점이 특징이다. 여의두문의 존재가 눈에 띄지만, 이외 국화문·방사선파상문·와선문(渦線文) 등이 있고 병의 어깨부위에 우점문(雨點文)을 채운 삼각형의 연판문대(蓮瓣文帶)가 있는 편도 보인다.

이 가마터의 활동시기는 상감분청사기가 전혀 보이지 않은 점과 인화문의 상태로 보아 대략 1430년대 무렵이었다고 추정된다.



자기片

### (3) 중부면 번천리 분청사기 가마터

번천리는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자기소 가운데 상품(上品)의 자기를 생산한 광주목의 ‘별을천’으로 간주되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 이곳에는 모두 15기 이상의 가마터가 조사되었는데, 대부분 백자 가마터이고 분청사기 가마터는 2기가 확인되었다.

#### ■ 번천리 1호 가마터

상번천 2리의 내곡 마을에 있으며 경사가 급한 서향의 등성이에 자리하고 있다. 가마터는 거의 훼손된 상태로 약간의 자기편과 말발굽 모양의 도자미와 가마 벽편들이 지표에 흘어져 있다.

이곳에서는 주로 인화분청사기의 말기적 특징을 보이는 편들이 발견되며, 그릇 종류에는 대접·접시·병 등이 있다. 이 가마터에서는 분청사기와 백자가 한데 붙은 자기편이 발견되어 주목되는데, 이로 보아 이곳에서 백자와 분청사기를 함께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자기편은 유약이 동일하며 다만 태토가 분청사기 쪽이 회색을 많이 띠고 있는 점이 달라 분청사기에서 백자 생산으로 변환되는 기술적인 과정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그리고 갑발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상품백자의 생산단계로는 발전하지 못했던 것 같다.

본 가마의 활동시기는 분청사기의 양상이 광주지역의 말기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어 이 지역에서 백자 생산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1430년대 이후 약 10년간으로 추정된다.

### ■ 번천리 2호 가마터

1호 가마터에서 약 2km 동쪽에 있는 구릉 지대에 위치한다. 지표에 무수한 자기편들이 쌓여 있으며 자기편은 분청사기 외에 백자편들도 혼재하고 있다.

이곳의 분청사기에는 상감문과 인화문이 베풀어진 것과 문양이 없는 것들이 발견되며, 기종으로는 대접과 접시류가 대부분이고 간혹 병과 그릇뚜껑, 대형의 접시, 대형의 발(鉢) 등이 보이며 측면에 구멍이 뚫린 갑발도 있어 주목된다.

대접은 대체로 양감이 좋고 입술이 외반된 조선 초기의 특장적인 모습을 하며 모래를 받치거나 태토비침받침을 두고 번조하였다. 접시는 대체로 굽과 굽 주위에 유약을 입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문양에는 상감문으로 간략한 초문·평행직선문·평행곡선문·모란문 등이 있으며, 인화문에는 국화문과 집단연권문이 많이 보이는데, 인화문은 퇴조와 생략, 그리고 무문화(無文化)의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곳의 문양 상태는 전체적으로 보아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이행되어 가는 광주 지역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가마터에서는 갑발이 발견되고 있어 본 가마에서 상품의 자기를 구웠음을 생각할 수 있는데, 분청사기용은 아니고 정갈한 백자를 굽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가마의 활동시기는 대접과 접시의 기형·과 문양적 특징이 대체로 15세기 전반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앞서 도수리 분청사기 보다는 약간 뒷시기로 생각되어, 1425년을 전후하여 적어도 10년 이상 1440년경까지 활동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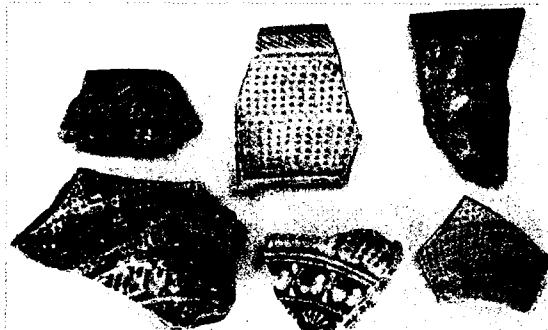
### (4) 남종면 삼성리 분청사기 가마터

삼성리는 조선 초기의 백자 가마터로 유명한 도마리의 옆 마을로 과학동이라고 부른다. 이 마을에 분원요라는 현대 가마가 있는데, 본 가마터는 분원요의 맞은편에 위치한다. 이 일대는 오래 전에 밭으로 개간되면서 파괴되어 원형을 완전히 잃었으며 다만 지표에 분청사기와 백자파편들이 약간 널려 있다.

여기서 채집되는 분청사기는 대접과 접시 종류로 죽절굽에 모래받침과 태토비침받침을 사용해 구

웠다. 문양은 인화문이 성행한 시기에 보이는 꼼꼼한 집단연권문이 비교적 정성들여 베풀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가마에서 분청사기를 생산했던 시기는 문양의 상태로 보아 인화문의 전성기 무렵인 1440년대로 생각되며, 이후 곧 백자가 마로 바뀐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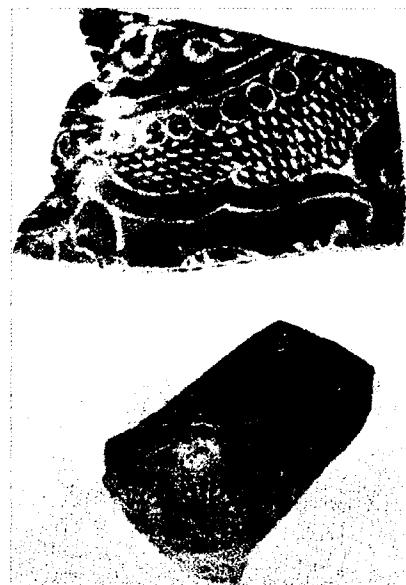
자기片

### (5) 초월면 쌍동리 분청사기 가마터

이 가마터는 쌍동리 도곡초등학교 근처 야산에 위치하며, 밭을 개간하면서 거의 파괴되어 지표에서 약간의 분청사기 파편들을 수습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릇 종류로는 대접·접시 외에 병과 제기편이 보이는데, 대접은 입술 부위가 안으로 굽어진 전형적인 고려 말기의 청자대접의 특징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기는 위가 벌어진 둥글둥글한 사각형으로 추정되며 톱니바퀴 모양의 굽을 따로 두 줄 붙여 놓았다. 이 제기에는 특이하게 음각으로 사람 모습의 문양을 새겨놓았는데, 마치 사기장이 장난치듯 재미난 모습을 하고 있어 흥미롭다. 병은 태토나 유약의 상태가 고려 말기 상감청자와 흡사하며, 문양도 커튼같이 생긴 복사문(袱絲文)이 있는데 이 문양은 상감청자의 여운이 많은 것이어서 시대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병의 하부 편에는 성기고 얇게 찍은 인화분청사기 발생기의 특징적인 국화문이 장식되어 있어, 고려적인 전통의 복사문과 새로운 모습의 인화문이 동시에 구사되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주목되는 자료이다.

이곳의 분청사기 문양은 상감문과 인화문 두 종류인데, 상감문은 위에 말한 복사문 외에 변형된 당초문이 보인다. 인화문에는 육각판문·국화문·3원문(圓文)·화문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인화분청사기의 발생기에 보이는 특징적인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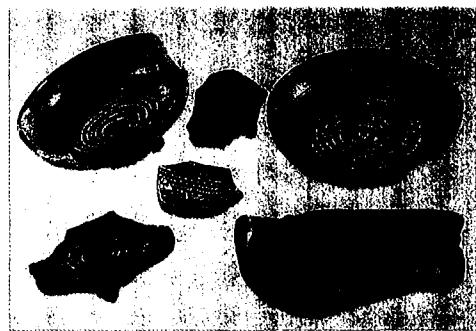


병 片

쌍동리 가마의 활동시기는 대접의 형태나 복사문 같은 상감문 등에서 고려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점, 그리고 인화문도 모두 이른 시기 것들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광주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 분청사기 중에 매우 이른 시기의 것임이 인정되고 있어 대략 14세기 말 ~15세기 극초(極初)로 생각된다.

#### (6) 초월면 학동리 분청사기 가마터

학동리는 무갑산의 남쪽 기슭에 자리잡은 마을로 상동막·중동막·하동막으로 나누어진다. 현재 학동리에는 10여 개의 조선시대 가마터가 분포하는데, 분청사기 가마터는 1곳뿐으로 중동막에 위치한다. 이곳 역시 밭으로 개간된 지 오래여서 현상파악은 불가능하며 다만 지표에 파편들이 흩어져 있을 뿐이다.



자기부

수집되는 파편을 보면, 그릇의 종류에는 대접·접시·병·합뚜껑 등 비교적 다양하게 있으며, 문양은 상감문과 인화문이 배풀어져 있다. 대접은 대체로 양감이 있는 편이며 죽절굽에 모래받침을 한 것이 많고, 상감문이 있는 것과 인화문이 장식된 것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문양 중에는 고려청자의 잔영을 보이는 초문(草文)이나 우점문을 바탕에 깔고 그 속에 화문을 몇 개 배치한 문양, 듬성듬성하게 찍은 인화문 등이 있어 문양적으로 15세기 초기의 특징을 보이는 것이 주목된다. 그리고 대접의 바닥 중앙을 아무런 장식 없이 둥그렇게 남겨둔 것도 인화분청사기의 초기적인 수법이다. 접시는 와선문만이 돌려지고 죽절굽에 태토비침받침을 하고 구웠다. 병은 유색이 짙은 갈색을 띠고 있어 산화변조된 것으로 보이며, 합뚜껑으로 추정되는 파편에는 육각 중판문(重瓣文)과 만자문(卍字文)·국화문 등이 인화와 상감기법을 함께 사용하여 베풀어졌고 청록색을 띤 투명유가 씌워져 정성스레 만든 것임을 짐작케 한다.

학동리 가마의 활동시기는 문양의 특징, 특히 인화문들이 15세기 초반의 인화문 발생기의 특징을 하고 있어 1420년을 넘지 않는 그전 시기로 생각된다.

### 2. 용인시의 분청사기 가마터

#### (1) 이동면 서리 분청사기 가마터

이동면 서리는 사적 329호로 지정된 고려백자 가마터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지만, 이외에도 조선 시대의 분청사기와 백자 가마터도 존재한다. 이중 분청사기 가마터는 고려백자 가마터에서 동쪽으로 산 하나를 넘어가면 나오는 사기막골의 끝자락에 위치한다. 이곳에는 현재 사슴농장이 들어서 있으며, 가마터의 아래 부분은 농장건물 뒤편의 정원으로 개간되면서 파괴되었지만, 소나무 숲이 우거진 임야 속에 퇴적의 주요 부분이 자리하고 있어 비교

적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가마터의 폭은 약 40m이고 상하의 길이가 45m에 달하여 규모가 큰 편이며, 지표에는 다량의 분청사기 파편과 가마 벽편 등이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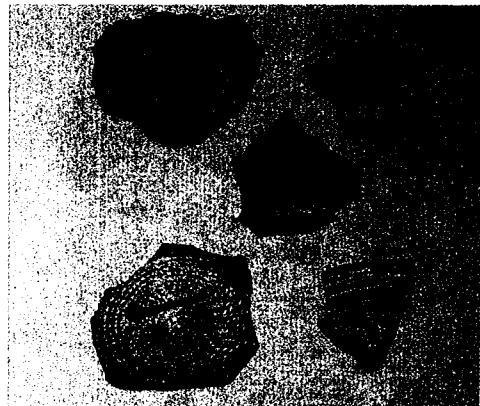
이곳에서 생산된 분청사기는 입술 부분이 외반된 대접과 높이가 낮고 크기가 작은 접시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외에 작은 병의 파편이 보인다. 대부분 여러 점을 포개어 구웠기 때문에 안 바닥에 태토비침받침을 한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으며 전반적으로 질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그릇의 표면에는 상감·인화·귀얄분장으로 장식된 것이 대부분인데, 상감문의 경우는 대접이나 접시의 안 쪽에 회오리 모양 같은 와선문(渦線文)이 있는 것이 많이 보인다. 인화문으로는 우점문과 연판문이 다수를 차지하며, 귀얄 분장은 주로 대접의 내면에 한 것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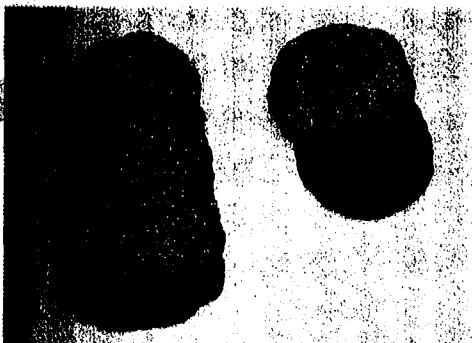
이곳에서는 분청사기 외에 표면에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은 청자파편들이 발견되는데 주로 대접 종류이고, 암녹색의 유약을 얇게 씌웠으며, 형태와 특징은 분청사기와 동일하다. 또한 소량의 도기 파편들도 있는데 항아리 종류가 보인다.

한편 본 가마터에서는 그릇을 구울 때 받침으로 사용된 요도구들이 발견된다. 도자미는 크기가 조금씩 다른 아령모양과 장방형의 것이 있는데, 마사토 같은 내화도가 높은 흙으로 제작되어 윗면 중앙에는 그릇을 올려놓기 좋도록 편평하게 만들거나 홈을 파 놓았으며 모래받침의 흔적이 있다. 특이하게 돌을 편평하게 다듬은 도침(陶枕)도 보이는데, 돌의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그릇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윗면을 다듬었으며 모래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개떡(그릇을 구울 때 그릇을 올려놓는 둥글고 납작한 받침을 말하는데 옛날에 개떡이라 하여 보리 등의 잡곡으로 거칠게 만든 떡같이 생겼다 하여 조선시대에 사기장들이 붙인 요도구의 명칭이다)은 작은 원반 모양의 것으로 점토나 마사토질의 흙으로 빚었으며 윗면은 그릇을 놓을 수 있게 편평하게



자기片面



도자미

다듬었고 모래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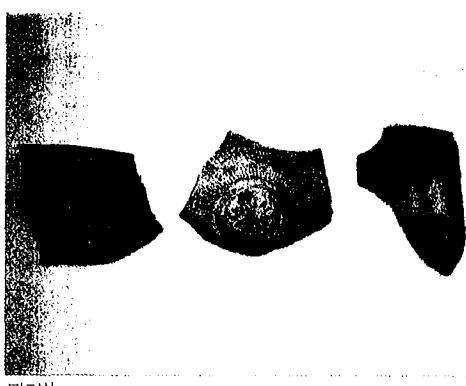
이 분청사기 가마터의 활동시기는 기형이나 장식 수법으로 보아 15세기 전반에서 중반에 걸친 것으로 생각된다. 본 가마터와 관련되어 생각해볼 것은, '세종실록' 자리지에 보이는 옛 용인 지역의 자기소와의 문제이다. 즉 '옛 처인에는 요산동리(窯山洞里)에 하품의 자기소와 감암리(甘岩里)에 하품의 도기소가 있다'는 기록이 나온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 볼 때

자기소에서도 분청사기가 생산되었을 가능성성이 많은데, 이중 요산동리라는 지명이 주목된다. 즉 요산동이라는 것은 산같이 큰 가마가 있는 곳을 뜻함이 분명하며 지금도 엄청난 규모의 가마퇴적이 존재하는 이곳 서리 일대를 세종 시에 요산동이라 불렀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이 자리지에 나오는 자기소 139곳, 도기소 185곳, 총 324곳의 지명 가운데 가마 '요(窯)' 자가 들어간 것은 이곳이 유일한데 서리는 옛날에 처인현에 속하였고 이 일대에서 발견되는 분청사기 가마터는 이곳이 유일하며 그 규모도 상당히 큰 것이어서 서리 사기막골의 이 분청사기 가마터가 바로 '자리지'에 나오는 자기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 (2) 원삼면 학일리 분청사기 가마터

원삼면 학일리에는 조선말기의 백자가마터가 2곳, 분청사기 가마터가 2곳 조사되어 있다.

### ■ 학일리 1호 가마터



자기片面

학일리의 쌍용저수지 남쪽 끝 편에서 임야 쪽으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이곳에서 북쪽으로 약 250m 떨어진 곳에는 조선말기 백자가마터가 존재한다. 1호 가마터는 임야 중간을 가로지르는 소로(小路) 주변에 위치하며 약 2m 폭의 소로공사로 인하여 유적이 많이 파괴된 상태이나 소규모로 추정된다. 주변에 약간의 퇴적이 발견되고 지표에서 분청사기와 청자 파편 및 요도구들이 채집된다.

분청사기는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병 편도 보인다. 유색은 대부분 암녹색을 띠며 바닥에는 태토비침이나 모래를 받쳐 구웠다. 대접의 내면에 몇 줄의 횡선을 백상감으로 처리하여 문양띠를 만들고 그 속에 승렵문(繩簾文)과 국화문을 인화기법으로 장식하고 밖면은 아무런 장식 없이 둔 파편이 보인다. 접시에는 내면의 벽면에 횡선문(橫線文)을 장식한 것이 많다. 청자는 대접류가 소량 보이나 파편이 모두 작고 아무런 장식이 없이 암녹색의 청자유가 씌워져 있다. 요도구로는 다수의 개떡이 채집되는데, 모두 점토로 원반형을 만들었으며 윗면은 그릇을 올려놓을 수 있게 편평하게 다듬었고 모래받침의 자국이 남아 있다. 여기서 수습되는 가마 벽편을 보면 마사토질의 흙으로 만들었으며 흙을 몇 겹으로 덧붙여 사용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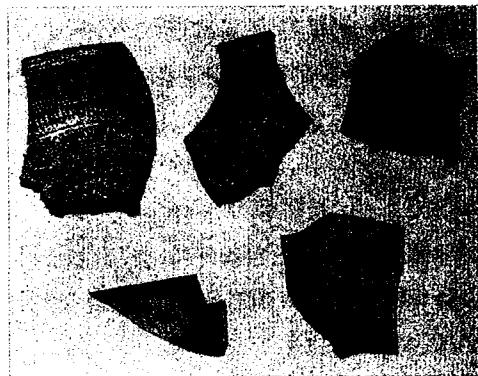
본 가마의 활동시기는 인화문의 양상으로 보아 15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된다.

### ■ 학일리 2호 가마터

쌍용저수지의 남쪽 끝 편에서 400여m 떨어진 임야 지역에 위치하며, 1호 가마터에서 남쪽으로 50m 정도 떨어져 있다. 이 임야지역은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가마터의 범위는 가로 20m, 세로 20m 정도로 추정된다. 지표에는 소량의 분청사기가 노출되어 있으나 지표 아래에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진 퇴적층이 확인되고 있어 비교적 큰 규모의 가마가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가마터에서는 분청사기와 청자·요도구·가마벽편들이 발견되는데 특이한 것은 지방의 분청사기 가마에서 일반적으로 행한 포개구이를 한 예가 보이지 않아 주목된다.

분청사기는 역시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간혹 병 편이 보인다. 유색은 암녹색이나 갈록색이 주류를 이루며 바닥에는 모래를 받쳐 번조한 것이 많다. 대접은 입술 부분이 외반한 것과 곧게 솟은 것이 있으며 기벽은 대체로 둥그스름한데, 내면에 몇 줄의 횡선문을 상감으로 베풀어 문양띠를 만들고 그 속에 승렵문·연판문·연꽃·국화·집단연권문 등을 인화로 장식하였다. 대접의 바깥 면은 장식 없이 그대로 두거나 간략한 인화 승렵문이나 횡선문을 베풀었다. 접시는 기벽이 사선인 것과 곤ainen 것의 두 종류가 있으며 문양 장식은 다양한 편으로, 상감된 횡선문과 인화로 베풀어진 승렵문과 국화문이 주로 보인다. 어떤 접시의 내면은 바닥 중앙에 와선문을 음각한 후 그 위에 귀얄로 백토분장을



자기片面

한 것도 있다.

분청사기 외에 소량의 청자편이 보이는데, 대접과 접시 종류에 암녹색의 유약이 씌워졌으며, 아무런 장식이 없어 편의상 청자로 분류한다.

요도구로는 아령 모양의 길쭉한 도침과 월반 모양의 흙으로 빚은 개떡이 보이는데, 윗면에는 그릇을 받쳤던 모래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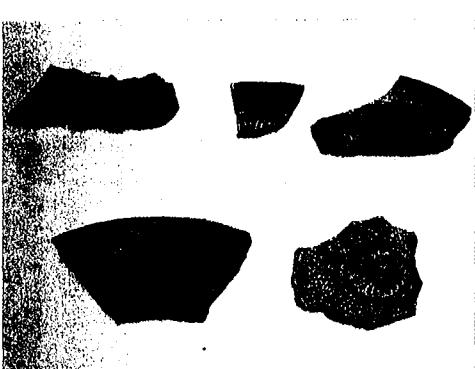
본 가마의 활동시기는 1호 가마와 함께 15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학일리 분청사기 가마터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양지현에는 남쪽의 함항(檻項)에 하품의 자기소와, 동쪽의 신림리에 하품의 도기소가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양지현의 남쪽이라면 지금의 원삼면과 백암면 일대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4곳의 분청사기 가마터가 발견되었는데, 바로 학일리에서는 두 곳이라지만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고 또한 2호 가마터는 지표 하에 상당한 깊이의 퇴적층이 존재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가마이고 번조수법에도 포개구이 없이 비교적 정성들여 제작된 점 등으로 보아 이곳이 바로 지리지에 언급된 하품 자기소인 함항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 (3) 백암면 고안리 분청사기 가마터

이 가마터는 일찍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도예가인 한익환 선생에 의해 발견되어 경기도의 문화재자료 65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백암면 고안리의 지내부락 남쪽에 있는 일명 사랑골 안에 위치하는데, 근래에 묘지가 커다랗게 조성되었으며 이 묘지와 묘지 사이에 있는 나지막한 구릉에 자리잡고 있다. 본 가마터의 좌측 편은 묘지가 조성되면서 일부 훼손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지표에 보이는 분청사기 파편이나 가마 벽편들의 범위는 가로 30m, 세로 40m에 이르지만 퇴적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것은 짙은 암녹색의 무문청자류와 상감분청사기·인화분청사기 등이고 그릇의 종류로는 대접과 접시류가 대부분이고, 제기나 항아리·병의 편들도 소량 보인다. 이중 대접은 기형이 풍만하고 당당한 조선 초기의 특징적인 모습을 하고 있으며, 국판문이나 원권문 등의 상감·인화 문양에는 이 시기 경기도 지방의 문양특징이 잘 반영되어

자기 片

있다.

요도구로는 아령 모양의 길쭉한 도침이 다수 확인되는데, 마사토질의 흙으로 만들어졌으며, 봄체의 윗면은 그릇을 놓기 좋게 하기 위해 편평하게 다듬었으며, 현재도 그릇을 놓았던 자국과 모래밭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리고 도침의 아래면은 가마의 기울기만큼 경사지게 만들어 가마에 놓으면 그릇이 수평이 되게끔 하였다. 또한 그릇을 구울 때 밑에 깔았던 장방형의 돌로 만든 것도 보이는데, 돌의 모양에 상관없이 그릇을 올려놓기 좋게 윗면을 다듬었으며 모래밭침의 흔적이나 그릇의 파편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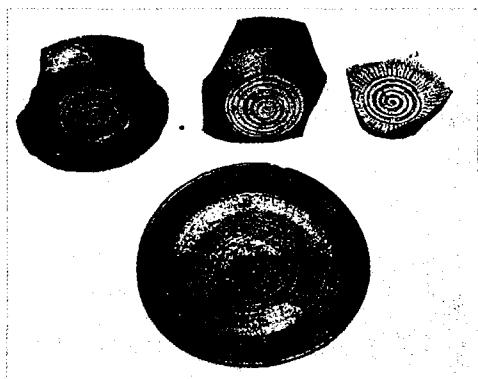
본 가마터는 조선시대 초기인 15세기 전반경에 운영된 소규모의 가마로 추정된다.

#### (4) 백암면 석천리 분청사기 가마터

백암면에는 조선시대의 대학자였던 반계 유형원 선생의 묘소가 있다. 이 가마터는 이 묘소의 바로 오른쪽 산 사면에 위치하는데, 근래에 4~5기의 묘가 조성되면서 퇴적의 일부가 손상되었다.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 싸여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며, 가마 유적과 퇴적의 일부가 반계 선생의 묘소 우측 편에 일부 노출이 되어 있다.

이곳에서 채집되는 것으로는 분청사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문양 장식이 없는 청자파편과 다양한 요도구들도 있다.

분청사기는 대접과 접시가 대부분이며 병도 보인다. 유약은 황갈색을 띤 것이 대부분이고 그릇의 바닥에 태토비침을 받치고 구웠다. 대접은 밑동에서 부드럽게 꺾여 굽으로 이어지며, 보통은 내면에 몇 줄의 음각선을 돌린 후 그 위에 귀얄을 백토로 발랐지만, 일부 국화와 승려문이 인화로 장식된 것도 보인다. 접시류는 형태와 장식이 비교적 다양한 편인데, 입술이 바로 서고 밑동이 각진 것과 입술이 외반하고 봄체가 완만한 곡면을 이루는 것 등이 있으며, 크기도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다. 접시 내면에는 벽면이나 바닥에 와선문을 상감한 것이 많으며, 일부에는 인화기법으로 국화문이나 승려문을 빼빼하게 배운 경우도 보인다. 병은 입술이 외반하고 목이 길쭉하며 밑으로 갈수록 점차 벌어지는 형태이나 아래 부분은 없다. 목과 입술에 몇 줄의 음각선



자기片面

을 돌인 후 그 주변을 백토칠을 하였다.

청자대접 파편은 분청사기 대접과 형태는 같지만, 광택이 있고 투명한 암녹색의 유약을 써운 다음 모래를 받쳐 구웠다.

요도구로는 도침이 보이는데, 마사토질의 흙으로 길쭉한 아령모양으로 만든 것과, 돌을 이용해 편평하게 다듬어 그릇을 올려놓을 수 있게 한 것의 두 종류가 있다. 모두 윗면에 그릇을 받쳤던 모래받침의 흔적이나 그릇 조가리가 붙어 있다.

석천리 분청사기 가마터 역시 15세기 전반경의 인화문이 발달하던 시기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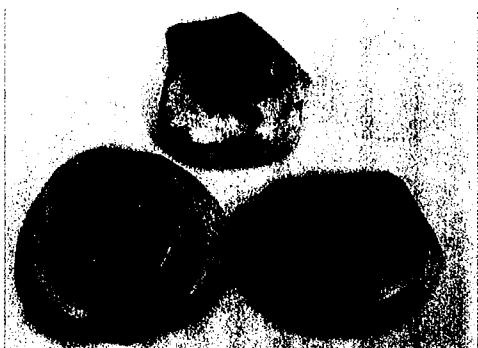
### 3.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동의 분청사기 가마터

별내면 청학동에서는 2곳의 분청사기 가마터가 조사되었는데, 경기도 내에서는 드물게 분청사기의 쇠퇴기인 15세기 말에서 16세기에 걸친 가마가 있어 주목된다.

#### ■ 청학동 1호 가마터

이 가마터는 70년대부터 알려졌지만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조사된 분청사기의 그릇 종류에는 대접·접시·항아리·병·대발(大鉢) 등이 있으며, 대접은 입술이 외반되고 양감이 있는 형태에 죽절형의 굽에 태토비침 받침을 두고 구웠는데, 특이하게 받침을 굽 안에 두지 않고 굽 외곽 둘레에 5~6개 붙였다. 대접의 내면에는 여러 줄의 선문과 인화로 된 국화문이나 우점문이 배풀어졌는데 인화기법이 얕아 백토의 감입이 깨끗하지 않고 문양이 선명하지 않다. 외면은 백토로 분장한 흔적은 있지만 전체가 희뿌연한 색을 띠고 있어 백자로 오인하기 쉽다. 특히 태



자기片

토의 색이 연회색이나 베이지색을 띠고 투명유가 시유되어 거의 백자처럼 된 종류도 있어 주목된다.

접시는 문양 없이 백토분장만 하여 마치 탁한 백자유를 썼을 것같이 보이는 것이 있으며, 와선문과 우점문 등이 장식된 경우도 얕게 시문되어 있다. 항아리 역시 백토 분장되었지만 거의 백자같이 보이며, 병도 백토분장 위에 음각기법으로 문양을 베풀었지만 얼핏 백자와 구별하기 곤란하나 단면을 보면

분장된 흔적이 보인다.

이 가마터에서 보이는 모든 상황은 분청사기에서 백자화로 되어 가는 과정의 것들인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이들은 문양 없이 백토분장만을 한 것과 문양이 있으나 얕게 상감이나 인화된 것으로 나뉘어지거나 어쨌든 겉보기에는 백색화된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 특히 일부 태토가 연한 회색이나 베이지색인 경우는 조선 초기에 유행한 연질백자처럼 보인다.

본 가마터는 우점문의 흐트러진 모습, 백토분장의 소홀함, 분장백자 등의 특징으로 보아 대략 15세기 말부터 16세기에 걸쳐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이행해 가는 과도기적인 양상을 띤 가마로 추정된다.

### ■ 청학동 2호 가마터

1호 가마터에서 남쪽으로 약 2km 떨어진 낮은 구릉지대에 위치한다.

이 가마터에서 조사된 것은 대접·접시·항아리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이 백자파편들이 고 이중에 간혹 분청사기 파편이 섞여 있다. 이들 분청사기는 모두 문양장식은 없이 대접과 접시에 백토만 분장된 것들이다.

대접 파편을 보면 밝은 회색 태토에 백토를 분장한 것인데, 내면은 전체를 두껍게 백토로 분장하고 외면은 상반부만 백토분장한 후 연한 녹색 기운이 보이는 투명한 유약을 씌웠다. 그래서 얼핏 보면 백자와 구별이 되지 않으며, 다만 외면에 백토와 태토의 색 차이로 이들이 백토분장된 분청사기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굽과 굽 주위는 시유하지 않고 1호 가마와 마찬가지로 태토비침받침을 굽의 바깥 측면에 두고 구웠다.

이 가마터는 한마디로 이미 백자가마로 변해 갔으나, 백자를 생산하면서도 일부 백자를 닮은 분청사기도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분청사기이지만 태토의 색이 밝은 회색이고 백토도 정선된 것을 사용해 분장하여 백자처럼 만들었다. 따라서 본 가마터는 조선 초기의 분청사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백자로 변하였는가 그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청학 2호 분청사기 가마터는 백자화가 진행되던 청학 1호 가마터가 이곳으로 옮겨와 백자 위주 가마터로 변한 것으로 추정되며, 시기는 대략 16세기 후반경으로 추정된다.

## 4. 기타 경기도의 분청사기 가마터

경기도내의 분청사기 가마터는 위에 열거한 것 외에도 많이 알려져 있다. 관련 학자들의 지표조사 활

동이나 곳곳에서 벌어지는 국토개발 사업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분청사기 가마터들이 확인되고 있다.

### ■ 과천시 문원리 분청사기 가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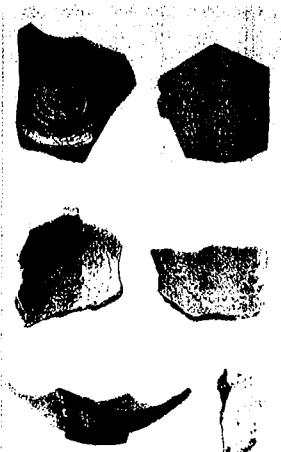
과천의 정부종합청사 뒤편의 용운암 옆에 위치한다. 여기서 발견되는 분청사기는 백토 분장을 두껍게 하여 백자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 특징으로 앞서 본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2호 분청사기와 그 특징이 거의 동일하며, 시기는 분청사기 마지막 단계인 16세기 후반경으로 추정된다.



자기 片

### ■ 가평군 외서면 삼회리 분청사기 가마터

가평군과 양평군의 군계(郡界) 지점에 있는 사기막골 안에 위치한다. 지표에서 분청사기 편과 도자미들이 발견되며 소량의 백자편도 보인다. 분청사기는 인화분청이 주류를 이루나 무문의 것도 있으며, 그릇 종류는 대접과 접시가 대부분이고 태도는 회색·회청색·회갈색을 띠며 모래받침과 태토비침받침을 사용해 구웠다. 문양에는 국화문·연관문·원문(圓文)·우점문·파도문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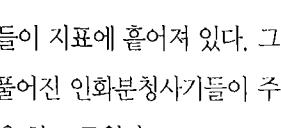


자기 片

### ■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분청사기 가마터

부곡리 절터의 북쪽 능선 끝에 위치하며, 주변에 파편과 도자미 등

의 많이 흩어져 있다. 분청사기 편은 대부분 인화문 분청사기이며, 간혹 백상감된 와선문이 베풀어진 분청사기 접시편과 무문의 백자편들도 발견된다. 인화문에는 국화문·원문·파상문 등이 보인다. 요도 구로는 작은 원반형의 개떡이 사용되었는데, 마사토질의 흙으로 만들고 윗면을 편평하게 다듬었으며 모래받침 흔적이 있다.



한 곳은 청소년 아영장이 조성되면서 가마가 파괴되어 분청사기 파편들이 지표에 흩어져 있다. 그릇은 대부분 완 종류이며, 국화문·연화문·화문 등이 인화기법으로 베풀어진 인화분청사기들이 주류를 이룬다. 굽은 단면 사다리꼴의 것과 죽절굽이 함께 보이며 모래받침을 하고 구웠다.

또 한 곳은 분청사기와 백자를 생산한 곳으로 그릇 종류로는 완·전접시·푼주 등이 있으며, 분청사기에는 원문·국화문 등이 베풀어진 인화분청사기들이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아 고려 말기적인 특징들이 남아 있어 조선 건국을 즈음한 시기에 활동한 가마로 추정된다.

###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분청사기 가마터

도신리 일대에는 조선시대 가마터가 7곳 정도 남아 있다. 이중 분청사기를 구웠던 가마는 두 곳에 서 확인되었다.

도신리 산 10~2번지에 위치한 가마터에서는 상감과 인화 분청사기편들이 발견된다. 문양으로는 국화문과 나선문이 보이며, 죽절형 굽에 태토비침받침이나 모래받침을 하고 구웠다.

도신리 산 21번지에 위치한 가마터는 넓은 범위에 자기편들이 산재해 있어 비교적 큰 규모의 가마가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청사기와 백자들이 혼재하고 있는데, 분청사기는 상감과 인화문이 베풀어진 것들이 보이며 대접·접시·병들이 채집된다.

### ■ 포천군 창수면 주원리 분청사기 가마터

이 가마터는 포천군 창수면 주원 5리의 군자동에 위치하며, 최근의 농지개간으로 가마의 하단부가 멀실된 상태이다. 지표에서 분청사기 파편과 도침·가마 벽체들이 발견되며, 인화분청사기류가 대부분이다. 문양으로는 초문·우점문·삼원문(三圓文)·화문 등 비교적 다양한 인화문들이 보이며 대부분 그릇의 안쪽에 베풀어졌다. 모래받침을 하고 구웠다.

이외에도 여주군 가남면 삼군리에도 분청사기를 구운 가마터가 확인되는데, 이곳에는 밭으로 변한 넓은 지역에 많은 백자편이 흩어져 있고 이 가운데 소량의 인화분청사기편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에도 인화분청사기를 생산한 가마터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안성시 금광면 사홍리와 삼죽면 배대리에 귀얄분청사기가 발견되는 가마터가 있다고 한다.

# 3

## 조선백자와 경기도

### | . 조선시대의 백자문화

백자는 흰색의 태토 위에 투명에 가까운 유약을 씌워 1300°C 가량의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고품질(高品質)의 자기를 말한다. 1만여 년에 가까운 인류의 도자기 역사에서, 보편적으로 이러한 백자를 만들어 사용하게 된 것은 불과 200~300년 전부터이며 지금도 백자의 시대라 부를 수 있다. 비록 중국에서 6세기 무렵에 백자를 처음 발명하였지만 오랫동안 청자 등의 도자기와 병존하면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 14세기 무렵의 원대(元代)에, 추부백자(樞府白磁)와 청화백자(青華白磁)가 발명되면서 중국도 본격적인 백자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어 중국의 수출 백자가 세계 각지로 퍼져나감에 따라 세계 도자사의 흐름도 백자에로의 전환을 준비하다가 17세기 이후 일본과 유럽에서 백자제작에 성공하면서 백자사용의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한국은 중국 도자기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은 나라이다. 지정학적인 요인과 장인들의 창의력에 힘입어 뛰어난 도자문화를 이루었던 우리나라에서는, 9~10세기에 처음으로 유리질의 유약이 씌워진 청자의 제작에 성공하면서 거의 동시에 백자도 만드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 이후 고려 500년 동안 한국에서는 청자가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백자도 소량이나마 끊임없이 만들어 사용되었다. 고려백자는 초기에 나타난 경질(硬質) 백자류와, 12세기 무렵에 전남 강진(康津)과 전북 부안(扶安) 가마에서 만든 연질(軟質)의 백자가 고려 말까지 지속되지만 일단 경질백자류는 지방에서 생산되면서 조질화(粗質化)되는 경향을 보인다. 어쨌든 이런 고려백자의 존재는 고려 말까지 이어지면서 일찍부터 수준 높은 조선백자가 성립될 수 있는 기술적 바탕이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 1. 조선백자의 성립

조선백자의 성립은 도자사적인 고찰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인 면에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국의 역사에서 조선의 개국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우선 단순한 왕조의 교체가 아니라 그 때까지 불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인 성향의 국가에서, 성리학(性理學)을 국가이념으로 한 현실적인 정치체제로 변화한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고려왕조를 무력에 의해 전복시킨 조선은 개국의 합리화를 위해 승유억불(崇儒抑佛)을 표방하여 이데올로기의 대변환을 시도하는 한편 신 왕조에 알맞은 개혁정책을 펼쳐 나갔다. 이런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수공업의 전반적인 정비와 더불어 도자산업에도 일정한 개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신흥왕조의 전범(典範)을 보여야 했던 왕실에서, 검약(儉約)과 실질을 승상하는 유교적 이념에 따라 전 왕조의 유산인 청자 대신에 새롭게 중국을 통해 들어온 원말명초(元末明初)의 백자를 하나의 상징 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여 신속하게 백자산업을 흥륭시키고자 노력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물론 조선백자의 성립은 앞 시기의 고려백자와 줄을 대고 있으며, 조선 초기인 1424년에 이미 중국의 요청으로 경기도 광주(廣州)에서 백자를 번조하여 바쳤다는 기록이 있어 백자제작 수준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지만 백자제작이 급속히 발전한 데에는 왕실의 힘이 컸다고 믿어진다. 특히 유교적 애민사상(愛民思想)의 전형을 보여주는 명군 세종대왕(재위 1418~1450년)은 어기(御器)를 백자로 전용(專用)하였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어 이런 왕실의 비호에 힘입어 조선백자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찍부터 그 특질이 형성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고려-불교-청자라는 상관성이, 조선-유교-백자라는 연결성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된 것이 조선백자의 성립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믿어진다.

이와 같은 정치적·사회적 변화에 따른 백자의 수용은 도자사적인 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수긍이 간다. 고려 후기는 원나라의 부마국으로 원과의 교류가 매우 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자기는 상감청자의 생산에 주력하고 백자에는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조선시대가 되면, 청자의 전통을 잇는 분청사기는 지방분권적인 양상—이것은 한국도자사에서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한국도자기는 고려에서 조선 후기까지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된 양상을 보이지만 분청사기만 유독 지방적인 특색을 보인다—을 보이며 지방산업화되지만 백자는 일찍부터 중앙, 특히 왕실에서 관심을 기울인 것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고려 때도 분명 백자제조 기술이 엄연히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와서 급속하게 백자가 발전하게 된 연유는, 중국과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왕조의 교체에 따라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한 신흥계급의 출현에 기인한 바가 컸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조선 초기

100여 년간의 도자기의 역사가 고려의 잔영(殘影)인 분청사기와, 조선의 상징인 백자와의 세력 다툼 같은 양상이 전개되지만 결국은 중앙집권에 의한 유교사상의 확산과 신흥 조선왕조의 정치적인 안정화에 발맞추어 전국적으로 도자기는 백자 위주로 바뀌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선백자의 성립을 순수히 도자사적인 면에서 보면, 일단 제작상의 기술적인 문제는 고려백자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리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렇지만 질적 수준이나 기형 등은 원말명초의 중국백자를 모델로 삼았음이 분명하게 간취된다. 가마터 조사나 남아 있는 예들을 보면, 조선초기의 백자기형을 대표하는 대접·항아리·주전자·병 등이 기본적으로 원말명초의 기형을 본뜨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볼 때 가마는 진흙으로 축조한 칸막이가 있는 전통적인 한국식 등요(登窯)를 사용하였지만 단단하고 백도(白度)가 높은 백자를 만들기 위해 태토와 유약 개발에 노력하여 고려백자에 비해 질적으로 훨씬 우수한 조선백자를 창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 2. 조선백자의 특질

조선백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특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조선백자의 성격을 규정짓는 특질들을 손꼽으면, 순백자 위주의 생산체제, 실용적인 기능성의 중시, 기종(器種)과 장식의 단순성, 백자제작 베커니즘의 전국적인 공통성, 색회자기(色繪磁器)의 부재(不在), 무역도자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조선시대 도자문화를 개관할 때 가장 눈에 띠는 점은 고려시대나 중국·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도자기의 종류가 거의 순백자 일색인 점이다. 조선시대의 가마터를 조사해 보면 90% 이상이 순백자이고 청화백자·칠화백자·진사백자·청자 등은 시대나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매우 드물게 보이며 도기나 옹기를 구웠던 가마터 역시 발견 예가 드문 형편이다. 한마디로 조선도자기는 순백자 위주였으며 그것도 음각이나 양각·투각 등의 장식이 베풀어진 예도 드물며, 기종도 대접이나 접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이로 보아 조선백자는 어디까지나 실생활 용기를 목적으로 생산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철저한 생활용기로서의 기능성이 우선적으로 강조된 점이 조선백자의 전체적인 특질을 규정하는 일차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생각된다.

156 이러한 순백자 위주라는 조선백자의 특질의 형성에는 실용성 외에 정책적인 면도 크게 작용하였던 것 같다. 유교적 덕목을 현실에서 구현하려던 조선왕조의 지배계층은 검약과 실질을 송상하고 사치풍

조를 극력 억제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국초부터 18세기까지 청화백자 사용을 사치로 규정하여 특별한 목적 외의 청화백자의 제작과 사용을 금하라는 왕의 훈시가 여러 차례 실록 등의 사서(史書)에 등장한다. 청화백자조차도 사치품으로 여긴 도자관으로 인해 백자는 당연히 무장식의 백자 위주로 시종일관하였으며 중국이나 일본의 도자계를 풍미한 색회자기류는 조선이 끝나는 그 날까지 철저히 외면 당하였다. 이렇게 유교적인 도자관에 기초하여 제작된 조선백자는 자기의 종류나 기종·문양·장식 등이 비교적 단순하여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대신 유교적 교양과 미의식(美意識)으로 단련된 양반계층의 기호에 따라 장식성보다는 전체적인 격조(格調)를 중시한 특유의 도자미가 형성될 수 있었다.

조선백자의 특질을 형성한 요인 가운데 ‘분원(分院)’으로 통칭되는 관요(官窯)의 운영과 그 영향을 손꼽지 않을 수 없다. 궁궐용의 자기를 생산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에 설치되었던 사옹원(司饔院) 분원은 1460년대부터 조선 말까지 도자산업의 센터로 활동하면서 그 영향을 전국적으로 떨쳤다. 관요로서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사기장들이 이곳에 와서 일정기간 종사해야 하는 제도로 인해 관요의 자기제조 기술이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도자기술 교육기관의 기능도 하였다. 따라서 전국의 지방가마에서 생산된 백자들이 중앙관요의 기형·변조방법 등과 거의 동일한 현상을 보이며 관요와는 단지 질적인 차이만 보인다. 이 때문에 관요 생산의 상품(上品) 백자 외에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여 명확한 제작지를 알 수 없는 것이 조선백자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또 다른 조선백자의 특질을 듣다면, 도자 산업적인 면에서 고려시대와 비교된다. 고려청자는 국내 수요 외에도 중국이나 일본에 수출되었던 무역도자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특히 중국측 사료인 ‘보경사명지(寶慶四明志)’, ‘지정사명지(至正四明志)’ 등을 보면 13~14세기에 중국에서 고려청자를 수입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며 일본이나 중국의 유적에서 고려자기들이 출토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 백자는 우수한 기술수준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국내 수요로 국한되었다. 조선 500년 동안 일본의 요청에 의한 수출용의 다완(茶碗)이 일부 존재했던 이외에는 조선백자는 전국적으로 오로지 내국인의 생활용기로 생산되었다. 이러한 산업상의 메커니즘으로 인해 조선백자는 중국이나 일본 등의 기호에 어울리는 장식성이 강한 오채(五彩) 등의 상회(上繪)자기를 일절 생산하지 않고 비교적 단순명쾌한 조선적인 특질을 계속적으로 보지(保持)해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3. 조선백자의 흐름

조선왕조는 500여 년이란 긴 기간 존속하면서 다사다난한 역정을 보인다. 도자사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러 빈의 변모를 겪게 되는데 조선시대 도자사의 편년은 일반적으로 전기·중기·후기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편년에 관한 이설들이 많지만, 요업(窯業)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임진왜란의 영향과 분원의 고정(1752년), 분원의 민영화(1883년)라는 3가지 획기적인 사건이 크게 주목된다. 이 글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전기는 개국에서 임진왜란까지(1392년~16세기말), 중기는 임진왜란 후 분원이 고정되기 직전까지(17세기~1751년), 후기는 분원고정 이후 분원이 민영화되는 시기까지(1752~1884년)로 설정하고자 한다. 시기별로 요업의 특성이나 백자제작상의 특징, 기형이나 문양장식의 특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조선 전기의 백자

조선 전기 백자문화의 특징으로 분원의 설치, 조선백자의 성립과 세련, 상감백자의 일시적인 성행과 소멸, 청화백자의 발생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조선 전기 200여 년간의 요업상황에 관해서는, 분원설치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분원이 설치되기 이전인 15세기 전반의 요업상황에 관해서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실린 자기소(磁器所)와 도기소(陶器所)의 기록으로 짐작할 수 있다. 국초의 산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음직한 이 조사는 1424년에 왕명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자기소 139곳, 도기소 185곳이 등장하며 상·중·하품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의 요업상황을 대략 추측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가마터 조사 결과, 자기와 도기의 구분이나 상·중·하품의 구분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자기소의 경우 극히 일부에 백자가 확인될 뿐 주로 분청사기가 발견되며 도기가 용기라는 주장도 있지만 용기요지는 거의 발견되지 않아 이들의 구분문제는 거의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다만 이 시기의 요지로 추정되는 경기도 광주의 번천리·우산리 가마터 등이 일부 발굴 조사되어 당시 백자요업 상황을 짐작케 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의 경안천(慶安川) 주변에 왕실소용의 기명을 담당하는 사옹원의 분원이 설치된 것은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대략 1460년대의 일로 추정되고 있다. 분원은 어기번조(御器燔造)라는 주요한 임무를 담당한 관요로, 중국 명나라 초기에 경덕진(景德鎮)에 설치된 관요인 어기창(御器廠)의 제도를 본떠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분원은 설치 직후부터 조선시대 요업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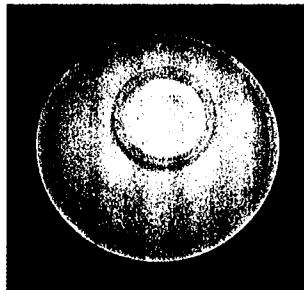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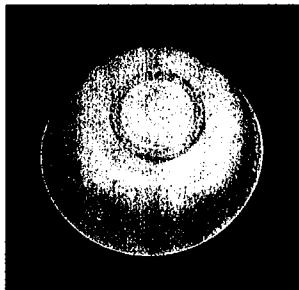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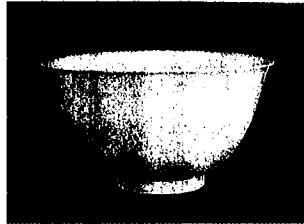
추적인 기관으로 작용하여 전국적인 백자요업의 확산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같은 분원의 설치에 따른 백자요업의 확산은 분청사기의 급속한 퇴조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15세기가 다가기 전에 이미 조선의 많은 지방에서는 요업이 백자 위주로 전환되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때 분원에서 생산된 백자를 보면, 갑번(甲燔)으로 정치하게 구운 상품백자와 다소 질이 낮은 상번(常燔) 백자로 구분되며, 전자는 도립삼각형(倒立三角形)굽에 가는 모래받침을 사용한 데 비해 후자는 죽절형(竹節形)굽에 토구(土球) 같은 태토비침받침을 사용하고 포개구이법으로 번조하여 제작방식에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이들은 같은 시기에 다른 가마에서 제작되어 분원 가마 내에서도 주요(主窯)와 종속요(從屬窯)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조사된 조선 전기의 지방백자 가마터는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하고 있어 16세기까지 백자제작과 백자사용이 지방에까지 널리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지방백자 가마에서 분원 종속요의 상번백자식 제작방식을 그대로 따랐음이 확인되고 있다. 신흥 왕조의 정치적인 안정에 따른 강력한 중앙집권화에 의해 요업형태도 전국적으로 공통된 양상을 보이게 되면서 이후의 지방백자의 발달을 위한 튼튼한 바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시기의 분원 가마로는 도마리(道馬里) · 무갑리(武甲里) · 관음리(觀音里) 가마 등이 있지만 도마리 가마가 대표적으로 이전에는 조선초기나 전기 백자를 통틀어 ‘도마리백자’라 불렀다.

조선 전기에 제작된 백자종류는 순백자 외에 상감백자 · 청화백자 · 철화백자 · 흑유백자가 있으며 진사백자는 사료에는 보이나 확실하게 남아 있는 예가 없다. 백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순백자는 거의 무문으로, 음각 · 양각 · 투각 등의 장식이 베풀어진 예조차 전기에는 매우 드물다. 백자질은 분원의 주요와 종속요에서 보듯이 정질(精質)과 조질(粗質)로 크게 구분되는데 정질의 상품백자는 순백색의 정치한 태토에 백도가 매우 높은 유백색(乳白色)의 백자유가 전면에 고르게 시유되었으나, 조질은 물레성형 자국이 남아 있는 정제되지 않은 기벽 위에 푸른 기를 많이 띤 백자유를 발랐으며 흔히 굽다리 근처에는 시유하지 않았다. 기형은 대접과 접시류가 대부분이고 병 · 항아리 · 잔 등이 다수 보이며, 합 · 장군 · 마상배 · 제기 · 전접시 · 태항아리 등은 드물게 보인다. 이중 이 시기에 궁중소용으로 번조된 상품백자의 대접과 접시의 바닥에는 ‘천(天)’ · ‘지(地)’ · ‘현(玄)’ · ‘황(黃)’의 명문이 새겨진 경우가 많으며 이보다 약간 뒤늦은 시기의 가마터에서는 ‘좌(左)’ · ‘우(右)’ · ‘별(別)’ 등의 명문이 있는 파편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어쨌든 이런 명문이 새겨진 예들은 조선 전기에 해당된다.

조선 전기의 상감백자는 고려 상감기법의 전통을 이어받아 15세기 무렵에만 나타났다 사라진, 한국



'현(玄)' · '황(黃)'의 명문이 새겨진 백자 대접

도자사에서 특이한 존재로 흑상감(黑象嵌)만으로 시문되어 ‘흑상감백자’로도 불린다. 조선 초기의 특징적인 연질백자에 배풀어진 예가 많지만 경질백자에도 나타나며 병·대접류에도 있지만 특이하게 편병 종류에 많은 평평한 양쪽 축면에 반추상화된 초화문을 활달하게 시문하여 독특한 경지를 보인다.

조선 초기 도자사의 최대의 사건은 역시 청화백자의 발생이다. 사료와 유존례, 가마터 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청화백자의 발생시기를 15세기 중엽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세조 연간(1456~1468년)에 국산 청화의 개발에 노력하였다 기록이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데, 당시 중국을 통해 수입한 청화 안료인 회회청(回青)의 값이 금(金) 값과 대등한 고가여서 왕실 외의 사용을 엄하게 규제하였다. 특별한 용도로 매우 드물게 번조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초기청화백자는 그래서 현존하는 작품 역시 매우 드물다.

초기 청화백자는 일단 기형이나 문양에서 중국 원말·명초의 영향이 짙게 감지된다. 유존례나 가마

터 출토편들을 보면 중국적 영향이 강하게 보이는 것과, 조선적으로 변모하는 것, 완전히 조선화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화려하고 복잡한 문양구성에서 점차 공간감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보인다. 따라서 종속문양대(從屬文樣帶)가 등장하고 주문양(主文樣)이 비교적 복잡하게 시문된 것이 초기적인 것이고, 종속문이 사라지거나 간략화되고 문양의 여백이 넓어진 것이 후기적인 특징이다. 이런 문양의 변화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시기의 유일한 기념작(紀年作)인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홍치(弘治) 2년(1489년) 명 송죽문 항아리’이다.

청화문양으로는 당초문이나 매죽·송죽 등의 사군자문류가 많으며 간혹 물고기문이나 용문이 등장하는데 위낙 고가의 안료 때



홍치(弘治) 2년 명 청화 백자 송죽문 항아리

문인지 당시의 도화서(圖畫署) 화원(畫員)이 그린 듯 회화성이 강하여 작품마다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것 같다. 이 시기 청화는 암청색의 짙은 발색을 보이지만 간혹 거의 흑색을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이들이 혹시 국산 청화인 토청(土青)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분명치 않다.

## (2) 조선 중기의 백자

중기는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인 17세기부터 광주의 분원이 남종면 분원리에 고정된 1751년까지의 150여 년간을 말한다.

1592년에 시작되어 7년간의 전쟁으로 한반도의 전역을 황폐화한 임진왜란은 조선왕조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 사건으로 조선의 역사는 여기서 큰 분기점을 이룬다. 막심한 폐해를 입은 조선왕조는 종전 후 폐해 복구에 애쓰지만 설상가상으로 청(淸)에 의한 호란(1620~1636년)까지 당하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의 요업은 거의 정파(停罷) 상태가 되며 분원조차 정상적인 조업을 못하여 왕실의 제례(祭禮)에 사용되는 청화자기가 없어 백자에 가화(假畫)를 썼다고 한다. 하지만 요업의 복구는 비교적 신속하여 17세기 중엽 선동리 가마의 경우 활발한 생활활동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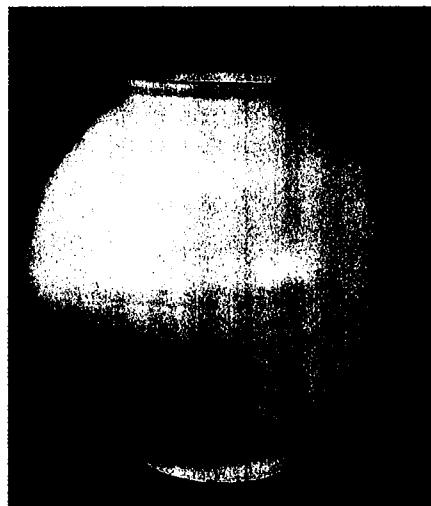
조선 중기 분원의 특징 중 하나는, 팔감을 위한 수목이 무성한 곳을 찾아 10년마다 분원이 이동하였다 사실이다. 자기 번조에 소용되는 막대한 양의 나무를 조달하기 위해 광주지역 내에서 이동하지만 시장(柴場 · 팔나무가 나는 장소)의 감소와 분원의 이설(移設)에 따른 경비 등이 문제가 되어, 결국 1752년에 수운(水運)을 통한 팔감의 조달이 용이한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에 분원을 고정시키게 된다. 이 시기 분원가마는 17세기의 탄벌리(炭伐里) · 상림리(祥林里) · 선동리(仙東里) · 유사리(柳寺里) · 신대리(新垈里) 등이 있고 18세기에 오향리(五香里) · 금사리(金沙里) 등이 있는데, 이중 금사리가 유명하여 일찍부터 중기백자를 ‘금사리백자’라 불렀다. 이중 17세기 분원 가마터에서 ‘간지(干支) + 좌(左) · 우(右) + 숫자’가 새겨진 백자편들이 발견되어 이 시기의 주요한 특징이 된다.

조선 중기의 지방가마들은 전기에 이어 역시 분원의 번조 방법을 배워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오목굽에 굽은 모래를 몇 곳에 모아서 받치는 새로운 번조법이 나타나며 철사안료로 간단한 초화문이나 추상문을 그린 철화백자가 양산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 시기의 조선사회는 중국에서 임진왜란 당시 원병을 보내주어 은인의 나라로 여긴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 왕조가 들어서자 만주족이 세운 청을 ‘야만(野蠻)’이라 규정하고 ‘조선중화주의(朝鮮中華主義)’를 제창하면서 청나라와의 관계를 끊어 확실한 조선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 이런 결과로 17세기 후반에 실학이 대두되고 조선 것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성찰이 이루어져 점차 중국 냄새가



정선의 금강전도



백자 달항아리

배제된 조선 특유의 문화가 형성되는데 이런 문화현상이 절정을 이루는 18세기를 정선(鄭燦·1676~1759년)의 진경수화(眞景山水畫)로 대표 삼아 ‘진경시대’라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중기의 백자는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가장 조선적인 도자미의 세계를 이루었으며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중기백자 문화의 특징은 백자질의 변화, 새로운 기형의 창출, 철화백자의 성행, 간결한 칭화문의 유행 등으로 대표된다.

중기백자는 17세기 전반까지는 전란의 여파로 앞 시기의 요업형태를 따르지만 질이 하락하여 백자는 대체로 회백색(灰白色)을 띤다. 17세기 후반에 들어 백자질이 좋아지다가 18세기 전반에 설백색(雪白色)의 우수한 백자를 만든다. ‘금사리백자’로 통칭되는 설백자(雪白磁)는 눈같이 흰 백색의 태토 위에 투명에 가까운 백자유를 얇게 씌워 구운, 최고의 백자기술을 보이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백자이다.

형태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 전기의 불룩감이 강조된 당당한 형태에서 위 아래로 세장(細長)해진 준수한 형태로 변모한다. 시대적 변화를 의식하여 청에 대항하는 굳센 의지를 반영한 듯 병이나 항아리의 둥근 면을 각(角)지게 깎은 모깎이의 형태가 새롭게 유행하는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며 조선백자 미학의 정수라 평가되는, 원형(圓形)의 소위 ‘달항아리’가 이 시기 후반에 완성된다.

이러한 조형적 변화와 더불어 문양장식도 크게 변한다. 우선 17세기에는 철화백자의 전성시기를 맞는다. 청화안료의 구입과 번조가 어렵게 되자 구하기 쉬운 안료인 철사를 사용하여 전기의 철화백자와 철화분청사기의 전통을 이어서, 분원과 지방 가마에서 다 같이 철화백자를 왕성히 번조하였다. 특히 이 시기의 철화문은 질이 좋지 않은 회백자 위에 해학적인 운룡문(雲龍文)과 간단한 필치의 추상

적인 초화문이 성행하지만 간혹 보이는 회화적인 철화백자는 분원 가마에서 청화백자의 대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17세기의 청화백자는 현재로서는 확실한 유존례를 단정하지 못하며 다만 청화로 쓴 묘지(墓誌)가 발견되고 제기의 일부에 사용될 정도로 그 존재는 미미하였다.

18세기에 들면 청화백자가 새로운 경지를 이룬다. 기면(器面)에 여백을 광활하게 두고 동체 하부에 지평선 같은 청화 선(線)을 그은 다음, 그 위에 매화·난초·대나무·석죽(石竹) 등의 사군자문 종류를 매우 간결한 필치로 그린 소위 ‘추초문(秋草文)’ 형식이 성행한다. 마치 문인들이 여기(餘技)로 그린 수묵의 사군자화 같은 분위기의 그림은 서정미와 고아(高雅)한 문기(文氣)를 짙게 보이는 독특한 도화(陶畫)의 세계를 보인다. 그러나 이 시기 중국과 일본에서 상회자기가 도자기의 주류를 이루었음에도 조선에서는 청화백자조차도 사치스럽다고 하여 규제가 계속되고 있어 생산량은 많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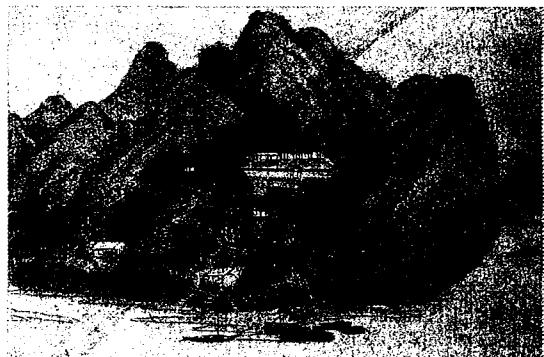


청화백자 죽문 각병

### (3) 조선 후기의 백자

분원의 이설에 따른 갖가지 문제로 인해 고심 끝에 영조(英祖 · 재위 1724~1776년)는 1752년에 수운이 가장 편리한, 남한강과 북한강의 합류 지점인 남종면 분원리에 분원을 고정시킨다. 이후 분원은 한 곳에 정착하여 왕성한 활동을 벌이지만 19세기 말에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민간자본의 분원 유입이 심화되자 1884년에 분원의 민영화(民營化)가 결정되면서 중앙관료로서의 분원은 종말을 고한다. 후기는 분원리에서 정착 활동한 150여 년간을 말하며, 후기백자를 통칭 ‘분원백자(分院白磁)’라 부른다.

후기백자가 시작되는 18세기 중엽 이후의 조선사회는 청의 발달된 문물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상공업의 발달로 중인(中人) 계층이 부상하면서 유교적 신분질서가 서서히 무너져갔다. 특히 정조



정선이 그린 분원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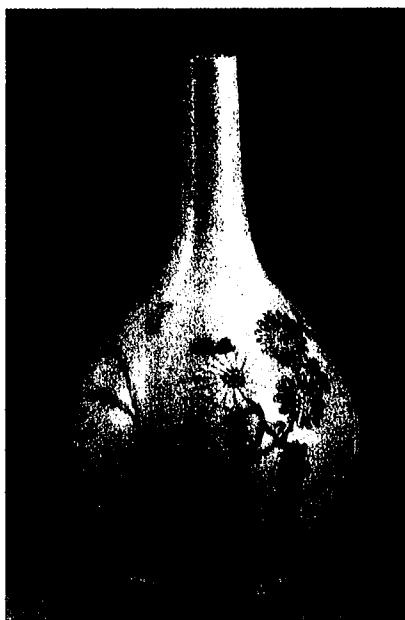
(正祖·재위 1776~1800년)는 과감한 개혁과 중국을 통한 선진문화의 수용으로 새로운 문예부흥기를 열었다. 그러나 19세기부터는 왕권의 약화와 자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으로 신분질서가 붕괴되면서 양반계층이 확대되며 이런 사회상황은 곧 미술의 민예화와 사치화를 불러일으켰다.

조선 후기 백자는 실용성과 장식성이 강화되어 ‘생활의 미’를 추구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기형은 실용에 치중하여 기벽이 두꺼워져 중후한 조형감을 보이지만, 반면에 유색은 푸른 기운이 감도는 담청백색(淡青白色)으로 변하여 ‘청백자(青白磁)’로 부를 정도로 벽옥(碧玉) 같은 화사한 색감을 보인다. 기종은 앞 시기에 비해 다양해지며 특히 양반계층의 확산에 따라 문방구류의 생산이 급격히 많아진다. 이런 문방구 중에 참신한 아이디어로 만든 재치 넘치는 기형들이 많다.

이 시기의 백자에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장식문양이 등장하여 당시의 사치스런 풍조를 반영하고 있다. 순백자류에도 투각이나 양각문양이 화려하게 장식된 것들이 많지만 음각문은 드물게 보여 대조적이다. 후기에는 무엇보다 청화백자의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히 ‘청화백자의 시대’라 부를 만하다. 18세기 후반에는 사군자문과 소상팔경(蕭湘八景) 등의 산수문·운룡문 등의 청화문양이 성행하는데 화원이 그린 우수한 솜씨의 회화적인 문양이 많아 볼 만한 도화들이 많다. 19세기 이후에는 초화문·산수문·운룡문 외에 민예적인 성격이 강한 길상문(吉祥文)이 많이 등장하여 십장생문·모란문·잉어문 등이 유행한다. 화풍도 세필(細筆)로 정성들여 그린 깔끔한 것과 몰골(沒骨)의 거친 필치로 대담하게 그린 것 등 표현방법도 다양해진다. 그리고 진사(辰砂) 안료의 사용이 증가하여 지방 가마에서도 대담한 연화문 등이 그려진 진사백자들이 번조되었다. 또한 한 기물 위에 서로 다른 색의 안료를 사용한 문양장식을 베풀어 화려함을 보이는 것들도 다수 등장하는데 청화와 철사, 청화와 진사를 혼용한 것이 대부분이며, 청화·진사·철사의 3색을 한꺼번에 사용한 것도 매우 드물게 보인다.

특히 3색 사용이란 고난도의 번조기술을 구사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저화도(低火度) 번조의 상회(上繪)자기는 생산하지 않은 것은 조선백자 문화의 성격을 단적으로 나타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백자는 참으로 다양한 세계를 이루었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외래문물의 이입에 영향받아



청화백자 철사진사국화문 병

질적이나 양적으로 한층 풍부해진 내용을 보이며 백자는 서민생활에까지 깊숙이 침투되었다. 실용성에 충실한 중후한 기형, 담청백색의 화사한 백자질, 청화백자 등 문양장식의 성행 등으로 대표되는 후기백자는, 전·중기를 통해 집적되어온 조선백자의 역량이 총체적으로 화려하게 꽂피운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무렵부터 국운이 쇠퇴하여 사회가 어지러워지면서 조선백자도 정채(精彩)를 잃고 혼탁하게 변하다가 분원이 혁파되고 일본의 신기술이 밀려들면서 급격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더욱이 1910년에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일본식 백자로 대체되어 조선백자의 명맥은 거의 끊어지게 되었고 재도약의 기반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어 조선백자는 마침내 역사의 장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 4. 조선백자의 미학

조선백자의 미학적 특질은 조선백자의 성립과 전개과정에서 일어난 갖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조선백자뿐만 아니라 도자기를 포함한 공예 일반의 기본적인 속성상 그 시대가 요구하는 특정한 미의식(美意識)이 공예의장화를 통해 추상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조선백자의 미학적인 특징을 규정하기 위해 힘써 살펴 볼 부분은 중국과 일본 등의 인근 국가의 도자기와 비교해 보는 일이다. 세계의 도자사를 주도해간 나라들로 일찍부터 명망이 높은 동북아시아 삼국의 도자기들은 장구한 세월 동안 서로 간에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나라마다의 특징적인 도자문화를 일구어 나갔다. 따라서 한·중·일 세 나라의 도자기를 비교해 보면 우리 도자기나 조선백자의 미학적 특징을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1) 조선백자의 미학적 특질

20세기 초반에 일본의 도자 비평가들은 조선시대의 도자기를 두고 “조선의 도자기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태어난 것이다”라고 격찬하였다. 이는 한마디로 중국과 일본의 도자기들에 비해 인공적인 냄새가 없고 순일한 자연스러움을 보인다는 것이다. 고도로 발달된 기술을 바탕으로 엄격하고 빈틈없는 기계적인 아름다움에 집착한 중국 도자기나 다도(茶陶)에서 추구한 파격의 미와 세심한 기교적인 장식미에 탐닉한 일본 도자기에 비해 조선의 도자기는 작위적인 형식성이나 공예적인 획일성 내지 경직성, 과시적인 장식성 등이 없고 원래부터 자연 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던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것

이다. 인공적인 것이 비록 매끈하고 눈길을 사로잡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갖는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에서 오는 자연의 생명력이나 편안함이 우리 인간에게는 정서상으로 더욱 소중한 것이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우리의 조선백자를 그렇게 평한 것이다. 조선백자를 보면 과연 그러하다. 세계의 도자기, 특히 유약을 바른 고품질의 자기를 보면 하나같이 정성을 들여 잘 만들었지만 거기에는 공예적인 속성에서 비롯된 규격화되고 기계적인 생김새나 장식성을 여지없이 내보인다. 그런데 이런 공예적인 일반성이 조선백자에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완화되어 있어, 같은 기형이라도 하나 같지 않고 조금씩 차이나며 장식된 문양들도 비록 디자인화된다 하더라도 항상 얼마간의 자연적인 생기(生氣)가 남아 있으며 특히 장식과 기형이 서로 잘 어울리도록 배려하였다. 그래서 조선백자를 대하면 이들이 하나하나 손으로 만든 수제품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와 닿아, 다른 나라의 도자기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기계적인 대량 생산품 같은 분위기와는 크게 구별된다.

조선백자를 포함한 우리나라 도자기 전체에서 보이는 이런 ‘핸드-메이드’적인 감각은 천성적이라고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도자사에서 보이는 이러한 기본적인 줄거리는 우리 민족의 천혜의 감수성 덕분이라 생각되지만, 조선백자에는 고려청자와는 또 다른 미학이 존재하면서 특질을 형성한 점도 유념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조선백자의 미학적 특질의 근저에는 조선의 건국이념인 유교가 있음은 누차 강조된 바 있다. 유교는 다사다난했던 조선왕조를 500여 년 동안 지탱한 원동력으로 효·제·충·신·예·의·염·치를 기본 덕목으로 강조하는 한편, 일상생활에는 근검과 절약, 청빈낙도(淸貧樂道)를 규범으로 삼았다. 이런 생활의 규범은 자연히 조선인들에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작용하여 조선사회 전체에 사치로움이나 장식적인 경향을 배제하고 검약과 절제를 바탕으로 한 고차원적인 미의 탐구에 이르게 하였다. 특히 사치스런 물건에 대한 탐닉은 선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 하여 왕실에서부터 그의 사용을 엄금하였으며, 따라서 일상생활에 꽂 넓게 사용되는 도자기에도 그런 생각과 정책이 자연스레 반영되면서 조선시대 도자기의 미적인 본질을 규정하였다. 그래서 도자는 개桀한 유학자의 마음바탕을 보는 듯한 순백색의 선호로 이어져, 조선 도자기 생산량의 90% 이상이 오직 아무런 장식이 없는 순백자이었으며 사치와 장식성을 배제하고 실용에 주력하여, 만든 종류도 철저히 생활용의 대접이나 접시·항아리 등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면서 조선인들은 항상 미적인 가치를 염두에 두어 이의 구현에 노력을 기울였는데, 조선의 전체적인 미학의 흐름은 ‘꾸미되 사치스럽지 않고 질박하되 누추하지 않은 정도’의, 곧 중庸의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적인 추구였다. 이들이 추구한 미의 경지를 흔히 ‘격(格)’ 혹은 ‘격조(格調)’라고 이름하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도자기의 미학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된다. 한마디로 조선백자는 유교사회

의 교양과 감성에 걸맞은 격조 있는 생활의 미에 충실하였으며, 이런 미학적 바탕이 조선백자의 형태나 문양장식에 일차적으로 작용하였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유교적 미학에 바탕한 도자기 만들기의 결과로 조선백자는 시대를 달리해 가면서 여러 가지 변모를 겪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흐름은 일관되게 유지하여 세계 도자사에서도 수준 높은 성과로 손꼽히는 ‘조선백자의 미학’을 일구어내었다. 이런 사실은 특히 16세기 이후 중국도자기를 중심으로 범세계적으로 전개된 상회(上繪)나 색회(色繪)자기의 생산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철저히 외면당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유약의 곁면에 다시 납을 섞은 채색안료로 올긋불긋하게 장식하여 도자기의 장식효과를 높인 중국의 오채자기(五彩磁器)류에 전 세계가 열광하면서 이에 대한 수입과 추종에 전력을 다하였지만, 조선에서 이를 만들려고 단 한번도 시도하지 않은 것은 기술적인 문제와는 전혀 관계없다. 고화도(高火度)의 유리 속에서 청화·철사·진사를 한꺼번에 번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조선의 사기장들이 이를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청화백자조차도 사치로 규정하고 이의 생산이나 사용을 막았던 나라에서 상회자기는 수용할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또한 상회자기에 섞인 유독한 납성분 때문에 근본적으로 생활도자기 위주의 조선 요업에는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상회자기의 부재(不在)로 대표되는 조선 백자문화의 특이성은, 무역도자의 부재라는 또 하나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중국과 일본이 상회자기를 바탕으로 세계도자기 무역시장에 진출한 것과 달리, 이들과 지정학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선에서 도자기 무역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 이는 앞서 본 바대로 기술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으며 다분히 조선의 통치세력이 갖고 있던 국가관리의 기본 이념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에는 사(士)·농(農)·공(工)·상(商)이라 하여 신분을 구별하면서 사와 농을 우선시하고 공·상은 천예(天隸)로 취급하였다. 같은 일반 서민들인데도 공·상을 특히 천하게 여긴 데에는 유교적인 가치관에도 원인이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한정된 자원문제에서 오는 불필요한 생산의 억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조선의 중앙정부에서는 일찍부터 전국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면서 백자를 만드는 백토의 사용도 상당히 규제하였다. 이



중국 명대의 오채자기(五彩磁器)

는 자원의 낭비를 막아서 이 땅에서 나는 자원을 되도록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배려로 생각되는 바가 많은데, 이런 연유로 해서 조선의 도자기 생산이 철저히 국내용으로 한정되고 무역도자는 한때 일본의 주문에 의한 다완(茶碗)의 수출 정도로 그쳤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런 상회자기와 무역도자의 부재라는 특이한 사항들이 결과적으로 조선의 도자기가 비교적 단순명쾌하게 조선적인 특질을 계속적으로 지켜 나갈 수 있게 하였다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도자기의 기술개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음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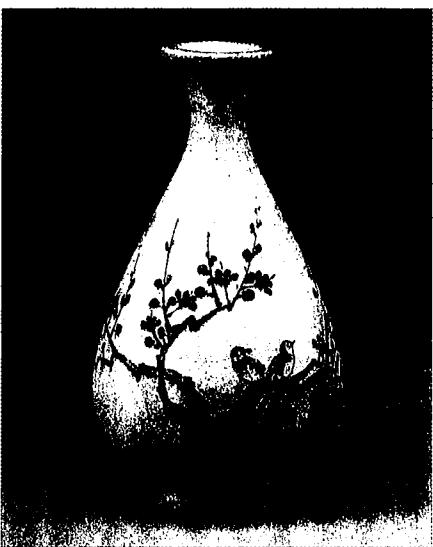
## (2) 조선백자의 시기별 미학적 특징

조선백자의 미학적 특질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았지만, 전체적인 특질을 집약하여 설명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이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기별로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다.

먼저 조선 전기(1392~1599년)의 백자를 미학적인 면에서 보면, 우선 형태적으로 신흥왕조의 활기찬 기품을 반영하듯 전체적으로 기운이 넘치고 당당한 자태를 자랑하면서 내면의 높은 정신세계를 추구한 유학자들의 안목에 어울리게 엄정한 기품이 서려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마치 유학자들의 결백한 성품을 상징이나 하려는 듯이 티없이 깨끗한 순백의 아름다움에 탐닉하여 유례없이 뛰어난 순백자의 명품들을 생산하였으며 간혹 청화나 철화백자를 통해 문인들이 즐겨 완상한 수묵화와 방불할 정도의 격

조가 높은 도화(陶畫)의 세계를 펼쳐 보이기도 하였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조선 전기의 백자는 중국의 원 말명초(元末明初) 도자기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중국의 자기과시적이고 비육(肥肉)한 느낌이 드는 감각과는 달리 절제된 외형과 튼실한 내적인 힘을 보이며 장식문양에서는 조선적인 서정성과 한결 개운해진 구성을 보인다. 특히 청화백자의 토착화 과정에서 보여주는 장식문양의 변화에는 우리 민족의 감수성의 전형을 보는 듯한데, 처음의 모방단계에서는 중국적 영향에 비교적 충실히 복잡한 구성을 보이지만 곧이어 공간감이 확대되고 화면이 훨씬 여유롭게 변하면서 기형과 문양장식이 쾌적한 비례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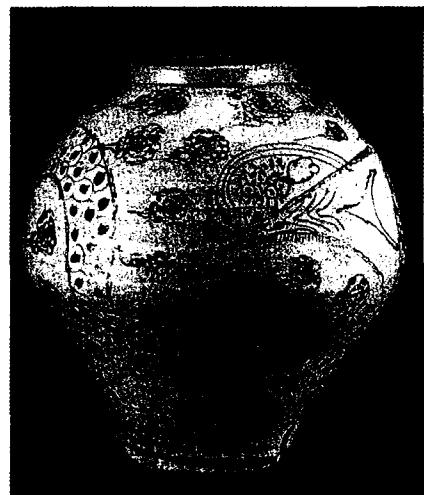


청화백자 매죽문 병

중기(1600~1751년)의 백자는 ‘조선중화주의’에 입각한 시대적 분위기에 힘입어 한마디로 철저히 국풍화된 조선적인 도자미의 구현이라 정의할 수 있다. 조선 전기의 백자가 기개 넘치는 현현장부같이 잘 생겼다면 중기의 백자는 인품이 빼어난 지조 높은 선비의 현신(現身)을 보는 듯한 청신한 아름다움이 있다. 위 아래로 길어진 청수한 자태와 강파른 분위기의 모깎이 병, 원만구족의 경이로운 원형감을 주는 달항아리, 고아한 문기(文氣)를 보이는 청초하기 그지없는 청화문양 등이 유행하였다. 이들은 절제와 균형, 빼어난 공간감, 자연에 기초한 철학적인 구성 등에서 보이는 고결함으로 인해 조선도자사상 가장 뛰어난 격조의 미학을 이루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도자사적으로 보면, 세계도자사의 조류가 색회자기 위주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중화주의에 입각하여 펼쳐진 중기백자의 세계는, 결국 조선미(朝鮮美)의 완성과 도자 기술의 정체(停滯)라는 명(明)과 암(暗)의 양면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한편 임진왜란 직후 17세기에 유행한 철화백자는 결코 아름답다 할 수 없는 거친 백자의 바탕 면 위에 천진난만하고 유머러스한 용그림이나 추상적인 문양들이 대담하게 펼쳐지면서 아주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망외(望外)의 백자미학이 자리잡고 있어 우리 도자사를 풍요롭게 한다. 게다가 이 시기에 만들어진 항아리들은 상부와 하부를 따로 만들어 붙여서 구웠는데, 접합부분이 구우면서 뒤틀리거나 이지러진 것이 보통이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이를 즐기듯이 사용한 결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자연 그대로의 항아리가 존재한다. 이를 보고 세계의 도예인들은 만든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무심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찬탄하고 있다.

후기(1752~1884년)의 조선백자는 상공업의 발달에 따른 신분질서의 동요와 새로운 청나라 문물의 영향으로 이전에 보이지 않던 사치화와 민예화가 성행하여 격조보다는 민예적인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기형은 실용에 치중하여 기벽이 두꺼워져 중후한 조형감을 보이지만 반면에 유색은 푸른 기운이 감도는 담청백색(淡青白色)으로 변해 청백자라 부를 정도로 벽옥 같은 화사한 색감을 보인다. 기종(器種)도 한층 다양해지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만든 재치 넘치는 형태들이 속속 등장하며 장식문양들도 유례없이 다양해지고 표현방법이나 장식기법도 다채로워진다.



철화 운룡문 호



청화백자 잉어문 접시

후기 백자에는 한마디로 이제까지의 한국도자사가 걸어 오면서 이룩한 모든 요소들이 한데 통합되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는 듯한 시도들이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이전과는 분명 다르면서 보다 현대적인 면모로 변해 가는 여러 징후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대적인 어려움 탓인지 우리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도자미학적 경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채 일제의 침략에 의해 그 운명이 애석하게도 끝나버렸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후기백자가 20세기 초의 세계적인 민예운동가들에게는 새로운 도자미학의 이상(理想)으로 여겨져, 영국의 버나드·리치나 일본의 하마다 쇼지(濱田庄司) 같은 유명한 도예가들이 이의 영향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 5. 조선백자의 기술과 종류

### (1) 조선백자의 기술적 특징

조선시대의 도자기는 초기의 100여 년간 백자와 분청사기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이후부터는 백자가 주류가 되어, 왕실에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백자를 사용하였다. 조선백자는 왕실용의 고급한 것은 '분원'이라 불리는 특정한 가마에서 만들어졌고 일반 서민용은 전국 각지의 지방가마에서 만들어졌다. 재미있는 것은 이 백자들이 그릇의 모양이나 제작방법이 기본적으로 비슷하며, 다만 백토의 질에 우열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왕실용 백자를 생산하던 관요(官窯) – '분원'이라 부른다 – 가 전국의 도자기 기술센터 같은 역할을 하여 그곳의 기술이 전국적으로 퍼급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지방적인 차이나 계층 간의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점이 조선백자의 큰 특징이다.

조선백자의 기술적인 면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백자의 종류에는 순백자 외에도 청화백자·철화백자·진사백자 등이 만들어졌으나,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이 순백자이다. 한마디로 조선시대는 장식이 없는 순수한 백색의 자기를 좋아하고 이를 대량 생산하여 사용하였다. 이들 백자는 한국의 전통적인 등요(登窯)에서 환원염(還元焰)으로 구워져 백토는 매우 흰 편이나 유약이 약간씩 푸른 기운을 띤다. 이들 백자색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데, 이는 백토의 질과 유약의 투명도와 함유된 철분의 양에 따라 결정되었다. 백토는 관요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우수한 품질의 고령토를 구해 사용했으며, 지방

가마는 인근에서 파내어 사용하였다. 백자색은 전기에는 순도가 매우 높은 백색이나 유약이 약간 불투명한 경향을 보이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한동안 깨끗하지 못한 백토가 사용되어 회색이 많은 백자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18세기 전반에는 매우 흰 백토에 아주 투명한 유를 씌운 눈같이 고운 백자가 만들어져 백자기술의 최고 수준을 보인다. 18세기 후반에는 다시 유약에 의도적으로 철분을 가하여 푸른 기운이 많은 백자를 만들었는데 이는 마치 벽옥 같은 아름다움을 보인다.

조선백자의 기술을 논할 때, 가장 주목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중국의 오채(五彩)자기 같은 유상회(釉上繪)자기(고화도(高火度)로 백자를 구운 다음 유면(釉面) 위에 다시 적·황·녹색 등이 나는 연유(鉛釉)계통의 안료로 그림을 그린 뒤 낮은 온도에서 다시 한번 구운 자기)를 전혀 만들지 않았던 점이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중국에서 15세기 후반에 백자의 상회기술을 개발하여 이후 중국백자의 주된 종류로 발달하였으며, 이들은 유럽 등지에 왕성히 수출되었고 일본에도 강한 영향을 주는 등 그 기술이 전 세계에 파급되었지만, 일찍부터 중국 도자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한국에서는 유독 이 종류만은 완전히 무시하였다.

조선백자의 기술은 인근 국가인 일본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16세기까지 청자 등과 같이 유리질의 유약을 씌워 높은 온도에서 구운 자기질의 그릇을 만들지 못하고 원시자기인 회유도(灰釉陶)를 생산하는 수준에 있었다. 이윽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때 일본군은 조선의 사기장들을 많이 잡아갔으며 이들에 의해 비로소 일본은 백자를 만들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규슈의 이마리(伊万里) 자기는 이렇게 하여 발생되었으며, 일본은 이 전쟁을 ‘도자기전쟁’이라고도 부른다. 이 사건 이후 일본은 다시 중국에서 상회기술을 배워 요업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면서 세계적인 자기 생산국이 되었다.

## (2) 조선백자의 종류

조선시대의 백자에는 문양장식에 사용된 안료의 종류에 의해 순백자·상감백자·청화백자·철화백자·진사백자·다채장식(多彩裝飾)백자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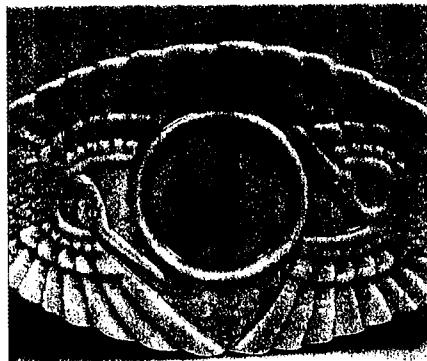
### ■ 순백자

순수한 백색의 자기로 조선백자는 이 종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장식이 전혀 없는 것이 일반적이나 음각·양각·투각 등의 문양이 장식된 것도 소량 만들어졌다. 음각백자는 기면에 뾰족한 시문구(施文具)로 가는 선을 그어 문양을 나타낸 것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도자기 장식수법이지만 백자에는

문양효과가 크지 않아서인지 아주 드물게 사용되었다. 양각백자는 문양을 도드라지게 표현한 것인데 문양이 되는 부위를 납기고 그 주위를 깎아내어 만들었으며 이 역시 드물다. 투각백자는 문양의 여백이나 특정부분을 완전히 뚫어서 만든 종류이며 디테일은 음각이나 양각수법으로 표현하였다.

### ■ 상감백자

백자 태토의 표면에 상감기법의 문양이 장식된 종류로 고려자기의 수법을 이어받은 것이다. 15세기에만 존재하다가 사라진 특별한 종류로 문양이 흑색의 상감선(象嵌線)으로 이루어져 흑상감백자로 부른다. 백자의 질은 고려백자의 전통을 이은 연질백자와 단단하게 구운 경질백자의 두 종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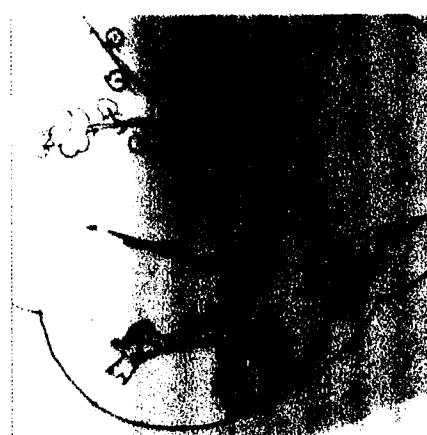
양각백자



상감백자

### ■ 청화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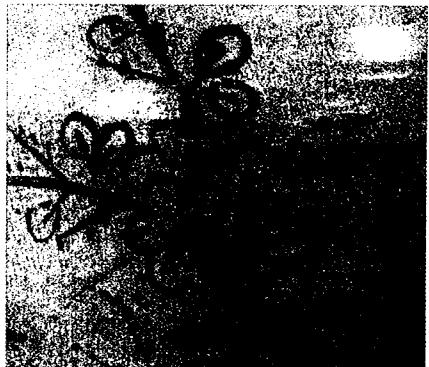
백자 태토의 표면에 코발트라는 안료를 사용해 문양을 그려 장식한 다음 투명한 백자유를 씌워 높은 온도에 구우면 푸른색의 문양이 나타나는 백자이다. 코발트를 중국에서 고가로 수입하였기 때문에 만든 양이 많지 않으며 대부분 관요에서 정성을 다해 만들어졌다. 조선백자 중에 가장 수준 높은 품격을 자랑하는 종류로, 중국 원말명초 청화백자의 영향을 받아 15세기 중엽경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였다고 생각되며 오랫동안 소량으로 만들어지다가 18세기 후반부터 비교적 많이 생산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코발트로 그릇의 전면을 칠한 종류도 등장한다.



청화백자

### ■ 철화백자

철분이 많은 안료인 철사로 문양을 그린 후 투명한 백자유를 씌워 고온에 구운 것으로 문양은 적갈색 계통으로 나타난다. 철화문은 고려청자에도 많이 사용되었으며 철화백자는 조선시대 전기간에 걸쳐 만들어졌지만 특히 17세기에 크게 유행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나라의 사정이 어려워 값비싼 청화 대신에 구하기 쉬운 철사안료가 사용되어 전국적으로 많이 만들어졌다. 이때의 철화백자 중에 한국적 정서를 잘 보여 주는 유머러스한 문양이나 간결한 추상적인 문양이 장식된 독특한 분위기의 작품이 많다.



철화백자



진사백자

### ■ 진사백자

백자 태토 위에 구리를 주성분으로 하는 안료로 문양을 그린 다음 백자유를 씌우고 고온에서 구운 종류이다. 이때 문양은 붉은색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일본식 용어로 진사라 한다. 고려청자에서 12세기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장식기술이며 조선백자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18세기 이후에 성행한다. 고온에서 구리(銅)의 발색이 불안정하여 간혹 녹색이나 갈색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19세기에는 전면에 진사를 칠한 종류도 만들어졌다.

### ■ 다채장식백자

백자의 문양장식에 청화·철화·진사를 함께 사용한 종류의 백자를 말한다. 대체로 18세기 이후에 만들어졌으며 세 가지 안료를 모두 사용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청화+철화, 청화+진사로 이루어졌다. 성질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안료를 함께 사용하여 고온에서 제대로 발색시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었다. 이를 통해 조선백자의 높은 기술수준을 엿볼 수 있다.

## II. 조선백자의 고향, 광주 분원

경기도가 우리나라 도자기의 역사에서 중심 지역으로 급부상하게 되는 것은 조선시대에 들면서부터이다. 그 이전의 고려시대에는 전라도 특히 전라남도 강진(康津)과 전라북도 부안(扶安) 일대가 고려도자기 생산의 중심지로 활동을 하였지만, 조선 초기부터 경기도 광주에서 질 좋은 백자를 생산하여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고 급기야 왕실용의 고급 백자를 전담하여 생산하는 ‘분원(分院)’이라 불리는 관요(官窯)가 이곳에 설치되면서 조선 말기까지 근 500년에 이르는 긴 세월 동안 조선시대 도자기 생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광주 인근의 경기도 일대에서도 그의 영향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한 자기 생산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조선시대 도자사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조선백자의 영원한 고향으로 불리는 광주에 어떻게 하여 분원이라는 관요가 설치되었으며,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이었고, 그것이 남긴 자취인 가마터들은 또 어떻게 남아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 1. 분원이란 무엇인가



분원초등학교 내의 사옹원 관리의 송덕비들

#### (1) 분원의 의미

분원이란 말은 사옹원(司饔院)의 분점(分店)이라는 뜻이다. 사옹원은 대궐 내에 속해 있는 관청으로 왕의 식사를 바치는 일과 대궐 내의 음식제공에 관한 일을 맡은 부서였다. 고려시대의 사선서(司膳署)를 본받아 조선 태조 원년(1392년)에 사옹방(司饔房)으로 한 것을 다시 세조 13년(1467년)에 사옹원으로 개칭하여 조선 말까지 존속하였다. 그리고 이 사옹원에서 왕실에 소용되는 그릇을 굽는 일을 맡았는데, 조선시대의 현법이라 할 수 있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이 사옹원의 소속으로 사기장(沙器匠) 380명을 배정하였음을 명기하고 있다. 이들 사기장 즉 그릇을 만드는 데 종사하는 국가기관 소속의 장인들은

사옹원 소속의 경공장(京工匠) 외에 지방관청 소속인 외공장(外工匠)들도 경기·충청·전라도 등에 총 99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보면 조선시대의 관영(官營) 사기장들이 전국적으로 있지만 단연 사옹원 소속이 많아 왕실 소용의 자기번조가 얼마나 막중한 일이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사옹원이 왕실 소용의 자기를 만드는 감독관청이었음을 밝혀 주는 기록을 보면, 먼저 고려말에 조준(趙浚·1346~1405년)의 상소문 중에,

“사옹원에서 매년 사람을 각 도에 보내 내용자기(內用瓷器·궐내에 소용되는 자기) 만드는 것을 감독한다. 그러나 사리(私利)를 취하는 자가 많아서 왕도까지 와서 바치는 수량은 대폭 줄어져서 그 폐단이 크다.”

고 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전기의 학자인 성현(成僕·1439~1504년)이 지은 ‘용재총화(慵齋叢話)’라는 책에는,

“자기는 모름지기 백토를 사용하여 정치하게 구워야만 사용할 수 있다. 지방의 각 도에서 자기를 굽는 자가 많으나 오직 고령에서 만든 것이 가장 정질(精緻)하다. 그러나 광주의 것이 더욱 정질하다. 매년 사옹원 관원이 좌우변(左右邊)으로 나뉘어 각기 서리(書吏)를 인솔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사기를 번조하여 어부(御府)에 수납하며 그 공로에 따라 등용도 하고 하사품을 내리기도 하였다.”

고 적고 있어, 사옹원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광주에서 왕실용 자기를 구웠음을 밝히고 있다.

## (2) 분원의 설치

사옹원에서 왕실용 자기를 번조하기 위해 광주에 분원을 설치하고 이를 분원이라 부른 것이 언제 부터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없다. 다만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문헌자료들을 조사한 결과 ‘분원’ 이란 명칭이 사서(史書)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중에 인조 3년(1625년)의 일이다. 이보다 앞선 기록으로 이로(李魯·1544~1598년)의 문집인 ‘송암집(松岩集)’에,

“융경 4년(隆慶·1570년) 여름에 구감찰문공(舅監察文公)이 사기광주지(沙器廣州地)의 사옹분감 관(司饔分監官)이 되었다. 화공 2인이 예부(禮部)로부터 파견되었는데 용준(龍樽)을 만들기 위함

이었다.”

는 기록이 있어, 이 글 속의 사옹분감관이 곧 사원옹의 분원감독관으로 생각되어 1570년경에는 광주에 사옹원의 분원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분원의 명칭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1530년에 완성)’의 광주 토산조(土山條)에,

“매년 사옹원의 관원이 어용지기(御用之器)를 감조(監造)한다.”

는 기록이 있어 사옹원과 광주와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비록 기록에 분원이란 명칭이 언급되지 않았다 해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사옹원의 분원이 광주지방에 설치된 것은 15세기 후반의 세조 연간인 1467년에서 1468년경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즉 사옹방에서 사옹원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정식으로 녹관(祿官)이 임명된 세조 13년(1467년)에서 ‘경국대전’의 공전(工典)이 편찬되어 사기장인의 수가 명기된 세조 15년(1469년) 사이의 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서 중앙관청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 관요로서의 분원이 설치된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주목할 것은 왕실소용의 자기를 확보하는 방법이 달라진 사실이다. 즉 고려시대에서 조선초기까지 각 지방의 자기소(磁器所)나 도기소(陶器所) 등의 ‘소(所)’에서 생산된 자기들이 지방특산물의 형태로 중앙에 공납된 것으로 충당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분청사기류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일부 경상도의 고령이나 상주, 광주지방에서 질 좋은 백자를 생산하였지만 왕실에서 백자의 수요가 높아지고 특히 최고급 자기인 청화백자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면서 보다 고급한 백자를 굽는 별도의 가마가 필요했던 것이 주된 이유로 생각된다.

한편 국초부터 조선왕조는 명나라에 금은(金銀)을 진상해야 되었는데, 이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선에 금은이 잘 나지 않는다고 명에 면책을 요구하면서 국내적으로 금은기의 사용을 억제하고 사기나 칠기를 사용하게 하면서 자기의 수요가 급증하게 된다. 특히 세종대에 와서 명으로부터 금은의 진상을 면제받으면서 궁중에서도 금은의 사용을 각별히 자제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어기(御器)를 백자로 전용(專用)하게 되면서 왕실용 백자의 수요문제가 커지게 된다. 세조 때 역시 왕도 금산보다는 청화백자를 사용할 것을 명하였다. 그리고 왕실의 제례 및 여러 의식에 사용되는 그릇도 점차 백자나 청화백자를 사용하게 되면서 품질이 우수한 백자를 생산할 수 있는 가마의 존재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런 국내적인 배경 외에 분원 설치에는 중국의 관요 조직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명나라는 왕권과 국력이 강해지는 홍무제(洪武帝 · 1368~1398년) 혹은 선덕제(宣德帝 · 1426~1435년) 때에 황실의 자기 수요량이 많아지게 되자 경덕진(景德鎮)에 ‘어기창(御器廠)’ 이란 기관을 설치하고 관요를 운영하여 황실용의 자기를 특별히 생산하였다. 기본적으로 명의 제도에 영향을 많이 받은 조선 왕실에서도 백자와 청화백자의 수요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를 공급받기 위해 중국과 유사한 제도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어쨌든 이런 국내외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 도자사상 처음으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관요인 분원이 설치되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생각할 문제는 분원이 경기도 광주에 설치된 이유이다. 광주는 조선 초기부터 질 좋은 백자를 생산하는 곳으로 명성이 높았을 뿐 아니라, 서울과 거리상으로 가까워 생산된 자기를 한강을 통해 쉽게 서울로 운반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뛰어나며, 땔감이 풍부한 무갑산(武甲山) 등의 수목 무성처가 곳곳에 있고, 질 좋은 광주 백토(白土)가 나기 때문에 관요를 운영하기에는 서울 인근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임이 분명하다.

특히 광주백자에 대한 성가는 국초부터 자자하여 ‘세종실록’ 지리지에 실린 324곳의 자기소 · 도기 소 중에 상품(上品)의 자기소는 오직 4곳뿐인데 그 중의 하나가 광주목(廣州牧)의 벌을천(伐乙川)으로 현재의 번천리이다. 그래서인지 세종 7년(1425년) 2월에 명에서 사신으로 온 윤봉(尹鳳)이 조선에서 사기를 번조하여 명나라에 진상하라는 성지(聖旨)를 전하자, 왕은 광주목사에게 명하여 백자를 정세 번조(精細燔造)하여 진상케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보아 15세기 초인 개국 무렵부터 광주에서 만든 백자가 매우 질이 좋았기 때문에 명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가마로 광주를 선정하였던 것이 틀림 없으며, 아울러 1420년대 무렵에 이미 중국에 진상할 정도의 우수한 백자를 우리나라에서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옹원의 분원이 광주에 설치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 (3) 분원의 조직과 운영

광주에 설치되었던 분원의 목적은 왕실소용의 자기를 번조하는 일이었다. 문헌기록을 보면 분원에서 해마다 진상해야 하는 자기의 수량은 1300죽, 즉 1만3000개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외에도 궁중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따로 번조하였기 때문에 전체 수량은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생산하기 위해 분원에서는 해동(解凍)이 시작되는 2월에서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10월까지 작업을 하였으며 생산된 자기는 공식적으로 봄 · 가을 두 차례 진상하였다.

이러한 막대한 양의 자기를 생산하기 위해 분원에서는 사옹원에서 파견된 관리들의 지휘감독 아래 수많은 사기장들이 작업을 하였으며, 또한 자기변조에 필요한 원료인 백토의 조달과 땔감 확보에 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분원의 운영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거국적으로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어서 일찍부터 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사실 국초부터 나라에서 직접 관여한 각종의 관영수공업들이 백년이 지나지 않아 거의 사영화(私營化)로 돌아서지만, 유독 이 분원제도만은 국방에 필수적인 무기제조 분야와 함께 조선시대 말기까지 중앙정부가 직접 운영한 것을 보더라도 분원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으며, 분원에 관한 기록은 ‘왕조실록’ · ‘승정원일기’ · ‘비변사동록(備邊司曆錄)’ · ‘일성록(日省錄)’ 등 왕실의 기본 사료와 일반 문집에도 허다하게 언급되어 있을 정도이다.

지존한 왕실에서 사용하는 그릇을 번조하기 위해 조선 왕조가 분원 운영에 기울인 노력은 실로 눈물겨운 바이지만, 무엇보다 좋은 도자기를 만들려면 좋은 원료와 우수한 사기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때문에 분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자기를 제작하는 기술자인 사기장에 관한 부분과 원료에 관계된 백토와 연료의 조달문제가 가장 중심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 ① 분원 사기장

분원에서 일하는 사기장은 ‘경국대전’에서 명시한 대로 정원이 380명이었다. 이 숫자는 조선말기 까지 거의 변함 없이 유지되었지만, 이들의 확보를 위한 운영형태가 시기에 따라 약간씩 변하였다.

이들이 분원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분담하였고 이처럼 대규모의 인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한 조선시대 초기의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후대의 기록인 인조 3년(1625년) ‘승정원일기’에는

“호(匱)와 봉족(奉足)을 합해 1140명이었던 분원의 사기장이 해마다 평계를 대고 도망하여 겨우 821명만이 남아 있다.”

고 하였다. 여기서 호는 사옹원 소속의 사기장인 380명을 말하며, 봉족은 지방에 거주하는 사기장들인데 호별로 2인씩 땔리게 되어 봉족들은 돌아가면서 분원에 올라와 자기변조에 참여하는 신역(身役)을 치르거나 아니면 그 대신에 세금의 일종인 보포(保布)를 바쳐 분원 사기장의 생계를 돋게 하였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원의 작업에 참가하는 사기장의 총수는 전국적으로 1140명이 되며, 이들을

삼번(三番)으로 나누어 교대로 분원에서 일하게 하였다. 이 분삼번입역제(分三番入役制)는 처음에는 지방에서 사기장들이 분원에 올라와 일정 기간 자기번조에 참여하였지만, 갈수록 올라왔다 내려가는 일이 힘들고 경비도 많이 들어 대부분 보포를 바치고 입역하지 않게 되며, 갈수록 보포마저도 제대로 바치지 않아 분원의 사기장들이 교대하지도 못하고 보포도 받지 못해 육체적·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원 사기장의 운영 덕분에 지방의 사기장들이 결과적으로 중앙관료의 발달된 기술과 그릇 형태 등을 자연적으로 습득하게 되어 지방 가마에서도 일정한 수준의 자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광주의 분원이 당시 우리나라 도자기의 중앙학습소 같은 역할을 하여 조선시대 도자산업을 일사불란하게 이끌고 가는 중요한 업적을 남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분원의 사기장들은 왕실용 자기를 번조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가 시원치 않고 고생이 심하여 날이 갈수록 이 일에서 벗어나려 하였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이미 중종 38년(1543년)에는 사옹원의 사기장의 자식들을 다른 일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직업을 세전(世傳)하게 한다는 규정을 법전에 명시하기도 하였으며, 임진왜란 이후 더욱 사기장의 이탈이 심해지자 숙련된 사기장의 확보에 비상이 걸려 조정에서 큰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 사기장들은 신분은 사기장이지만 오히려 생업은 농업 등 다른 직에 종사하는 자가 많게 되어 설령 분원에 동원된다 하더라도 기술 수준이 못미치게 되면서 이들은 17세기 말경에 가면 거의 소정의 세금인 번포(番布)만 바치게 된다. 이에 자연히 분원 전속의 사기장이 고정되고 일종의 전문적인 기술자로 변하여 생활기반도 완전히 분원 근처에 정하고 그들만의 특수한 부락을 이루었으니 숙종 23년(1679년)에는 그들이 “따로 일 촌락을 이루었다(別作一村)”는 기록이 나온다.

분원 운영의 요체였던 사기장들은 각종 기록에 의하면 상당히 고달픈 삶을 살았던 것 같다. 한때는 급료가 제때에 지급되지 않아 굶어 죽은 자가 속출하여 그 죄를 광주목사에게 묻게 하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왕실용의 자기를 번조하는 외에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사번(私番)을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왕실 외에 사대부나 사옹원 고위 관리들의 부탁으로 사사로이 번조할 기회가 심심찮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은 현재 남아 있는 광주의 가마터들에 대한 조사에서 짐작할 수 있다. 즉 광주의 분원 가마는 생산된 품질로 보아 크게 주요(主窯)와 종속요(從屬窯)로 구분되는데, 주요에서는 분명 왕실용의 최상품 백자가 주류를 이루면서 일부 중·하품의 백자도 만들어졌다. 이를 질이 다소 떨어지는 자기들이 분원 사기장에 의해 관청과 고급 관료 및 민간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요의 근처에는 종속요라 하여 왕실용 자기와 유사하지만 질이 낮은 백자들

이 주로 제작된 가마들이 있는데 이들은 분원 사기장이나 혹은 사장(私匠)이 고급관료나 상인, 부호 등 민간용으로 사사로이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분원에서 일어나는 일의 종류와 인원을 살펴보면, 문헌자료에는 작업체제에 대한 것은 없고, 다만 일제시대에 일본인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가 인용한 ‘분주원보등(分廚院報讐榜)’에 의하면 상당히 세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감독원 1명, 서기 20명, 사령 6명, 변수(邊首) 2명 외에 조기장(造器匠 · 성형하는 자) 10명, 마조장(磨造匠 · 굽깎는 자) 10명, 건화장(乾火匠 · 건조하는 자) 10명, 수비장 10명, 연장(鍊匠 · 훈 이기는 자) 10명, 참역(站役 · 수리 담당자) 18명, 화장(火匠 · 불 때는 자) 7명, 조역(助役 · 불 때는 보조) 7명, 부호수(釜戶首 · 불 때는 우두머리) 2명, 감화장(監火匠 · 불꽃을 보아 온도 계산하는 자) 2명, 화청장(畫青匠 · 그림 그리는 자) 14명, 연정(鍊正 · 유약 제조) 2명, 착수장(着水匠 · 시유하는 자) 2명, 파기장(破器匠 · 제품선별하는 자) 2명, 공사군(工沙軍 · 잡부) 186명, 허벌장(許伐匠 · 잡부) 202명, 운회군(運灰軍 · 재 운반자) 1명, 부회군(浮灰軍 · 재 수비하는 자) 1명, 수토재군(水土載軍 · 물토 운반자) 10명, 수토감관(水土監官 · 물토 감독자) 1명, 수세고군(收稅庫軍 · 수세고 지기) 1명, 노복군(路卜軍 · 짐꾼) 2명, 감고(監考 · 문지기) 3명, 진상결복군(進上結卜軍 · 진상품 포장인) 10명 등 총 562명에 28개의 직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비록 인원수가 분원 사기장 정원인 380명을 초과하고 있고 내용이 조선 후기나 말기의 분원에 해당될 것이지만, 분원의 대체적인 규모와 작업과정 등을 알 수 있다.

## ② 백토의 조달

광주 분원의 목적은 두말 할 것 없이 당대 최고 품질의 자기를 만드는 일이었다. 청자도 소량 만들었지만, 어디까지나 상품백자의 생산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야 했다. 백자는 태토가 되는 백토의 질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좋을 만큼 일단은 좋은 백토의 확보가 급선무였으며, 좋은 백토란 우선 철분 등의 잡물이 없이 순백색을 띠어야 하고 높은 온도에 견딜 수 있는 훈심이 뛰어나야 하며, 아울러 그릇을 빛기에 적당한 점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백토를 구하기 위해 분원에서는 전국에 걸쳐 백토 산지를 조사하고 이를 공급받기 위해 애썼다. 그 결과 각종 문헌기록에 분원의 백토 조달에 관한 사항들이 누차 나타나며, 특히 조선 중기 이후 질 좋은 백토의 조달을 위해 수시로 백토 산지들이 바뀌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분원이 광주지방에 설치된 이유 중의 하나로 이 지방에서 좋은 백토가 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곳에서 나는 백토를 잘 수비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조선 전기 문헌자료에는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중종 25년(1530년)의 기록에 이르기를,

“사기를 번조하는 데 쓰는 백점토를 전에는 혹 사현(沙峴)이나 혹 충청도에서 가져다 썼는데 지금은 양근(楊根)에서 파다 쓰고 있다.”

고 하였다. 이로 보아 애초에는 관요 부근의 점토만으로 사용하였으나 이들이 차츰 바닥이 나자 어느 시기부터 충청도 특히 충주 지방에서 나는 백토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양근은 광주 인근의 고장으로 이곳에서는 조선 후기까지 품질이 좋은 백토 산지로 이름났는데, 일정 기간 분원에서 이 양근 백토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전기의 분원에서 충주토를 사용한 것에 대한 흥미로운 자료가 16세기의 문인 박상(朴祥·1474~1530년)이 지은 시(詩) 속에 나온다. 그의 ‘눌재집(訥齋集)’에 동료였던 사용원 분원 직장 권행(權行)과 헤어지면서 지은 시에,

“검소함을 숭상하는 군왕의 법도가 순수해, 사기를 쓰고 금은을 물리쳤다. 백점토는 매년 중원토(中原土)를 캐내고 재료가 좋아 가을에 광주 산의 나무로 그릇 굽는다. 몸은 궁궐의 분내원(分內院)을 나왔지만, 일은 오로지 강가에서 공인을 거느린다. 초서는 공손대랑(公孫大娘)의 뛰어난 칼 춤 솜씨를 보고 터득했지만, 도공 세계의 표본은 저 물레에 있다.”

고 읊었다. 또한 함께 지은 다른 시 속에는 ‘분원’이란 단어가 명백하게 등장한다. 이로 보아 16세기초에는 분원에서 중원 즉 충주에서 백점토를 가져다 썼음을 알 수 있으며 제작에 있어 무엇보다 물레질이 사기장에게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분원에 소용되는 백토들이 전국 각지에서 조달되었음이 각종 기록에 나온다. 17세기 이후 조선 말기까지 분원용 백토산지가 되었던 지역들을 살펴보면, 강원도의 원주·양구, 경상도의 경주·진주·곤양·하동, 평안도의 선천, 경기도의 광주·가평·이천, 충청도의 서산·충주·음성, 황해도의 봉산 등이 등장하며 19세기 이후에는 춘천과 과천의 관악산 백토가 추가되었다. 이들은 한꺼번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사정과 필요에 따라 산지를 바꾸어 가면서 일정 기간 현지에서 백토를 채굴하여 분원이 있는 광주로 운송되었다.

이중에 원주토와 서산토가 비교적 이른 시기인 17세기 전반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은 품질이 정결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17세기 후반이 되면 기록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후 여러 지역의

백토들이 번갈아 사용되면서 품질의 검사와 번조 후의 결과를 보고 산지를 정하였는데, 품질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된 곳은 선천·경주·진주·양구·춘천·과천토 정도였다. 영조 20년(1744년)에 편찬된 '속대전(續大典)'에는 광주·양구·진주·곤양이 가장 우수한 번토처(燔土處)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광주와 곤양은 수을토(水乙土) 즉 유약의 원료가 되는 물토의 산지였다. 그리고 고종 4년(1867년)에 편찬된 '육전조례(六典條例)'에는

"광주 수토 1400석을 굽급(掘急)하면 선박으로 운반해 온다."

는 기록이 있는데, 당시 1년 동안 분원으로 운반되는 각 처의 백토는 합계 2096석으로 그중 반이 넘는 1400석이 광주의 흙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사용량은 전국 어느 지방의 백토보다도 많았다.

백토의 질에 따른 사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원주와 서산에 이어 경주와 선천의 백토를 사용하게 되는데, 경주토는 그 전부터 사용되었지만 운반로가 멀고 토품(土品)이 좋지 않아 일시 사용하다가 가까운 원주토와 서산토가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부득이 다시 쓴 것으로 보이나, 진주나 양구토보다는 우수하여 특히 품질이 좋아야 하는 제기(祭器)나 냉기(明器) 등 특수사기를 번조할 때 선천토와 함께 계속 사용되었다. 선천토는 경주 등 그 어느 지방의 백토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결백하여 어기번조용 백토로 애용되었는데, 백토 굽취에 민폐가 자심하다 하여 일시 중단된 적도 있으나 품질이 우수하여 지방관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계속 사용하였다. 이들 경주토와 선천토는 이후 토맥(土脈)이 고갈되어 가는 속에서도 특별히 정번(精燔)을 요하는 특수사기의 번조에는 계속 사용되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것이 양구토이다. 양구토는 비록 경주토나 선천토보다는 질이 못하지만 다른 지방의 백토보다는 양질이어서, 분원에서 생산되는 일반사기의 원료로 사용되어 굽취량이 많았다. 18세기 이후에는 양구토가 가장 품질이 좋다하여 분원 말기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었지만, 백토를 굽취하는 양구민들은 엄청난 고통이 따랐다. 한 예로 양구 출신의 정언(正言)이던 조명겸(趙鳴謙)은 숙종 40년(1714년)의 상소문에서,

"500호를 불과하는 부역민들이 높은 산중에 있는 백토를 굽취하기 위해 천길절벽을 깨어 겨우 토맥을 얻으면 단애가 무너져 역부(役夫)가 압사하지 않은 해가 없다."

고 말하고 있다. 이만큼 좋은 백토의 확보를 위해 목숨을 무릅쓰고 온갖 고초를 다하였는데, 비단

양구뿐 아니라 분원용 백토산지에서는 지방의 수령들이 백성의 폐해를 들어 백토 굴취를 중지해 줄 것을 간청하는 기록이 줄줄이 나온다.

또 많이 사용된 백토로 진주토·봉산토·충주토 등이 자주 등장한다. 특히 진주토는 숙종대에 많이 사용된 것 같은데, 진주에서 어렵게 굴취한 백토를 싣고 떠난 선박이 전라도 영광 앞 바다에서 침몰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백토의 운송에도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봉산토는 양구토의 대타로 쓰고자 하였으나 그 토성이 지나치게 강(剛)하여 제품에 파상(破傷)이 많이 나서 양구토를 섞어서 사용하였다고 한다. 또 음성토와 충주토는 그 색이 정결하다 하였고, 이천토는 색이 혼탁하고 질이 너무 유연하다고 하였다. 또 숙종 39년(1713년)의 기록에는 곤양 수을토의 토맥이 다하자 근처의 하동토를 조사하였던바 토품이 곤양토보다는 못하나 다른 곳의 것보다는 나아서 하동토에다 곤양토를 섞어서 구워 보았는데, 백자색이 청흑색(靑黑色)이 나오 윤활하지 못하여 쓰지 못하고 부득이 가평토를 굴취하여 운반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당시의 백토 질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웠음을 알 수 있다.

### ③ 땔감의 조달

도자기를 구울 때는 당연히 많은 양의 땔감이 들어간다. 특히 분원같이 대규모로 운영되는 요장(窯場)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땔감이 필요하다. 사기 번조에 소용되는 백토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가마를 운영하는 데는 땔감의 확보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요장의 건설은 일차적으로 땔감의 수급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광주 분원의 경우도 땔감의 확보가 내내 문제가 되어, 이의 해결을 위해 사옹원과 중앙정부에서 골머리를 앓으며 여러 가지 해결 방책을 내놓게 되며 이에 따라 분원의 위치나 운영체제 자체가 변하게 된다.

분원의 땔감 확보와 관련된 가장 주목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10년마다 분원 요장이 땔감을 찾아 광주 지역내에 이리저리 이동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마지막 해결책으로 1752년에 땔감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조달하기 편리한 한강 가의 분원리에 고정시킨 사실이다. 그래서 분원 가마터들이 땔감의 조달 때문에 광주 지역내의 각 지역에 흩어져 분포하고 있는 것이다.

분원의 운영상, 분원이 설치된 당초부터 사옹원은 필요한 땔감의 조달을 위해 일정한 산지를 지급 받았는데 그것이 소위 분원시장절수처(分院柴場折受處)였다. 이를 분원 시장(柴場)이라 하며 대개 광주지방을 중심으로 지급되었는데, 퇴촌면·실촌면·초월면·도척면·경안면·오포면 등 6개 면과 인근 양근군의 1개 면이었다. 분원은 주로 이들을 통해 땔감을 조달하였으나 사정에 따라 변화가 생

기는데, 광주 지역내뿐 아니라 이후에 인근 양근의 3면이 포함되고, 숙종 23년(1684년)에는 광주의 무갑산이 수어청(守禦廳)으로 이관되자 광주·이천의 접경지역에, 또는 아주 멀리 경상도의 예천 지방에 분원 시장이 배당되었다. 또한 영조 3년(1738년)에는 강원도의 춘천·낭천(狼川)·양구·인제·홍천 지방에 있던 분원 시장의 혁파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보아 광주 이외의 지역에도 분원 소용의 뱃감을 확보하기 위한 장소들이 지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분원의 사기변조를 위한 뱃감은 주로 광주 지역내에서 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 분원의 요장이 수목이 무성한 곳을 찾아 이동하였음이 기록에 나타난다. 인조 3년(1625년) 1월 8일조의 ‘승정원일기’와 같은 해 8월 3일조를 보면,

“분원은 앞서부터 수목이 무성한 곳을 찾아서 이동하면서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분원을 설치한 곳은 나무를 베어 뱃감으로 사용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으므로 번목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부득이 수목이 무성한 곳을 찾아서 옮겨 설치하여야만 사기를 번조할 수 있다.”

고 하였다. 또한 50년 뒤의 숙종 2년(1676년)의 기록에도 사옹원 관원이

“분원사기소의 번조소는 시장을 설치하여 나무를 쥐하고 대략 10년이 되면 수목이 이미 다하여 번조를 계속할 수 없게 되면 다른 곳에 이설(移設)함이 관례이며, 현 번조소는 설치한 지 12년이 지나 뱃나무를 조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추동기에 옮기지 않으면 내년 봄에 작업을 계속 할 수 없다.”

고 보고하자 낭청(郎廳)을 파견하여 이설하기에 적합한 곳을 조사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들 기록을 보면, 분원은 적어도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는 뱃감 확보의 문제로 인하여 10년을 주기로 광주 지역내에서 이동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디로 이동한지는 기록에 거의 나오지 않으며, 숙종 2년(1676년)에 퇴춘면 탑립동과 숙종 43년(1717년)에 실촌면 오양동에 분원을 옮긴 기록만이 남아 있다. 그러나 광주 지역내의 가마터를 조사해 보면, 17세기에 활동한 상림리·선동리·송정리·유사리 등의 가마들이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 원래 분원은 수목이 울창한 시장 내의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였다가 수목이 다하면 다른 적당한 장소로 옮아가고 한번 지나간 곳은 그곳에 새로 나무를 심어 다음에 또 분원이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분원이 한번 설치되었다가 이동한 뒤에는 곧 화전민이 들이닥쳐 화전으로 개간해 버리고 여기에 놀러 살게 되어 다시 분원이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갈수록 광주 지역 내에 땔감을 조달할 곳이 축소되어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장차 광주지방의 분원시장은 모두 화전으로 변하고 분원은 땔감의 단절로 사기번조를 계속할 수 없게 될 실정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절박한 사정에 대한 기록을 보면, 숙종 23년(1697년)의 ‘승정원일기’에,

“분원을 설치하여 만 10년이 되면 그 근처의 수 10리 안에는 수목이 모두 베어져 없어질 뿐 아니라 초근(草根)까지 남지 않게 되므로 부득이 분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한번 분원이 설치되어 나무를 베어버린 곳은 곧 전지로 개간되어 수목을 다시 기르지 못하게 되니 이후에는 이설 하여도 수목무성처가 거의 없게 되어 염려스럽다.”

고 하였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분원소용의 땔감 확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이의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었는데,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사항은 아예 분원을 땔감의 운반인 강가 등에 고정하여 다른 곳에서 땔감을 운반하여 사용하자는 획기적인 안이 대두된 점이다. 이는 숙종 23년(1697년)에 처음으로 나왔지만 곧 실행되지는 못한 것 같고, 숙종 말경부터 차츰 분원을 우천(牛川)강변 가까이의 오향동·금사리 등지로 이동하였다.

사실 그 동안 수목무성처를 따라 분원이 이동할 때마다 규모가 제법 큰 마을 하나가 통째로 옮겨 다니는 꼴이 되어 분원이설에 따른 경비도 많이 들고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바로 이 분원고정론(分院固定論)이 대두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 동안 수목이 무성한 곳에 위치한 관계로 분원의 근처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땔감을, 이제는 먼 곳에서 운반해 와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경비가 들게 되었다. 그러자 그 대책으로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인 화전민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땔감 조달 및 분원 운영비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한강을 이용해 땔감을 운반하고 판매하는 민간상인들에게 일종의 통행세를 받아 보충한다는 방안이 나와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제 분원의 땔감 확보는 주변의 자체 조달에서 벗어나 멀리 떨어진 시장에서 별목하여 운반에 소용되는 임금을 지불하고 조달하는 방법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임금 및 부역을 둘러싼 문제와 세금의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경비 지급에 일어나는 문제 등이 계속 발생하였지만 분원 말기까지 땔감 조달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던 것 같다.

한편 분원의 고성론이 대두되면서 강가에 가까운 곳으로 분원이 이동하지만 이들 역시 다소 강가에서 떨어져 있는 관계로 뱀갑의 운반에 어려움이 많다는 사정이 생기자 다시 분원의 이설이 검토되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영조 28년(1752년)에 수운이 가장 편리한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인 지금의 양수리 단처 우천강변의 분원리에 분원을 고정시키고, 한강을 이용해 강원도 등지에서 벌복된 나무를 뗏목으로 날라서 사용하였다.

#### ④ 분원의 혁파와 민영화

조선 왕조는 영조·정조의 치세가 끝나고 19세기가 시작되면서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순조·현종·철종·고종 등 왕들이 어린 나이에 보위에 오르면서 세도정치와 족벌체제가 횡행하여 왕권이 쇠약해지고 국고는 고갈되어 가고 부패가 만연하여 각지에서 민란이 일어나는 등 온 나라가 크게 아지러워졌다. 유교적 신분질서도 크게 혼들리면서, 중인계급이나 상인들이 부를 축적하여 신분 상승을 꾀하고 양반계층도 크게 늘어나 사회 전체가 무질서해지고 일부 계층은 호사와 사치를 즐겼다. 이 속에서 요업부분에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사기전이 활황을 이루면서 자방의 관청이나 심지어 궁중에까지 납품을 하여 자기를 취급하는 상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적극으로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순조 이후 분원의 경영은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 우선 왕실에서 분원의 운영에 대해 관심이 소홀해져 자연 분원의 쇠퇴를 불러오게 되는데, 분원과 왕실의 관계는 매우 흥미로운 사항이다. 즉 일찍부터 분원의 운영에는 왕실이 관여하여 사기번조의 운영자격인 제조(提調)와 부제조(副提調)를 왕실의 종친들이 많이 맡았다. 대표적인 예가 영조로, 동궁 시절에 분원의 사기번조에 관여하였고 이 때문인지 왕위에 오른 뒤에도 분원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 이때의 분원백자는 최고의 품질과 격조를 자랑한다. 하지만 종종 이들 종친들은 분원을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종친은 관직에 나갈 수 없었던 조선사회에서 어찌 보면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였는지도 모른다.



영조 어진

그런데 19세기 이후에는 왕실에서 중국에서 생산된 호사스런 도자기들을 좋아하여 분원자기를 등 한시하게 되며, 갈수록 정부의 재정이 어려워져 막대한 비용이 소용되는 분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면서 경영악화와 질적인 하락을 가져왔다. 한편 도자기 장사로 부를 축적한 민간 상인들은 분원의 통제가 느슨해 진 틈을 타 이곳에 자본을 투입하여 분원에서 자기를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파는 지경에 이르자, 종친들도 분원에서 별다른 이익을 취할 여지가 없어져 흥미를 잃고 손을 떼게 되어 민영화의 길을 재촉케 하였다.

한편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 분위기가 분원에도 작용하여 사옹원의 진상자기 외에도 소위 인정(人情) 사기라 하여 정조 때 각 사(司)에 선물로 나누어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매년 증가하여 19세기 중엽에는 일년에 무려 2830죽, 즉 2만8300개나 되어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으로 치달았으며, 또한 각급 관리들이 직위를 이용해 진상사기를 함부로 침탈해 가 그 숫자가 진상사기의 양을 훨씬 넘을 정도가 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이의 횡포를 막고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아예 분원의 직접 경영을 포기하고 민간인들이 자기 자본으로 분원에서 사기변조를 하게 하여 궁중에 필요한 양은 돈을 주고 사기로 하였다. 즉 분원이 나라에서 직접 경영하는 관료의 형태에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민요로 변환된 것이며, 이를 분원의 민영화라 한다.

사실 분원의 민영화 조짐은 고종(1863~1897년) 때인 1870년대부터 이미 있어 왔다. 왕실 재정의 궁핍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분원사기의 진상이 어렵게 되면서 분원의 운영은 사실상 상인 물주들과 일부 기술자들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으로 변하여, 분원 운영은 사실상 민영화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이후 10여 년간 이런 상태로 근근이 분원이 명맥을 유지하였지만, 마침내 1884년에 분원을 공식적으로 민간인이 경영하게 하는 민영화를 결정하였다.

이렇게 400여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왕실용 사기변조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조선시대 도자사의 한가운데 서서 조선시대 도자문화를 이끌었던 광주의 분원은 결국 왕조의 몰락과 운명을 함께하면서 민간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민간 경영으로 변하였지만 분원에서는 자기의 생산활동을 계속하여 분원사기의 명맥을 이어갔는데, 이마저도 병자조약 이후 일본에서 들어온 소위 '왜사기'라는 것이 앞선 기술과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조선의 자기시장을 휩쓸게 되면서 조선의 전통적인 사기와 분원사기들이 설자리를 잃게 되고, 민간자기의 발달을 꽂 피워보지도 못하고 외국자기에게 그 지위를 빼앗기고 역사의 장에서 사라져 버렸다.

## 2. 광주의 백자가마터

위에서 살펴본 대로 광주 일대에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말기까지 각종의 도자기를 생산하였던 가마터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분원이 설치되어 왕실용의 자기를 제작하던 가마의 혼적들이 퇴촌면·중부면·광주읍·초월면·도척면·실촌면·남종면 등 일곱 개의 읍과 면에 산재해 있다. 가마터는 경안천을 중심으로 주변의 골짜기나 구릉을 따라 분포되어 있으며, 지금은 주로 밭으로 개간되고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임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다수를 차지 한다.

이들 광주의 가마터는 조선시대 도자사 연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 연구가 일제강점기부터, 조선총독부와 '아사카와 하쿠지(淺川伯教)' 등의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행해졌다. 1960년대 이후 광주지역 가마터조사는, 관련 학자는 물론 박물관 등 관계 기관이 동원되어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조사가 시행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전체적인 규모와 위치 및 내용들이 발표되었다. 1985년에는 이들의 중요성을 절감한 관계 당국이 서울 근교의 개발 블에 편승하여 나날이 훼손되어 가는 이곳의 가마터들을 보존하기 위해 이 일대를 한데 묶어 사적 314호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지정된 것이 90여 개에 불과하여 사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가마터들은 지속적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세계 도자사에서 광주처럼 국력을 동원하여 500여 년 동안 관요를 운영한 예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이렇게 넓은 지역에 근 300여 기 이상의 가마터가 존재하는 것도 유례가 없다. 광주 가마터의 보존에 모두의 각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1980년대 이후 광주에서는 지표조사 외에 학술기관에 의한 발굴조사가 행해져 중요한 자료가 많이 출토되었다. 1985년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실시된 중부면 번천리 5호가마 발굴조사를 필두로 선동리 2호, 3호(1985~1986년)·우산리 9호(1992년)·번천리 9호(1993년)·우산리 17호(1997년), 건업리 2호(1997~1998년) 등이 발굴되었다. 이들에 대한 소개는 가마터의 설명에서 다루기로 한다.

그동안 광주 가마터의 현황에 대한 발표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전체 가마의 숫자가 조금씩 달랐으며, 가장 최근인 1999년 11월~2000년 2월에 걸쳐 경기도 기전문화연구소에서 현장 조사를 하여 확인된 광주 지역의 가마터는 7개면 32개리에 걸쳐 288곳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광주에서는 백자를 주로 생산하였지만, 이외에도 분청사기와 청자도 제작하였는데, 가마의 운영시기와 성격에 따라 발견되는 그릇의 종류와 형태·색깔·장식수법·문양소재·요도구(窯道具)·제작

기법 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별로 관련된 문헌기록과 요지의 성격, 발견되는 유물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퇴촌면(退村面)

시의 동쪽 끝에 위치한 퇴촌면에는 우산리에 21곳, 도마리에 7곳, 도수리에 9곳, 원당리에 1곳, 관음리에 35곳, 정지리에 4곳 등 6개리에 걸쳐 총 77곳의 가마터가 확인되고 있다.

이들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산리 가마터들은 주로 조선 전기인 15~16세기에 활동한 것들로 추정되며, 순백자·상감백자·청화백자와 소량의 청자가 발견된다. 도마리의 가마터들은 우산리와 유사하지만 분청사기를 제작하던 가마터도 있으며, 도수리에는 15세기 전반에서 16세기 후반에 걸쳐 분청사기와 순백자·청화백자·철화백자를 생산한 가마터들이 널려 있다. 관음리에서는 긴 기간 왕성한 도자기 생산활동을 펼쳐 비교적 다양한 시기의 가마터들이 존재하는데, 15~16세기에 상감·인화 분청사기와 순백자·철화백자를 제작하던 가마가 다수 있으며, 17~18세기의 백자가마터도 존재한다. 정지리 가마터에서는 16~17세기에 생산된 다양한 백자와 소량의 청자가 확인된다.

#### ① 우산리(牛山里)

우산리의 조선시대 가마터들은 앵자봉 서편에서 서북쪽의 관음리를 향해 길게 뻗은 골짜기를 따라 좌·우변의 구릉에 위치하며 현재는 대부분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단종(端宗) 2년(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의 경기도 광주 토산조(土產條)에는 당시 자기(磁器)를 제작하던 곳으로

“주의 동쪽에 있는 소산, 하품(在州東所山下品)”

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곳에 나타나는 ‘소산(所山)’이 오늘날의 ‘우산(牛山)’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알려져 있는 가마중 일부가 15세기 전반에 운영되었던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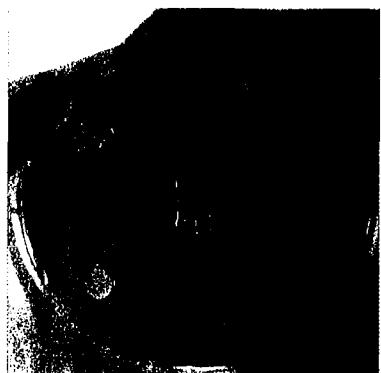
지금까지 우산리에는 21개의 가마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모두가 15~16세기에 제작활동을 벌이던 곳으로 주로 백자를 제작하였으며, 일부 가마에서는 소량의 청자도 함께 만들었다. 이들 가마 중에는 질 좋은 그릇을 구울 때 사용하는 갑발이 발견되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 이곳에서는 다양한 그릇 종류와 유백색(乳白色)을 보이는 새하얀 유색(釉色)과 도립삼각형(倒立三角形)의 굽 모양, 그

리고 깔끔하게 잘 다듬어진 형태를 갖춘 상품(上品)백자가 주로 발견된다. 또한 순백자 이외에도 소량의 청화백자가 확인되며 대접과 접시의 파편 중에는 밑바닥에 '천·지·현·횡' 등의 문자를 새겨 놓은 예도 보인다. 이런 갑발이 발견되는 가마터는 대체로 품질이 우수한 상품의 백자를 생산한 곳으로 추정된다.

갑발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가마의 경우에는 대접·접시·잔과 같은 일반적인 기종이 주류를 이루지만 드물게 상감백자도 발견된다. 이들은 담청백 혹은 연회백의 유색, 대나무 마디모양의 죽절굽, 다소 거칠게 마무리한 굽 처리 등 전체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 우산리 2호 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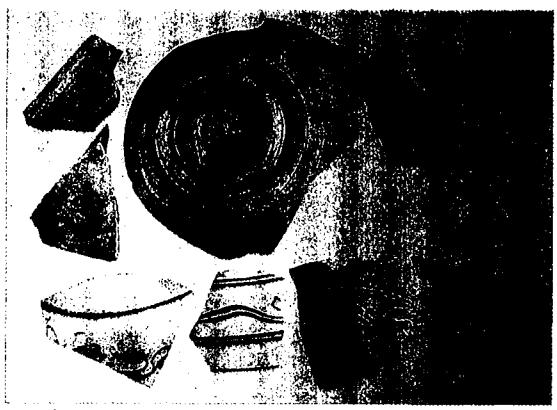
우산리에 위치한 천주교 성지인 천진암 공사 시에 매몰된 곳으로 1993년에 해강도자미술관에 의해 긴급 발굴조사되었다. 출토품은 죽절굽의 순백자가 대부분이었지만, 드물게 상감백자편도 수습되었으며 청자도 소량 보인다. 백자류는 대접·접시·잔·병·장군 등이 있으며, 유색은 회백이나 담청백색을 띤다. 대접과 접시류는 대부분 죽절굽에 태토비침을 하고 구웠다. 청자에는 대접·접시가 주로이고 청자색은 암녹색이나 회록색을 띤다. 특히 이곳에서는 백자의 대접 안바닥에 궁궐에서 소용된 것임을 밝혀 주는 '내용(內用)'이라는 문자가 음각으로 찍힌 파편이 수습되어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내용(内用)' 명 백자片

### ■ 우산리 4호 가마

우산리 뒷골에 위치하며 백자 외에 상감백자와 청자도 발견된다. 백자에는 대접과 접시 외에 잔·항아리·병·벼루 등 다양한 종류들이 발견되며 유색은 회백과 담청백색을 띠고 죽절굽에 태토비침을 받치고 구웠다. 청자는 대접·접시류가 있으며 어두운 녹색을 띤다. 백자 중에는 사(司)·내(内)·



자기片

왕중(王中) · 인(仁) 등의 음각으로 된 명문들이 발견되어 주목을 끌며, 요도구로서 개떡으로 불리는 원반형 받침과 함께 갑발이 존재하고 있어 상품의 백자를 생산한 가마로 추정된다.

### ■ 우산리 9호 가마

우산리의 매내미에 위치하며 1992년에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한 곳이다. 이곳에서는 3기(基)의 가마와 함께 다량의 백자와 갑발을 비롯한 요도구(窯道具), 소량의 청자파편이 출토되었다. 백자는 순백자와 청화백자가 함께 제작되었으며, 그릇 종류로는 볶 · 대접 · 접시 외에 전접시 · 잔 · 마상배 · 항아리 · 합 · 병 · 편병 · 뚜껑 · 제기 등 실로 다양한 종류가 출토되었으며 유색도 유백 · 회백 · 담청백색 등 을 보이며, 굽은 도립삼각형굽과 죽절굽 두 종류에 받침도 모래받침과 태토비침받침이 사용되었다. 청자는 모두 순청자였지만 투각장식을 한 예도 있었으며, 대접 · 접시 · 병 · 합 · 뚜껑 · 반 · 제기 · 돈(墩 · 의자) 등 다양한 종류들이 출토되었다. 청자색은 대부분 어두운 녹색을 띤다. 특히 백자의 굽바닥에 ‘천 · 지 · 현 · 황’의 문자를 새긴 접시와 대접이 수습되기도 하였으며, ‘임인(壬寅 · 1482 혹은 1542년)’ 명이 음각된 묘지(墓誌)가 출토되기도 하였다. 요도구로 갑발과 갑발뚜껑이 있어 이곳도 상품의 백자를 생산한 가마임이 확실하다.



가마



청화백자 片

### ■ 우산리 14호, 15호 가마

우산리 매내미에는 9호에서 14호까지 7개소의 백자가마터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곳이 9호 · 14호 · 15호이다. 14호 가마에는 갑발과 갑발뚜껑들이 발견되어 상품의 백자를 구운 곳임을 알 수 있는데, 백자의 종류로는 볶 · 대접 · 접시 · 잔 · 마상배 · 벼루 등이 보이며 유색은 회백이나 담청백색을

띠고 도립삼각형굽에 모래받침을 한 것과 죽절굽에 태토비짐받침을 하고 구운 것이 혼재한다. 백자 외에 청자 대접과 접시들도 보이는데 유색은 어두운 녹색이나 연한 녹색을 띤다.

15호 가마는 14호와 거의 유사하나 여기서는 청화백자도 발견된다.

## ② 도마리(道馬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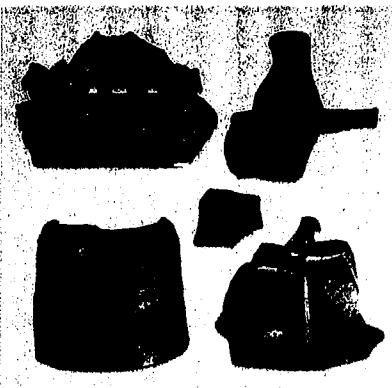
도마리는 번천리와 북동쪽에 인접해 있는 곳으로, 가마터는 낮은 구릉과 산록을 따라 펼쳐진 마을 주변에 위치하지만 대부분 밭으로 개간되었다.

현재까지 도마리에는 7개의 가마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두가 15~16세기에 제작활동을 벌이던 곳으로, 분청사기를 제작하던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백자를 만들었으며 일부 가마에서는 소

량의 청자도 함께 확인되었다.



백자 片



청자 片

### ■ 도마리 1호 가마

1964~65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조사와 발굴이 진행되었는데, 발굴 당시에 이미 많이 파괴된 상태여서 가마의 유구나 퇴적의 층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다양 의 백자와 갑발을 비롯한 요도구, 소량의 청자와 중국백자의 파편 등이 출토되었다.

백자는 순백자가 대부분이지만 상감백자와 청화백자도 함께 출토되었다. 그릇 종류로는 대접과 접시 외에 전접시·잔·합·뚜껑·항아리·병·장군·반·향로 등이 있으며 백자색은 유백색과 회백색을 띤다. 대접과 접시류는 도립삼 각형굽에 모래받침을 하고 갑발에 넣고 구워 상품의 백자를 생산한 가마암을 확실하게 보여 주며, 청화백자의 경우에는 국산 청화로 추정되는 소위 '토청(土青)'을 실험한 파편들이 보인다. 이곳에서 출토된 청화백자 파편 중에 주목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청화백자를 만들기 위해 모델로 수입한 것으로 여겨지는 중국 청화백자 파편들이다. 이들 중국제 청화백자들은 굽 등의 만듦새나 문양 등이 완전히 중국식이어서 우리나라 가마터에서 출토하였지만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자는 순청자와 상감청자가 출토되었는데, 향로·돈·화분·화분받침 등 특이한 기형들이 많이 보이며 청자색은 연한 녹색이나 회록색을 보인다.

특히 백자의 굽바닥에 ‘천·지·현·황’과 ‘숫자’ 등의 문자를 새긴 대접과 접시가 다량 출토되었으며, ‘을축팔월(乙丑八月·1505년 추정)’의 음각명이 있는 사각봉(四角棒)이 수습되어 가마의 활동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 ■ 도마리 6호 가마

‘세종실록’ 지리지의 경기도 광주 토산조에는 당시 도기(陶器)를 만들던 곳으로

“주의 동쪽에 있는 초벌리, 하품(州東草伐里下品)”

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곳에 나타나는 ‘초벌리’의 가마가 현재 6호로 명명된 가마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마에서는 15세기 전반에 주로 제작되던 인화장식이 있는 분청사기가 확인되는데, 지리지의 내용이 조사되던 1424~1432년의 시기와도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어서 문헌기록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서는 백자류도 많이 발견되는데, 조선 전기 15~16세기에 생산된 것들로 보인다. 대접·접시·병 등의 종류가 보이며, 특히 갑발과 갑발뚜껑들이 있어 상품의 자기를 구웠던 곳으로 추정된다. 도립 삼각형굽에 모래받침을 한 것은 상품으로 보이며, 죽절굽에 태토비침받침을 사용한 것은 질이 다소 떨어진다.

### (3) 도수리(陶水里)

가마터는 퇴촌면 사무소에서 관음리로 가는 길의 좌측 편으로 길게 뻗은 도로와 구릉을 따라 좌·우변에 산재해 있으며 대부분 밭으로 개간되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경기도 광주 토산조에는 당시 도기를 만들던 곳으로

“주의 동쪽 고현(州東羔峴)”

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곳이 오늘날의 도수리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도수리에서는 9개의 가마터가 확인되었다. 모두 15세기 전반에서 16세기 후반 사이인 조선시대 전기에 제작활동을 벌이던 곳으로, 분청사기와 백자를 제작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 도수리 4호 가마

도수리의 연습립 속에 위치하는 3기의 가마 가운데 하나로, 상감·인화분청사기와 함께 백자가 생산된 곳이다. 백자는 대접·접시·잔·뚜껑류가 발견되며, 도립삼각형굽에 모래받침을 하고 구운 유백색의 질이 좋은 백자와 죽절굽에 태토비집을 하고 구운 회백색의 백자가 혼재한다. 요도구도 상품의 자기를 구울 때 사용된 갑발·갑발뚜껑과 함께 도침과 원반형의 개떡이 발견된다. 기형이나 번조 방법 등으로 보아 15~16세기에 활동한 가마로 추정된다.

### ■ 도수리 7호 가마

도수리 사기장골에 위치하며 15~16세기에 활동한 가마로 추정된다. 백자를 생산한 가마로, 대접·접시·항아리·잔·제기·묘지 등이 발견되며, 백자색은 유백색이나 회백색을 보인다. 굽도 도립삼각형굽과 죽절굽 및 안굽이 혼재하며 받침도 모래받침과 태토비집받침이 사용되었다. 이 가마에서는 청화백자와 함께 조선 전기의 철화백자편이 발견되고 있어 주목된다.



자기 片

### ④ 원당리(元堂里)

원당리는 남쪽의 무갑리와 북쪽의 정지리 사이에 위치하며 서쪽의 경안천과 접해 있는 곳으로, 마을 남쪽 편의 구릉에 가마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곳의 가마터와 관련된 문헌기록은 현재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1986년에 발간된 '한국백자도요지'에는 유적의 위치와 수습유물이 소개되어 있지만, 현재는 확실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 소개 내용을 보면 백자를 생산하였고 그릇 종류로는 대접·접시·잔 등이 있으며, 죽절굽에 태토비집 받침을 하고 구웠는데 백자색은 연한 회색이나 유백색을 띤다고 하였다.

## ⑤ 관음리(觀音里)

가마터는 남서쪽의 우산리에서 북쪽의 퇴촌면 소재지를 향해 길게 펼쳐 있는 구릉과 골짜기의 좌·우변에 위치하며, 현재는 대부분 밭으로 개간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백자 파편 중에는 ‘좌(左)’ 혹은 ‘우(右)’의 음각명문이 있는 예가 있는데, 이것은 성현(成僕)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

“매년 사용원 관리를 파견하여 좌우변(左右邊)으로 나누어 봄부터 가을까지 제조·감독하여 어부(御府)에 수납한다.”

라는 기록의 내용과도 대략적으로 일치하여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파편이 출토되는 곳에는 당시 왕실용 백자의 제작을 관리하고 감독하던 사용원의 파견 부서인 분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관음리에는 35개의 가마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마의 다수가 15~16세기에 제작 활동을 벌이던 곳이지만, 일부는 조선시대 중기에 백자를 만들던 곳이다. 15~16세기의 가마는 대부분 백자를 제작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12호·14호·26호·27호·31호의 가마에서는 상감이나 인화 장식이 있는 분청사기가 만들어졌으며, 4호·10호·20호에서는 소량의 청자도 확인되고 있다. 백자는 순청자 이외에도 청화백자와 철화백자가 발견된다.

### ■ 관음리 4호 가마

관음리 도장골에 위치한 4기의 가마 중 하나로 백자와 청자를 구웠다. 백자에는 대접·접시·전접시 등이 보이며, 유백색 또는 연한 회백색을 띤다. 굽은 도립삼각형굽에 모래받침을 하여 비교적 상품의 백자를 구웠으며, ‘좌(左)’란 음각명문이 발견되어 주목된다. 청자는 접시류가 발견되며 어두운 녹색을 띤다. 기형과 명문의 존재로 보아 16세기경에 활동한 가마로 추정된다.

### ■ 관음리 10호, 11호 가마

관음리의 명학골에는 12기의 가마터가 산재하고 있다. 5호·6호·7호·8호·9호·21호·22호·23호·24호·25호 가마는 모두 15~16세기에 백자를 생산한 가마이다. 이중 9호와 24호에서는 갑발 뚜껑이 보이며, 22호 가마에서는 청화백자가 발견되어 주목된다.



자기片

명학골에 위치한 10호·11호 가마는 '좌'·'우'의 명문이 발견되는 곳인데, 10호 가마에서는 백자와 함께 청자도 소량 구웠다. 백자는 대접·접시·잔·병·뚜껑 등이 보이며 유백색이나 회백색을 띤다. 굽은 도립삼각형굽과 죽 절굽이 혼재하고 모래받침과 태토비침받침이 사용되었다. 명문은 '좌·우' 명이 다 보이며 순백자 외에 철화백자가 발견되어 주목된다. 청자는 접시류가 있으며 어두운 녹색을 띤다.

11호 가마에서는 백자만 구웠는데 명문도 '우' 명만 발견된다. 대접·대발(大鉢)·접시·전접시·마상배 등 다양한 기종이 있으며, 유색은 유백색이나 연한 회백색을 띠고 도립삼각형굽에 모래받침을 하고 구웠다. 요도구로 갑발뚜껑과 원반형의 개떡이 발견된다. 관음리 10호·11호 가마는 모두 16세기에 활동한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가마로 추정된다.

### ■ 관음리 16호 가마

사관동에 위치하며 17세기에 활동한 백자가마이다. 대접·접시·전접시·잔 등이 보이며, 백자색은 유백색이나 회백색을 띠고 굽은 도립삼각형굽과 함께 오복굽이 나타난다. 받침도 굽은 모래받침을 사용하여 시기적 변화를 보인다.

### ■ 관음리 18호 가마

새마을회관 부근에 있으며 17~18세기에 활동한 백자가마이다. 대발·대접·접시·잔·병 등이 보이며 굽은 도립삼각형굽에 굽은 모래받침을 하고 구웠다. 조선 중기의 특징적인 철화문이 장식된 백자편들이 발견되며 '이산(二山)'·'좌(左)' 등의 음각명문이 있어 주목된다. 요도구는 원반형의 개떡이 사용되었다.



자기片

### ■ 관음리 35호 가마

관음리 새마을회관 부근에 위치하며 관음리에서 가장 뒷시기인 18세기에 활동한 가마로 추정되고

있다. 모두 백자만 보이는데 그릇 종류에는 대접·접시·전접시·병 등이 있으며 백자색은 유백색을 띤다. 굽은 도립삼각형굽인데 모래받침을 하고 구웠으며 갑발이 사용되어 상품의 백자를 생산한 가마로 추정된다.

#### ⑥ 정지리(亭支里)

관음리에서 절골을 지나 남서쪽의 경안천 방향으로 가는 도중에 나타나는 마을로, 가마터는 마을 우측 구릉에 위치하며 현재는 밭으로 개간되어 사용되고 있다. 가마터와 관련된 문헌기록은 확인되지 않지만 이곳은 조선시대 전기에서 중기로 이어지는 조선백자의 변화과정과 특징을 밝힐 수 있는 곳이다.

현재까지 정지리에는 4개의 가마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두 16~17세기에 제작활동을 벌이던 곳으로, 백자를 만들었지만 3호 가마에서는 소량의 청자도 제작하였다. 이곳의 백자는 굽의 형태에 따라 도립삼각형굽과 오목굽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3호에서 제작된 백자의 굽바닥에서는 '左'·'右'의 음각명문이 있는 예가 발견되기도 한다. 1598~1605년 사이에 제작활동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며, 임진왜란 직후 최초로 광주에서 작업을 개시했던 곳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 전기에 주류를 이루던 유백색의 유색과 도립삼각형의 굽 등 세부적인 특징이 점차 중기에 나타나는 회백색의 오목굽을 한 백자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자기片

#### (2) 중부면(中部面)

시의 중서부에 위치한 면으로, 번천리에 21곳, 오전리에 7곳 등 2개리에 걸쳐 총 28곳의 가마터가 확인되었다.

#### ① 번천리(樊川里)

번천리는 남쪽의 송정리와 북쪽의 도마리 사이에 위치하며, 가마터는 상번천리의 마을과 주변 구릉에 흩어져 있고 다수가 밭으로 개간되어 사용되고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경기도 광주 토산조에 자기소로,

“주의 동쪽에 있는 벌을천, 상품(在州東伐乙川上品)”

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곳에 나타나는 ‘벌을천’이 오늘날의 벌내 혹은 벌천으로도 불리는 번천리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곳의 가마중 일부가 15세기 전반에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상품의 자기를 생산했던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번천리에는 21개의 가마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모두 15~16세기에 제작활동을 벌이던 곳으로, 분청사기와 백자를 제작하였으며 일부 가마에서는 소량의 청자도 함께 만들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청사기는 10호·17호·20호·21호에서 발견되며, 모두 인화장식이 있다. 백자는 순백자 이외에도 1호·2호·3호·11호에서 상감백자가 발견되고, 5호에서는 청화백자와 철화백자의 존재가 보이며, 9호에서는 다양한 청화백자가 제작되었다. 이곳에서 제작된 백자는 굽의 형태에 따라 대나무 마디 모양의 죽절굽과 도립삼각형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죽절굽의 경우 6호와 7호를 제외한 모든 가마에서 볼 수 있다.

### ■ 번천리 3호 가마

번천리 솔치에 위치하며 15세기에 백자를 생산한 가마이다. 대접·접시·전접시·잔·마상배·합·뚜껑 등이 보이며, 유색은 유백색과 연회백색·담청백색 등을 띠고, 굽은 죽절굽과 도립삼각형굽이 혼재한다. 빙침도 모래받침과 태토비침받침이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상감백자도 발견된다. 요도구 중에 상품백자 제작을 위한 갑발뚜껑이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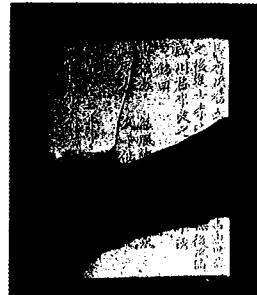
### ■ 번천리 4호 가마

이 가마는 현재 경안·톨게이트 바로 옆에 위치하며 1985~1986년에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발굴 조사된 곳으로 당시는 5호 가마로 불렸다. 광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가마터 발굴 조사였는데, 1기(基)의 가마와 작업장 시설이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학계를 흥분시켰으며, 도로공사측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가마유구는 발굴된 상태대로 보호각을 지어 보존하고 있다. 발굴 당시 다량의 백자파-



번천리 4호 가마터

편과 요도구 등이 출토되었는데, 백자는 순백자 이외에도 소량의 청화백자와 철화백자편이 확인되었다. 특히, ‘가정(嘉靖) 33년(1554)’의 음각명이 있는 묘지(墓誌)가 출토되어 구체적인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하였다. 그릇 종류로는 대접·접시·전접시·잔·마상배·합·뚜껑·병·항아리·제기·묘지 등이 있으며, 갑발과 갑발뚜껑이 발견되어 유백색의 상품백자도 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묘지편



청화백자편

### ■ 번천리 9호 가마

1998~1999년에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된 가마이다. 굴뚝부를 포함한 구조가 양호하게 남은 가마와 함께 주변의 작업장 시설이 확인되었으며, 다량의 백자파편은 물론 갑발과 갑발뚜껑을 비롯한 다양한 요도구도 함께 출토되었다. 이곳에서는 순백자와 소수의 청화백자를 포함하여, 순청자와 상감청자도 제작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우산리 9호 가

마와 같이 대접과 접시의 굽바닥에 ‘천·지·현·황’의 음각명을 새긴 파편이 다수 수습되었다. 백자는 유백색, 연한 회백색, 담청백색을 띠며 도립삼각형굽과 죽절굽에 모래받침과 태토비침받침이 혼용되었으며 그릇 종류로는 대접·접시·전접시·잔·마상배·합·뚜껑·병·항아리·묘지 등이 있다. 청자는 연한 녹색을 보이며 화분받침이나 제기 등 특수한 용도의 그릇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 ■ 번천리 17호 가마

번천리 세동묘지에 위치하며 15~16세기에 분청사기와 백자를 생산한 가마이다. 분청사기는 주로 인화분청을 생산하였으며, 백자 중에 상감백자가 있어 조선 초기부터 운영된 가마로 추정된다. 백자는 회백색이나 담청백색을 띠며 죽절굽에 태토비침받침을 하여 질은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다. 그릇의 종류로는 대접·접시·전접시·잔·항아리 등이 보인다.

## ② 오전리(梧田里)

오전리는 상번천리의 서북쪽에 위치하며, 가마터는 남한산성으로 오르는 도로의 주변에 산재해 있다. 현재 가마터의 대부분은 임야의 가장자리에 있어 일부는 밭으로 개간되어 형상이 많이 변경된 상

태이다. 이곳과 관련된 문헌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까지 오전리에는 7개의 가마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두 15~16세기에 제작활동을 벌이던 곳으로, 대부분 백자를 생산하였지만 3호 가마에서는 소량의 청자도 발견된다. 이곳의 백자는 굽의 형태에 따라 도립삼각형굽과 죽절굽으로 나누어지는데, 1호와 7호에서는 죽절굽의 백자파편만이 발견되지만 나머지 가마터에서는 두 종류가 모두 보인다. 5호 가마에서는 갑발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고 유백색의 질 좋은 백자가 발견된다. 1998년에는 건국대학교박물관에 의하여 5호 가마가 시굴(試掘) 조사된 바 있다.

### (3) 광주읍(廣州邑)

시의 서남부에 위치한 읍으로, 송정리에 7개, 탄별리에 11개, 목현리에 2개 등 3개리에 걸쳐 총 220개의 가마터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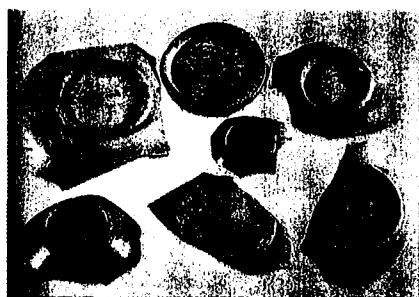
송정리 가마에서는 17세기의 순백자와 철화백자, 청화백자를 주로 생산하였으며 소량의 청자류도 발견된다. 이곳에서 제작된 백자의 가장 큰 특징은 대접이나 접시의 밑 바닥에 간지명이 새겨져 있는 편들이 많은 점인데, 이를 간지가 있는 파편을 검토한 결과 1649~1653년 사이에 분원이 제작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탄별리의 가마 역시 17세기에 백자와 소량의 청자를 제작하였으며, 송정리보다는 이른 시기인 1606년부터 1612년까지 분원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목현리에서는 15~16세기와 16~17세기에 순백자를 주로 생산하였으며, 소량의 상감백자파편도 확인된다.

#### ① 송정리(松亭里)

번천리와 경안리 사이에 위치하며, 가마터는 마을 주변의 구릉에 산재해 있고 모두 밭으로 개간되어 사용되고 있다. 송정리에는 7개의 요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두 17세기에 가장 활발한 제작활동을 벌였으며, 백자와 함께 소량의 청자도 생산하였다.

##### ■ 송정리 1호 가마

이 가마에서는 순백자 외에 청화백자·철화백자가 만들어졌으며, 소량의 청자도 제작되었다. 백자는 유백색이나 연한 회백색을 띠며 도립삼각형굽에 모래반침을 하고 구웠는데, 그릇 종류로는 대접·접시·잔 외에 전접시·



자기 片

합·항아리들이 발견된다. 이들 백자 대접이나 접시의 굽바닥에는 ‘경인좌(庚寅左)’·‘신묘우(辛卯右)’·‘임진우(壬辰右)’·‘계사우(癸巳右)’ 등의 간지가 새겨진 것과 ‘七十九’·‘右四十三’·‘右五十’ 등의 숫자가 음각되어 있는 예가 많이 발견되어 주목되는데, 간지와 유물의 검토결과 이들의 제작연대는 1649~1653년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 청자는 대접과 접시류로 어두운 녹색이나 연한 녹색을 보이며 직립형굽에 굽은 모래받침을 하고 구웠다.

### ■ 송정리 6호 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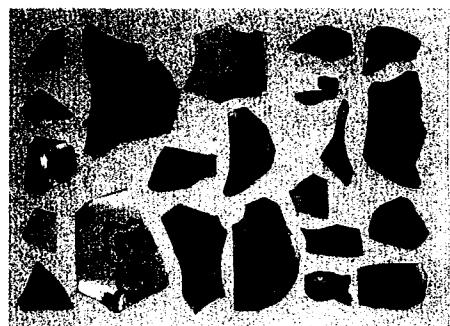
송정리 염치골에 위치하며, 17~18 세기에 백자를 구운 가마이다. 백자색은 연한 회백색이나 회색을 띠며, 굽은 도립삼각형굽 외에 오목굽이 보이며 받침은 굽은 모래받침을 사용하였다. 그릇 종류로는 대접·접시 외에 대발·잔 등이 있으며 요도구로 갑발이 사용된 것이 주목되고 원반형의 개떡도 보인다.

#### ② 탄벌리(炭篋里)

경안리의 서편에 있는 사기막골에 위치하며, 가마터는 마을 주변 구릉에 산재해 있다. 탄벌리에는 11개의 요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릇 종류로는 대접과 접시가 대부분이고 백자색은 연한 회백색을 보이며 오목굽 혹은 도립삼각형굽을 하고 있다. 이곳의 가마는 대부분 1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활발한 제작활동을 벌였다.

### ■ 탄벌리 1호 가마

이 가마에서는 백자 이외에도 소량의 청자도 제작되었다. 백자는 유백색이나 연한 회백색을 보이며 도립삼각형굽에 모래받침을 하고 구웠는데, 대접·접시·잔·전접시·합·항아리 등 다양한 그릇 종류들이 보인다. 특히 대접과 접시의 굽바닥에는 ‘병오좌(丙午左)’·‘경술우(庚戌右)’·‘정미좌(丁未左)’·‘정미우(丁未右)’·‘신해(辛亥)’·‘기유좌(己酉左)’·‘임자(壬子)’ 등의 간지가 적혀진 예가 있는데, 간지와 유물의 검토결과 이들의 제작시기는 1606~1612년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 청자는 대접과 접시류가 있으며, 어두운 녹색이나 연한 녹색을 띠며 도립삼각형굽에 모래받침을 하고 구웠다.



자기片

### ■ 탄벌리 5호, 7호 가마

5호 가마에는 백자로 만든 대접·접시·전접시·잔 등이 보이며, 백자색은 유백색이나 회색을 띠고 직립형굽에 굽은 모래받침을 하거나 굽은 모래비침을 하고 구웠다. 요도구로 갑발과 원반형 개떡이 발견된다. 기형과 굽는 방법을 볼 때 17~18세기에 활동한 가마로 추정된다.

7호 가마는 5호와 성격이 대체로 비슷하나 요도구로 갑발과 갑발뚜껑이 보여 주목된다.

### ③ 목현리(木峴里)

탄벌 2리와 북쪽으로 접해 있는 목현 1리 새오개 마을의 중앙과 주변의 임야에 위치한다. 현재까지 목현리에서는 2개의 가마터가 확인되었다. 15~17세기에 제작활동을 벌이던 곳으로 두 곳 모두 백자를 제작하였다. 1호에서는 죽절굽의 백자가 대부분이지만 상감백자도 발견되며, 죽절굽의 백자를 제작하던 가마에서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갑발과 갑발뚜껑의 파편퇴적이 형성되어 있어 주목된다. 2호는 비교적 높은 임야에 위치하며 백자편이 매우 적지만, 입자가 치밀하고 기벽이 얕게 제작된 갑발퇴적이 형성되어 있다.

### (4) 초월면(草月面)

시의 중앙에 위치한 면으로, 무갑리에 24개, 학동리에 16개, 쌍동리에 2개, 대쌍령리에 5개, 산이리에 1개, 지월리에 4개, 선동리에 5개 등 7개리에 걸쳐 총 57개의 가마터가 확인되었다.

무갑리에서는 15~16세기의 순백자·상감백자·청화백자 외에 소량의 청자도 발견된다. 학동리는 15~16세기와 16~17세기에 걸쳐 제작활동을 벌이던 가마가 확인되었으며, 인화와 상감장식이 있는 분청사기, 그리고 백자와 청자가 제작되었다. 백자파편에 적힌 간지로 보아 1613~1617년 사이에 분원이 작업했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쌍동리에는 15~16세기에 상감·인화분청사기와 백자를 각각 제작하였던 가마가 있고, 대쌍령리에서는 15~16세기에 제작된 순백자와 청화백자 파편이 발견되었다. 산이리 역시 15~16세기의 백자기마이며, 지월리는 17세기에 순백자와 철화백자를 만들던 곳으로 1677년(숙종 3년)부터 몇 년간 분원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동리에서는 17세기에 순백자와 청화백자·철화백자, 소량의 청자가 제작되었으며, 간지가 새겨진 파편이 발견되어 상립리·송정리 가마의 중간기간인 1640~1649년 사이에 분원이 제작활동을 벌였던 곳으로 밝혀졌다.

## ① 무갑리(武甲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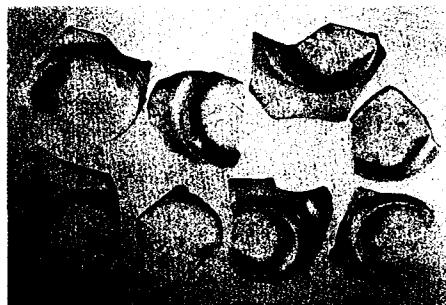
무갑산과 관산 사이의 골짜기와 무래비마을 주변의 구릉에 위치하며, 가마는 현재 산자락에 보존되고 있거나 밭으로 개간되어 사용되고 있다. 가마터와 관련된 당시의 문헌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퇴촌면 우산리의 가마와 더불어 조선시대 전기에 제작활동을 벌이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무갑리에는 24개의 가마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두가 15~16세기에 제작활동을 벌이던 곳으로 백자를 제작하였으며, 일부 가마에서는 소량의 청자도 함께 만들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갑발을 사용하여 백자를 제작한 가마에서는 다양한 기종과 유백색의 깨끗한 백자색, 도립삼각형의 굽 모양, 깔끔하게 다듬어진 세부의 형태 등 공통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2호·5호·7~14호·16호·17호·21호·24호에서는 갑발 파편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들 가마에서는 도립삼각형굽 이외에도 태토비침을 받쳐 번조한 죽절굽의 백자파편이 함께 수습된다.

### ■ 무갑리 2호 가마

조선 전기인 15~16세기에 상품의 백자를 생산한 대표적인 가마이다. 순백자가 대부분이지만 보기 드물게 청화백자와 상감백자가 발견되어 주목된다. 백자질도 유백색을 띤 것이 많고 도립삼각형굽에 모래받침을 하여 깨끗하게 구웠다. 그릇의 종류로는 대접·접시·전접시·잔·병·항아리·연적·제기 등 다양하게 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대접이나 접시의 바닥 안에



자기片面

'천·지·현·황'의 음각명문이 있는 편들이 많이 발견되는 점이다. 청자는 연한 녹색을 띠며 상감문이 베풀어진 것이 보이는데, 화분 등 특수한 용도의 것을 만들었다. 요도구로는 상품의 백자를 굽기 위한 갑발이 많이 보인다.

### ■ 무갑리 8호 가마

무갑리의 미내미골에 위치하며 상품의 백자를 생산한 곳이다. 백자색은 유백색 외에 연한 회백색이나 담청백색을 보이며 굽도 도립삼각형굽 외에 죽절굽이 혼재한다. 그릇의 종류로는 대접과 접시 외에 대발·전접시·잔·항아리 등이 있다. 청자도 일부 구웠는데 상감문이 장식된 것도 보이며 연한 녹색을 띤다. 요도구로 갑발이 사용된 것이 주목되며 함께 원반형의 개떡도 보인다. 15~16세기에 활

동한 가마로 추정된다.

### ■ 무갑리 17호 가마

무갑리 미내미골에는 15~16세기에 활동한 가마들이 8기나 존재한다. 17호 가마도 무내미골에 위치하며 상품의 백자를 생산한 가마로 손꼽힌다. 유색이 유백색을 띠고 도립삼각형굽에 모래받침을 한 우수한 질의 백자류도 있지만, 연한 회색이나 담청백색을 띠고 죽절굽에 태토비짐 받침을 한 종류도 보인다. 그릇의 종류로는 대접·접시·대발·전접시·잔·마상배·합·항아리 등이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대접과 접시의 바닥 안에 '현·횡'의 음각명문이 있는 편들이 발견되는 점이며, 요도구로는 갑발류와 함께 도침이나 원반형 개떡이 발견된다.

### ② 학동리(鶴東里)

무갑산의 남쪽 골짜기를 따라 펼쳐진 상동막과 중동막 일대의 구릉에 가마터가 위치하며, 임야에 포함되어 보존상태가 양호한 예도 있지만 일부는 밭으로 개간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학동리에는 16개의 가마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5~16세기와 16~17세기에 걸쳐 제작활동을 벌이던 곳으로, 분청사기와 백자, 소량의 청자가 제작되었다. 분청사기는 4~6호에서 확인되는데, 인화장식이 주류를 이루지만 상감장식이 있는 예도 다수 있다. 백자는 4호와 6호를 포함한 모든 가마에서 제작되었으며, 죽절굽·도립삼각형굽·오목굽 등 제작시기별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굽의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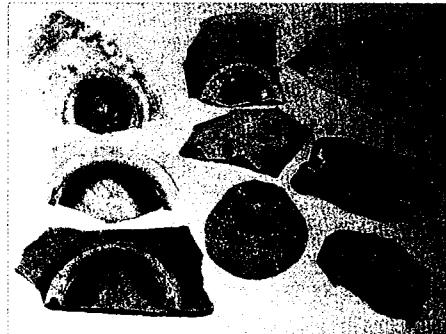
### ■ 학동리 5호 가마

학동리 복당골에 위치하는 5호 가마는 인화분청사기와 백자를 생산하였으며 일부 청자도 만들었다. 백자는 유백색에 도립삼각형굽을 하고 모래받침으로 구운 상품의 백자도 있으며 회색이나 담청백색을 띠고 죽절굽에 태토비짐받침을 한 종류도 존재한다. 그릇 종류로는 대접·접시 외에 잔·병·마상배 등이 있다. 청자는 주로 대접 종류들이 보이며 어두운 녹색이나 옅은 녹색을 보인다. 요도구로는 갑발과 함께 원반형 개떡이 보이며, 15~16세기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 ■ 학동리 9호 가마

학동리 별동막에 위치하며 조선 중기의 17세기에 활동한 백자가마이다. 백자색은 유백색·연한 회

백색·회색 등을 띠며, 도립삼각형굽이나 오목굽에 굽은 모래받침을 하고 구웠다. 그릇 종류로는 대접·접시·잔 등이 있으며 특히 대접과 접시의 굽바닥에 ‘庚(戌)’ ‘癸(丑)’ ‘乙(卯)右’ ‘丁巳右’ 등의 간지가 음각된 편들이 발견되어, 백자의 제작시기가 1613~1617년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요도구로는 원반형의 개떡과 폐기된 그릇을 활용하여 받침으로 사용한 것이 발견된다.



자기片面

### ③ 쌍동리(雙東里)

백마산 동쪽 골짜기에 있는 도곡동 주변에 위치하며, 현재는 밭으로 개간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재 까지 쌍동리에는 2개의 가마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두 15~16세기에 제작활동을 벌이던 곳으로 분청사기와 백자를 각각 제작하였다. 분청사기는 1호 가마에서 제작하였는데, 모두 상감과 인화 장식이 있는 것으로 기종은 대부분 대접과 접시이다. 백자는 2호 가마에서 볼 수 있으며, 죽절굽과 도립삼각형의 굽을 갖춘 예가 함께 확인된다.

### ④ 대쌍령리(大雙嶺里)

대쌍령리에서 쌍령리로 향하는 도로의 좌·우측 구릉에 위치하며, 대부분 임야와 접한 곳에 있다. 현재까지 5개의 요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모두 15~16세기에 제작활동을 벌이던 곳으로 백자를 생산하였다.

#### ■ 대쌍령리 1호 가마

짐터골에 위치하며, 백자와 함께 청화백자 파편도 발견되어 주목된다. 특히 이 가마에서는 대접의 굽바닥에 ‘별(別)’이라는 음각명문이 써어진 예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별번(別燔)’의 준말로 궁중의 특별한 행사나 목적을 위해 제작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들 명문이 있는 것은 1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백자색은 유백색이나 연한 회백색을 보이며 도립삼각형굽과 죽절굽이 혼재하고 모래받침과 태토비침받침이 사용되었다. 그릇 종류는 대접·접시·대발·잔 등이 보인다. 청자 접시편도 확인되는데, 연녹색에 도립삼각형굽을 갖추고 있다. 요도구로 갑발뚜껑이 발견되며 원

반형 개떡이 많다.

### ■ 대쌍령리 2호 가마

웃마골에 위치하며 15~16세기에 운영된 백자기마이다. 유백색이나 연한 회백색을 보이는 백자들은 도립삼각형굽에 모래받침을 하고 구웠으나 요도구에서 갑발이 보이지 않고 원반형의 개떡만 발견된다. 그릇 종류는 대접·접시·항아리가 있다.

### ⑤ 산이리(酸梨里)



자기片面

쌍동리의 남쪽으로 빨리봉의 동편 골짜기를 따라 무세비 거리로 향하는 중간의 구릉에 위치하며, 현재는 주변에 묘가 조성되어 있다. 산이리에는 1개의 가마터가 있으며, 15~16세기에 백자를 제작하였던 곳으로 확인되었다. 순백자 이외에 상감백자도 함께 보이며, 대접과 접시와 같은 일상적인 기종이 주류를 이룬다. 죽절굽과 함께 도립삼각형굽의 백자도 있지만, 갑발은 발견되지 않는다.

### ⑥ 지월리(池月里)



자기片面

서편의 쌍령리와 동편의 무갑리 사이에 위치하며, 가마터는 도평리에서 무갑리로 가는 길 중간의 마을 주변에 산재해 있다. 현재까지 4개의 가마터가 확인되었으며, 모두 17세기에 백자를 만들던 곳이다. 순백자 이외에 철화백자가 발견되는 점이 주목되며, 기종은 대접과 접시·잔 등이 주류를 이룬다. 오복굽과 직립형굽이 공존하며, 모두 굽은 모래받침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이곳 지월리에는 탑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승정원일기

(承政院日記) 속종(肅宗) 2년(1676년)의 기록에,

“지금의 분원설치처에서 서북으로 약 15리 거리에 있는 탑립동으로 내년 봄에 분원을 옮긴다.”

는 마을 이름과 관계된 사실이 나온다. 이 기록의 탑립동은 지월리의 탑동으로 믿어져, 1677년부터 분원을 이곳으로 옮겨 백자를 제작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가마터에서 발견되는 파편들도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지월리의 가마터는 구체적인 제작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분원의 이동과 변화를 파악하는 데도 중요한 곳이다. 1992년에 해강도자미술관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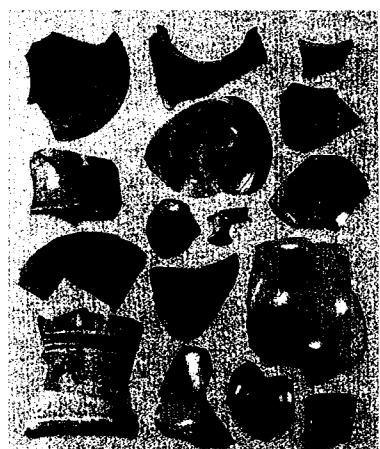
#### ⑦ 선동리(仙東里)

선동리에서 지월리로 향하는 큰 길의 좌측 구릉에 산재해 있으며, 현재는 논이나 밭으로 개간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선동리에는 5개의 가마터가 있으며 17세기에 백자를 제작 하던 곳으로 확인되었다. 순백자 이외에도 청화백자와 철화백자가 제작되었으며, 소량의 청자도 함께 제작되었다.



가마

1986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2호와 3호 가마가 발굴되었다. 2호 가마에서는 다량의 백자와 청자·요도구·시유편(施釉片)이 출토되었다. 백자는 순백자 이외에 용이나 난초·포도 등이 그려진 다수의 철화백자와 안 바닥에 ‘제(祭)’ 자를 적어놓은 소수의 청화백자 접시 등이 출토되었으며, 청자는 대형 접시와 인화장식이 있는 제기 등을 제작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접시나 대접의 굽의 안바닥에 ‘신사(辛巳)’·‘임오좌(壬午左)’·‘계미우(癸未右)’·‘갑신좌(甲申左)’·‘병술우(丙戌右)’·‘정해우(丁亥右)’·‘무자좌(戊子左)’·‘기축(己丑)’·‘경진우(庚辰



자기 片

右' 등의 간지가 새겨진 파편이 발견되어, 상립리·송정리 가마의 중간기간인 1640~1649년 사이에 분원이 이곳에서 제작활동을 벌였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10년분의 간지가 출토되어 분원이 10년 단위로 가마를 이설하였다는 기록을 입증해 주기도 하였다.

3호 가마에 대한 발굴에서는 두 기의 가마가 나뉘어 조사되었는데, 3-가호 가마는 뒷부분 일부만 남아 있었는데 석비례층을 파고 축조하였다. 3-나호 가마 역시 상부와 하부가 잘려나가 3개의 소성 실만 남아 있었는데, 1실의 규모는 길이가 3.5m, 폭이 1.8m 정도였으며 가마벽체 일부만 있어 자세한 구조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가마는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조선시대 가마와 달리 바닥면이 경사가 거의 없이 수평에 가깝고 가마 뒷벽이 수직으로 세워져 있어 완전한 계단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 매우 특이한데, 이 무렵에 조선의 가마가 계단식 칸가마로 변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이 3호 가마에서는 대부분 오목굽에 연회백의 유색을 띠고 모래반침을 하고 구운 질이 좋지 않은 백자가 출토되었는데, 일부 낮은 수직굽과 해무리굽도 발견되었다. 대접과 접시 외에 전접시·항아리·제기들이 보이며 일부 철화백자도 제작되었다. 운영시기는 2호 가마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5) 도착면(都尺面)

시의 남단에 위치한 면으로, 상립리에 15개, 궁평리에 9개, 유정리에 2개 등 3개리에 걸쳐 26개의 가마터가 확인되었다.

상립리에서는 17세기를 전후하여 순백자와 철화백자, 청자를 제작하였으며, 1631~1636년 사이에 분원이 제작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궁평리에서는 17~18세기의 순백자와 철화백자·청화백자가 발견된다. 유정리에서도 17~18세기의 순백자와 철화백자가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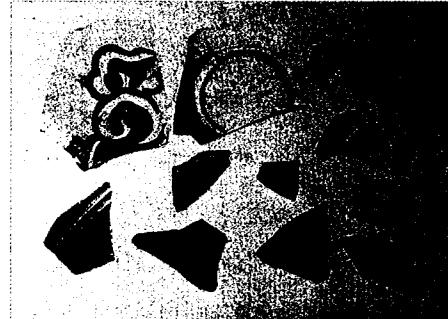
#### ① 상립리(祥林里)

정광산과 태화산의 중간에 위치하며, 노곡천을 따라 궁평리에서 남서쪽으로 가는 길에 상림마을이 있고 그 주변에 가마터가 산재해 있다. 현재까지 15개의 가마터가 확인되었으며, 1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백자를 주로 생산하였는데, 특히 6곳에서 철화백자들이 출토되고 있어 조선중기 백자의 특징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소량의 청자도 만들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 ■ 상림리 1호 가마

이 가마에서는 순백자 이외에 운룡문이 그려진 철화 백자와 청자 제기편 등이 출토되어 주목을 끈다. 백자는 유백색이나 회백색을 띠며 직립형굽이나 도립삼각형굽에 모래받침을 하고 구웠으며, 그릇 종류로는 대접·접시·대발·전접시·잔·뚜껑·항아리·향로·묘지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히 백자의 대접과 접시의 굽바닥에 ‘辛未別’·‘癸酉右’·‘甲戌’·‘甲戌右’·‘乙亥左’·‘乙右亥’·‘丙(子)右’ 등의 간지가 음

각된 백자파편이 발견되는데, 이로 보아 1631~1636년 전후에 분원이 이곳에서 제작활동을 벌였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청자는 어둡거나 연한 녹색을 띠며 대접·접시 외에 제기가 만들어졌다.



자기 片

### ■ 상림리 4호 가마

이 가마는 상림리 지역에서 가장 나중에 운영된 가마로 18~19세기에 운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백자는 연한 회색이나 회청색을 띠며 직립형굽에 굽은 모래받침을 하고 구웠으며 대접·접시·병과 함께 제기들이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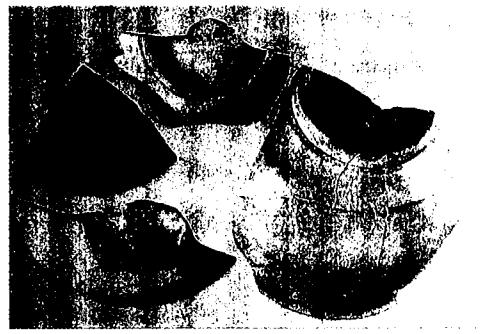
### ■ 상림리 10호·11호 가마

상림리의 사기소에 위치하며 모두 철화백자를 생산한 17세기의 전형적인 가마들이다. 백자색은 유백색이나 회색을 띠며 도립삼각형굽과 오목굽에 굽은 모래받침을 하고 구웠으며, 대접·접시 외에 전접시·잔·편병·항아리 등 다양한 그릇 종류가 발견된다. 특히 백자대접이나 접시의 굽 안바닥에 ‘기좌(己左)’·‘기우(己右)’·‘을해좌(乙亥左)’와 같은 간지가 새겨진 파편이 발견되어 주목된다. 10호에서는 어두운 녹색의 청자들도 소량 발견된다.

## ② 궁평리(宮坪里)

곤지암리에서 상림리로 가는 중간에 있으며, 가마터는 마을 주변의 밭과 얕은 산자락에 흩어져 있다. 현재까지 9개의 가마가 확인되었으며, 이곳에서는 17~18세기에 걸쳐 백자를 생산하였다. 순백자 이외에 1호와 2호 가마에서는 철화백자가 출토되며, 6호·8호·9호 가마에서 청화백자도 확인된다.

이중 1호 가마에서는 '갑(甲)' 자가 써어진 파편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1호·2호·6호·9호에서는 대부분 직립형굽의 백자가 발견되지만, 나머지 가마에서는 오목굽이 공존한다. 기종은 대집, 접시, 잔, 항아리 등이 대부분이며, 유색은 설백 혹은 유백색과 함께 연화백색이 주류를 이룬다. 굽바닥에는 대부분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으며, 오목굽의 경우는 포개구이를 하였다. 1992년에 해강도자미술관에 의해 지표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자기 片

### ③ 유정리(柳井里)

도척저수지와 서북쪽에 접해 있으며, 가마터는 바위산골 마을 주변에 산재해 있다. 현재까지 2개의 가마가 확인되었으며, 이곳에서는 17~18세기에 걸쳐 백자를 제작하였다. 순백자 이외에 1호에서는 철화백자가 출토된다. 1호와 2호 모두 직립형굽과 오목굽 백자가 공존하며, 기종은 대집·접시·잔·항아리 등이 대부분이고, 유색은 유백색과 연화백색이 주류를 이룬다. 굽바닥에는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 (6) 실촌면(實村面)

시의 동남단에 위치한 면으로, 유사리에 8개, 신대리에 22개, 오향리에 6개, 곤지암리에 7개, 열미리에 10개, 건업리에 2개, 장심리에 1개 등 7개리에 걸쳐 총 56개의 가마터가 확인되었다.

유사리에서는 17세기의 순백자와 철화백자가 발견되며, 1660~1664년을 전후한 시기에 분원이 활동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대리에는 15~16세기에 분청사기와 백자를 만들던 곳도 있지만, 주로 17세기에 백자를 만들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1669~1676년을 전후한 시기에 분원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향리에서는 15~16세기와 17~18세기의 백자가 발견되며, 1717년부터 1720년까지 분원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곤지암리에서는 15~16세기의 백자만이 확인되며, 열미리 역시 15~16세기의 백자가 발견된다. 한편 건업리에서는 15~16세기의 순백자와 상감백자가 발견되며, 장심리에서도 15~16세기에 백자가 발견된다.

## ① 유사리(柳寺里)

서편의 연곡리와 동편의 삼합리 사이에 유사리가 있으며, 가마터는 버드라미 마을 주변에 산재해 있다. 현재까지 8개의 가마터가 확인되었으며, 이곳에서는 17세기에 백자를 제작하였다. 특히 순백자 이외에도 2호·3호·8호에서는 철화백자가 발견되어 조선 중기 백자생산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가마에서는 직립형굽과 오목굽의 백자가 공존하며, 기종은 대접·접시·잔·항아리들이 대부분이고 유색은 유백색과 연회백색이 주류를 이루며 굽바닥에는 굵은 모래를 받치고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 ■ 유사리 3호 가마

이 가마는 철화백자를 생산한 대표적인 가마이지만 몇 가지 주목되는 사항들이 발견되는 곳이다. 그릇 종류로는 드물게 편병이 발견되며, 굽도 특이하게 초기 청자에서 보이는 해무리굽 모양의 것이 있어 이채롭다. 또한 대접과 접시의 안바닥에 ‘甲辰左’·‘辛丑左’·‘癸卯右’·‘庚(子)左’ 등의 간지가 음각된 파편들이 발견되는데, 이로 보아 이 가마는 1660~1664년을 전후한 시기에 제작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요도구로 갑발이 사용된 점도 주목된다.



자기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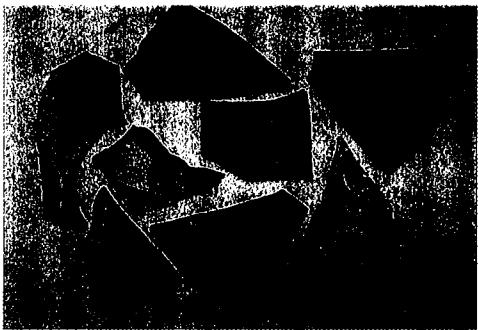
## ② 신대리(新垈里)

곤지암리의 북쪽에 위치하여 서로 마주보는 마을로, 가마터는 골짜기와 마을 주변의 구릉에 산재해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가마터는 22개로 17세기에 제작활동을 벌이던 곳이 많지만, 15~16세기에 분청사기와 백자를 만들던 곳도 일부 존재한다.

분청사기는 1호와 22호에서 발견되며 대접과 접시에 상감이나 인화장식이 있는 예가 주류를 이루며, 2호·15호·16호에서는 담청백색이나 연회백의 유색을 보이며 죽절굽에 태도비침을 한 15~16세기의 백자가 발견된다.

나머지 17세기의 가마에서는 유백색이나 연회백색의 유색에 대부분 직립형굽과 오목굽의 백자가

공존하며 굽바닥에 모래를 받쳐 구웠다. 이들 가마에서는 순백자 이외에 3~8호·10~13호·17호·19호·20호 등 여러 곳에서 철화백자가 출토하고 있어 이 지역이 조선 중기에 광주지역에서 가마가 집중적으로 운영된 곳의 하나였음을 알려 주고 있다.



자기片

### ■ 신대리 10호 가마

신대리 새터말에 위치하며 17세기에 백자와 철화백자를 생산한 가마이다. 백자는 대부분 회색조를 보이며 오목굽에 굽은 모래받침을 하고 구웠는데 항아리들이 많이 보인다. 이 가마에서는 대접과 접시의 굽바닥에 ‘己(酉)’·‘丙(辰)’·‘甲寅’·‘乙卯’ 등의 간지를 음각한 예들이 많이 발견되어 주목되는데, 1669~1676년을 전후한 시기에 제작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것은 숙종 2년(1676년) ‘승정원일기’에

“지금의 분원설치처에서 서북으로 약 15리 거리에 있는 탐린동으로 내년 봄에 분원을 옮긴다.”

는 문헌기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지월리의 탐동으로 가기 전에 신대리에서 분원이 제작활동을 하였던 사실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 ■ 신대리 17호 가마

신대리 하오개들에 위치하며 철화백자를 생산한 17세기의 가마로 추정된다. 백자색은 연한 회백색이나 회청색이 주류를 이루며 죽절굽이나 오목굽에 태토비침반침이나 굽은 모래받침을 하고 구웠으며 요도구로는 도침과 원반형 개떡이 사용되었다. 그릇 종류로는 대접·접시·전접시·잔 등이 발견된다.

### ■ 신대리 22호 가마

십이내미골 아래에 위치하며, 상감·인화분청사기와 함께 백자를 생산한 조선 전기의 가마이다. 212 백자는 유백색이나 연한 회백색을 띠며 오목굽과 직립형굽에 굽은 모래받침을 하고 구웠으며 대접·접시류가 발견된다.

### ③ 오향리(五香里)

감투봉의 우측 골짜기로 열미리에서 유사리로 가는 길 좌측에 마을이 있고, 가마터는 주변에 길게 산재해 있다. 현재까지 6개의 가마터가 확인되었으며, 이곳에서는 조선시대 전기와 중기에 걸쳐 백자를 제작하였다.

1호 · 5호 · 6호 가마에서는 담청백 혹은 연회백의 유색을 보이며 죽절굽에 태토비침을 받쳐 번조한 백자가 발견되어 조선전기에 운영된 가마로 추정된다.

그러나 3호와 4호에서는 백자색이 유백색을 보이며 직립형굽에 모래를 받쳐 번조한 질이 좋은 백자가 확인되는데, 백자질이나 기형적 특징으로 보아 18세기 전반 경에 활동한 가마로 추정된다. 그런데 ‘승정원일기’ 경종(景宗) 즉위년(1720년) 조에는,

“번조소(燔造所)를 정유년(丁酉年 · 1717년)에 실촌면 오양동(五陽洞)으로 옮겼으나 땔나무가 거의 다하여, 내년에 이설하기 좋은 곳을 찾았다.”

는 기록이 있다. 이는 곧 1717년부터 1720년까지 오향리에서 분원이 운영되면서 백자를 제작하였다는 기록으로, 당시의 가마가 지금의 3호 혹은 4호라고 추정되고 있는 중요한 곳이다.

### ④ 곤지암리(昆池巖里)

노곡천을 사이에 두고 궁평리와 마주보는 구릉에 위치한다. 현재까지 7개의 가마터가 확인되었으며, 이곳에서는 조선 전기인 15~16세기에 백자를 제작하였다. 백자 이외에도 1호와 2호 가마에서는 청자파편이 확인된다. 모든 가마에서는 도립삼각형굽의 백자가 발견되고, 대체적으로 유색은 백도가 높은 유백색이 주류를 이루며, 굽바닥에는 가는 모래를 받쳐 구워으며 요도구로 갑발이 사용된 곳이 많은 점 등으로 보아 이곳에서는 상품의 백자를 주로 생산하였던 지역으로 생각된다.

#### ■ 곤지암 1호 가마

백자와 함께 소량의 청자도 구운 가마로, 이 지역의 다른 가마와 내용을 약간 달리한다. 백자는 유



자기片面



자기片

백색 외에 연한 회백색이나 담청백색을 띠며, 굽도 도립삼각형굽 외에 죽절굽이 혼재한다. 받침도 모래 받침 외에 태토비짐받침도 사용되었으며, 그릇 종류로는 대접·접시·잔·병·항아리 등이 있다. 간혹 음각의 명문이 있는 편이 발견되며 요도구로는 갑발과 갑발뚜껑 외에 원반형 개떡도 사용되었다. 청자는 암녹색을 띤 돈(墩)이 발견되었다.

## ⑤ 열미리(悅美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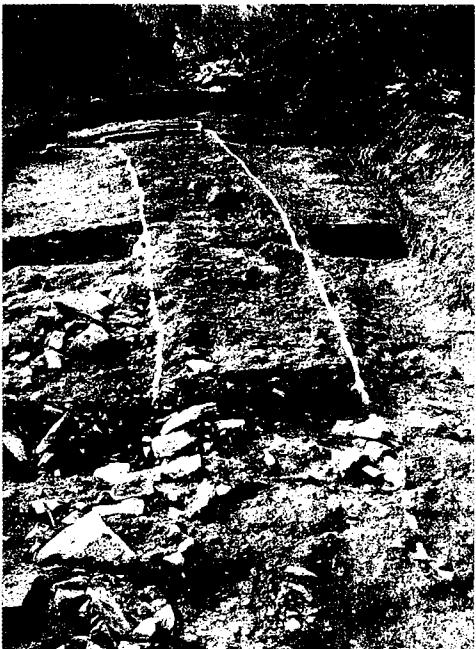
곤지암과 오향리 사이에 열미리가 위치하며, 가마터는 마을 입구인 하열미에서 북쪽으로 길게 뻗은 상열미까지 산재해 있다. 현재까지 10개의 가마터가 확인되었으며, 이곳에서는 15~16세기에 백자를 제작하였다. 6호에서는 유백색의 깨끗한 백자색을 보이는 도립삼각형굽의 백자가 만들어졌으며, 3호·5호·9호에서는 도립삼각형굽과 담청백색을 띠는 죽절굽 백자가 혼재하고, 나머지 가마에서는 죽접굽에 태토비짐을 받친 예만 확인된다. 기종은 대접과 접시·잔 이외에 병·합·항아리·반(盤) 등이 있다.

### ■ 열미리 5호 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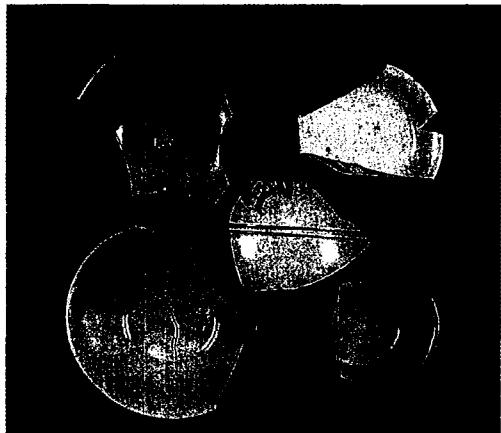
열미리의 너덕골에 위치하며 유물의 출토상황으로 보아 상품의 백자와 일반적인 백자를 함께 생산했던 가마로 생각된다. 유색은 유백색 외에 연회백색과 담청백색이 있으며, 굽은 도립삼각형굽과 죽절굽이 혼재하며 받침도 모래받침과 태토비짐받침이 혼용되었다. 요도구도 상품백자를 굽기 위한 갑발과 갑발뚜껑이 있되 도침과 원반형의 개떡도 공존한다. 그릇의 종류로는 대접·접시·전접시·잔·합·뚜껑·항아리 등이 있다.

## ⑥ 건업리(建業里)

장심리 북쪽에 위치하며 가마터는 청남컨트리클럽 입구와 주변에 있다. 현재까지 2개의 가마터가 확인되며, 이중 2호 가마는 1997년 12월~1998년 1월에 걸쳐 해강도사미술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면서 학계에 알려졌다. 이곳에서는 상감백자들이 생산된 관계로 15세기에 백자를 제작한 가마로 추정된다. 대체적인 양상은 우산리의 천진암 주변의 상감백자 가마터와 유사하며, 기종은 대접·접



가마



자기片面

시·잔 이외에도 전접시와 항아리가 확인된다. 유색은 연회백과 담청백색이 대부분이며, 죽절굽에 태토비침을 받쳐 포개구이한 흔적이 남아 있다.

건업리 2호 가마의 발굴조사에서는 거의 파괴된

상태의 가마유구의 흔적만이 발견되었으며, 무문의 백자와 함께 일부 상감백자와 청자편이 출토되었다. 2호 가마의 운영시기는 대체로 15세기 중엽 경의 짧은 기간으로 보고 있다.

### ⑦ 장심리(長深里)

서편의 열미리와 북쪽의 건업리 사이에 장심리가 위치하며, 가마터는 장심천을 거슬러 올라간 마을 주변에 있다. 현재까지 1개의 가마가 확인되었으며, 이곳에서는 15~16세기에 백자를 제작하였다. 연회백색 혹은 담청백색의 대접과 접시가 만들어졌으며, 죽절굽 바닥에는 태토비침을 받쳐 포개구이한 흔적이 남아 있다.

### (7) 남종면(南終面)

시의 북동단에 위치한 면으로, 유사리에 11개, 금사리에 9개, 분원리에 3개, 삼성리에 1개 등 4개리에 걸쳐 총 24개의 가마터가 확인되었다.

귀여리에서는 15~16세기의 백자와 청화백자, 청자 등이 확인된다. 굽바닥에는 ‘황(黃)’ · ‘지(地)’ 등의 문자가 음각된 예도 있다. 금사리에서는 18세기에 백자가 확인되며, 순백자 이외에도 청화백

자·철화백자가 발견된다. 금사리 가마는 1726년경부터 1751년까지 약 25년간 분원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분원리는 분원이 최후로 고정된 곳으로 1752년부터 1884년까지 분원이 운영된 곳이다. 순백자와 청화백자 파편이 발견되며, 많은 양의 파편이 노출되어 있다. 삼성리는 15~16세기에 백자를 만들던 곳으로 도립삼각형굽과 죽절굽 백자가 혼재한다.

### ① 귀여리(歸歛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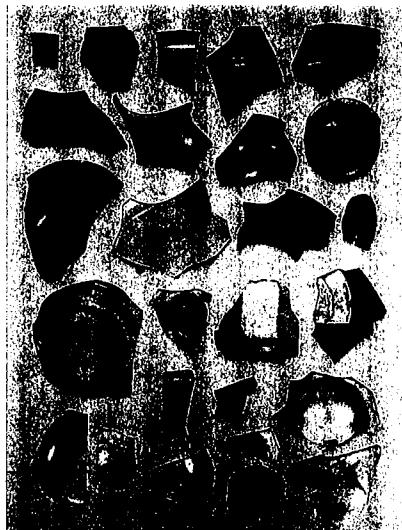
금사리의 동편에 접해 있으며, 가마는 골짜기를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11개의 가마터가 확인되었으며, 이곳에서는 15~16세기에 백자를 제작하였다. 1~10호 가마는 대접과 접시·잔을 주로 하여 병과 항아리 등을 제작하였으며, 담청백색의 유색과 죽절굽에 태토비침을 받쳐 번조하였다.

이곳에서 가장 주목되는 가마는 다람네골에 위치한 11호 가마로, 순백자와 함께 청화백자와 청자 등이 발견된다. 백자는 대접·접시·잔 이외에 전접시와 마상배·합뚜껑 등이 확인되며 설백색에 도립삼각형굽을 갖춘 백자와 죽절굽 백자가 혼재한다. 특히 대접과 접시의 굽바닥에는 ‘黃’·‘地’ 등의 문자가 음각된 예가 있다. 청자는 대접과 접시·반 등이 발견되며, 연록 혹은 암록색을 띠고 도립삼각형의 굽을 갖추고 있다. 요도구로는 갑발과 갑발뚜껑·도침 등이 발견되는데, 전체적으로 보아 지표에서 확인되는 대체적인 양상은 우산리 9호 혹은 번천리 9호 가마와 유사하다.

### ② 금사리(金沙里)

퇴촌면에서 경안천을 끼고 분원리로 가는 길 우측 골짜기에 금사리가 있으며, 가마터는 마을 주변의 구릉에 흩어져 있지만 대부분 밭으로 개간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9개의 가마터가 발견되었으며, 모두 18세기에 백자를 제작하였다.

이들 금사리에서 생산된 백자들은 일찍부터 조선중기 백자의 대표작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가장 조선적인 이름다음은 구현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전에는 이들의 제작 시기를 17세기로 보았으나 그간의 연구 결과 18세기 전반에 운영된 가마로 지금은 확정되어 있다. 즉 ‘조선왕조실록’ 등의 문헌자료를 검토한 결과, 광주의 분원가마를 오향



자기片面

리에서 우천(牛川)으로 옮겼다가 다시 우천강변으로 이동하는 1720년경부터 현재의 분원리로 이설되기 전인 1751년까지 약 30년간에 이곳 금사리에서 관요가 운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가마는 18세기 전반 분원의 변화과정을 파악하는 데 극히 중요하다.

금사리에서는 순백자와 함께 소위 추초문(秋草文)으로 불리는 청초한 청화 문양이 베풀어진 청화 백자들이 다수 제작되었는데 1~7호 가마에서는 청화백자의 생산 흔적이 확인되고 있으며, 3호와 5호 가마에서는 철화백자편도 발견된다. 기종은 대접·접시 이외에 잔·항아리·병·제기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특히 표면을 육각 혹은 팔각으로 모깎이한 파편이 많아 시기와 조형적인 특징을 잘 보여 준다. 유색은 설백색(雪白色)의 투명하고 백도가 매우 높으며 굽은 직립형굽으로 바닥에 모래를 받쳐 구웠고, 대부분의 가마에서 갑발을 사용하고 있어 제작에 정성을 다하였음을 알려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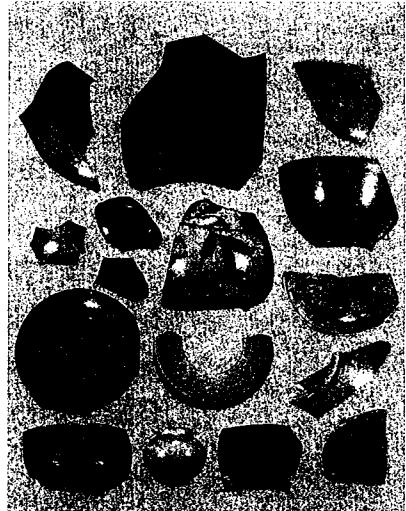
### ③ 분원리(分院里)

금사리의 서북쪽에 분원리가 위치하며, 가마터는 분원초등학교가 세워져 있는 곳과 주변에 산재해 있다. '여지도서(輿地圖書)' 양근군(楊根郡) 물산조(物產條)에,

"임신년에 광주 번조소를 남종면에 이설하여 매해 사옹 원관리가 왕실용 그릇의 제작을 감독하였다."

는 관련 기록이 남아 있어, 이로 보면 광주의 분원이 금사리에서 수운이 편리한 이곳으로 1752년에 이설하였음을 분명하게 밝혀 준다. 그리고 이 분원리에 분원을 고정한 다음 이후 조선말에 가서 분원운영이 민영화되는 1884년까지 근 150여 년간 오직 이곳에서만 왕실용 백자의 진상사기들이 생산되었다. 따라서 이 분원리에는 조선 후기의 유일한 관요로 활동하면서 이루어진 엄청난 양의 퇴적이 있었음이 당연시되나, 일제시대에 바로 이 가마터를 허물고 이 위에 분원초등학교를 세우면서 무참하게 파괴되었다. 지금도 분원초등학교 운동장 한 편에는 분원의 운영에 관련한 관리들의 송덕비들이 줄지어 서 있다.

현재까지 분원리에는 3개의 가마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3호 요지에는 건물이 세워져 확



자기片面

인이 불가능하다. 1호와 2호에서는 순백자와 함께 다수의 청화백자 파편이 발견되며, 기종도 대접·접시 이외에 잔·병·항아리·뚜껑·연적·필통·향로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분원초등학교 입구에서 운동장을 거쳐 뒤편 구릉과 주변의 밭으로 이어지는 1호와 2호에는 현재까지도 많은 양의 파편이 노출되어 있다. 초등학교 입구 쪽에서는 드물게 금사리의 백자와 유사한 예가 발견되지만, 운동장과 뒤편 구릉 그리고 구릉 밑의 밭에서는 설백색 또는 담청백색의 유색을 보이는 수직굽 혹은 굽이 높은 백자파편이 발견되며, 청화백자의 경우 간략한 초화문(草花文)이나 ‘수(壽)’·‘복(福)’의 문자를 작게 도안하여 쓴 예가 확인된다.

#### ④ 삼성리(三成里)

도마리에서 북쪽으로 과학동을 지나 나타나는 삼정골 마을에 위치한다. 현재까지 1개의 가마터가 발견되었으며, 15~16세기에 백자를 제작하던 곳이다.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유백색의 도립 삼각형굽과 담청백색의 죽절굽 백자, 그리고 갑발과 갑발뚜껑이 혼재한다.

### III. 경기도의 조선백자 가마터

경기도내에 알려진 조선시대 백자 가마터는 조선 초기부터 빌기에 이르기까지 도처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 지역을 제한 곳에서는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략적인 면모의 파악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간혹 국토개발 등에 따른 구제 차원의 발굴조사가 몇 곳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먼저 정식으로 발굴 조사된 가마터를 먼저 살펴 본 다음 기존에 알려진 각 지역의 가마터를 훑어보고자 한다.

#### 1. 군포시 산본동 전기백자 가마터

이 가마터는 대한주택공사의 산본지역 택지개발 조성계획에 따라 명지대학교 박물관이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발견되어, 1990년에 호암미술관에 의해 정식으로 발굴조사되었다. 경기도내에서는 광주 지역 외에서 처음으로 행해진 조선시대 가마터 발굴조사로, 조사 결과, 보존상태가 대단히 양호한 2기의 가마와 작업장 시설이 발견되는 등 조선전기 백자문화의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들이 많이 출토되

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본 가마터는 사적 342호로 지정되었으며 발굴이 끝난 다음 이를 현장에서 보존한다는 방침에 따라 발굴된 상태대로 지하에 묻혀 있다.

### (1) 가마터의 위치

군포시 산본2동 골안 마을의 수리산(해발 474m) 남쪽 기슭의 경사진 구릉에 위치한다. 개발되기 전에 가마터 바로 아래에 당성사라는 절이 있었으며 바로 위쪽에는 골안마을 주민들이 일년에 두 차례씩 산신제를 올리는 사당이 있었다. 발견 당시 이곳에는 밤나무와 참나무들이 밀생해 있었고 구릉의 아래쪽은 동네 청년들이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편평하게 정리해 놓아 산본동 학생들의 소풍장소로도 많이 이용되었다 한다.

발굴조사는 35×40m 정도의 범위에서 이루어졌는데, 2기의 가마와 2곳의 작업장 시설이 발견되었으며, 퇴적층 조사를 통해 많은 양의 자기편들이 출토되었다.

### (2) 가마와 작업장 시설

#### ■ 가마

가마는 선후 관계가 분명한 2기가 발견되었는데, 처음에는 산 구릉의 자연 경사를 따라 구릉 중턱에서부터 산 위쪽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완전 폐기하고 이 가마와 거의 직교(直交)하여 서남쪽의 구릉 아래에서부터 구릉 위쪽으로 축조하여 운용하였다. 이렇게 좁은 범위 내에서 전혀 지역과 방향을 달리하여 가마를 운용한 것은 매우 특이한 예이다.

먼저 사용된 가마는 앞부분의 바닥 면 일부와 아궁이 부분만 남아 있다. 아궁이는 두 개가 나타났는데, 진흙과 돌을 이용해 축조하였으며 하나는 길이 230cm · 폭 120cm · 높이 85cm의 크기의 평면 장방형이다. 또 하나의 아궁이는 크기가 비슷한 규모이나 아궁이 문이 남아 있는데, 오른쪽



가마

은 큼직한 돌을 세워 만들었으나 원쪽 기둥은 앞 시기 가마에 사용되었던 불창기둥을 그대로 이용한 것  
이 재미있다.

나중에 사용된 가마는 진흙을 이용해 축조한 가마로 크게 한차례의 개축이 이루어져 1호·2호 가  
마로 구분된다. 1호 가마는 현재 남은 길이가 7.5m 정도이고 아궁이 부분과 첫째 칸이 존재하는데,  
아궁이는 장방형에 돌과 진흙덩어리를 사용해 축조하였고 길이 250cm, 폭 130cm, 높이가 110cm로  
아궁이에서 소성실로 넘어가는 높이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아궁이 화문(火門)은 높이가 50cm  
에 폭이 40cm인데 잘 다듬은 화강암으로 문을 만들었다. 소성실의 첫째 칸은 길이 300cm, 폭  
130cm로 모래바닥에 경사가 거의 없으며, 이 뒤의 소성 칸은 2호 가마가 축조되면서 없어졌다.

2호 가마는 현존 길이 12.7m에 아궁이 부분과 3칸의 소성실이 남아 있으며 맨 끝에 굴뚝시설로 보  
이는 돌 구조가 남아 있었다. 아궁이는 돌과 진흙으로 축조하였고 바닥에 목단이 널려 있었는데 길이  
180cm, 폭 150cm이고 높이는 80cm에 이른다. 아궁이 화문은 높이 50cm, 폭 55cm로 넓적한 돌을  
이용해 만들었다. 소성실의 첫째 칸은 폭 140cm에 길이가 390cm이며 아궁이와의 연결지점에 불창  
기둥이 3개 있으며 모래바닥에는 개떡과 최후 소성시 남긴 자기편들이 깔려 있었다. 둘째 칸은 길이  
380cm이고 불창기둥이 2개 있으며 모래바닥에는 15줄의 개떡이 질서정연하게 계단식으로 놓여져  
있었고 굽다 만 완형의 접시들이 10여 점 남아 있었다. 셋째 칸은 폭이 190cm로 넓어지면서 길이는  
260cm로 줄어들었고 불창기둥은 다시 3개가 되었다. 가마벽이 유리질화가 잘 안되고 바닥에 모래가  
없는 점으로 보아 초벌구이 칸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다.

### ■ 작업장

두 곳에서 작업장이 조사되었는데, 가마의 선후 관계에 따라 위치를 달리하고 있다. 즉 먼저 설치  
된 가마를 위해 사용된 작업장은 가마의 아래쪽에 내려와 평지에 설치되었으며, 여기서는 건조용의  
온돌시설과 백토저장시설 등이 발견되었다. 온돌구조는 440×220cm의 범위 내에 6줄의 돌을 세워  
만든 불고래 구조가 남아 있으며, 백토저장시설은 석렬(石列)을 80×60cm의 타원형으로 막아서 만  
들었다.

또 다른 작업장은 나중에 사용된 가마를 위해 만든 것으로 먼저 있었던 가마를 폐기하고 그 위에  
설치되었는데, 특이하게 가마 아래편의 평지가 아니고 가마의 위쪽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여  
기서는 건조용의 온돌시설이 발견되었는데, 240×180cm 범위로 납작한 돌들을 고르게 깔아 놓았다.

### (3) 출토유물의 성격

이 가마터에서 생산된 자기는 대부분이 순백자류이며, 이외 청화백자편 · 철화백자편 · 청자 · 분청사기 · 토기류들이 극소량 출토되었다. 기타 구울 때 사용된 개떡과 치차형(齒車形) 그릇받침들이 많았다.

우선 백자류를 보면, 크게 시각적으로 연질과 경질로 나눌 수 있는데, 연질의 경우 완전한 연질백자는 아니며 고온 번조의 전형적인 백자에 비해 다소 온도가 낮고 태토가 자기질화가 약한 편이면서 유연에 연한 청색이나 녹색기 또는 담황색기가 있고 자잘한 빙열이 나 있다.

그릇에 받치는 받침의 경우는 굵은 태토비침받침이 대부분인데, 빛이나 접시의 경우 바닥면의 개떡 위에 놓인 것들은 모래받침이 묻어 있거나 기본적으로 태토비침받침을 사용하여 포개구이하였다. 굽은 대부분이 죽절굽이고 도립삼각형굽이 극소량 보인다.

그릇 종류는 대접류가 전체의 30~40%를 차지하며 크기에 따라 대 · 중 · 소로 나누어지는데, 큰 것이 특히 많고 소형은 매우 적으며, 조선 전기의 특징적인 꽃모양의 대접도 있다. 접시류는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대 · 중 · 소형으로 구분되어 3개가 하나의 세트를 이룬 것 같으며 특수한 용도로 제작된 전접시도 보인다. 잔류도 20% 가까이로 많은 편이며 항아리류는 바닥에서 곧바로 뻗어 올라가는 장신호(長身壺)와 몸통이 둥그스름한 구형호(球形壺)가 있으며 태(胎)항아리로 사용된 것은 기형이 정제된 상품백자질을 보인다. 병은 대형과 소형으로 나누어지며, 장군병의 파편도 출토되었다. 이외에도 뚜껑류, 향로다리편, 양각의 매화문이 장식된 편, 음각명이 새겨진 묘지편, 음각의 어문(魚文)이 베풀어진 제기편, 투각장식이 있는 백자편 등도 발견되었다.

본 가마터의 출토품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청화백자편의 발견이다. 경기도 광주의 관요 이외의 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청화백자로 3편이 출토되었다. 2편은 기벽이 매우 얇고 정제되어 있어 중국의 명대 청화백자 같은데, 조선 전기에 유행한 보상당초문이 비교적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 다른 한 편은 비교적 두껍고 큰 항아리의 구연부편으로 구울 때 가마에서 떨어진 잡물들이 많이 묻어 있어 이곳에서 만든 것이 분명하다.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맑은 청화로 파초잎문이 그려져 있는데 청화가 퍼지고 뭉쳐져 있다.

조선전기 백자에서 비교적 드물게 보는 철화백자도 2편이 발견되었다. 몰골법(沒骨法)으로 상당히



포개구이 모습



청화백자 片

세련된 솜씨로 대나무잎 문양  
이 그려져 있는데 철화색은 짙  
고 어두운 갈색을 보인다.

백자 외에도 여기서는 청자  
도 구웠는데, 백자를 여러 점  
포갠 뒤에 가장 위쪽에 청자를  
구웠기 때문에 청자와 백자가

함께 붙은 편들이 발견된다. 대부분 작은 대접류인데 모두 짙은 암록색의 시멘트 색 같은 조질의 청자로 문양은 전혀 없다. 재미있는 현상은 태토비집받침 사용시, 포개 구울 때 백자류의 받침을 청자 태토로 만들고 청자의 받침에는 백자태토로 만들어 받쳤다.

분청사기는 단 2편이 보이는데 백상감된 동심원(同心圓)이 장식된 편과 작은 국화문이 빽빽이 인화시문된 편이 있다.

흑유를 써온 자기편도 극소량 보이며, 토기와 옹기들도 약간 출토되었다.

요도구류들은 번조에 관계된 개떡과 그릇받침용의 도구들이 대부분이며 갑발뚜껑 편이 1점 나왔고 물레부속구도 1점 출토되었다. 특히 그릇받침으로 사용된 치차형 받침은 전체는 화분 같이 생긴 작은 받침인데 입술부분을 깎아 9~10개의 뾰족하게 솟은 치차형의 돌기를 만들고 그 돌기의 안쪽에 잇대어 태토비집받침을 붙여 사용하였다.

#### (4) 의의와 활동시기

산본동 백자가마터는 조선전기 15, 16세기에 활동한 경기도 일대의 지방백자 가마 중에 유일하게 밭굴조사를 거친 유적이다. 조사결과 이 시기의 가마구조를 거의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무렵에 생산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도자기류들이 발견되었으며, 가장 놀라운 것은 당시 최고급의 청화백자가 극소량이지만 관요 외에서도 제작되었음이 밝혀져 청화백자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점이다.

이 가마터의 활동시기는 16세기 중엽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광주의 번천리 5호 가마터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다. 즉 백자류들의 기형과 질적인 면, 굽는 방법 등을 보면 전체적으로 산본동 가마가 번천리 5호보다 약간 이른 시기의 특징을 보인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화백자의 문양적인 특징으로 보아 15세기 말~16세기 전반경의 작품으로 일단 비정되며, 기형상의 변

화를 잘 보여주는 전접시의 경우도 키가 매우 낮은 종류가 있어 이른 시기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일 반적으로 15세기에 많이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화형발(花形鉢)의 존재도 주목된다. 특히 청자가 상당 량 생산되었고, 단 2편이지만 분청사기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본 가마는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전반에 주로 활동하였다고 생각된다.

## 2. 군포시 산본동 중기백자 가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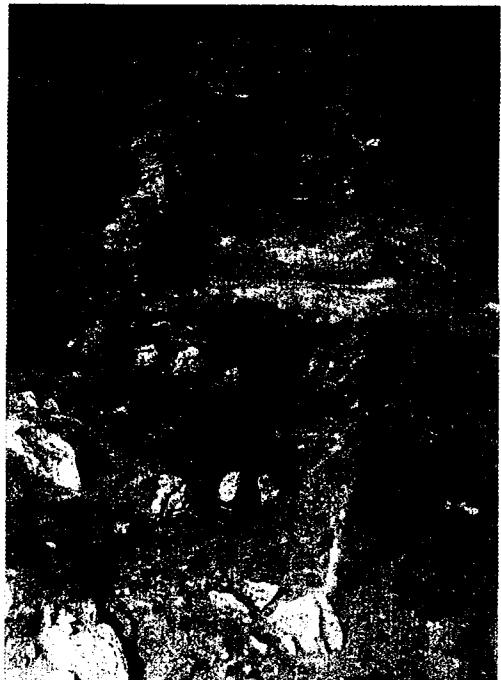
이 가마터는 앞의 사적 342호 백자가마터와 같은 골짜기 안에 위치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충북대학교 선사문화연구소에서 1992년 12월~1993년 2월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결과 이 가마터는 18세기에 활동한 백자가마로 청화백자 제기류도 생산한 주목되는 유적임이 밝혀졌으며, 나아가 앞서 본 전기백자가마와 동일 지역 내에서의 시기적인 변화 양상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예로 중요성이 인식되어 있다.

발굴 당시 조사된 가마와 출토유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가마의 형상 및 특징

가마는 전체적으로 많이 파괴된 채로 나타났는데, 가마벽은 서쪽 벽만 조금 남아 있고 동쪽 벽은 지상 구조가 거의 유실된 상태였다. 다만 가마의 바닥은 10~15cm 정도의 높이 차를 두고 가마 바닥을 깊게 파서 소성실로 사용한 결과, 바닥은 잘 남아 있어 대체적인 규모는 파악된다. 가마는 아궁이 · 소성실 · 굴뚝부로 나누어지며 출입시설도 확인되었다.

가마는 특이하게 암반 위에 축조하였는데, 암반을 파서 가마바닥을 만들고 진흙을 빌라 편평하게 고른 다음 모래를 깔아 바닥을 만들었다. 이렇게 암반을 그대로 가마바닥으로 사용한 경우는 공주 학봉리 분청사기가마터에서 발견된 바 있지



가마

만 보기 드문 예이다. 가마벽도 주변의 산돌을 이용해 석축형태로 쌓고 안에는 백토를 발라 가마벽을 삼은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가마는 7개의 칸을 연결시켜 이루어진 오름칸가마로 전체 모양은 아궁이 쪽이 좁고 굴뚝부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구조를 보이며 각 칸은 불창기둥으로 경계를 삼았는데, 불창기둥의 수도 각 칸마다 달리하여 세웠다. 그래서 첫째 칸은 너비 120cm에 불창기둥이 3개이나, 마지막 칸은 너비가 230cm에 7개의 기둥이 서 있다. 가마의 평균 경사도가  $21^{\circ}$ 에 달해 상당히 가파른 편이며, 바닥의 경사는 경사진 도자미를 사용하여 극복하였고, 조선시대의 가마에 흔히 보이는 가마바닥에 질서 있게 도자미를 깔았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아궁이는 소성실보다 작은 길이 120cm, 너비 90~100cm의 규모를 보이며 화구(火口)는 동남향으로 비스듬히 놓인 자연암반을 이용해 만든 독특한 구조를 보인다. 굴뚝부는 거의 완전하게 남아 있는데, 마지막 칸의 북쪽 벽에 20cm 정도로 산돌과 진흙을 섞어 쌓은 후 그 위에 60cm 정도의 4개의 돌을 가마방향으로 놓은 후 다시 횡으로 두 개의 돌을 얹어 두 개의 구멍을 만들어 여기로 연기가 빠져나가게 하였다.

## (2) 출토유물

가마유구와 퇴적층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대부분 백자이고 그것도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기타 종지·합·항아리 편과 함께 응기류·도침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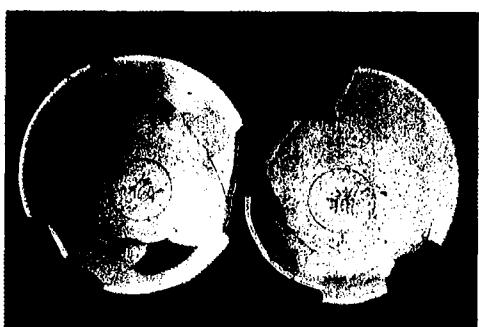
백자편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청화백자의 존재로 지방에서도 청화백자를 제작한 것을 확인한 접과 대접에 써어진 문자를 통해 중앙관료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접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며 이 가운데 청화로 대접 안에 '복(福)'이나 '제(祭)'자를 쓴 것이 주목된다. '복' 명 대접은 대·중·소가 있으며, '제' 명 대접은 굽이 유난히 높은 것이 특징으로 이들이 제기용임을 형태상에서도 뚜렷이 구분된다. 이들 명문이 써어진 청화백자 대접들은 갑발을 사용하

지 않았으나 포개지 않고 단독으로 번조되어 정성을 들어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접시는 제기와 같이 높은 굽이 달린 접시와, 일반적인 형태의 접시로 구분되는데, 접시 안바닥에 청화로 '복' 자가 써어진 것이 주목된다.

이 가마터에서 생산된 백자 중에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이 청화백자들이지만, 청화안료로 그림을 그린



복(福) 명 대접

것은 보이지 않고, 대접이나 접시의 안 바닥에 청화로 둥근 원을 그린 다음 그 속에 ‘복’·‘제’·‘수(壽)’·‘구(具)’ 등의 글씨가 간결하게 들어가 있다. 이들은 광주관요의 경우 1640~1649년으로 연대가 비정되는 선동리 가마와 1720~1751년경에 운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사리 가마에서 유사한 것들이 보이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현재로서 파악되지 않지만 어쨌든 광주 관요의 영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생각된다.

### (3) 활동시기

본 가마의 활동시기는 인근의 사적 342호의 전기백자가마보다는 뒤 시기에 운영된 것은 확실하며, 광주지역의 연구 결과나 다른 지방의 백자가마 발굴조사에서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살펴 볼 때, 일단 19세기 이후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특히 청화백자의 특징적인 면모를 고려하면, 일단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친 가마로 인정되는데, 여기서 선동리 가마보다는 출토유물의 성격이 약간 뒤 시기로 보이고, 금사리 가마와 유사성이 많다고 판단된다. 특히 초벌칸에서 수습된 각이 진 굽다리의 경우는 금사리의 기형적 특징과 잘 부합하여 둘 사이의 친연성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본 가마의 활동시기는 금사리 시대와 비슷한 18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된다.

## 3.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백자가마터

안성시 화곡리 가마터는 화곡리 우곡(일명 기장골, 삼밭골) 우성공원묘지를 지난 곳에 위치하며, 1999년에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되었다. 발굴 결과 조선 중기에 백자를 굽던 가마 1기와 고려시대에 도기를 생산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도기가마 2기가 조사되었으며, 백자와 함께 철화백자들이 다량 출토되었고, 기타 요도구들이 나왔다. 여기서 도기가마와 관련된 사항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 ■ 백자 가마

화곡리 백자가마는 길이 12m에 최대폭이 2.5m로 비교적 작은 규모이며, 이궁이와 3개의 소성실을 갖추었다. 소성실은 계단식으로 연결된 구조를 보이며 전체 평면은 아래가 좁고 위로 갈수록 넓어져 긴 삼각형 모양을 이루며, 자연적인 경사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가마의 바닥으로 삼았다.

이궁이는 길이 3m에 내부 폭이 70~80cm 정도이고 돌로 쌓아 만들었으며 경사도가 19°로 비교적



가마터

가파른 편이다. 이궁이와 제1소성실 경계지점에 2개의 불창기둥이 있으며 우측 벽에 출입시설이 있다. 소성실의 하단부엔, 도침·백자편·초벌구이편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으며 각 소성실 사이에는 높이 35cm 정도의 경사진 단이 있어 주목된다. 제2소성실은 제1소성실과 유사하며 제3소성실과 사이에 거의 수직에 가까운 유리질화된 벽이 있다. 제3소성실은 벽면의 유리질화가 매우 약하며, 앞쪽에 4개의 불창기둥이 남아 있다. 여기서는 초벌구이편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특징이며 출입시설도 좌우 양쪽에 나 있는 것도 특이하다. 소성실내의 경사도는  $10^{\circ}$ ~ $15^{\circ}$  정도로 완만한 경사를 보인다.

이 가마는 구조적으로 볼 때 일종의 계단식 등요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가마는 17세기 이후에 나타나며 경기도 광주의 선동리 2호 가마와 18세기로 추정되는 전남 곡성군 송강리 가마가 이와 유사하다. 특히 화곡리 가마는 17세기 중반에 활동한 선동리 가마와 같은 계통으로 생각되어,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까운 광주 관요의 영향을 받은 지방의 민수용 백자를 생산한 민요로 추정된다.

### ■ 출토유물

출토유물로는 철화백자를 비롯한 백자류가 가장 많으며 백자 요도구·도기 등이 있다.

백자는 크게 순백자류와 철화백자류로 구분되며, 순백자의 기종은 대접·접시·잔·항아리 등이 있고, 철화백자의 기종은 대접·접시·잔·병 등이 보인다. 굽의 종류는 오목굽이 주류를 이루며 반침으로는 굽은 모래반침을 사용하였다. 구울 때는 등글고 경사진 모양의 도침 하나에 모래를 깔고 여러 개의 그릇을 포개어 올려놓고 구웠다. 순백자의 유색은 백색·회청색을 띤 것이 대부분이며 약간 녹색이 나는 것과 황갈색을 보이는 것도 소량 보인다. 철화백자는 특히 대접과 접시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유색은 밝은 백색·밝은 청녹색·어두운 회청색을 띤 것이 대부분이며 간혹 어두운 녹색이나 어두운 황갈색을 보이는 것도 있다.

#### 문양은 세필(細筆)로 초화문·화문·엽문(葉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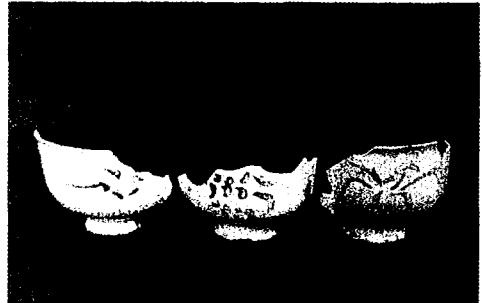
등을 간략하게 그린 것과 붓으로 안료를 놀려 찍어서 붓에 묻은 안료의 농담에 의해 화문이나 엽문 모양을 이루게 한 것으로 구분된다. 문양대는 대접이나 잔의 외면이나 접시 안 쪽에 베풀어졌으며 내·외면에 동시에 시문된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철화백자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소위 상회(上繪)된 것들이다. 발굴 당시 여러 편이 출토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철화백자는 그릇을 초벌구이한 다음 철사안료로 문양을 그리고 그 위에 유약을 발라 굽기 때문에 철화문은 항상 유약 아래에 있게 되고 유약이 벗겨지지 않는 이상 문양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상회란 것은 먼저 백자를 구운 다음 완성된 백자의 유리질 면 위에 다시 납 성분이 섞인 안료로 문양을 그린 다음 보다 낮은 온도에서 다시 한번 굽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유약 위에 그린 그림이라 하여 유상회(釉上繪)라 하며, 보통 중국에서 오채 등의 색회자기를 만들 때 사용된 방법이다.

화곡리 백자기마에서 발견되는 상회한 철화백자는 일단 초벌구이를 한 다음 먼저 백자 유약을 바르고 그 위에 철사안료로 문양을 그린 다음 재벌구이를 한 것으로 중국이나 일본의 상회자기와는 약간 다르긴 하나 기본적인 방법은 같다. 이런 상회자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는 것으로, 이 가운데는 상회한 후 재벌구이를 하지 않아 유약 위의 철화안료를 손쉽게 긁어낼 수 있는 편들도 있으며, 광학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한 결과도 분명 상회한 것임이 입증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의 유입이라 할



철화백자



철화백자

수도 있고 또는 더욱 손쉬운 공정을 위한 자체적인 기술의 개발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나 어쨌든 한국도자기 생산기술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새로운 자료이다.

안성시 화곡리 백자가마는 그릇의 형태나 철화백자의 존재·굽는 방법·가마의 구조 등으로 보아 조선시대 중기인 17~18세기에 활동한 전형적인 지방가마로 생각된다. 이 시기에는 백자의 생산이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임진왜란 이전에 주류를 이루었던 중국 경덕진식의 백자 유형에서 벗어나 한국적인 형태와 문양을 가진 백자가 생산되는데 이 가마도 그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한편 안성시에는 삼죽면 배대리와 금광면 사홍리에 조선 전기의 분청사기 가마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죽면 칠장리와 삼죽면 가현리·동평리에 조선시대 후기의 백자가마터가 있다. 양성면 미산리에도 조선전기의 백자가마가 1기, 동항리에는 조선 후기 백자가마가 1기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화곡리 백자가마와 유사한 성격의 가마도 보고되어 있는데 일죽면 고은리에 2기, 양성면 산정리에 1기가 있다. 특히 양성면 산정리 가마에서는 철화백자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굽 안쪽을 오목하게 깎고 모래를 받쳐 구운 것이나 경사진 도침을 사용한 것 등이 화산리와 유사하다. 산정리에서는 조선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도기가마도 3기 발굴조사된 바 있다.

#### 4. 용인시의 가마터

용인시는 광주의 바로 곁에 위치한 때문인지 조선시대의 도자기 생산이 매우 활발했던 곳이다. 고려시대 편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 최초의 백자가마터로 유명한 이동면 서리 가마터가 있어 아주 일찍부터 이곳이 백자생산에 남다른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초기부터 분청사기를 생산하였고 이어 전기에서부터 말기까지 계속적으로 용인시의 곳곳에서 백자를 생산하였다.

한편 용인지역에 대한 가마터 조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부터 조사가 실시되었고 최근에 다시 한번 정밀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져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용인시의 조선시대 가마터는 분청사기를 제외하고 29곳에 이르며 대부분 백자 가마터이지만 흑유자기를 생산한 곳도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용인읍

모두 5곳에서 확인된다.

### ■ 호동 1호 백자가마터

호동 예작마을의 계곡 안에 계단식으로 개간된 밭 일대에 백자편과 요도구·가마 벽편들이 흩어져 있다. 백자는 대접·접시·잔이 주류를 이루며 전접시와 병 등이 보인다. 대접은 양감이 좋으며 형태와 크기에 따라 4종류로 나누어진다. 굽은 대체로 죽절굽이며 태토비침을 받쳐 번조하였으며 굽과 굽 주변에는 시유하지 않고 포개구이를 하였다. 요도구로는 마사토질의 흙으로 만든 원반형의 개떡이 많이 보이며 가마벽은 진흙으로 만든 다음 안쪽에 백토가 얇게 발라져 있다.

이 가마는 그릇의 모양이나 굽, 받침수법으로 보아 15~16세기의 조선전기에 활동한 백자가마로 생각된다.

### ■ 호동 2호 백자가마터

1호 가마터에서 산 쪽으로 더 들어간 무덤 주위와 밭에서 백자편들이 발견된다. 백자는 구연이 외 반된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굽은 죽절굽이 대부분이나 일부 도립삼각형굽도 보인다. 죽절형굽을 가진 백자는 담청백색에 태토비침반침을 사용하였으며, 도립삼각형굽은 순백색에 질이 좋으며 고운 모래를 받치고 번조하였다.

이 가마는 기형과 받침 상태로 보아 15~16세기 조선전기에 활동한 가마로 보이며 일부 질이 좋은 백자를 생산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 ■ 운학동 1호 백자가마터

내어둔 마을의 문화유씨 묘역 근처에 위치하며 백자는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고, 양질의 백토로 제작되어 유색은 담회청색을 보인다. 죽절굽에 태토비침반침을 사용하여 포개구이를 하였다. 조선 전기 15~16세기 가마로 추정된다.

### ■ 운학동 2호 백자가마터

운학초등학교에서 내어둔 마을로 가는 도중의 범어들 마을에 위치한다. 개간된 밭과 밭 사이의 둔덕에 경작 시 출토된 파편이 모여 있는데 그릇은 대접과 접시류이고 병도 보인다. 백자색은 담청백색을 띠고 만둣새가 거칠며 굽은 모래를 받쳐 구웠다. 조선말기 19세기 가마로 추정된다.

### ■ 해곡동 1호 백자가마터

해곡동 별미마을의 은석골이라는 골짜기 안에 위치한다. 백자편들이 발견되는 범위가 비교적 넓어 규모가 큰 가마로 추정된다. 구연이 외반한 매우 질이 좋은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잔과 제기 등이 보인다. 유색은 담청백색을 보이며 굽은 죽절형으로 바닥에 태토비짐을 받쳐 구웠다. 요도구로는 아령 모양의 도침과 원반형의 개떡이 보인다. 조선전기 15~16세기에 활동한 용인지역의 대표적인 백자가마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자기片面

### (2) 기흉읍

기흉읍의 지곡리에서 3기의 가마터가 발견되었는데, 하나는 19세기 말경의 흑유자기와 옹기를 생산한 가마이고 또 하나는 역시 19세기 말경의 옹기가마이다. 그리고 지곡리의 사기막골에서 17세기에 활동한 백자가마터가 발견되었다. 여기서는 다수의 백자파편과 요도구·가마 벽편들이 보이는데, 백자는 대접과 접시·잔이 대부분이며, 유색은 회백색을 띠고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구웠다. 나팔 모양의 도침과 원반형 개떡이 사용되었으며, 가마벽은 안쪽에 백토를 얇게 바른 상태이다.

### (3) 수지읍

수지읍 신봉리 서봉마을 뒤편 계곡의 영협사 아래에 위치한다. 백자와 흑유자기·요도구·가마 벽편들이 발견되며, 백자는 다수의 대접과 접시 모양의 제기가 수습된다. 기벽이 두껍고 굽은 안으로 깊게 깎아 내있으며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구웠는데 유가 비교적 두껍게 발라지고 회백색을 보인다. 이 외 흑유를 바른 항아리나 잔 편이 보이며 원반형의 개떡이 발견된다. 조선말기 19세기에 운영된 가마이다.

### (4) 양지면

양지면에서는 4곳에서 백자가마터가 발견되었다.

### ■ 남곡리 백자 가마터

남곡리 은이골로 들어가는 도중에 두명골이라는 골짜기 안의 별장지대에 위치한다. 백자와 요도구·가마 벽편들이 발견되는데, 백자는 구연이 외반한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유색은 담청백색에 굽은 죽절형이고 바닥에 태토비침을 하고 포개구이하였다. 요도구로는 원반형의 개떡이 보이며, 가마벽은 역시 안쪽 면에 백토를 발랐다. 조선전기 15~16세기에 활동한 백자가마이다.

### ■ 대대리 1호 백자가마터

대대리는 광주시 도척면과 경계지점에 있는 마을로 이 일대에 3기의 백자가마터가 존재한다. 1호 가마는 사기점 마을의 좌측 밭에 위치하며 백자와 요도구·물레도구 등이 발견되었다.

백자는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잔·병·항아리 등이 보인다. 유색은 회백색과 담청백색이 많으며 죽절형의 굽에 바닥에는 태토비침을 받쳐 포개어서 구웠다. 물레에 사용된 백자로 만든 갓모가 한 점 발견되었고 요도구로는 원반형의 개떡과 원뿔형의 받침이 보인다.

### ■ 대대리 2호 백자가마터

1호 가마의 도로 건너편 동쪽에 있는 고향촌 식당의 정원 안에 위치한다. 이곳에는 두 곳의 가마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 간의 거리가 약 100m 떨어진 상태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 집주인이 이곳의 가마 벽편과 백자파편을 모아 높이 1m 정도의 작은 탑을 만들어 놓았다.

백자는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발·잔·병·항아리 등이 보이며 유색은 회백색이 대부분이고 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대접은 형태와 크기에 따라 4종류로 나뉘어지며, 접시는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모두 17세기의 특징을 보인다. 요도구로는 다수의 원반형 개떡이 보인다.

### ■ 대대리 철화백자가마터

2호와 100m 남짓 떨어져 식당의 정원 내 연못가에 위치한다. 여기서는 백자 가운데 철화문양이 베풀어진 편들이 보여 주목된다. 백자는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발·병·항아리 등이 보이며, 유색은 회백색이 대부분이고 바닥에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대접 편에 철화문양이 베풀어진 것이 발견되는데, 밤갈색의 철사안



자기片面

료로 다양한 형태의 초화문을 그려 놓았다. 이외 철화백자로 병·항아리 편들이 발견되어 본 가마터가 17세기 철화백자를 생산한 지방가마 중의 하나임을 말해 준다.

### (5) 이동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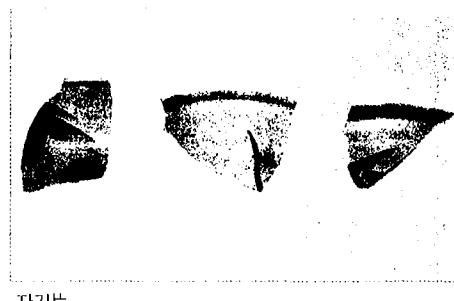
이동면 일대에는 고려백자, 분청사기 가마터를 위시해 조선시대 가마터도 8곳에서 확인되었다.

#### ■ 서리 철화백자 가마터

서리 사기막골의 분청사기 가마터에서 아래로 400여m 내려온 곳의 낮은 구릉에 위치하며 유적 앞부분은 새로 들어선 가건물의 건축으로 크게 파손된 상태이다. 건물 공사시 절단된 구릉의 단애에 백자파편과 요도구들이 다양으로 흩어져 있다.

백자류는 양질의 태토로 만든 새가 비교적 단정하며 단단히 구워져 조형적으로 예리한 맛이 있으며 유는 광택이 좋고 투명하며 회백색을 보인다. 대접·접시·잔 종류들이 대부분이며 대접은 형태와 크기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지고 대체로 바닥을 오목하게 깎아 낸 다음 굽은 모래를 받쳐 구웠다. 접시도 형태와 크기에 따라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잔과 종지·항아리편들이 보인다. 특히 대접편에 철화로 초문이 장식되거나 항아리에 대나무그림이 그려진 철화백자편들이 발견되어 주목을 끈다. 요도구는 원반형의 개떡들이 발견된다.

기형이나 철화문양의 존재로 보아 17세기에 철화백자를 생산한 지방가마로 추정된다.



자기片面

이외에도 서리의 상덕저수지 근처의 낮은 구릉에 조선 말기에 운영된 백자기마가 있는데, 대접·접시·잔류가 발견되고 회백색의 백자질에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포개구이를 하였다. 이외 요도구로 원반형의 개떡과 안쪽에 백토가 칠해진 가마벽편, 가마 축조시 구조물로 사용된 돌조각들이 발견된다.

또한 서리 사기막골 안에 조선시대 밀기에 백자와 흑자를 생산한 가마터가 남아 있다.

#### ■ 천리 백자 가마터

천리에는 두 곳에서 조선전기 15~16세기에 활동한 가마가 확인되고 있다

하나는 천리의 노루실 근처에 있으며 지표에서 백자와 요도구들이 채집되는데, 백자는 대접과 접시·잔이 주류를 이루며 유색은 회백색이 많고 태토비침을 받쳐 포개구이하여 번조하였다. 요도구로는 원반형의 개떡이 보인다.

또 하나는 천리 적동 전원주택단지의 뒤편에 있으며, 지표에서 다수의 백자파편과 도기·요도구들이 발견된다. 백자는 구연이 외반한 대접과 접시외에 잔류들이 주류를 이루며 발과 항아리도 보인다. 대체로 태토는 순백의 치밀질로 잡물이 없는 양질이며 유약은 담청백색을 띤다. 굽은 조선전기의 전형적인 죽절형굽으로 태토비침을 받쳐 포개구이하였다. 요도구로 원반형 개떡이 보이며 안쪽 면에 백토를 바른 가마벽편들이 널려 있다.

### ■ 묵리 백자 가마터

묵리에는 조선전기의 백자 가마터와 조선 말기의 백자·흑자 가마터가 발견되었다.

15~16세기에 운영된 백자 가마터는 묵리의 장촌마을 병목골 초입에 위치하며 지표에 다수의 백자 편과 가마벽편들이 흩어져 있다. 백자는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유약은 광택이 있는 담청백색을 띠며 죽절형 굽에 태토비침을 받쳐 포개구이하였다.

묵리 당묘랭이를 지나는 도로 가에 음식점이 들어서면서 단애가 나타나는데 단애면에 백자파편과 흑유자기편이 드러나 있는 가마터가 조사되었다. 백자는 말기백자의 특징인 굽안바닥을 깊이 깍아내고 굽은 모래를 받쳐 구웠으며 대접과 접시류가 대부분이다. 흑자는 항아리와 광구병이 대부분인데 표면에는 황갈색이나 암흑색의 흑유가 두껍게 씌워져 있다.

### ■ 화산리 백자 가마터

화산리에는 17세기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백자 가마터가 두 곳에서 발견되었다.

하나는 요산동 마을 못미처 요덕저수지로 가는 길가의 밭에 위치하며 지표에서 다량의 백자파편들이 채집된다. 백자는 대접과 접시, 잔들이 대부분이고 각각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양질의 백토로 제작되었으며 유색은 회백색을 띤다. 대접은 6종류로 구분되며 안바닥을 오목하게 깍아내고 굽은 모래를 받쳐 포개어서 구웠다. 접시는 형태와 크기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누어지며,



출토품

잔은 세 종류가 있다.

또 하나는 화산리 골프장 뒤편의 우측 계곡 안에 위치하며 백자와 요도구들이 발견된다. 백자는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잔·종치들도 보인다. 유색은 회백색을 띠며, 바닥에 모래를 받쳐 포개어서 구웠다. 요도구로 원반형의 개떡이 보인다.

## (6) 원삼면

### ■ 문촌리 백자 가마터

문촌리 마을에서 200여m 떨어진 벼슬농장 안에 위치하는데, 여기에는 주변이 나루로 빽빽이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가마의 유구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다. 조선 말기에 운영된 가마인 탓으로 폐요 후에 인적이 끊기면서 자연적으로 허물어진 상태로 남아 있는데 지표에서 확인되는 가마의 크기는 아궁이 쪽이 폭 1.4m 정도이고 굴뚝 쪽이 3m에 달하며 길이는 13m 정도이다. 또한 가마 내부의 칸막이가 양호하게 남아 있어 당시의 가마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수습되는 백자는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도 잔, 굽이 높고 각이 진 제기들이 있으며, 유색은 회백색을 띠고 굽은 안바닥을 외면보다 깊게 깎아내었고 바닥에 모래를 받쳐 포개구 이하였다. 기형이나 굽는 방법 등이 조선 말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 ■ 학일리 백자 가마터



포개구이 모습

학일리에는 19세기에 운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백자가 마터가 두 곳에서 발견되었다.

하나는 학일리의 고초골 저수지 안쪽의 밭에 위치하며 지표에 백자와 도침·가마 벽편들이 널려 있다. 백자는 대접이 주류를 이루며 접시와 작은 병이 보이는데, 유색은 회백색과 회청색을 띠며, 굽은 안바닥을 외면보다 깊게 깎아내었고 바닥에 모래를 받쳐 포개구이하였다. 요도구로는 굽이 낮은 접시모양의 도침이 다수 확인되는데, 이들은 생긴 것이 마치 흙으로 빚은 굽 높은 제기처럼 생

겨 일반인들은 그릇으로 오인하기 쉽다. 가마벽은 한쪽 면에 백토를 발랐으며 원통모양으로 된 불창 기둥의 파편도 발견되었다.

또 하나의 가마터는 고리안골에 위치한 쌍용저수지 부근에 있는데 유적은 경사가 완만한 작은 구릉에 있지만 아래쪽은 급경사를 이룬 비탈진 사면을 따라 개울로 이어진다. 이 가마터에는 현재 지표상에 가마의 구조물이 허물어진 상태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가마의 폭이 1.7~3.0m로 뒤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형태이며 길이는 15m 정도이다. 가마의 위쪽 끝부분에는 불탄 돌들이 많이 보이는 데 이것은 굴뚝 부분을 만들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곳에는 용인시에서 보호유적이라는 내용의 경고판을 세워 놓았다. 이 일대에서는 다량의 백자편과 도침·가마 벽편들이 산재해 있는데, 백자는 대접이 주류를 이루며 접시와 굽이 높은 제기류가 보인다. 유색은 회백색이 대부분이며 굽은 안바닥보다 깊게 깎아낸 조선 말기의 전형적인 성형수법을 보이며 바닥에는 모래를 받치고 포개어서 구웠다. 요도구로는 다수의 도침이 사용된 것이 흥미로운데, 일반적인 접시모양의 것과 몸체의 직경에 비해 굽의 높이가 매우 높은 제기의 모양, 그리고 번조시 잘못된 대접이나 잔을 사용한 도침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 (7) 백암면

백암면 용천리에는 상리마을 뒤편에서 19세기 후반에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옹기 가마터가 발견되었으며, 인근의 죽말마을 근처에서는 조선 말기에 운영된 대규모의 백자 가마터가 두 곳에서 확인되었다.

#### ■ 용천리 백자 가마터

용천리 죽말마을 북쪽에 있는 구릉에 위치하는데, 주변이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으며 이 속에 3개의 대규모 파편퇴적이 형성되어 있다. 높이 6~7m에 달하는 커다란 감나무들과 다수의 기와편들이 주위에 널려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전에 가마와 관련된 인가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유적의 범위는 가로 50m, 세로 50m로 추정되며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여기서는 대량의 백자와 요도구들이 확인되었으나 그릇의 종류는 적은 편이며 대부분 대접과 종지류들이다. 백자의 유색은 회백색이 대부분이고 굽은 안바닥을 외면보다 깊게 깎아내고 바닥에 모래를 받쳐 포개구이한 것으로 전형적인 19세기 제작방법을 보이고 있다. 요도구로는 굽이 낮은 접시모양의 도침이 많이 보인다.

이 가마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역시 성격이 비슷한 백자를 생산한 가마터가 있는데 유적의 범위가 폭이 25m, 길이가 10여m 정도이다.

### (8) 남사면

남사면 원암리에는 조선시대에 운영된 백자와 옹기 가마터가 두 곳에서 확인된 바 있다.

하나는 원암리의 사기막골 끝자락에서 남동쪽으로 뻗은 계곡 안에 위치한다. 이 가마터는 상당히 규모가 큰 것으로 보이며 옹기파편이 주류를 이루면서 백자편들도 다수 보인다. 백자는 대접·접시·잔류가 주류를 이루며 대체적으로 양질의 백토로 만들고 유색은 대부분 회백색을 띤다. 백자류는 제작수법이나 형태가 전형적인 조선말기의 19세기 특징을 보인다. 옹기는 대부분 항아리 종류들로 태토에는 작은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고 표면에는 짙은 밤색의 유약이 얇게 씌워져 있다. 장식은 초화문과 돌대가 있으며, 안쪽 면에는 타날 흔적이 남아 있다.

이 옹기가마터에서 40여m 떨어진 곳에 백자 가마터가 있는데 폭이 30여m에 상하의 길이가 40여 m에 달하는 큰 규모이며 백자편들과 요도구들이 널려 있다. 대접·접시·잔류가 주류를 이루며 밭과 항아리도 보이는데, 양질의 백토를 사용하였으며 유색은 담녹색이나 회백색을 띤다. 태토가 치밀하고 굽은 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 낸 인굽이 많고 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치고 포개구이하였는데 만듦새가 비교적 단정하고 예리한 맛이 있어 17세기에 운영된 지방백자가마로 추정된다. 요도구로는 원반형의 개떡들이 수습된다.

## 5. 기타 가마터

### (1) 여주군

1999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시한 여주군내 가마터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북내면 운촌리에서는 17세기 후반에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철화백자 가마터가 발견되었는데, 대접·접시·완·잔 등이 보이고 대부분 내저원각이 없으며 인굽에 굽은 모래받침이 주류를 이루며, 간혹 철사문이 배풀 어진 항아리나 병 편이 발견된다.

북내면 중암리 왕장천변에서 고려시대 가마터와 더불어 조선백자 가마터도 2기가 발견되었다. 백자류는 인굽과 다리굽이 혼재하며 굽은 모래받침을 받치고 포개구이를 하였는데 기형이나 유·태 등으로 보아 17세기 광주백자의 종속요와 같은 성격을 보인다.

강천면 도전리에서는 5기의 가마터가 조사되었는데, 1호는 17세기 가마로 추정되며 대접·접시류 및 달항아리와 전이 달린 사발 등이 수집되었다. 2호는 1호에 비해 다소 늦은 시기의 것이며, 3호는 굽이 높은 모래받침 번조로 흙물이 굽 상부까지 올라와 있는 특징을 보인다. 4호는 태토비침받침·모래

받침 · 모래눈받침 등의 시기를 달리하는 백자편이 혼재되어 있으며, 5호는 도전리에서 가장 질이 우수한 백자를 생산한 가마로 대접 · 접시 외에 둑근 항아리, 굽을 도려 낸 할(割)굽의 제기들이 보인다.

북내면 석우리 가마터는 두일 마을 안쪽 산기슭에 위치하며, 다리굽과 안굽의 대접, 접시류는 모두 모래비짐받침으로 포개어 구웠다. 기형과 번조 방법들이 광주의 정지리 가마와 상통하며, 거치문(鋸齒文)돌기가 붙은 철화문 제기도 1점 수습되었다.

북내면 상고리에서는 5기의 가마터가 확인되었는데, 1, 3호는 동일한 성격을 보이며 외반접시 · 외반대접류는 죽절형굽에 태토비짐받침을 하고 구웠고 유색은 녹색이 비껴 있다. 조선 전기의 가마로 추정된다. 2 · 4 · 5호는 안굽에 굽은 모래받침을 하고 있어 17세기 후반의 가마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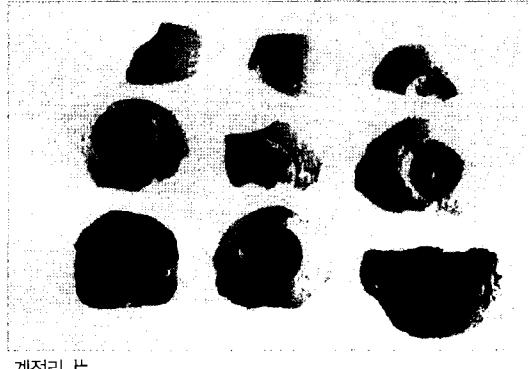
이 외에 능서면 번도리와 산북면 하품리에서도 조선후기의 백자가마들이 확인되었다.

## (2) 양평군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의 부안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백자 가마터에서는 대접 · 완 · 접시 · 종자들이 발견되며 안굽에 모래받침을 하고 포개구이하였는데, 갈색의 철사로 초화문이 그려진 백자편들이 있어 17세기 지방가마로 추정된다.

양동면 금왕리의 접골마을에 있는 조선 말기의 가마터는 대부분 백자를 생산하였으나 약간의 옹기도 발견된다. 백자는 대접 · 완 외에 제기접시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모래받침을 하고 구웠다.

양동면 계정리의 계정천변에는 조선시대 가마터 7개가 분포하고 있어 이 일대가 이 지역의 요업 중심지로 활동하였음을 알려준다. 계정리 입구의 동이점말 부락에 있는 백자 가마터에서는 대접류가 대부분인데, 죽절굽에 태토비짐받침을 하고 구웠다. 항아리는 회백색을 띠며 수직굽을 하고 있으며, 조선전기 15~16세기에 운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계정리 점토말 부락에 위치한 백자가마터에는 반파된 상태의 가마가 남아 있어 주목되며 모래받침을 한 조선 말기 가마로 추정된다. 강원도 횡성과 경계를 이루는 해발 250m의 고지대에 위치한 백자가마터 1기는 역시 조선 말기에 활동한 백자가마로 보이며 밭 표면에 백자편이 하얗게 널려 있어 비교적 대규모의 가마가 운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완과 접시



계정리 片

외에 제기접시들이 발견되며 모래받침을 하고 구웠다. 점말부락의 동쪽 계곡에는 용기를 구웠던 가마가 있는데, 푼주나 작은 항아리가 주류를 이룬다.

양동면 단석리 요골부락 근처에 있는 백자 가마터는 완·발·접시류가 보이며 유색이 옥색이나 짙은 회색을 띠고 오목굽에 굽은 모래받침을 하고 번조하였다. 조선 중기 17세기에 활동한 가마로 추정되며 비교적 양호한 상태의 가마가 남아 있어 주목되는데, 규모는 길이가 15m, 폭이 2m, 높이 1.5m이다.

지제면 일신리에도 2곳에서 백자가마터가 조사되었는데, 일신리 금동마을 근처에 있는 가마터에서는 발·완·접시·종지 등이 있으며, 유색은 옥색을 띠고 모래받침을 하고 구운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 운영된 가마로 추정된다. 이곳에서 60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백자가마터에서는 접시류와 잔·종지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앞의 가마보다 색조가 더 짙고 탁하여 거의 조선 말기에 운영된 가마일 것으로 추정된다.

### (3) 양주군

양주군의 장흥면 교현리 오봉산 석굴암에서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 나오는 군 훈련장에 위치한다. 이곳에는 상태가 양호한 가마가 남아 있고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이 구워진 것으로 보이는데, 상감청자편·조선전기백자류·흑유자기편 등이 채집된다. 백자의 발이나 완은 죽절굽에 태토비침받침 흔적이 내·외면에 남아 있어 조선 전기의 특징을 보이지만, 나머지는 연대추정이 불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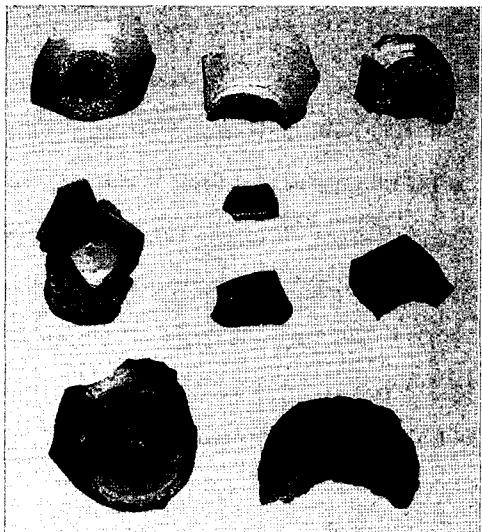
장흥면 울대리에서는 2기의 백자가마터가 조사되었다. 하나는 한림대학교 수련원이 있는 오야골에 위치하며 채집되는 유물로는 백자 완·접시·항아리 등과 가마 벽편과 요도구들이 있다. 대접은 죽절굽에 모래받침을 하고 회백색을 띠며, 접시는 오목굽에 굽은 모래받침 흔적이 있고 역시 회백색을 띤다. 원반형의 개떡도 보인다. 또 다른 가마터는 앞 가마에서 동쪽으로 150m 떨어져 위치하며 채집된 유물은 주로 백자 완과 접시·작은 항아리들이고 전체적인 성격은 앞의 가마와 비슷하다.

### (4) 파주시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4곳에서 조선시대 백자 가마터가 조사되었다.

1호는 설마리 뒤 군부대 내의 유격장에 위치하며 자기는 백자 대접·접시가 주류를 이룬다. 받침은 가는 모래와 태토비침받침을 사용하였으며 질도 비교적 좋은 편이다. 특히 죽절굽 외에 도립삼각형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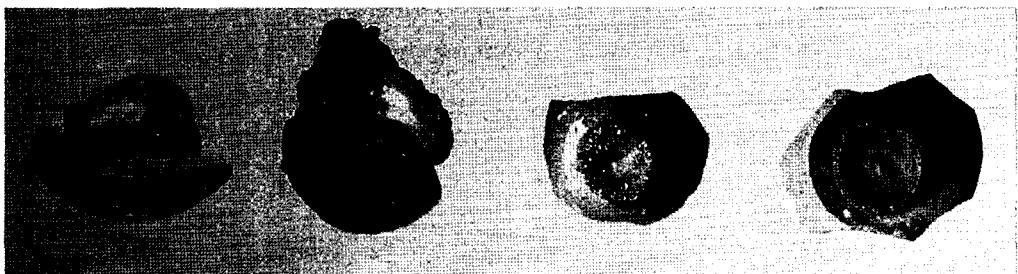
이 보이는데 이는 이곳에서 질이 우수한 백자도 생산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백자 외에 흑유자기 편들이 보이며, 조선전기에 운영된 가마로 추정된다. 2호는 점터밭이라 부르는 산기슭의 밭에 위치하며 채집되는 유물로는 백자류 외에 진사와 철화 백자편이 있어 주목된다. 백자는 품질이 1호에 비해 떨어지며 굽은 모래받침을 하고 구웠고, 철화와 진사문양은 병이나 항아리편들에 보이며, 옹기편들도 발견된다. 철화와 진사백자가 생산된 지방가마로 주목되며 활동시기는 조선후기로 추정된다. 3호는 삽다리에서 계곡을 따라 1.3km 들어간 곳에 위치하며 백자 대접·접시가 주류를 이루는데, 철사안료로 대나무그림이 그려진 항아리편이 발견되어 주목된다. 철화백자의 존재로 보아 조선 중기 17세기 무렵에 운영된 가마로 추정된다. 4호는 삽다리에서 계곡을 따라 1km 지점의 개울 좌측에 있으며 발견되는 자기류는 소량이다. 백자대접의 구연편과 흑유자기편이 보인다.



설마리 片

### (5) 연천군

연천군 전곡읍 고릉리에서는 다섯 곳에서 백자 가마터가 확인되는데, 조선 중기에서 말기에 걸친 가마로 추정된다. 1호는 모래받침 번조에 사다리굽이 보이며 철화의 사용흔적도 확인되어 17~18세기에 운영된 가마로 주목되며, 2호는 수해복구 공사로 가마는 멸실된 것으로 보이며 사다리굽에 모래 받침을 한 백자류가 발견된다. 3호는 녹갈색의 자연유가 발린 옹기ガ마로 추정된다. 4호는 대접류가 주종을 이루며 청화 사용의 흔적이 있고 죽절굽과 안굽이 대부분인데 조선후기에서 말기까지 운영된



도신리 片

것으로 보이며, 5호는 마을 산자락에 위치하며 모래굽 받침, 청화의 흔적으로 보아 18세기에 운영된 카마로 보인다.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에는 고려·조선시대 가마터가 7곳에서 확인되는데, 고려시대 13~14세기에 운영된 대규모의 도기 가마와, 15세기경의 인화분청사기를 생산한 가마들이 있다. 이외에 죽절형굽에 모래받침을 하거나, 오목굽과 죽절형굽에 모래받침을 하여 구운 17세기경의 조선 중기 백자가마가 3곳이 있으며, 많은 양의 백자와 옹기가 산재하면서 17~18세기의 특징을 보이는 가마도 있다.

연천읍 옥산리에는 세 곳에서 백자가마터가 확인된다. 옥산리 동산이골에는 조선 중기 17세기경에 운영된 백자가마가 두 곳 있으며 오목굽에 굽은 모래를 받치고 포개구이하였다. 옥산리 산 71-1 번지에 위치한 백자가마터에도 17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백자편들과 요도구·가마 벽편들이 발견되고 있다.

연천읍 부곡리에는 점말 부락에 조선시대 옹기를 생산하였던 가마가 남아 있으며, 부곡리 사기터 골에는 상당히 넓은 범위에 사기편이 산재해 있어 대규모의 백자가마가 있었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벽이 매우 두꺼운 완·대접류가 주류를 이루며 도침 등 요도구들이 보인다.

# 우리도자기의 아름다움이 숨쉬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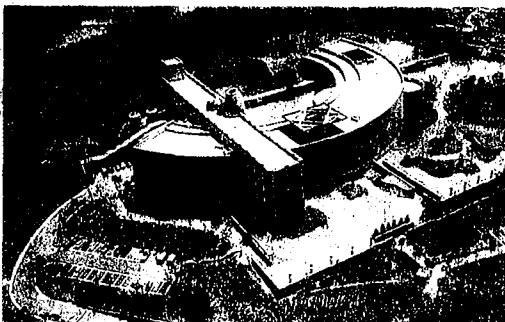
지금까지 경기도의 도자기 역사와 그 내용들에 관해 살펴보았지만 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는 우리나라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경기도내의 장소를 찾아보기로 한다. 현재 경기 도내에는 경기도박물관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박물관·미술관들이 있지만 의외로 우리 전통도자기를 전시하고 있는 곳은 드물다. 특히 도자기의 나라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 도자기 전문박물관이 전국을 통틀어 이천의 해강도자미술관이 유일하다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도자기를 감상할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하고자 한다.

## 1.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박물관은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산 19번지에 위치하며, 신갈읍내에서 민속촌으로 들어가는 길목의 오른편 산 아래에 있다. 건물 외관이 수원 화성의 성곽을 본떠 만들어져 쉽게 눈에 띈다.

경기도민의 문화공간과 사회교육의 장으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도 단위로는 처음으로 1996년 6월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의 역사와 미술, 민속자료 등을 종합 전시하는 곳으로, 1만2000여 평의 부지 위에 지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은 총 3000여 평 규모이며 이 속에 1100여 평의 전시실이 들어 있다. 전시실은 자연사실·고고미술실·문화자료실·민속생활실·서화실·기증실 등 6개의 상설 전시장과 기획전시실이 마련되어 있다.

이중 2층에 마련된 고고미술실에는 시대별로 각종의 옛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도자기 부분은 시대별·종류별로 구색은 갖추고 있지만 아직은 전시품의 질이 그리 높지 못하다. 다만 앞서



박물관 전경



전시장에 경기도와 관련된 역사적 유물이나 유적이 14개나 실물 또는 모형으로 제작되어 전시된 것도 볼 만 하며, 또한 원형극장·놀이마당에서는 수시로 야외공연이 열려 우리 전통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2. 이천시의 해강도자미술관(海剛陶磁美術館)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에 위치한 해강도자미술관은, 평생을 고려청자의 재현과 우리나라 도자기의 발달에 헌신하였던 고 해강(海剛) 유근형(柳根瀅)옹과 그의 아드님이면서 또한 유명한 도예가인 유광열(柳光烈) 선생이 뜻을 모아 사재(私財)를 털어 설립한 순수 민간 미술관이다.

해강도자미술관의 설립취지를 보면,

“우리 선조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도자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전시하여 전통문화의 홍보

소개된 용인 서리의 고려백자기마터 발굴조사에서 드러난 국내 최대의 진흙가마를 원형에 충실하게 모형을 만들어 놓아 가마의 구조나 작업광경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 꼭 한번 방문하기를 권하고 싶다. 그리고 광주 분원과 관련된 조선백자의 실체들도 전시품을 통해 직접 감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민속생활실에는 전시실 바닥에 한강의 모형을 설치해 놓아 굽이굽이 흐르는 한강의 물길을 밟으면서 거닐어 볼 수 있게 하였는데, 이를 보면 한강의 수운 상태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광주의 분원에 백토와 땔감 등의 원료가 어떻게 수송되었으며, 또한 생산한 도자기들이 한양까지 어떤 경로로 운반되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경기도박물관에는 이외에도 900여 평의 야외

및 문화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와 더불어 본 미술관에서는 전문적인 학술활동을 통하여 이곳을 도자문화 연구의 중심지로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적 기능 수행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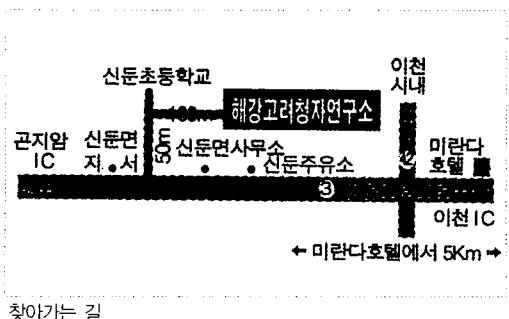
미술관 전경

고 천명하고 있다.

1990년에 개관한 해강도자미술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에 3개의 전시실을 갖추고 있으며, 400여 점의 청자를 중심으로 분청사기 · 백자 · 도기 등 1200여 점에 달하는 도자기를 소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의 각 가마터에서 수집한 도기와 자기 파편들을 6000여 점을 소장하여 도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도자전문미술관이다.

1층에는 우리나라 도자문화의 변천상과 그 내용을 정리하여 일반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자문화실이 있으며, 해강기념실은 고려청자의 재현에 평생을 바친 해강선생의 업적과 발자취를 소개한 코너인데, 이곳을 둘러보면 20세기 들어 우리 전통도자의 재현에 따른 기술적 발전상을 엿볼 수 있어 아주 흥미롭다. 2층은 우리 옛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명품들을 전시하고 이와 함께 학술적으로 중요한 도자기 파편들도 전시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돋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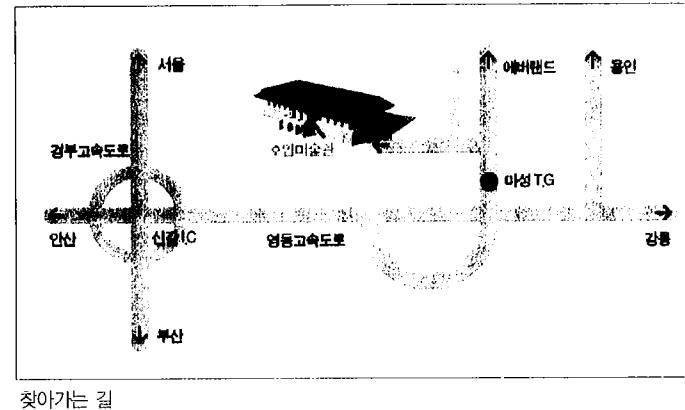
한편, 이 미술관에서는 종종 도자기와 관련된 특별 기획전시를 열어 학계와 일반인들에게 우리 도자문화의 소중함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 미술관을 찾게 되면, 바로 곁에 해강선생이 생전에 운영하던 해강요가 지금도 활발한 작업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볼 수가 있는데, 흙으로 지은 전통 가마의 모습과 도자기 생산에 따른 전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찾아가는 길

### 3. 용인시의 호암미술관(湖巖美術館)

호암미술관은 용인시 포곡면에 있는 '에버랜드' 서편의 호수가에 위치한다.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호암(湖巖) 이병철(李秉喆) 회장이 오랫동안 수집한 문화재들을 삼성문화재단에 기증하여 이를 토대로 1982년에 개관하였다. 국내 굴지 삼성그룹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립미술관으로 주변의 풍광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최근에 한국의 전통정원을 재현한 '회원(熙園)'이 조성되어 서울 근교의 나들이 장소로도 그만이다.

정원을 올라가면 나타나는 미술관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한옥식으로 지어졌으며, 450여 평의 전시장은 크게 4개로 나뉘어져 있다. 이 미술관에는 국보·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만 100여 점이 넘으며, 1만5000여 점의 소장품 가운데 특히 4000여 점에 달하는 도자기류가 질적이나 양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도자기류들은 각 시대를 망라할 뿐 아니라 우리 도자사를 대표할 만한 명품들이 많이 있어 도자기 전시실에 들어가면 우리 옛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2층에 위치한 도자기 상설 전시장은 청자·분청사기·백자 코너로 분리되어 있으며, 미술관에서 엄선한 작품들이 좋은 전시 환경 속에서 관람객들의 눈길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고려자기실에 전시된 국보 135호 '청자진사연판문주자(青磁辰砂蓮瓣文注子)'는 고려청자 중에 걸작으로 손꼽히는 것으로 이 미술관의 자랑이며, 이외에도 교과서나 각종 도록에 소개된 명품 고려자

기들이 조용하게 빛나고 있다. 분청사기들도 종류별 특징을 잘 보여주면서 미적인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을 가려 뽑아 전시하고 있는데 보물이 3점 포함되어 있다. 조선백자실은 시대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볼 수 있게 하였으며, 특히 다른 곳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조선 초기의 청화 백자들이 다수 전시되어 있는 점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또한 경기도 도자문화의 자랑인 광주 분원에서 생산된 최상품 백자들의 진면목을 확인해 볼 수 있다.